

MAXIM

KOREA

STILL
SUMMER!
9
月

누구 맘대로 가을이래?

장마가 여름의 반을 망쳤다.
그래서 여름을 한 달 연장한다.
가을 같은 거 필요 없어.
9월호는 비키니 스페셜!
왜, 싫어?

Man's Skill

화투판 평정하는 타짜 기술
LA 갈비 맛있게 굽는 법
상사에게 보고 잘하는 법
지구 어디서든 길 찾는 법

Real SEX TIP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더 나은 내년을 위한 멸망사례집

VACANCE SEX 오답노트

당신의 현재 상태로
여자랑 할 확률 예측하기

여자 뒤돌아보게 만든다는 바로 그 향수
진짜 되나 생체 실험

여성 독자를 위한 섹스팁

그를 당신에게 계속 미쳐있게 묶어두는
아주 쉬운 비밀 트릭

2013년 9월호
정가 5,900원

MAXIM PARTY

@캐리비안 베이

흘뻑 젖은 비키니녀와 짐승남이
울부짖던 화끈한 여름밤,
비키니 차림으로 독자들과
만남 에디터들

레드카펫 가슴 노출 사고
(가자, 장미 여관으로)

여민정

MAXIM Life Guard

해연씨 조금만 더 힘내!

손으로는 심폐 소생, 입으로는 인공 호흡

평생 못 잊을 살 떨리는 섹시 화보로 가르쳐주마!

➔ 황천길 입수 방지! 죽기 싫음 스트레칭

➔ 수영 못해도 물에는 뜨는 법

PLUS! 과도한 스킨십 유발하게 설계된 위험천만 풀장이 있다?
(있음 우리 회사에도 좀 뇌주라)

ISSN 2233-4270 바코드는 뒷면에

POPULAR
WHITE PORTION
POP



premium tobacco

POP NO.9

"무·연·담·배"



POP NO.9 White / 니코틴4.40mg

MAX
8°C
FRESH

영상 8도 이하에서 냉장보관할 때 가장 신선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 ① 파우치 1개를 집어 윗입술과 잇몸 사이에 끼워 넣습니다.
- ② 30분에서 1시간 동안 씹거나 삼킬 필요없이 물고 있으면 됩니다.
- ③ 다 쓰신 파우치는 케이스의 보조뚜껑에 버리시면 됩니다.

경고 :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담배 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금연상담전화 1544-9030

스누스맨 제품은 전국 전문매장과 담배 취급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www.snusman.c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해 주세요. | 대표번호 : 02) 782-5765

Contents

SEPTEMBER / 2013



84

S.O.S! We Need Lifeguards(in Bikini)!!

역수같은 비로 말아먹은 여름의 반이 아깝다고? 늦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첫 물놀이가 인생 마지막 물놀이가 되어선 안 되겠지? 물놀이 안전 사고에 대비해 지구상에서 가장 섹시한 구조대원 듀오가 당신에게 응급 조치 개인 레슨을 해 준다는 핑계로 찍은 섹시 수영복 화보!

BY 김태성 PHOTOGRAPH ZHO
MODEL 2010 MISS MAXIM 최혜연, 2012 MISS MAXIM 조우송자 임상미

Contents



94

ICON 김진표

방송인, 가수, 카레이서, 포토그래퍼... 김진표를 수식하는 많은 단어 중 그에게 가장 어울리는 건 역시 '수컷'이다. '발기하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두 수컷 MAXIM과 김진표가 만나 나눈 이야기, 궁금하지?



126



114

Circus Maximus

- 20 이달의 험짤: 말린 라마 새끼?
- 22 심신을 달래는 힐링 라면
- 24 사상 최악의 미친 과학 실험
- 26 역사 속 황당 피임법 9
- 28 잘나가는 민머리 돈 스파이크의 유언장
- 30 굶시니스트 카툰: 하버드 대학 속 허렘

How To

- 32 LA갈비 우주에서 제일 맛있게 굽는 법
- 34 오피스 라이프 팁: 보고 잘하는 법
- 35 추석 특집: 짜증나는 친척 회피법
- 36 한가위 최투판 평정하는 타짜 기술

Game

- 37 FPS 제왕 <카운터 스트라이크 온라인 2>
- 38 기대보다 먹을 게 휘얼~씬 많은 게임 <에이지 오브 스톼>
- 40 게임이 상상한 지옥도는 과연?

Comment

- 42 f(x)의 진단명: 첫 사랑니
- 44 열혈 남자 만화 <돌격! 남자훈련소>
- 46 MAXIM 커버걸 아버지가 쓰신 수학책 <업그레이드 수학>

Smoke&Drink

- 48 풍만 vs. 탄탄, 어떤 거 빨래? (아, 물론 담배 이야기야)
- 50 무알콜 맥주 클라우스탈러

Motor

- 51 세그먼트 최강 골프, "경상을 거부한다!"
- 52 간지 터지는 닷산 370Z를 낚기 위해 최강 미모의 MAXIM 여작원이 히치하이킹에 나섰다.
- 56 소형 해치백 춘추전국시대, '벤츠 A클래스'가 평정하러 왔다.
- 60 THIS IS MY CAR #4 독자가 끌고 온 극강의 아날로그 감성 스포츠카 로터스

Stuff

- 66 영원한 2인자의 최신작, G2
- 68 여자 꼬시기 좋은 미러리스 카메라
- 70 세스코보다 싸고 강력한 전기 파리채
- 72 MAXIM이 지른 물건: 블랙엔데커 무선 청소기, 삼성 빔프로젝터, 파커 만년필, 보스 헤드폰

Style

- 76 초경량 운동화 대결, 나이키 vs. 푸마
- 78 아빠 시계 아니야! 남성이 넘치는 금장 시계
- 80 어두운 클럽에서 빛나는 자체발광 풀피부 만드는 컬러로션 7종 리뷰
- 82 존 바바토스 아티산을 뿌리는 남자



SWISS + MADE



ESSENTIAL GEAR.

RECON NAV SPC Series No. 8831 (kilometers) or 8832 (miles): 46mm, carbon reinforced polycarbonate case and case back, unidirectional ratcheting bezel with aluminum ring compass rose, antireflective sapphire crystal, walking tachymetric scale, water resistant to 200 meters, black PU Strap with raised scale and compass attached, Luminox self-powered illumination. Swiss Made. **Preferred timepiece of Swiss Special Forces and outdoor enthusiasts.**

www.facebook.com/luminox

www.luminox.com

ALWAYS VISIBLE

Constant Glow for up to 25 Years.

루미노스 판매처

공식수입원 및 서비스 센터 밀림시계(주) (02)757-9866, A/S센터지동 (02)735-9880, www.milimwatch.co.kr

직영점 [롯데백화점] 본점 지하1층(모멘토) 02-772-3181 / 잠실점 1층(모멘토) 02-2143-1920 / 청량리점 1층(모멘토) 02-3707-1179 / 평촌점 2층(모멘토) 031-8086-9232 / 대전점 1층(모멘토) 042-601-2109 / 대구점 1층(모멘토) 053-660-3122 / 부산 광복점 1층(모멘토) 051-678-4039 / 울산점 1층(모멘토) 052-960-4533 / 아울렛 서울역점 2층(모멘토) 02-6965-2637 [현대백화점] 일산 킨텍스점 1층(모멘토) 031-822-2929 / 충정점 1층(모멘토) 043-909-4148 [AK백화점] 원주점 1층(모멘토) 033-811-5525

특약점 신도림 테크노마트 지하1층(TM 시계백화점) 02-2111-1120 / 강변 테크노마트 7층(타임21) 02-3424-7073 / 강변 테크노마트 1층(타임21) 02-3424-1210 / 동대문 오케이아웃도어닷컴 1588-8796 / 종로 YMCA 1층(타임존) 02-737-3627 / 종로 중앙상가(노블릿치) 02-745-8789 / 동대문 두산타워 5층(패션존) 02-3398-7527 / 동대문 두산타워 3층(타임갤러리) 02-3398-5528 / 성내동(다이바스쿨) 02-565-9897 / 상계동 하이웰방상가 A동(도라시계) 02-971-5334 / 종로 세운스퀘어 1층(정우상사) 02-2272-2688 / 이왕지(명동점) 02-771-7033 / 종로 피카디리 플라자 1층(정신사) 02-741-9678 / 을지로6가 굿모닝시티 2층(사포) 02-2118-8076 / 잠실 롯데월드 웰빙센터 1층(제네바) 02-419-5622 / 남창동 단암빌딩1층(프로워치) 02-779-6964 / 은평 이마트 7층(스포르티브렌) 02-389-8718 / 왕십리 민자역사3층(원타임) 02-2200-1355 / 용산 아이파크몰 6층(해피타임) 02-2012-0625 / 안양 안양동(시계상자) 031-441-0158 / 안양 안양동(보석상자) 031-466-1014 / 부천 심곡동(특목) 032-662-2026 / 고양 장항동(타임24) 031-931-5555 / 성남 정자동(스포르티브렌) 031-710-1260 / 안산 고진동(타임푸드) 031-487-9057 / 평택 팽성동(유빈) 031-658-6883 / 수원 캘러리아 백화점 1층(GG클래션) 031-221-4997 / 인천 흠플러스 가차점 2층(스위스) 032-578-2002 / 인천 구월동(워치보이) 070-8632-5300 / 대전 세이브존 1층(타임러치) 042-482-2328 / 이마트 대전터미널점 4층(스포르티브렌) 042-615-1265 / 대전 기요동(예진시계) 042-280-9117 / 대구 삼덕동(엘가시계) 053-255-6940 / 천안 신부동(인파&오메가) 041-564-5465 / 청주 가경동(보보스와치) 043-235-1510 / 청주 남문로2가(북오치) 043-223-1333 / 충주 메가박스1층(메가와치) 043-857-9125 / 전주 롯데백화점 5층(세팡당) 063-289-3592 / 익산 롯데마트(원남상사) 063-833-8536 / 광주 첨단롯데마트(원남상사) 062-971-8523 / 광주 롯데마트 월드킴점(원남상사) 062-675-8521 / 포항 블루플러스(조이필) 054-613-1170 / 이마트 동구미점 2층(스포르티브렌) 054-480-1260 / 구미 원평동(엘가시계) 054-451-6940 / 진해 롯데마트 1층(원남상사) 055-542-8521 / 부산 광복동(국제시계) 051-245-1230 / 부산 해운대(리브워치) 051-746-6112 / 부산 서면(엘가시계) 070-7569-5766

Contents



104

Breaking Bad: The Aftermath

98 에디터의 마약 제조 현장 침소 체험기

MAXIM Caribbean Bay Party

104 화끈한 비키니녀와 짐승남들이 물에 젖어 술에 젖어 울부짖던 MAXIM 파티 생생 후기

Horror Special 10

109 외계 생명체에 대한 10가지 음모론

Who's That Girl #8

114 레드카펫에서의 가슴 노출 사고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각종 패러디로 뺨 때버린 신인 배우 여민정

Music

122 소주 땡기는 끈적끈적한 한국식 블루스 뮤지션 '씨 없는 수박 김대중'

Miss Maxim Round 8

126 MISS MAXIM 8강 진출자가 실현한 리얼 부엌 러브 판타지

Sport

134 가을 야구 누가 할까? 야구 4강 분석

Fight

136 한국인 최초 UFC 타이틀전의 패배: 정찬성의 패배가 유독 아쉬운 이유는?

From MAXIM Indonesia

140 별가벗은 몸에 헤드폰 줄만 남은 미녀 DJ

Military

146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는 표현은 딱 이 분들 얘기가. 세기의 명장 TOP 3!

Party

150 그날 밤, 메종드발리 폴 파티 이야기

154 레마소다와 그루브 서머 페스티벌

156 DJ 릴레이 #5: DJ KINGMCK ('킹맥'이라고 읽으면 돼)

158 예거마이스터와 함께 한 안산 빨리 음주가무 폴 파티. 어우, 축축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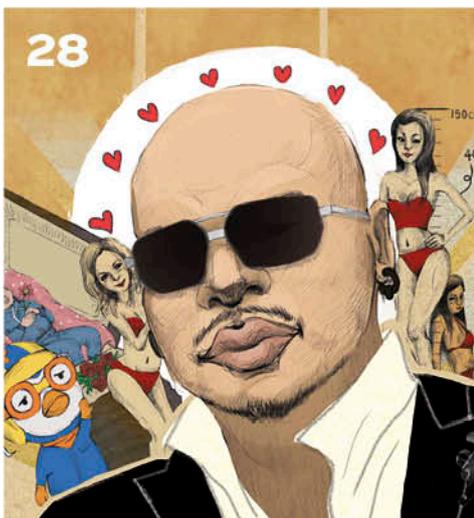
Law & Order

160 잘나가는 현직 변호사가 알려주는 명예훼손에 역이지 않는 법

Sex

164 올여름 휴가지에서 생긴 연애사 A/S

168 남자 에디터가 말한다! 남자 99.99%가 혹하는 반전있는 여자의 정체



28



37



60



78



ALBA

POSITIVE & SMART

수입점 삼성시계(주) 02)511-3182 •직영매장 세이코부티크 스타시타점 02)454-8400 / 현대이파크 백화점 02)202-4144 •직영 편집매장 모멘트 롯데본점 02)772-3181 / 롯데잠실점 02)2143-1920 / 롯데청량리점 02) 3707-1179 / 롯데정촌점 03)8089-9232 / 롯데대전점 042)601-2109 / 롯데대구점 053)690-3122 / 롯데광복점 05)1678-4039 / 롯데울산점 052)960-4533 / 롯데아울렛서울역점 02)6965-2637 / 현대킨텍스점 03)822-2929 / 현대충정점 043)909-4148 / AK원주점 033)811-5525 •연세점 롯데 / 신라 / 워커힌 / 동화 / 신세계 / JDC / JTO / KTO 전문점 서울(02) 중구 이화치(771-7033) 종로 타임존(737-3627) / 노블워치(745-8789) / 정신사(741-9678) / 정우상사(2272-2688) 동대문 패션존(3398-7527) / 시모(218-8075) 서초 시계독립(6282-2777) / 신비파(532-2121) 송파 타임존(411-0829) 강동 현대골드(484-2029) 용산 해피타임(2012-0625) 서대문 타임월드(313-4108) 은평 타임랜드(350-8471) 관악 타임(8299-7666) 구로 시계백화점(2111-1120) / 타임타임(2111-1141) 양천 티마니(2648-8333) 강서 타임피스(2668-0871) 광진 TM타임(3424-7073) 성북 해시계(2117-1755) 노원 도라시계(971-5334) 인현(032) 남동 정타임(432-2430) 남구 타임랜드(862-5534) 부천 시계나라(329-0894) / 특목(862-2026) 경기(031) 고양 타임(24)931-5555 성남 AK프라자(781-8194) / 동성당(753-0766) / 타임24시(728-5370) / 엔타임(707-1289) 수원 AK프라자(240-2198) / 텔아클락(201-7100) / 지지칼렉스(221-4957) 안양 타임월드(383-8342) / 보색상자(441-1014) / 시계상자(441-0158) 동탄 타임플러스(371-6850) 부산(051) 중구 명성시계(253-5315) / 국제시(245-1230) / 불광(245-7966) / 타이더블(919-4704) 부산진구 플라이(922-2088) / 프로브즈(818-6573) / 동해시(644-5555) 울산(052) 금보당(960-4848) 경남(055) 마산 신세계스위스(224-2711) 창원 롯데청원(279-3199) 진주 갤러리아(791-1177) 대구(053) 중구 주얼리(428-2668) / 바빌(425-8707) / 동아스위스(252-8111) / 해피타임(428-3088) / 열7(255-6940) / 젠마(428-0338) / 레츠(425-0157) / 삼성사(422-3002) 경북(054) 구미 타임프라자(455-2410) 포항 조이빌(613-1170) / 주얼리(244-8172) / 타임파라(253-8855) / 스위스(246-8944) 충북(043) 청주 명공시(256-4574) / 드림플러스(235-1510) 대전(042) 보목당(253-9241) / 세이백화점(257-7745) / 연세(255-6292) / 세이브존(482-2328) 충남(041) 천안 티마니(561-9438) / 알파오메가(564-5465) / 신세계이전(640-5081) / 루치타임(522-6505) 강원(033) 춘천 시계마을(253-7669) 광주(062) 굿타임(233-3050) / 이프유(225-0175) / 현대제일새(515-7172) / 시계명가(226-2251) / 골드룩(410-0137) / 티티(222-3114) 전주(063) 새광당(289-2590) / 컴투(285-7596) 제주(064) 순금시(758-1717)

Beza & Bell



Butterfly on your wrist



MAXIM

www.maximkorea.net

편집장 이영비

Editorial / 편집부

편집 1팀
 에디터 김화성 대리/ 팀장
 조웅재 주임
 김세형 인턴
 김소윤 인턴
 영상 에디터 김상수 인턴

편집 2팀
 에디터 손안나 주임
 박정욱 인턴
 이효선 인턴

편집 3팀
 디자이너 서윤정 주임/ 팀장
 최송아 인턴
 일러스트레이터 장재혁 인턴

편집 4팀
 수석 에디터 유승민
 에디터 김진욱
 뷰티 에디터 장해민

객원 에디터
 격투 칼럼니스트 이용수
 <엑스포> 기자 김덕중
 <마이데일리> 스포츠팀 기자 강산
 <디펜스 타임즈 코리아> 편집위원 김대영
 라면 리뷰어 '누들러' 김광희
 라면 리뷰어 '누들러' 박중현
 카툰 작가 굼시니스트
 칼럼니스트 덕사마
 변호사 Devil's Advocate

Finance & General Affair / 경영지원과

재무 회계 최인영 과장
 인사 장선영 주임
 유통 안재만 사원
 비서 정석영 인턴

Marketing / 마케팅과

광고마케팅 김진욱 과장
 정재식 인턴

Web & Mobile Service / 웹 모바일

토렌 서정민 팀장, 남원규 팀장

Photography / 사진 교열 신선경

포토그래퍼 정기수 실장
 박 울 실장
 이진호 실장
 오준석

Circulation / 유통

승주출판유통 이용관 대표

Printing / 인쇄 원색분해 (주)타라티피에스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상지서리 192-1 인쇄인 이재수

MAXIM Korea 발행인/ CEO 유승민 이사 원해진

MAXIM Contact

독자Q&A / 일반 문의 www.maximkorea.net 접속
 상담 BOARD 메뉴 ▶ Q&A 게시판 이용
 광고 문의, 사업 제휴 partner@maximkorea.net
 TEL., 070-4010-8994
 정기 구독, 대량 구매 joy@maximkorea.net
 TEL., 02-323-1182

MAXIM에 귀사의 브랜드 및 이벤트, 인물과 콘텐츠 등을 소개하고 싶으시면 편집부 대표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세요.

취재, 화보, 협찬, 편집부 press@maximkorea.net
 영화사, 공연 홍보 movie@maximkorea.net



발행처 ㈜와이미디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KOREA 빌딩
 TEL. 02-323-1182 / FAX. 02-6455-0193
 2013년 9월호 통권 제41호 / 등록일자 2009년 12월 30일 / 등록번호 마포 라-00250

ALPHA MEDIA GROUP
 PRESIDENT: Ben Madden
 CHIEF OPERATING OFFICER: David Simcox

MAXIM WORLDWIDE BRAND LICENSING
 INTERNATIONAL PUBLISHING MANAGER: Stephanie Marino
 INTERNATIONAL EDITORIAL DIRECTOR: Simon Clays
 SR. INTERNATIONAL OPERATIONS MANAGER: Pauline Lam
 INTERNATIONAL RIGHTS COORDINATOR: Jeff Whitacre



MEDIA NETWORK EDITORS IN CHIEF

AUSTRALIA
Santi Pintado

AUSTRIA
Boris Etter

BULGARIA
Hristo Zapryanov

CZECH REPUBLIC
Jan Stepanek

GERMANY
Boris Etter

INDIA
Vivek Pareek

INDONESIA
Ronald Adrian Hutagalung

ITALY
Paolo Gelmi

PORTUGAL
João Espírito Santo Araújo

RUSSIA
Sasha Malenkov

SERBIA
Dragan Otašević

SOUTH KOREA
Young-Bee Lee

SWITZERLAND
Boris Etter

THAILAND
Surawong Krueafan

UKRAINE
Sasha Malenkov

UNITED KINGDOM
Alpha Media Group

UNITED STATES
Dan Bova

MAXIM KOREA는 글로벌 남성지 MAXIM의 공식 한국어판입니다. MAXIM 상표의 소유자인 미국의 알파미디어그룹은 한국의 ㈜Y Media에 독점적 상표사용권을 부여했습니다. ㈜Y Media는 국내에서 MAXIM 한국어판을 출판 배포, 판매하고 웹사이트와 모바일 서비스를 운영할 독점권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알파미디어 그룹, ㈜Y Media 외에 어떤 제3자도 MAXIM의 트레이드마크나 로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의 글과 사진은 알파미디어 그룹과 ㈜Y Media에 귀속하므로 허락 없이 쓸 수 없습니다.

© 2013 Alpha Media Publishing, Inc. The name "MAXIM" and the MAXIM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f Alpha Media Group Inc., which trademarks have been licensed to Y Media Inc. MAXIM is a registered trademark owned by Alpha Media Group Inc. All rights reserved. The United States edition of Maxim is published monthly by Alpha Media Publishing, Inc. 415 Madison Avenue, New York, NY 10017. For international publishing or licensing inquiries: maxinworld@maxim.com

베카인텔 www.konocorp.com [주간] 02-3397.7100

[직영점] 롯데백화점 미아 (02-944-2130) / 롯데백화점 분당(031-738-2140)
 하이힐 (02-2138-9743) 대구백화점 프리아 (053-253-7133)

[판매처] 롯데백화점 원삼 (02-2143-1909) / 뉴욕이백화점 강남 (02-535-1948)

[연세점] 제주충무문서점 (064-780-7871)



2013 FALL

THE NEW ERA® MULTILINGUAL COLLECTION



NEWERA STORE

- 서울매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40-1번지 B 1F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71-26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58번지 현대 로데오상가 1층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176 신세계강남점 지하1층
- 인천매장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26번지 SQUARE 2F
- 수원매장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번지 AK PLAZA 2F

ONLINE STORE

- WWW.NEWERACAPKOREA.COM



MAJOR LEAGUE BASEBALL



FLY YOUR OWN FLAG™

Letter From MAXIM

R.ef 말이 맞았어!

"이별 장면에선 항상 비가 오지 / 열대우림 기후 속에 살고 있나 / 긴 밤 외로움과 가을 또 추억을 / 왜 늘 물어 다녀 무슨 공식이야 (휘어우워하~)" - R.ef의 '이별 공식' 중

그들이 맞았다. 2013년 여름, 우린 열대우림 기후 속에 살고 있다. 해가 뽕뽕 맑은 날, 갑자기 하늘에 구멍이 난 듯 비가 오다가 순식간에 그친다. 9월호 마감 작업 중인 16일 새벽, 바람 쐬러 사무실 테라스에 나갔다가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를 움푹지게 맞고 들어왔다. 아, 내 맘속에 고요함을 깨트리는 이 뜬금포 국지성 호우의 기습! 1990년대 중반 R.ef는 그 이름만 나와도 여학생들이 때로 자지러지는 인기 절정 남성 트리오의 대명사였다. '고요 속의 외침'이나 '상심', '마음속을 걸어가', '찬란한 사랑' 같은 인상적인 히트곡도 많았다. 그중 1995년 발표한 '이별 공식'은 가장 대중적인 사랑을 받은 노래다. 발랄한 리듬과 트렌디한 가사, 성대현의 귀염 포텐 폭발로 큰 인기를 끌었다. 당시 10대였던 내 귀에도 가사는 좀 유치하고 웃겼다. '그런 천사표가 요즘 어디 있어! 설마 옛날에도 말만 그랬겠지(휘어우워하~)' 같은 구어체 가사도 웃겼지만 역시 '열대우림 기후' 드림이 으뜸이었다. 북반구 한복판에 위치한 대한민국에서 열대우림 기후라니 그게 비싼 밥 먹고 뭘 헛소리란 말인가. 18년 후, 이들의 예언은 사실이 된다. 기상청에서는 아열대 스콜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공기를 가득 채운 더운 수증기를 흡입하고, 단시간에 무섭도록 쏟아지다 그치는 기습 폭우에 된통 당하고 나면 "여기가 아마존 열대우림이여, 한국어여?" 하는 강한 의문이 생기지 않던가. 사계절 뚜렷한 우리나라 날씨가 이렇게 급변하는 걸 목격하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 영원한 건 없고 변화는 만인, 만물의 숙명이라는 걸 새삼 또 느낀다. 쪽 인기 절정일 줄 알았던 R.ef 역시 추억의 이름이 되듯 말이다. 못 여학생의 우상이던 R.ef 꽃미남 보컬 이성욱은 전 부인과의 폭행 시비 이어 이혼 바로 다음 날 새 마누라와 재혼하는 격정적이고 '찬란한 사랑'의 주인공으로 구설에 오르더니 최근엔 음주운전으로 발목을 잡혔다. 성대현은 "하루 용돈 5천 원이 부족해 PC방 가려고 아내 지갑에서 돈을 훔쳤다"는 소소한 가정사와 왕년의 추억담을 들고 방송에 나와 깨알 같은 웃음을 주는 깨알 같은 사람이 되었다. 래퍼 박철우는...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르겠다. 비오면 허리 아파서 누워 계신다는 얘기도 있고..

우리 역시 매일 크고 작은 변화를 겪고 다른 존재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어떤 변화는 쓸쓸하고 서글프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진다. 반대로 가슴 터질 듯이 기쁘고 행복한 변화 또한 익숙해지고 그 고마움을 잊게 된다. 최근 '햇빛 눈이 부신, 비오는 날보다 더 슬프다'는 맑은 날의 실연을 겪은 나를 포함해 각기 다른 사연 때문에 지쳐버린 이들, 그리고 독자 여러분에게 MAXIM은 변치 않는 유쾌함으로 위안이 되고자 한다. 일단 길고 긴 장마가 빼앗아간 맑고 뜨거운 여름을 우리는 한 달 더 강제연장하기로 했다. 남들 F/W 스타일링 기사 쓰고 간절기 긴팔 니트 화보 찍을 때 MAXIM은 '여름 스페셜 9월호' 만들었다. 표지 봤지? 미스맥심 대표 글래머 최혜연(2010 우승), 엄상미(2012 준우승)의 역대 최강 섹시 수영복 화보를 준비했다. 독자 여러분들 호흡 곤란 울까봐 특별히 '안전 요원' 콘셉트로 갔다. 찐한 인공 호흡 받음 준비 단단히 하시라. 2013 미스맥심 8강 화보 역시 아주 시원하다. 비키니와 핫팬츠로 무장한 4명의 미녀가 여러분을 바비큐 파티에 초대한다. 지난 8월 10일, 모델 뺀치는 몸매의 MAXIM 여직원들과 언제 봐도 아리따운 미스맥심들이 험뎠고 난립한 MAXIM의 캐리비안 베이 파티의 리뷰 기사도 엮었다. '독자의 차' 화보에도 아슬아슬한 핑크빛(얼핏 보면 살빛) 수영복 차림의 미녀 모델이 돌췌이나 등장해 간지 폭발하는 스포츠카와 부비부비를 시전한다. 여자 화보만 여름이라. 누구보다도 인생을 뜨겁게 사는 김진표를 아이콘으로 선정해 멋진 스포츠카와 함께 화보도 찍고 재미진 이야기기도 나눴다. 나름 여름이라고 이름에 '수박' 들어간 뮤지션 '씨 없는 수박 김대중' 씨도 만나고 왔다.

세상은 변하고 여러분도 변한다. 안 변하는 거 없다. 만약 당신이 이별, 실직, 불합격 같은 힘든 변화를 겪고 있다면 최소한 지금보다 더 위축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라. '괜찮다. 괜찮다' 스스로 위안하며 즐겁고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떠올려보라. 니도 이런 원론적인 위로의 말을 들었을 땐 '남의 불행에 똌 개소리를 씨부리냐' 하고 생을 냈는데 해보니까 효과 있다(그렇다고 키가 커지거나 살이 빠지면서 얼굴이 갑자기 장동건, 이병헌 되는 건 아니야. 그럼 내가 할리우드 가서 모델, 배우 하지 MAXIM 편집장 하고 앉아있겠나).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있을까' 하고 우울해하고 있나? 그만 징징대고 이제 바닥 치고 올라와라. 생각해 봐. 징징대는 남자랑 누가 자주겠어. 이 풍진 세상, 사사시철 비키니녀를 볼 수 있는 국내 유일 하이-크라스 남성 교양 잡지 MAXIM은 변치않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응원하겠다. Cheers!



똑바로 들어.



2013년 9월 편집장 *이영희*



Swiss made ✦
 Super luminova ✦
 Anti-Allergy case ✦
 Quattro multi chronograph ✦
 200 meter water resistant ✦
 Sapphire crystal with Anti-reflective coating ✦

200M
 WATER RESISTA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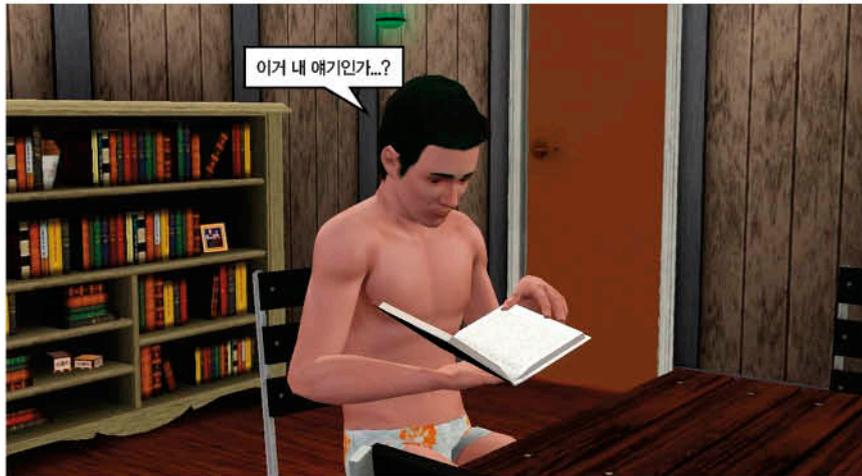
OPACO
 Tuffatore Collezione 201

공식수입원 : (주)자스페로 코리아 1688-8907

- *직 열 점(여의도) 02)783-8910
- *롯데백화점(건대점) 02)2218-3191
- *롯데백화점(부평점) 032)452-2146
- *롯데백화점(대구점) 053)660-3126
- *신세계백화점(인천점) 032)430-1466
- *AK백화점(수원점) 031)240-2199
- *디류브시티(신도림) 02)2211-0149
- *정우상사(종로점) 02)2272-2688
- *타임머신(동대문) 02)6388-2927
- *타임 24(일산점) 031)931-5555
- *뽕 끼 통(부천점) 032)662-0686
- *케이윌렉션(천안점) 041)564-5465
- *엘 가(구미점) 054)451-6940
- *조 이 필(포항점) 054)613-1170
- *중문백화점(제주점) 064)780-7665
- *롯데백화점(미아점) 02)944-2130
- *롯데백화점(중동점) 032)320-7559
- *롯데백화점(천주점) 063)289-3191
- *신세계백화점(의정부) 031)8082-0344
- *NC백화점(강서점) 02)2667-9514
- *대동백화점(창원점) 055)212-8383
- *와 외 치(강남점) 02)537-8977
- *워 치 록(노원점) 070)4136-5090
- *사 른(안양점) 031)463-9788
- *타 임 련(인천점) 070)7516-4545
- *타임리치(대전점) 042)482-2328
- *엘 가(대구점) 053)255-6940
- *인터북고(양산점) 055)911-7111
- *롯데백화점(본 점) 02)772-3908
- *롯데백화점(관악점) 02)842-7706
- *롯데백화점(청주점) 043)219-9108
- *롯데백화점(서면점) 051)610-4087
- *신세계백화점(천안점) 041)640-5496
- *NC백화점(불광점) 02)350-8979
- *대구백화점(대구점) 053)422-3191
- *이타임월드(신촌점) 02)313-4108
- *TMSI백화점(신도림) 02)2111-1120
- *시계상자(안양점) 031)441-0158
- *임치로이(인천점) 070)8632-5300
- *메가와치(충주점) 043)857-9125
- *삼 성 사(대구점) 053)422-3002
- *타 임 북(부산점) 051)919-4704
- *롯데백화점(잠실점) 02)2143-1922
- *롯데백화점(김포점) 02)6116-3176
- *롯데백화점(광주점) 062)221-1573
- *롯데백화점(광복점) 051)678-4191
- *신세계백화점(광주점) 062)360-1934
- *NC백화점(분당점) 031)780-3114
- *대백프라자(대구점) 053)253-7133
- *해피타임(홍산점) 02)2012-0625
- *타임타임(신도림) 02)2111-1171
- *답 타 임(일산점) 031)413-7656
- *보스외치(청주점) 043)235-1510
- *폴드케니언(광주점) 062)714-1121
- *해피타임(대구점) 053)428-3086
- *엘 가(부산점) 070)7569-5766
- *롯데백화점(노원점) 02)950-2164
- *롯데백화점(분당점) 031)738-2140
- *롯데백화점(울산점) 052)256-3191
- *롯데백화점(센텀점) 051)730-3198
- *신세계백화점(센텀점) 051)745-2297
- *NC백화점(광주점) 062)510-7171
- *동아백화점(대구점) 053)780-1701
- *패 션 촌(동대문) 02)3398-7527
- *W MALL(구로점) 02)2081-0921
- *뉴코아올렛(부천점) 032)624-8337
- *타임 21(청주점) 043)224-8851
- *폴 드 록(광주점) 062)410-0137
- *교보문고(대구점) 053)425-9961
- *티 아 리(제주점) 064)745-3008
- *롯데백화점(영등포) 02)2164-6191
- *롯데백화점(안양점) 031)463-2165
- *롯데백화점(광명점) 065)-279-3192
- *신세계백화점(경기점) 031)695-1277
- *현대백화점(중동점) 032)623-2181
- *NC 백화점(해운대) 051)709-5741
- *e-watch(영등점) 02)771-7033
- *타임갤러리(동대문) 02)3398-5528
- *타임 21(광진점) 02)3424-0793
- *뽕 북(부천점) 032)662-2026
- *북 외 치(청주점) 043)223-1333
- *진 보 석(송천점) 061)725-3849
- *타임피아(포항점) 054)253-8855

Letters

여름과 가을이 줄다리기를 하는 9월,
당신의 고민은 파아란 하늘처럼 높아지지만 하는구나.



사무실의 괴도 루팡

이제는 저희 직원들도 MAXIM을 즐겨 보기에 늘 사내 책상에 끼워 두었는데, 어느 날 분명 책꽂이에 꽂혀 있어야 할 MAXIM이 사라졌습니대! 산 지 하루밖에 안 되었는데 말입니다. 의심이 가는 인물은 제 상사입니다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 돌려주질 않으시네요. 다른 직원들은 "그런 것 가지고 뭘 그리 생색이나?"라며 핀잔만 주네요. 이거 뭐 회식비 줄여서 정가구독이라도 하자고 얘기해야겠어요. <미스터 허벅지, 이메일 사연>

편집장 이 사연이 공개되면 상사분도 잡지를 제자리에 갖다놓을 겁니다. 화내지 마시고 이참에 그분과 더 친해지세요. 상사랑 공감대 갖기 쉽지 않잖아요. 이걸 찬스입니다! 올해 미스맥심은 누가 우승할지, 누구 가슴이 제일 예쁜지 노가리도 까고 투표도 같이 하고, 갈맞춤 해서 손잡고 MAXIM 파티도 오세요. 친해진 김에 그 MAXIM 좋아한다는 직원들이랑 다정하게 합캠 콘셉트로 단체 사진도 찍고요! (그리고 이렇게 속삭이세요. "형, 이번 달 인사 평가 좋게 안 써주면 이거 형수님용으로 전송합니다.")

위기탈출 넘버원?

남친 방에서 MAXIM을 발견하고 처음엔 화만 났다가 지금은 애독자가 된 여성 독자입니다. 지난 호 '고기 맛있게 굽는 법' 기사에서 알루미늄 포일로 삼겹살을 구우면 좋다는 내용을 봤는데, 고기를 구울 땐 괜찮지만 신김치와 같이 구우면 김치의 산 성분이 포일을 녹여서 유해물질이 나오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소하지만 다른 독자들이 위험할 수도 있으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맥심애독자, 이메일 사연>



저도 A/S 해주세요

지난 호 '섹슈얼 텐션' 관련한 기사를 정독하다보니 문득 머릿속에 딱 한 여자인 그려지더군요. 하지만 이게 섹슈얼 텐션인지, 밀당으로 어장관리를 당하는 건지 잘 모르겠소. 만날 땐 거침없는 수위의 대화와 스킨십이 오가지만, 그 이상의 관계로 잘 발전하지 못하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좀 더 진도를 뺄 수 있겠소? 해결책을 부탁하오. <안라라중, 모바일 사연>



에디터 조용재 감사합니다. 독자님의 사연을 한 글자씩 읽어 내려가며 저는 마치 <위기탈출 넘버원>을 보는 듯 급박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더불어 이 기사를 담당했던 후배 에디터에게 "이 녀석, 너는 산성인 김치가 두렵지도 않느냐?"라며 핀잔을 주자, 그녀는 결국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굽는 법>이 아니라 <맛있게 굽는 법>이었던 말이에요, 흑흑..."

에디터 김희성 해답의 키는 당신이 쥐고 있습니다. 거침없는 수위의 대화와 가벼운 스킨십이 이미 오고 간다는 건 여자 입장에서는 당신과의 섹스를 마음속으로 '허락했다'는 신호입니다. 다음 번 술을 마실 땐 "오늘 같이 있을까?"라고 굳이 물을 필요도 없이 그녀의 손을 잡고 MT로 향하세요. 모르는 척 그냥 순순히 따라갈 겁니다. 그녀도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이달의 재수생 사연

MAXIM만 보면 수능대박!
수능대박!



재수를 위해 재수 학원에 들어간 지 어언 5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지금은 MAXIM 애독자가 된 나의 모습만이 남아 있다. MAXIM 없이는 살 수 없게 됐어! <유현욱, 이메일 사연>

에디터 조용재 이제 9월, 공부하기 무척 좋은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불자옥 같은 더위가 술술 가실 때가 오니 쉬엄쉬엄 짬이 날 때마다 MAXIM을 읽으며 머리 속 정리하기 좋을 때지요. 근데 MAXIM을 읽으며 언어영역을 공부하면 <백치 후다다>, 수리영역을 공부하면 <남근의 공식>, 외국어 영역을 공부하면 <성관계대명사>로 기억할 것 같다고요? 천만에요. 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에 능통한 에디터들과 똑똑한 스태프들이 당신의 점수 그래프를 상승곡선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특별히 이번 달에는 독자들의 학력 증진과 사기 충진을 위해 수학 교재 집필진이신 비키 양의 아버님을 초빙했습니다. 어서 46 페이지로 넘어가 '킹 오브 수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수능 만점 받아서 인터부라도 하게 되시면 저희 꼭 언급해 주시구요!

'IRON'은 강철,
강철이라는 뜻이었고.





UFC[®] 1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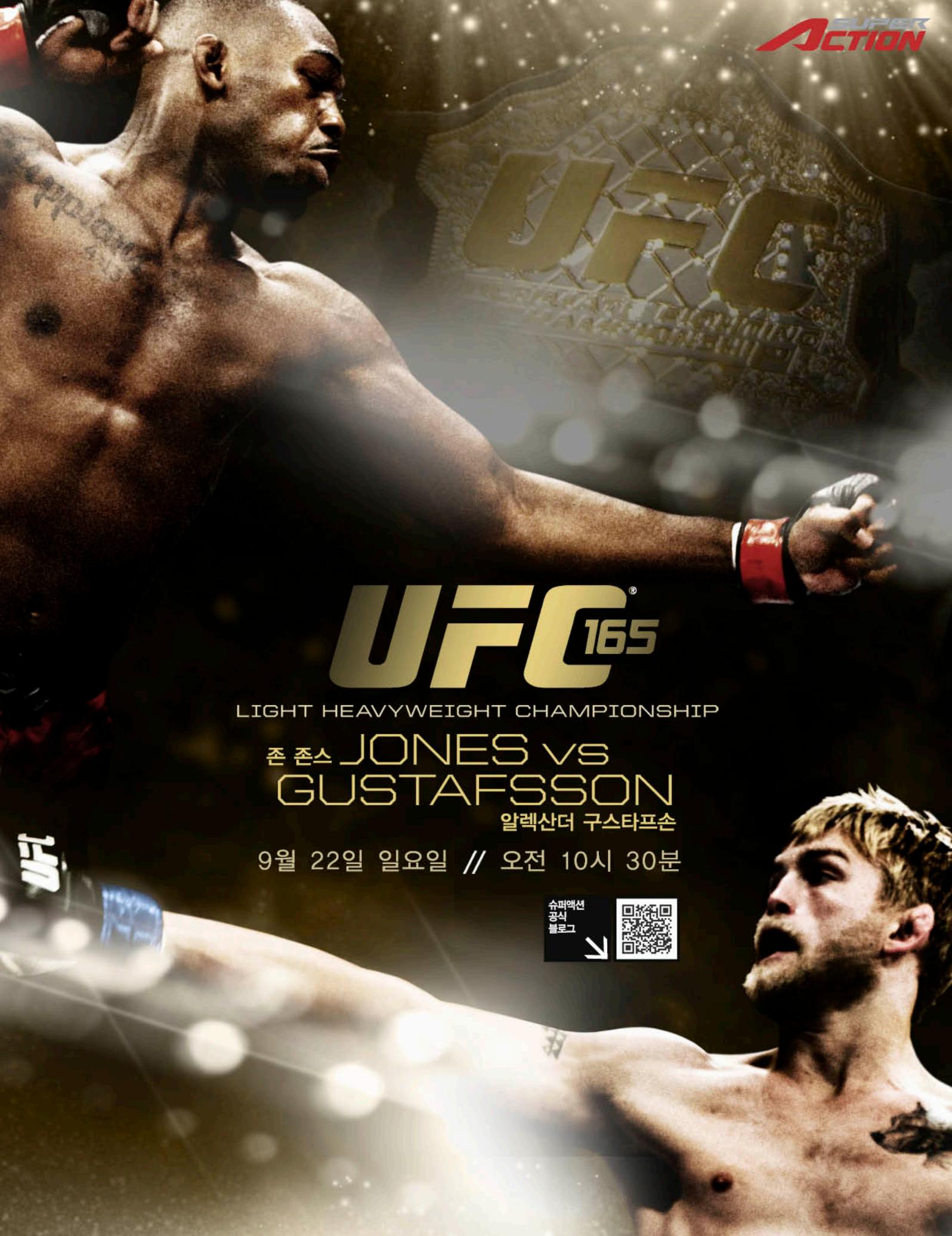
LIGHT HEAVYWEIGHT CHAMPIONSHIP

존 존스 JONES vs
GUSTAFSSON

알렉산더 구스타프손

9월 22일 일요일 // 오전 10시 30분

슈퍼액션
공식
블로그





미래가 불투명한 청년 사업가, 스티브 잡스(20)

직장이 <1박 2일>이나

유학 중에 만난 여친과 1년 6개월 교제 후 인대를 했습니다. 한참 잘 지내고 있었는데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에야 위기가 오는 것 같네요. 현재 유명 방송국에서 일하는 여친이 일하다 만난 외주 PD들과 어울리더니 회사를 때려치우고 그 코딱지만한 회사로 옮기겠다고요. 이걸...? 이걸...! 남자의 직감이 너무 앞서갔나요? 이걸 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느낌있어요, 모바일 사연)

에디터 손안나 ♀ 여자들은 종종 문학이나 예능 쪽으로 뛰어난 남자에게 호감을 갖기도 하죠. 그렇게 보면 하필 군인 신분이라는 불리한 상황에 마주친 적이 너무도 막강하네요. 그렇다고 뭐 그렇게 대단한 상대도 아니네요. 좌절하지 마세요. 몸 좋고 힘 넘치는 젊은 군인 남친이, 밤샘이 많아 늘 지쳐있는 외주 PD보다 더 쓸쓸(?)하다는 걸 언젠간 그녀도 알 테니까요. 누가 그러던데요, 밤일 잘 하면 갈 수도 기다릴 뉘 된다고..

니가 없다 있으니까

첫 버릇이 잘못 들어 수년째 맨 존슨으로 동굴 탐험을 강행하고 있는 애독자요. 그러다 얼마 전 여친으로부터 규칙적이던 홍양이 일주일째 소식이 없다는 고백을 들었소. 다행히 바로 다음 날 터졌으나, 2주가 지난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MAXIM을 보다가도 아랫도리가 축 처지는 느낌이에요. 이걸 어쩌하면 좋소?? (권모씨, 이메일 사연)



안타까운 폐기 처분 조치

만난 지 500일이 다 되어가는 여친을 둔 순정남입니다. 현재 여친을 만난 뒤로는 그 좋은 클럽이며 나이트며 밤문화를 다 포기하고 올인하고 있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는 여친이 제가 회사에 가 있는 사이에 방청소를 해 준다고 MAXIM 과월호를 전부 폐기처분했습니다. 여친에게 화를 냈더니 그깟 잡지가 자기보다 더 중요하냐며 빼져버리더군요. 겨우 달렸지만, MAXIM을 잃은 저는 누가 달래주나요. (나주배, 모바일 사연)



에디터 유승민 ♀ 주소를 보아하니 대학병원 의사 같은데, 그래도 산부인과 의사는 아니시니 섹스의 대선배로서 몇마디 해 드리지. 다들 그대처럼 그렇게 노코섹스 즐기며 살고 있네. 듣자니 여자도 유코섹스는 해감이 영 못하다 하네. 아무리 초박형 콘돔인데 어찌 감히 생점막의 황홀경을 대체한단 말인가. 포기하지 말게. 참고로 전에 잠시 살 쉰던 처자가 내게 회임한 것 같은데 어찌하느냐고 따진 적이 있네. 이에 내가 "결결결 나는 정관을 묶은 터라 회임시킬 수 없는데, 어찌된 노릇일꼬?"라고 했더니 그 처자 몹시 당황하는 기색을 감추지 못하여 내 결국 그녀의 멀티섹파 중 1인이었음을 깨달았다네.

에디터 조웅재 ♀ 독자분의 뜨거운 분노가 지금 이곳 흥대 사무실까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방청소로 끝난 게 다행이네요. 아마 네이년 백신같은 여자친구를 두었다면 지금쯤 독자분은 빼도 못 추리고 있을 겁니다. 하드 킴은 곳 자리잡은 <극산> 폴더에 있는 수많은 파일들을 보고 여자친구가 이렇게 반응할지 바라는 건 아니겠지요? "오빠는 셀카 찍는 걸 참 좋아하냐봐?" / "무슨 소리야?" / "응~ 여동생이랑, 새엄마랑, 친척 누나랑 찍었다던 셀카 파일이 참 많더라고. 이 변태 새끼야."

독자 사연 응모

응모 방법

▶우편 접수

(121-841)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빌딩 4~6층 편집부

▶이메일 접수

reader@maximkorea.net

▶QR 코드 접수 요령

독자 사연 페이지의 QR 코드를 찍으면 팔방 아래에 '덧글' 버튼이 보일 거다. 버튼을 누르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적어 놓은 사연과 함께 우측 상단에 '덧글 작성' 버튼이 뜬다. 버튼을 누른 뒤 보이는 빈칸은 반드시 꼼꼼히 입력하자. 휴대폰 번호는 타인에게 보이지 않으니 걱정 말고 만약 이메일로 사연을 보내려면 선물을 받을 주소와 본명, 연락처를 꼭 기입하도록. 선물 배송이 빨라진다!

사연이 실린 독자 모두에게 주는 이달의 독자 선물

→ For Men

엠도씨 안티링클

트리트먼트 에센스
김보성 형님의 정액만큼 진한 천연연료효모 발효추출수를 80%나 함유해 탄력있게 만들어 주는 제품이다. 링클케어 제품은 여자만 사용하는게 아니라니깐



→ For Ladies

MAXIM 여성용

V넥 티셔츠

MAXIM의 여성 독자들을 누구보다 섹시하게 만들어 줄 MAXIM 시그니처 V넥 티셔츠 조금 더 아련한 연출을 위해 훨씬 큰 V자 리폼을 해 보는 건 어떨까?



→ Unstitched Utilities

친환경 슈즈

'신은 똥 안 신은 똥' 탁월한 착용감을 선사하는 Unstitched Utilities의 친환경 슈즈를 보내 준다! 맨발의 느낌을 그대로!

GIORGIO FEDON
1919



HAWK EYE

조르지오 페돈 | (주)가노코퍼레이션 | www.konocorp.com | www.giorgiofedon.co.kr | 02.3397.7100

[직영점] 롯데백화점 분당 (031-738-2140) 롯데백화점 미아 (02-944-2130) 대구백화점 프라자 (053-253-7133) 하이힐 (02-2136-9743)
[판매처] 롯데백화점 본점 (02-772-3908) / 롯데백화점 잠실 (02-2143-1909) / 롯데백화점 부산서면 (051-810-4087)



Dear. Readers

인생 역경 마스터 김진표의 속시원한 독자 고민 상담!

피구왕 통키 아빠보다 거친 청년기를
보낸 역전의 아이콘, 김진표가 당신에게
던지는 따끔한 충고

Q. 저는 연애 2년차인 30살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얼마 전에 여자 친구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는데, 그 후로 가끔 안부문자만 보내고 그 이상 될 어떻게 못 하겠어요. 전화라도 드리면서 안부를 묻고 싶은데, 막상 하려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얗게 되네요. 여친 부모님과 친해지는 방법은 없을까요?

〈세일클로버, 모바일 사연〉

A. 결혼하기 전까지는 여친 부모님이랑 연락을 안 하는 게 좋아요. 피곤하잖아요. 여친 부모님과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건 여친을 정말 사랑해서 그런 것 같은데... 물론 너무 착하고 좋은 마음인 건 알지만, 그 열정을 여자친구한테 쏟는 게 여친 부모님도 원하는 걸 겁니다. 부모님께 잘 하고 싶은 만큼 여자친구한테 잘 해 주는 게 낫죠. 혹시 실수라도 했다간 아예 개인이 아닌 집안 전체가 원수지간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Q. 서른 둘, 뒤늦게 대학원에 입학한 교사입니다. 방학 때만 대학원을 다니는데 함께 들어온 동기 여학생이 맘에 들었습니다. 하루는 친구와 그 여학생, 그리고 저 셋이 술을 먹다가 모텔까지 갔는데 거기서 친구 몰래 그녀와 해 버렸어요. 나중에 그 일로 좀 꼬서를 겸 얘기를 꺼내자 그 댄 친구가 같이 있어서 일부러 가만 있었던 거라고 하네요. 물론 서로 임자가 있긴 하지만, 저는 웬지 자꾸 그녀에게 마음이 가네요.

〈GS, 모바일 사연〉

A. 그런 짓이 아슬아슬한 재미가 있다는 건 이해하지만, 그 여자는 믿을 여자가 못 됩니다. 그냥 지금 여친한테 잘 해 주세요. 단순히 "친구 때문에 가만히 있었다"라니, 그 여자는 다른 데 가서도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과 똑같은 이유로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여자잖아요? 맘 다치지 않으면 그런 마음은 일찍 접어 두시길.

어! 이걸 정말
말도 안돼!

로버트 드니로

존 트라볼타

이제껏 본적 없는 격돌을 만난다!
스릴과 찬사, 놀라움과 감동!

퀵시즈

〈다이하드 3〉 〈인크레더블 헐크〉 〈타이탄〉 제작군단

9월, 스크린을 압도하는 숨막히는 연기대결!

구매인증샷 이벤트 당첨자 발표

공서영 아나운서가 삼성, 두산, 기아, 롯데 4개 구단의 유니폼을 입고 표지를 장식해 화제를 모았던 7월호! MAXIM은 7월호 4가지 버전 컬렉션 구매인증샷을 올린 독자 중 세 명에게 캠코더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수많은 응모자 가운데 캠코더를 득템한 당첨자는 바로...



'뒤태 전문 기자' 박성기 (28세, 한경TV 블루뉴스 기자)

누구도 이 사람을 이길 수는 없었다. 공서영 표지 4개 버전을 직접 공서영 아나운서에게 가져가 친필 사인을 받고 기념 촬영까지 하다니 어떻게 이겨... 그나저나 축하하는 뒤태 전문 박성기 기자가 MAXIM 독자였을 줄이야! 기자님, 우리 함께 뒤태의 끝판왕급 화보를 만들어봅시다. 담당 에디터도 뒤태로 유명한 김희성 에디터 붙여드릴게.



이승준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29세, 금융업)

공서영도 참 예쁘지만 한화 팬인 나는 류풍의 골수팬이다. 경품 조건 충족을 위해 삼성, 두산, 기아, 롯데 버전의 공서영 MAXIM을 다 사긴 했지만 한화 버전이 없었던 건 참으로 아쉽다. 참고로 나는 4년 전에 나왔던 류현진 백커버 MAXIM 잡지를 아직도 소장하고 있다. 류현진은 전설이 될 거다. 캠코더는 가능한 한화의 주황색이나 다저스의 파란색으로~



정진웅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31세, 골프용품점 운영)

솔직히 이번 4권 컬렉션 이벤트를 보고 캠코더를 탐내어 4권을 지른 사람들 많을 거요. 하지만 MAXIM이 진정한 열혈독자를 찾는 거라면 답은 바로 나오. 이번 공서영 아나운서의 4개 구단별 에디션은 물론, MAXIM의 걸스데이 표지 5가지 컬렉션도 가지고 있고. 어서 파나소닉 캠코더를 내놓으시오.

그 외에도 수많은 독자님들의 열화와 같은 응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MAXIM으로 보답하겠습니다.

MAXIM 섭외 요청 게시판

MAXIM에서 꼭 한 번 만나보고 싶은 모델이 있나? 그렇다면 MAXIM 홈페이지 메인에서 '섭외 요청 게시판' 배너를 클릭하라! 당신이 그토록 MAXIM에서 보고 싶은 모델을 직접 추천할 수 있다. 당신이 추천하면 우리는 섭외한다. 오래 섭외 요청 게시판으로!

섭외 요청 바로가기



This Month's Hot Request

이번 달 MAXIM이 섭외한 모델은 여민정이다. 레드 카펫에서 아찔한 가슴 노출 사고로 이목을 끈 바로 그녀가 114페이지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MISSION COMPLETE

섭외 요청 게시판에 올라온 독자님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그동안 서유리, 공서영, 구지성, 비키, 박아인, 장도연, 사유리, 지주연, 손성아, 고두림, 광현화 등이 MAXIM의 새로운 여신이 되었다. 다음 여신은 당신 손으로 추천하라!



MAXIM ONLINE SURVEY

올 여름, 당신이 가장 원하는 피서지는? 산&계곡



- 1위 실내:** 호텔 패키지나 펜션 잡고 여친과 무한사 (294표, 54.5%)
- 2위 바다:** 갯 잡아올린 헌팅녀와 추억(?) 만들기 (169표, 31.4%)
- 3위 산&계곡:** 눈여겨보던 여자 동료와의 씬씬 (76표, 14.1%)

총 투표자: 539명 / 투표 기간: 2013년 7월 31일~진행 중

MAXIM 설문 바로가기



더 재미있고 기상천외한 설문들이 당신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

MAXIM FACEBOOK

지금 MAXIM 페이스북에서 가장 핫한 게시물은? 👍



MAXIM 팬친들의 '좋아요'를 쏟아내고 있는 사진의 주인공은 MISS MAXIM 2010년 대회 우승자 최혜연, 2012년 준우승자 엄상미. MAXIM의 대표 글래머인 이 둘이 심폐소생술 콘셉트로 수영장 화보(p.84)를 찍었는데, 페이스북에 올린 촬영 현장 사진 때문에 9월호 발행하기도 전에 이미 인기 대폭발이었다.

www.facebook.com/editors.maxim

페이스북으로 MAXIM 편집부의 일상이 생중계되고 있다!

아직도 페친이 아니야?



Subscribe

빠르고 안정적인 배송, 구독 중 가격 인상 없는 서비스, 푸짐한 시은품까지!
정기 구독을 신청하시면 이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최대
5만 원
할인!**



24개월
정기 구독시
무료 증정

주름 개선 및 피부 탄력
엠도시 안티 링글 트리트먼트 에센스

MAXIM
KOREA

10 REASONS OF MURDER

남랑 특집 3부작 제2탄
사람을 벌레 놀리 죽이듯 살해한
사상 최악의 잔혹 살인마들이 말하는
살인의 진짜 동기 10가지

STYLE
플장에선 수영복보다 방수시계가 중요하다
색소를 부르는 스트라이프
등 록아 보이게 입는 법

SEXUAL TENSION 2
살과 살이 맞닿는 지점을 느껴라

SEX GUIDE FOR GIRLS
여친 있는 남자들이 알려주는
여친 있는 남자 찾는 스킬

에이지 오브 스톰 서유리

2013년 가장 핫한 여성은 걸그룹도, 배우도 아니다.
SNL, MC, 심지어 MAXIM 표지까지 접수한 미니 성우 서유리.
그녀 때문에 밥그릇 좁아진 전업 연예인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남성 선호도 톱에게만 주어지다는
대작 게임의 메인 모델로 그녀가 발탁됐다.

2013년 8월 최대의 기대작 AOS 게임
(에이지 오브 스톰)으로 폭풍을 일으킬
서유리의 게임 코스튬을 MAXIM에서 준비했다.

NAUGHTY MARINE PARTY
주자육림, MAXIM의 색시 미린 파티 대공개
놓쳤다면? 아직 한 번의 기회가 남았다

MAXIM'S SUMMER NIGHT
BIKINI PARTY
@ CARIBBEAN BAY 08.10. SAT

5 VACANCE SPECIAL EASY WAYS TO UNDRESS HER

- 바닷가 한팅, 선수는 넘어올 여자를 알아본다
- KISS의 보컬 풀 스탠라가 알려주는 록페에서 끝장나게 노는 법
- 여자피 놀라기엔 고기는 먹어, 여자들이 뱉게 고기 굽는 법
- 카사노바의 반칙 아이템 페로몬 향수, 과연 그 효과는?
- 킬러의 락테일 제조법, 최종제가 따로 없어

AGE OF STORM
KINGDOM UNDER FIRE ONLINE

2013년 8월호
정가 5,900원

ISSN 2233-4270 바코드는 뒷면에

3개월	정가 17,700원	
6개월	32,400원 (정가 35,400원) 3천 원 할인 +1000씩 적립	
12개월	63,800원 (정가 70,800원) 7천 원 할인 +2000씩 적립	
24개월	126,600원 (정가 141,600원) 1만 5천 원 할인 +4000씩 적립	
36개월	182,400원 (정가 212,400원) 3만 원 할인 +6000씩 적립	
48개월	233,200원 (정가 283,200원) 5만 원 할인 +8000씩 적립	



※ 락은 MAXIM 홈페이지에서
결제 시 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포인트입니다. (1 락=1 원)

※ 시은품은 한정 수량이므로 바뀔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또는 왼쪽
QR 코드 스캔 후 확인하세요!

정기 구독 신청 안내

www.maximkorea.net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정기구독 신청 배너를 클릭하거나,
MAXIM KOREA로 전화하세요.
Tel. 02-323-1182

결제 방법

- 1 www.maximkorea.net 에서
신용카드나 휴대폰 결제
 - 2 무통장 입금
(예금주: 주식회사 와이미디어)
- | | |
|--------|-------------------|
| 하나은행 | 569-910012-00904 |
| KB국민은행 | 185801-01-004866 |
| 농협 | 355-0006-4797-03 |
| 신한은행 | 100-026-074070 |
| 우리은행 | 1005-701-637646 |
| 기업은행 | 208-107032-04-013 |
| SC제일은행 | 117-20-225316 |
| 우체국 | 012559-02-079161 |

MAXIM을 아이패드와 아이폰에서도 만나보세요!

대한민국 남성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매거진 앱! 종이 잡지보다 저렴한
가격! MAXIM의 아이패드 매거진에는 편리한 인터랙티브 디자인, 풀
버전 영상 화보, 종이 매거진에서는 볼 수 없는 마공개 화보와 깨알
같은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담겨 있습니다.
앱스토어에서 [MAXIM KOREA] 또는 [맥심 코리아]를 검색하세요!

아이패드 매거진 : 1권 구매 시 \$2.99 / 1년 정기 구독 시 \$19.99
아이폰 매거진 : 1권 구매 시 \$0.99



Jägermeister

ICE COLD SHOT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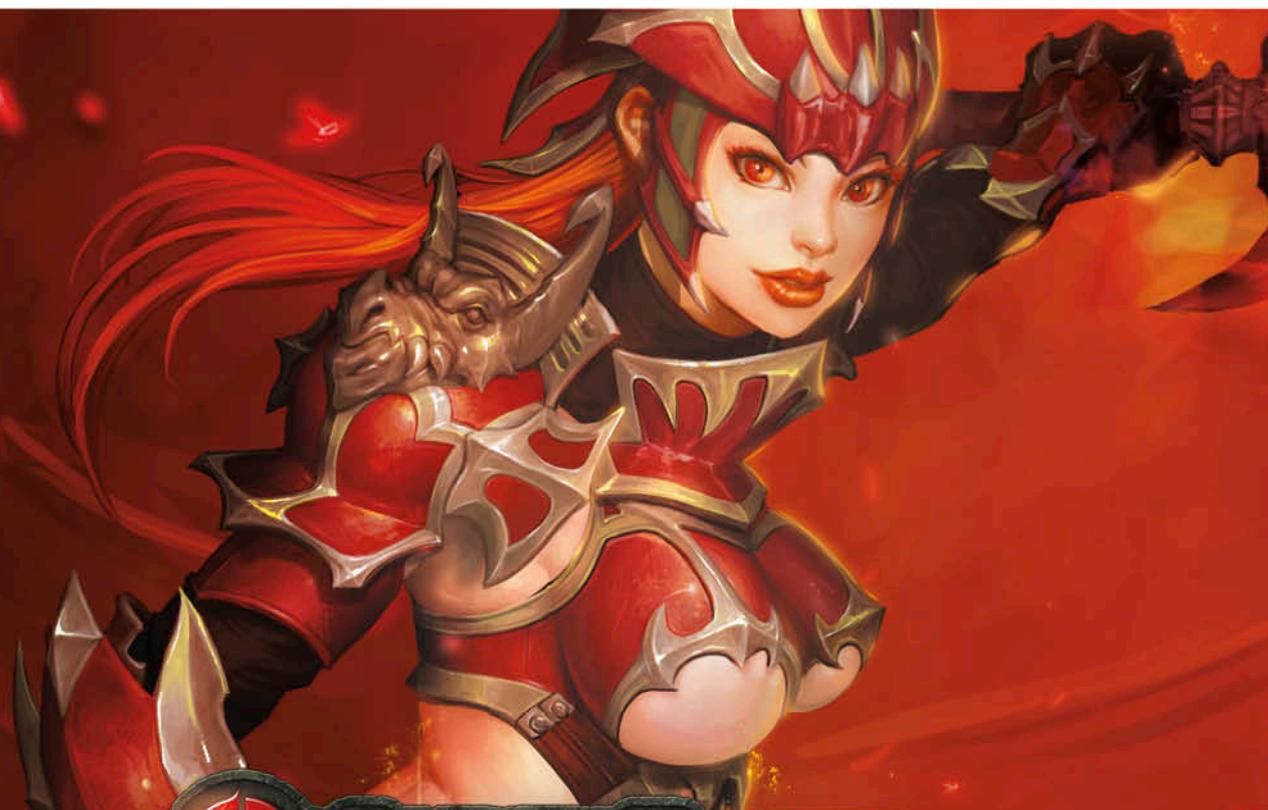
Jägermeister

PRODUCED AND BOTTLED BY
Mast-
Jägermeister SE
WOLFENBÜTTEL
GERMANY

70 cl 35%
700 ml vol



WE NEVER FREEZE
www.facebook.com/jagermeister.korea



NOW OP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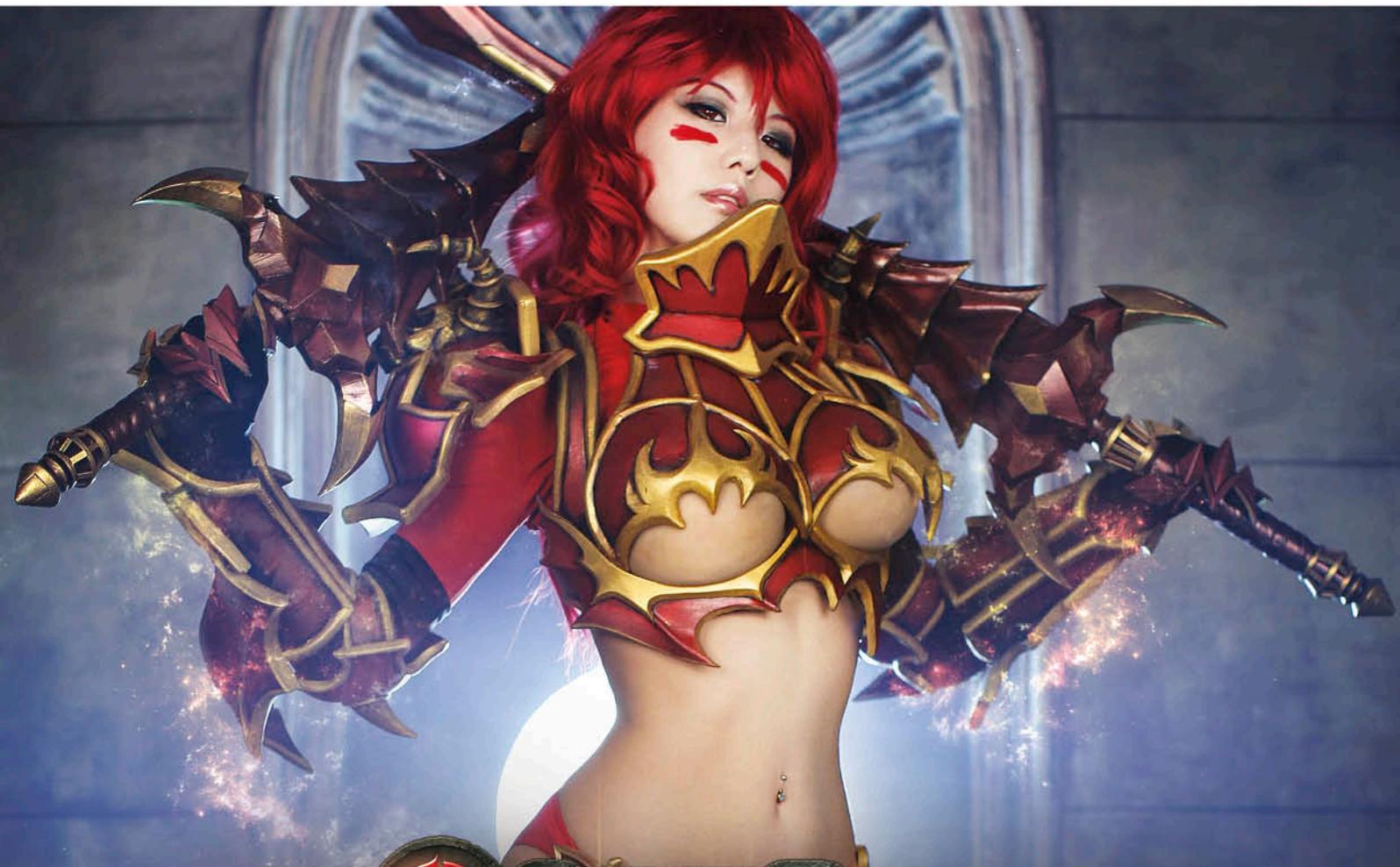
에이지 오브 스톰 - 오픈베타 진행 중!!



HERO'S INFORMATION

엘류인 (화룡의 후예)

휘몰아치는 붉은 머리칼 위로, 어둠을 불태우는 화룡의 후예로 상대에게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데미지를 주는 스트라이커형 영웅입니다.



AGE OF STORM
KINGDOM UNDER FIRE ONLINE

NOW OPEN!

에이지 오브 스톰 - 오픈베타 진행 중!!



HERO'S INFORMATION

엘류인 (화룡의 후예)

휘몰아치는 붉은 머리칼 위로, 어둠을 불태우는 화룡의 후예로 상대에게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데미지를 주는 스트라이카형 영웅입니다.

의상 & 모델
스파이럴캣츠 코스프레팀

Circus M

A MAXIM VIEW OF THE WORLD

라파스 마녀시장의 명물 말린 라마 태아(胎兒)



여수 중앙시장 북어와는 다르다! 북어와는!

BY 조웅재

구경 한번
와보세요



볼리비아의 라파스(La Paz)에 있는 '마녀 시장(Witches Market)'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름난 관광 명소다. 365일 내내 수능 전날의 팔공산 깃바위만큼 북적인다는 이곳은 말 그대로 '오컬트의 성지'. 말린 두꺼비, 정력에 좋다는 파우더, 기괴한 모습의 돌조각 등 도저히 향목을 한데 묶을 수 없는 제품들이 즐비한데,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사방팔방 어디에나 매달려 있는 말린 라마 태아(Dried Llama Fetuses)다. 이 기괴한 물건은 관광객들 사이에서 "밥반찬이다", "정력에 좋다", "유서 깊은 밀도 대응품이다" 등등 많은 루머를 낳으며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으나 전부 개소리였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고사옹 돼지머리' 같은 주술용 제물로, 집이나 직장을 옮겼을 때 이 녀석을 집에서 태우거나 집 근처 땅에 묻어두면 '대지의 신' 파차마마(Pachamama)가

나쁜 기운을 막고 행운을 불러온다. 원래대로라면 부자들이 살아 있는 라마를 잡아 제사를 올리는 것이 정석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어 이런 말린 새끼 라마를 구매해 땅에 묻는 것으로 파차마마가 합의를 보겠다고, 역시 '대지의 신'이라는 스케일만큼 대인배스럽다. 말린 라마는 대부분 어미가 유산을 하는 바람에 일찍 세상을 뜬 녀석들이다. 가끔 이상하리만치 크고 털까지 무성한 녀석들이 있는데, 이런 녀석들은 태어난 후 어미 젖 좀 빨다가 죽은 경우라고, 임신 중인 줄 모르고 암컷을 도살하다 발견된 안타까운 녀석도 있다. 일이 꼭 찬 수박 고르듯 이 녀석도 좋은 녀석을 고르는 방법이 있는데, 비쩍 말랐지만 윤기가 흐르며 털이 순백색을 띠고 있는 녀석이 양품이다. 어차피 거기서 거기 아니냐고? 아마 대지의 신께서 하고 싶은 말씀은 "이왕 썩 대신 닭이라면 BBQ로." 뭐 이런 게 아닐까 싶다. 🐾

현지 가격 \$5~8

PHOTOGRAPH fearghalonuaillah

aximus

우수에 찬 눈빛

멀쩡한 라마 활용법

멀쩡한 놈 말려 죽이면 당신만 손해다.

➔ 훌륭한 집꾼

라마는 '남아메리카 낙타(South American Camel)'라고 불릴 정도로 힘이 좋아 어린이 한 명 정도는 거뜰히 태우고 다닐 수 있다. 크기가 소형인 만큼 낙타와 달리 50kg 정도만 적재할 수 있으니 억울하면 살을 빼자.

➔ 훌륭한 털 공급처

대충 짐작은 했지만, 라마는 양과 비슷한 털을 갖고 있다. 이들의 털은 실제로 의류의 방한용 소재로 많이 쓰이며 알파카보다는 싸지만, 양털보다는 조금 더 바싼 편.

➔ 훌륭한 캐디

농담이 아니다! 이 녀석들은 훌륭한 골프 캐디다. 앞서 언급했듯 무거운 짐을 들어줄 뿐 아니라 짐초까지 먹어치운다고, 물론 "사장님~ 나이스 샷~"은 포기하자.



누들러의 힐링 라면

최근 누들러는 건강검진을 받았다. “노력하세요.” 검사 결과는 참담했지... 자, 이번 달엔 건강을 생각한 라면 특집이다. ※ 이마트보다 비싸면 차액을 쿠폰으로 준다던 홈플러스 기준으로 가격을 매겼다. BY 라면 전문 리뷰어 김면발, 박스프(blog.naver.com/noodler)



농심 야채라면 (1,245원/개)
무려 6가지 채소가 들어갔다. 게다가 건더기 스프의 11%는 양배추, 8%는 양파로 꽤 실하다. 성장기 자녀를 둔 애코맘이

혹할 만하다. 안에 들어간 6가지 채소의 효능을 종합해보면 충격을 넘어 공포다. 혈당(양파)과 콜레스테롤(생강) 수치를 낮추고, 피부에 좋으며 (양배추), 항암 효과(마늘)와 함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며(홍고추), 변비까지 개선(채심)해준다니! 이걸 먹으면 울버린보다 상처가 빨리 아문다는 건가?! >> 울버린은 개불. 그냥 아무 채소나 1,000원어치 사서 하나라도 제대로 먹자.



풀무원 골뱅이 비빔면 (1,470원/개)
더운 여름이면 더 찾게 되는 비빔면. 피부 노화 방지는 물론이고, 칼슘과 단백질 함유량이 전복보다 많은 골뱅이가 들어간

라면이라니! 이걸 먹으면 골 피부를 갖는 것과 동시에, 뼈가 굵어지고, 미친 근육이 샘솟는 걸까? 물론 아니다. 라면 봉지를 자세히 읽어보라. ‘골뱅이 추출 분말 1%, 건더기 스프 중 골뱅이 1.96%(0.2g)’다. 돈 많고, 위 크면 많이 먹어보던가. >> 고급 정보! 홈플러스에서는 유동 골뱅이 140g이 3,600원이다.



삼양 된장라면 (556원/개)
겨레의 전통 음식, 된장으로 맛을 낸 라면. 된장 좋은 거야 모두가 잘 알고 있겠지만, 한

번 더 효능을 짚어보자. 자고로 된장은 소화를 돕고, 변비를 개선하며, 몸 속 피를 맑게 해주고... 더 이상 설명은 생략한다. 어쨌든 이런 된장 스프에 8% (청국장 1%)나 들어 있다고 하니, 평소 신토불이를 외치던 온 국민에게 아이오이 소라가 노모를 찍었다는 소식만큼이나 좋은 일 아니겠는가. 그나마 된장라면도 나은 마당에 노모를 안 찍다니! >> 솔직히 너도 알고 있잖아. 그냥 된장찌개에 라면 사리 넣어 먹는 게 낫다는 걸.



봉평촌 메밀라면 (1,880원/개)
라면인지 골드바인지 모를 황당한 가격에 일단 놀란다. 하지만 우리 메밀을 8.94% 함유한 면이라고 하니 그냥 좋은 건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당신이 잘 모르지만 웬지 수궁이 가는 것, 웰빙이란 그런 것이다). 그럼 메밀은 대체 어디에 좋은가 하니, 체내의 열을 내려주고, 배변을 용이하게 해준다고 한다. 그렇다면 겨울에 메밀을 잔뜩 먹으면 덜덜 떨다가, 똥이란 똥은 다 싸고 똥지는 것 아닌가. 자, 골도 보기 싫은 이에게 겨울에 메밀을 선물하자! >> 오직 용이한 배변만을 추구한다면 같은 가격에 된장라면 3개를 드십시오.

박스프의 누들 로드 without 김면발

여자 친구와 함께 제주도로 떠난 박스프가 소개하는 본격 라면 맛집 소개. 박스프의 누들 로드 제1탄 제주도 해맞이 쉽다



원래는 해산물 모듬 라면(5,000원)과 해산물 전복 라면(8,000원)밖에 안 파는데, 풀무원과 골라보레이션을 거쳐 해맞이 꽃게 짬뽕 라면을 판매하고 있다 (10월까지 한시적 운영). 여자 친구와 함께한다면 길에서 흠을 피먹어도 맛있겠지만, 라면에 얹힌 실한 해물들을 보고 있노라면 군침이 절로 나온다. 바다 쪽을 향하는 테이블에 앉아서 제주 막걸리까지 한시발 걸치면? ... 여기가 바로 무릉도원이다.

해맞이 쉽다
주소: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2033-19
문의 번호: 064-782-7875



HELLDIVER



HELL DIVER

1942 SB2C

공식수입원 에이맨 인터네셔널 1644-3885 | 공식 홈페이지 <http://www.helldiverwatches.com>

롯데백화점(잠실점) 02-2143-1909 롯데백화점(노원점) 02-950-2490 롯데백화점(대구점) 053-660-3126

굿모닝시티2F(동대문) 02-2118-8075
헬로APM6F(동대문) 02-6388-2927
두산타워3F(동대문) 02-3398-5528
두산타워5F(동대문) 02-3398-7527
원타임(왕십리) 02-2200-1355
프로워치(남대문) 02-779-6964
이와치(명동점) 02-771-7033

이타임월드(신촌점) 02-313-4108
타임랜드(은평점) 02-350-8471
이츠와치(홍대점) 02-323-0980
와와치(반포점) 02-537-8977
TIME 21(강변점) 02-3424-7073
TIME 21(강변점) 02-3424-1210
테크노마트B1(신도림) 02-2111-1120

타임타임(신도림) 02-2111-1171
샤론주얼리(안양점) 031-463-9788
보석상자(안양점) 031-466-1014
탑타임(안산점) 031-413-7616
타임루트(안산점) 031-487-9057
티파니(안산점) 031-931-5300
워치보이(인천점) 070-8632-5300

70'CLOCK(인천점) 032-456-4280
타임런(부평점) 070-7516-4545
벙끼통(부평점) 032-662-0686
복와치(청주점) 043-223-1333
타임볼(부산점) 070-7530-1219
엘가시계(부산점) 070-7569-5766
덕천시계(부산점) 051-333-8849

M B K TIME(부산점) 070-8200-2234
교보문고(대구점) 053-256-1575
삼성사(대구점) 053-422-3002
엘가시계(대구점) 053-255-6940
엘가시계(구미점) 054-451-6940
더타임(진주점) 055-741-3072

세기의
황당 실험



참고 서적:
(매드 사이언스 북)
레도 슈나이더 지음 이정모 옮김

세기의 미친 과학 실험



뜨신 밥 먹고 대체 이런 짓은 왜 하는 거죠?

BY 손안나



~일렉트릭~
~이! 이! 일렉트릭~

→ 머리 두 개 달린 강아지 만들기

1954년, 동물 심장이식 수술에 일가견이 있던 러시아 외과 의사 블라디미르 데미호프는 복날 개장수들의 환호를 받을 창의적인 실험을 감행했다. 강아지의 머리를 잘라 다른 강아지의 몸통이에 붙여 머리 두 개 달린 '프랑켄슈타인 犬'을 만들기로 한 것. 세 시간에 걸쳐서 진행된 이 실험에서 그는 강아지의 머리 부분만 당강 잘라내어 강아지의 동맥과 정맥을 세퍼드에 연결했고, 세퍼드를 통해 혈액을 공급받았다. 이런 미친 실험이 과연 성공할까 싶지만 세 시간 후, 세퍼드가 눈을 깜빡였고, 다시 네 시간이 지나자 목을 움직였다. 하루가 지나자 이식된 강아지 머리도 기운을 차렸다. 강아지가 데미호프 조수의 손가락을 피가 날 정도로 세계 물었으니 말 다했지. 6일 후 강아지는 결국 감염으로 죽었다. 하지만 데미호프는 실망하지 않고 그 후로도 스무 차례 이상 비슷한 실험을 계속했다. 한번은 새끼를 어미의 목에 이식하기도 했다. 이런 호로개객끼를 봤나.

→ MRI 찍으면서 섹스하기

1991년, 의사 페코 판 안델은 남녀의 성교 모습을 MRI로 찍어 섹스할때 우리의 몸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촬영을 위해선 지름 50cm의 비좁은 MRI 통 속에서 남자가 뒤섞여 섹스를 해야 했기에, 그는 자신의 곡에서 친구들을 피실험자로 섭외했다. MRI 촬영 시에는 몸을 움직이면 안 되므로 피실험자들은 오르가슴에 이르면 즉각 하던 동작을 멈추고 연구자에게 알려야 했다. "아흥~ 오빠, 나 갈 것 같아" 소리 나오면 멈추고 찰칵, "어흥~ 지금 싸, 샌다"란 말이 들리면 일단 정지 후 찰칵... 이 짓을 반복해야 했으니 통 안에 든 남녀는 얼마나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을까? 곡에서 친구들의 살신성인 (조뽕이) 끝에 그는 정상위 시 남자의 성기는 부메랑 모양으로 휘어진다는 깨나 신기하고 쓰잘데기없는 사실을 발견해냈다.



→ 잘린 머리에 전기 충격 주기

1885년, 과학자 라보르드는 단두대에서 참수당한 머리가 몸통에서 분리되고 얼마 동안 살 수 있는지 궁금했다. 당시 과학계에는 머리가 잘린 후에도 15분쯤은 의식이 남아있어서 고통을 느낀다는 설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던 시기. 그는 소도시 트루아의 한 광장에서 어느 사형수의 참수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다. 사형수는 한 농가에서 집주인과 어머니, 그리고 하녀를 죽인 살인마였다. 트루아 시장의 호의적인 지원 덕분에 그는 처형한 지 7분이 지난 딱딱한 머리를 입수했다. 이렇게 득템한 머리에 동물 혈액을 공급하기도 하고, 두개골에 구멍을 내서 전류를 흘려보내는 등 그동안 하고 싶던 온갖 실험을 신나게 했다. 그러다 얼떨결에 뇌를 건드렸는데, 얼굴 왼쪽 근육에서 경련이 일어났고 치아가 빠져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렸다. 참수된 지 40여 분이 지났는데! 하지만 잘린 머리가 얼마 동안이나 의식이 있는지는 끝내 밝힐 수 없었다고, 그레 모르는 게 악이다.

눈 성형술
6개월 후



눈 성형술
8개월 후



쌍꺼풀 없이 '크고 시원한' 확대 남성 눈 성형술

- 01. 쌍꺼풀이 생기지 않으면서 자연스러운 모양으로 커집니다.
- 02. 눈을 감고 있어도 수술 흉터가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 03. 수술 후 이미지가 지나치게 변하지 않습니다.

※ 드물게 수술 후 염증 발생이나 좌우 비대칭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진성형외과의원

압구정역 4번출구 / www.medoctor.co.kr / 02-3445-4514

Circus Maximus

Birth Control

거기 누구 없어요?

콘돔으로
받치지
하네!



역사 속 피임법 9

9월 26일, 세계 피임의 날을 맞아 준비했다
콘돔이 없던 시절, 사람들은 어떻게 피임을 했을까?

1 오줌



고대 중국인들은 먹는 피임약을 만들어 사용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사품즙(四品汁)'이라 불리는 경구 피임약은 아이 오줌에 한 종의 흙을 넣어 만든 것. 정자 잡으려다 사람 잡겠네!

2 대장간 폐수



고대 그리스의 산부인과 의사는 철을 담금질하는데 썼던 대장간 폐수를 피임약으로 처방했다. 1차 대전 때까지도 이 믿음은 이어져서 여성들은 피임을 하기 위해 일부러 남 공장에 자원해서 일하기도 했다.

3 비버 고향주



캐나다 사람들은 비버의 고향이 피임에 도움이 된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들은 비버를 잡아다 고향으로 술을 담가 먹었다. 인간의 피임을 위해 고자가 되어야 했던 삼가 비버의 명복을 빕니다.

4 코카콜라



1960년대 미국에서는 콜라가 민간 피임법으로 활용되었다. 한 허버드대 박사는 콜라가 피임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를 해 상까지 받았지만, 이후 '콜라로 질을 씻어봤자, 이미 정자는 난자에 도착한 후'라며 연구 결과를 번복했다.

5 창호지



김홍도가 그린 춘화도에는 관계를 마친 남자가 남자의 손에 들린 무언가를 보며 수줍게 웃고 있는 장면이 있다. 단열과 채광에 우수한 창호지가 정액막이로도 활약을 했던 것. 기생들은 창호지 이외에도 비단이나 명주실을 넣어 임신을 막았다.

6 악어의 똥



기원전 1850년 이집트에서는 '악어의 똥'에 꿀을 섞어 성교 전 질에 넣어 살정제로 사용했다. 자궁 안에 똥을 투척해 화생방으로 만들려 했던 노력은 눈물겨우나, 악어의 똥은 알칼리성이라 오히려 정자의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었다.

7 레몬과 황금 구슬



그 이름도 유명한 카사노바는 무게 60g, 지름 18mm의 황금 구슬을 여자의 질에 넣어 정액이 밀려나오도록 했다. 그도 모자라 반으로 자른 레몬 껍질을 질에 박아 정액을 막고, 레몬의 산성으로 남아있는 정자의 씨를 말렸.

8 재채기



히포크라테스는 섹스 후 재채기를 하면 임신을 피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도 모자라 발꿈치가 엉덩이에 닿을 만큼 팔짝팔짝 뛰든지, 큰 소리로 고향을 치면 피임이 된다는 내용이다. 그렇게 하면 정자가 놀라 죽기라도 한다는 거야?

9 동물 내장



18세기 초, 대단한 호색가였던 영국 국왕 '찰스 2세'의 방탕한 생활을 염려했던 그의 주치의는 어린 양의 맹장을 말린 뒤 기름을 발라 부드럽게 만들었다. 이렇게 탄생한 태초의 콘돔은 전 세계 각지로 불티나게 팔려나가, 당시 영국에는 양떼목장이 카페메네보나 많았다고.

숫자로 보는 콘돔

한 송이 밤꽃을 피우기 위해 콘돔은 그렇게 울었나 보다.

18 & 20

콘돔은 공기 18리터, 물 20리터 이상을 담아내야 국제표준화기구의 인증을 통과할 수 있다.

콘돔은 총 10단계의 품질 검사를 거친다. 그 중 마지막은 철봉에 씌워 전기가 흐르지 않는 걸 확인하는 것이다.

10

이렇게 탄생한 콘돔의 수는 매년 전 세계 120억 개.

12,000,000,000

OD Musical Company, CJ E&M & Interpark Theater present

슈퍼밴드 그린데이 음악으로 만든 뮤지컬

GREEN DAY'S

아메리칸

기니엣

★ the groundbreaking **BROADWAY** musical ★

Ashe (Ben Lanning) and Trent (Sawyer Slone) in AMERICAN IDOT. Photo by John Daugherty

뮤지컬
보고싶다면
여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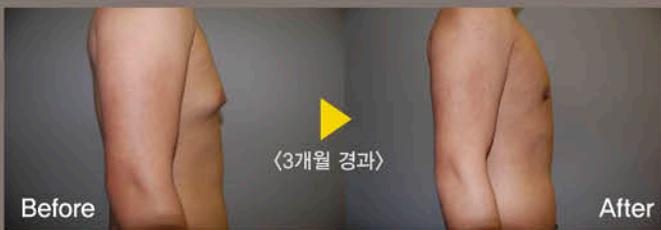


2013. 09. 05 ~ 22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

주최 SBS 제작 OD MUSICAL COMPANY CJ E&M 인터파크 씨어터 제작투자 원선정원두개주식회사 주관 오픈리뷰㈜ 예매처 인터파크 옥션 11번가 yes24



그가 그녀를
잡을 수 없는 이유는...



여성형 유방증이란?

여성형 유방증이란 남성의 가슴이 비대하게 발달, 유방처럼 커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나요?

여성형 유방증은 남들과 달리 큰 가슴을 가져 목욕탕이나 수영장 등에서 위축되기 쉬우며 심각한 경우 사회 생활의 자신감마저 상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요즘은 의료 기술이 발달하여 수술로 비교적 쉽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드물게 수술 후 부작용으로 혈종 또는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루엣 성형외과의원 [진료내용 : 여성형유방증] www.gynecomastia.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92-15 실루엣 빌딩 4, 5, 6층 실루엣 성형외과의원 [진료내용 : 여성형유방증] 3호선 압구정역 3번 출구 100m 앞
TEL. 02-3443-1180 / 02-3443-1280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30312-중-40133호



麥心

피커링의 하렘 Pickering's Harem

BY Goobsinist
 팟캐스트 맥심!
 조별과제 조원이 전부 여자가 자기 혼자 남가라서 고민이라는 청취자 사연이 접수되었습니다!



고민이 아니라 자랑이구만! 하렘이라 좋으냐?

아니, 실제로 그런 하렘이 학문적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서

뛰어난 효율과 성과를 보인 사례가 있습니다.



하버드 천문대장 피커링 교수는 별의 스펙트럼 분석 작업에 남자 연구원들이 수당만 많이 받아먹으며 일은 제대로 안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우리집 가정부가 너보다 잘 하겠다!!

과연 그럴까?!



실제로 가정부한테 스펙트럼 분석을 맡겨보니 잘 하더라!

응ㅋ!!



이에 피커링은 다수의 여성들을 고용해 작업량을 꾸렸으니-

이것이 바로 '피커링의 하렘'

the Harvard Computers

좀더 품위있게 부르자면-



그 하렘 출신 여성들은 천문학에 중요한 공로들을 세웠고, 그 중 리베트는 노벨상까지 받을 뻔했음.

일찍 죽어서 못 받았지~

짹짹~



이처럼 다수의 여성과 한명의 남성으로 이뤄진 팀이 능률적으로 성과를 내는 효과를 '하렘효과'라고 부릅니다.

다수의 남성과 한명의 여성으로 이뤄진 역하렘도 효과가 있을까요?

역하렘은 그냥 어장일 뿐이지.

작업의정서
티켓을 쓴다



로망공감!

코믹연애극;

작업의 정석

연극

2013년 9월 5일 OPEN 코엑스아트홀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오픈리뷰 1588-5212 |문의 1588-5212

선수들의 밀당승부가 시작된다!

How to



LA갈비 잘 굽는 법

개그맨에서 요식업으로 대성한 '육식계의 프린스' 이승환이 지난 달 삼겹살에 이어 이번엔 LA갈비로 여심을 얻는 법을 알려준다.

BY 이승환(별집삼겹살 대표)

1 그녀 마음에 연육작용을

“갈비를 어떤 양념에 재워야 할지 모르겠다면 시중에 판매하는 LA갈비 양념에 키위와 파인애플을 갈아 넣고, 거기에 갈비를 재워보라. 냉장실에 하루 동안 두면 키위와 파인애플이 연육작용을 해 고기가 한층 부드러워질 것이다.”

그녀와 여행 첫날 로맨틱한 저녁, 미리 재워둔 갈비를 꺼내며 이렇게 속삭이자. “오빠가 직접 만든 양념에 재운 갈비야. 많이 먹어. 오늘 밤새도록 널 재우지 않을 작정이니까.”

2 뜨거운 불에서 재빨리

“LA갈비는 뜨거운 숯불에 빨리 굽는 게 맛있다. 미지근한 불에 오래 두면 겉면의 양념이 다 타버려 맛이 없다.” 미지근한 상태가 오래갈수록 답이 안 나오는 남녀 관계처럼 양념 갈비도 뜨거운 불에서 빨리 승부를 봐야 한다. 그런데 갈비를 실제로 굽다보면 살 부분은 맛있게 익고 뼈 부분은 덜 익은 상태가 되는데, 이때 우리 엄청난 딜레마에 빠진다. 이걸 지금 먹어, 말아?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살펴보자.

3 완벽하게 익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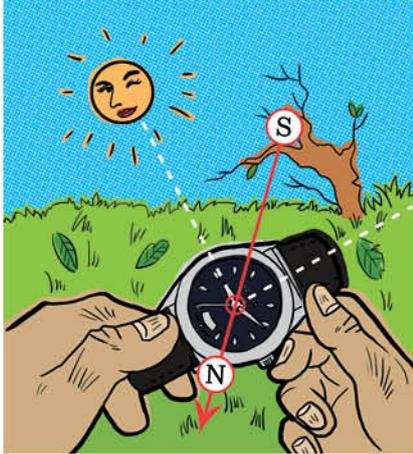
“뼈는 불판 중앙에, 살은 불판의 가장자리에 놓으면 갈비가 뼈가 있는 속까지 고루 잘 익는다. 완벽하게 익은 LA갈비는 뼈와 고기가 쉽게 분리되어 먹기 좋다.” 고기의 방향을 바꾸는 것만으로 갈비를 먹기 좋게 구울 수 있다. 덜 익은 부분은 잘 안 뜯기잖나? 여자 앞에서 뼈에 지저분하게 붙은 덜 익은 질긴 근육까지 뜯겠다고 오만상 쓰지 말고 그 전에 머리를 쓰자. 오케이?

4 고기도, 사랑도 타이밍!

한창 분위기 좋을 때 고기를 다 태워 '고기 하나도 제대로 못 굽는 남자'가 되고 싶지 않겠지. LA갈비구이는 언제나 가장 먹기 좋을까? “눈으로 알 수 있다. LA 갈비의 겉면이 노릇해지면서 수분이 빠져 살짝 거칠어졌을 때가 딱 먹기 좋은 때다.” 남자라면 언제 먹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먹어야 하는 법. 다 먹었으면 애꿎은 고기만 뒤적이지 말고 어서 일어나 상 치우자. 그녀는 이미 이까부터 기다리고 있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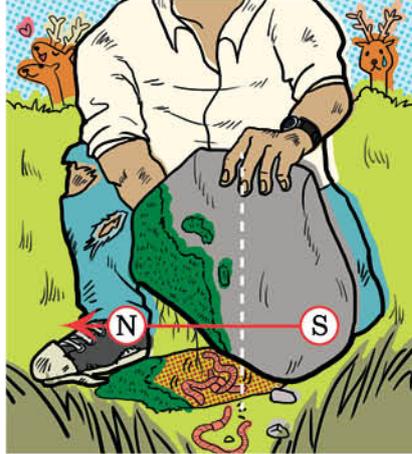
산 속에서 길 찾는 법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성묘 갔다 길을 잃었다.
설상가상 스마트폰도 안 터져. 조상님! 어.떡.하.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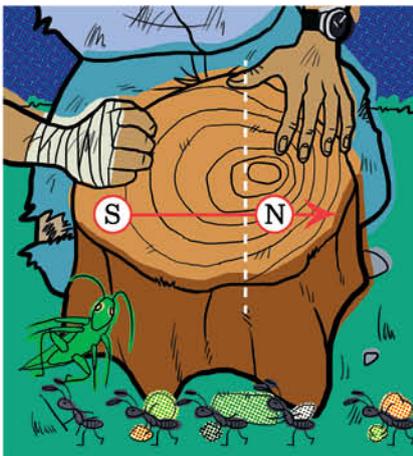
1 시계를 보자

아직 해가 떠 있을 때 재빨리 시계를 꺼내 방향을 찾자. 시계의 시침을 해를 향하게 놓았을 때 시계의 시침과 12시 사이를 2등분한 방향이 남쪽이다. 전자시계를 차고 있다면 시간을 확인한 뒤 후바닥에 간지 시계를 그려 방향을 확인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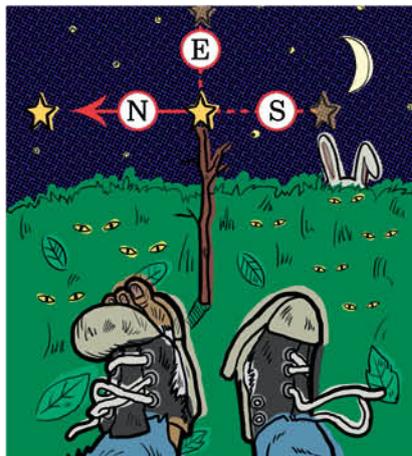
2 돌덩이를 보자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땐 덩치 큰 돌덩이를 살짝 들어보면 손쉽게 방향을 찾을 수 있다. 습하고 그늘진 곳에서 잘 자라는 이끼의 특성상 이끼가 난 방향이 북쪽, 이끼 없이 깨끗한 방향이 남쪽이다. 아주 습한 지역에서는 나무 껍질에서도 이끼를 볼 수 있다.



3 나이트를 보자

나무를 보았을 때 껍질이 두꺼운 쪽이 북쪽이다. 이 방법만으로 구분이 어렵다면 가장 만만해 보이는 나무를 골라 꺾어 나이트를 확인하라. 햇빛을 잘 받은 쪽이 썩썩 자라기 때문에 남쪽 나이트가 북쪽 것보다 두껍게 나타난다. 오늘부터 매일 바지 내리고 남쪽을 향해 일광욕 실시!



4 별을 보자

곧은 나뭇가지를 구해 평평한 땅에 고정한 뒤 나뭇가지 끝을 눈에 띄는 별에 맞춰라. 조금 기다려다 보면 별이 어디론가 이동하는데, 나뭇가지의 끝보다 위쪽으로 이동했다면 당신은 동쪽을 마주하고 있다. 참고로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면 남쪽, 왼쪽으로 이동했다면 북쪽을 향해 있는 것이다.

비행기 사고 났을 때 죽을 확률 낮추는 법

자동차보다 안전하지만 말이다.



알라중크

1. 공항 패션은 포기하라

인화성이 높은 폴리에스테르나 화학섬유 소재 옷은 불이 붙으면 멸망이므로 착용을 삼가자.

2. 안전 벨트를 꼭 착용하라

안전벨트 미착용 시, 갑작스럽게 난기류를 만났을 때 머리로 천장을 뚫어버릴 수도 있으니 안전벨트는 꼭 매라.

3. 짐은 선반 위에 놓여라

어디로 쫓겨 모르는 비행기 사고 시에는 소중한 짐이 휴기가 될 수 있다. 짐이 제 위치에 있는지, 선반의 문은 잘 잠겨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4. 구멍조끼는 탈출 직전에 부풀려라

바다로 추락 시 비행기 안에서 미리 구멍조끼를 부풀려 놓는다면 비행기가 가라앉으며 물이 찼을 때 탈출하지 못하고 비행기와 함께 수장될 수 있다.

5. 90초 안에 탈출하라

비행기 사고 후 90초 동안의 대처가 탑승자의 생사 여부를 결정짓는 비행기 사고계의 '골든 타임'이다. 스튜어디스는 이 골든 타임을 위해 훈련을 받은 전문가이므로 스튜어디스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고 따르자.

홀지마 사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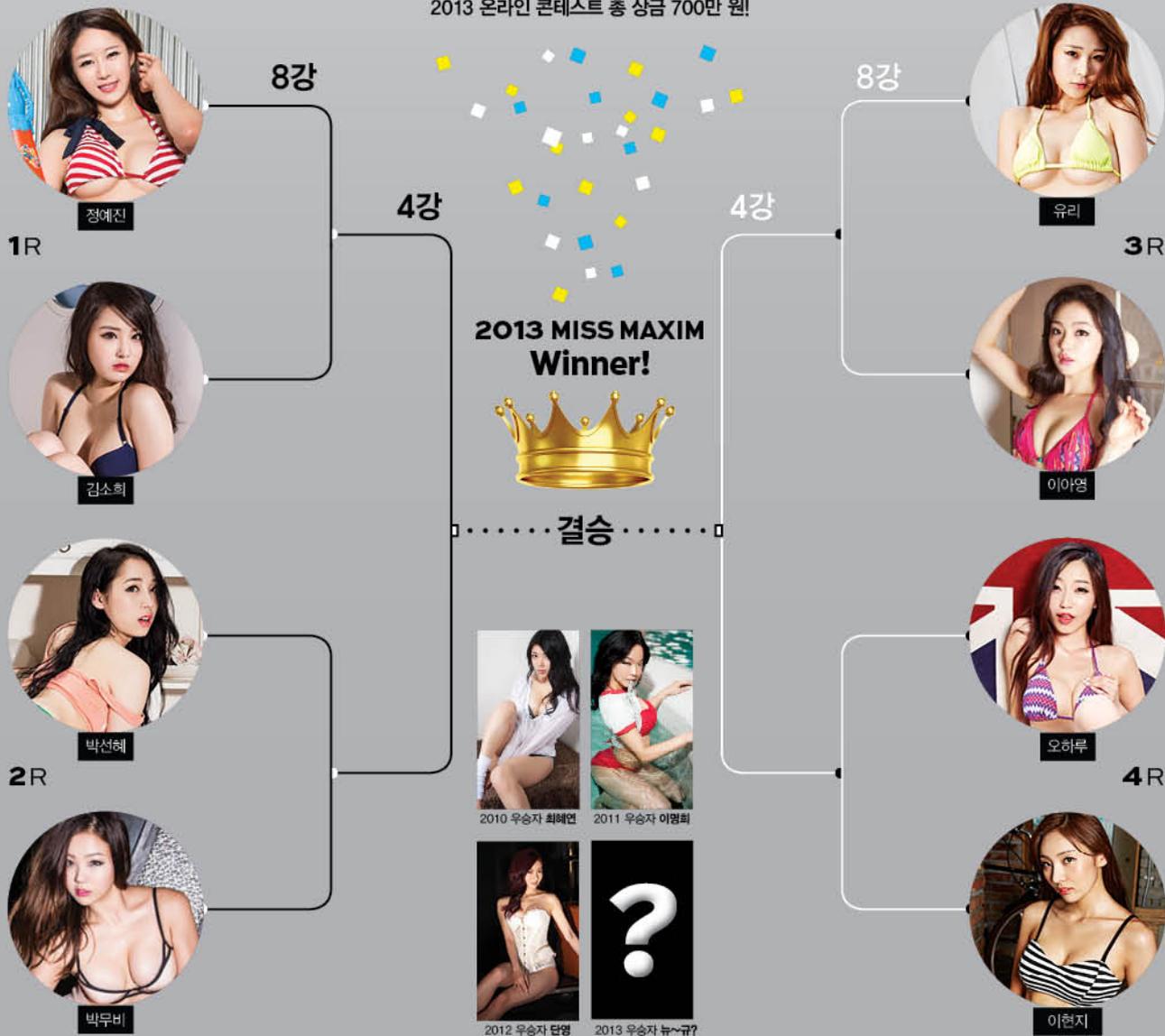


2013 MISS MAXIM CONTEST

TOP 8 Tournament Battle Start!

드디어 MISS MAXIM 8강전이 시작됐다!
당신의 한 표가 MAXIM의 간판 미녀를 좌우한다!

우승자는 2014년 한 해 동안 MAXIM에서 각종 화보 모델 활동을 하게 되며,
2014년 중에 MAXIM 정규 월호 또는 스페셜판 매거진 표지 모델로 발탁된다!
2013 온라인 콘테스트 총 상금 700만 원!



Your Choice! Your Miss MAXIM!

MAXIM이 사랑하는, 그리고 MAXIM을 사랑하는 매력녀 중 최강자 1명을 선발하는 2013 MISS MAXIM 콘테스트, 이제 8강전이다! MAXIM 홈페이지에서 슈스케 버금가는 경쟁률을 뚫고 독자의 선택을 받은 8강 진출자의 MAXIM 화보를 PC와 스마트폰에서 감상하고 소중한 한 표도 행사하라! 여기 콘테스트 대진표를 선사할 테니 복습, 또 복습하도록! 8강에서 4강, 결승으로 올라갈수록 더 핫한 화보가 여러분을 기다린다! 화보로 만나고픈 그녀에게 어서 한 표 던져!

투표 방법

1. 모바일 기기 또는 PC에서 www.maximkorea.net 에 접속해 8강 진출자들의 아찔한 매력을 감상한 뒤 투표한다.
2. 여기 있는 QR 코드를 스캔해서 바로 투표한다!



겨울 보고 반성하자 말끔한 피부만이 살길이다!

우리는 원빈이 아니지. 그냥 아저씨일 뿐...
그렇다면 피부라도 말끔한 게 좋지 않을까!

아무리 원빈이라도 피부가 더러우면 클럽에서 먹힐까?

휴가 날만 손꼽아 기다리던 김 병장. 드디어 기다리던 휴가다. 김 병장의 휴가 계획은 강남 클럽, 이태원 클럽, 홍대 클럽! 클럽이란 클럽은 모두 섭렵하면서 곧 있을 제대 후에 만날 여자 사람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플랜! 2년 동안 솔로였는데 사회에 돌아와서도 솔로면 너무 슬프니까... 간만에 모인 친구들과 함께 오늘 밤 이 한 몸 불사르겠다며 당당하게 외쳤지만 당당하던 마음과 달리 현실은 시궁창이었다. 간지를 위해 선글라스로 얼굴의 반을 가렸지만 얼굴에 난 여드름 상처는 가릴 수 없었던 것! 대학생 시절 얘기 피부로 과 여자들에게서 인기를 독차지 하던 김 병장이지만 현실은 스물두 살의 군인 티나는 아저씨였던 것이다. 원빈보다 나이는 열다섯 살이나 어리지만...피부가 썩어 있으니 이젠 뭐 말 그대로 '아저씨'구먼!

잠시만요! 김 병장님 여드름 흉터 관리 받고 가실게요~!

스물두 살의 군인 아저씨 김 병장. 얼굴은 거칠어지고 피부는 까매져 촌스러워 보인다. 또 땀병에서의 훈련, 삼질, 스트레스로 피부가 성할 날이 없어 상태는 회복 불능. 사회에 나가려면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군대 안에서는 고작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것이 전부인 슬픈 현실. 그마저 훈련이 생기고 바빠지면 소홀하기 쉽다!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더운 여름, 여드름 때문에 영혼까지 상처 입은 남자를 위해 MAXIM이 준비했다. 꿀피부로 되돌릴 수 있는 기회, 군대 휴가를 맞이해 여드름과 여드름 흉터 치료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필살 비법, SL흉터재생술! 더 이상 여드름 피부를 방치하지 말고 휴가 기간에 꿀피부를 만들어 남자의 자신감을 찾아 폼나게 제대해보자고!

여드름 상처까지
모조리 씹어먹어 줄게



도움말 주신 분

손철훈 원장
한의원 전문의
진료 분야:
여드름, 여드름 흉터

- 한의원 원장
- 한의학 박사
- 〈피부 카리스마〉 저자
- 前 대한스프츠 한의학회 회장
- 경희대 한의과 대학원 겸임 교수
- 에스킨아카데미 공동 대표

예한의원 손철훈 원장님이 말하는 꿀피부 김병장 비법 대공개!

Q. SL흉터재생술(치료)은 기존 박피치료와 어떻게 다릅니까?

A. SL치료는 기존에 피부를 깎아내는 레이저박피나 화학박피와 달리 흉터부위에 직접 손으로 구멍을 뚫고 재생 유도물질인 SL109를 투입하여 흉터 부위에만 새살을 돋게 하는 방법입니다. 예한의원에서 10년 간의 연구로 개발한 SL109물질은 단순히 구멍을 뚫었을 때 보다 2~3배 많은 양의 새살이 나 한번 시술만으로도 확실한 결과가 나옵니다. 또 기존에 박피처럼 깎아내는 방법이 정상피부의 과도한 손상으로 인한 붉음증이나 화상피부와 같은 번들거림을 방지할 수 있고, 표면 피부 손상을 최소화 해 자연스러운 원래의 피부를 보호하고 진피 깊은 곳에서 새살이 올라옵니다.

Q. 지금 여드름 계속 올라오는데도 SL치료가 가능합니까?

A. SL치료는 다른 치료술과 달리 여드름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습니다. SL109는 흉터뿐만 아니고 피지선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한번 시술만으로도 여드름을 확연히 줄어듭니다. 그러므로 흉터 치료뿐만 아니라 여드름 피부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여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게 합니다.

Q. 기존의 플라젤이나 MTS치료법과 다른가요?

A. 피부에 일정간격으로 피부에 구멍을 뚫는 프락셀, MTS는 얇고 넓은 흉터나 노화 피부에 효과가 있으나 여드름으로 인한 흉터에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흉터부위와 정상부위 관계없이 구멍을 뚫으면 흉터부위에 살은 적게 올라오고 정상부위는 더 강한 자극을 받아 더 많이 올라오므로 깊은 흉터의 편차를 줄이지 못합니다. SL치료는 좁고 깊은 흉터부위에만 살이 올라오게 해서 빠르게 편차를 줄입니다. 즉, 흉터치료의 핵심은 새살 만들기 가 아니라 편차 줄이기입니다.

Q. 군인들이 짧은 휴가 기간 동안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까?

A. 보통 시술 받고 5일 정도면 딱지가 떨어지고 선블러만 바르면 야외활동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휴가 때 치료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휴가 기간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은 휴가 마지막 날 시술 받고 바로 귀대를 하더라도, 대개 이런 경우 고창병들이 많아요. 말년 차는 마지막 휴가 때 받고 제대하자마자 한번 더 받고, 이렇게 두 번만 받아도 웬만한 흉터는 해결되니까요.



How To

Office Life Tip #9

보고 잘하는 법

일을 아무리 잘해도 보고를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다.

BY 김희성

MODEL 2013 MISS MAXIM 8강 진출자 유리

아근 당첨

➡ 첫째도, 둘째도 타이밍

보고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일이 끝나면 즉시 보고하는 것이 보고의 제 1원칙이지만 상사가 다른 업무로 매우 바쁠 경우엔 보고를 잠시 미뤄도 좋다. 하지만 당장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될 사안의 경우엔 상사가 바빠 보이더라도 일단 보고하라. 당신 편에는 상사를 배려한다고 보고를 미뤘다가 "그걸 지금 얘기하면 어떡해"라는 호통을 처먹게 될 테니까.

➡ 구두 보고 vs. 서면 보고

어떤 보고가 잘된 보고인지는 상사 스타일에 따라 다르다. 당신이 보고하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보고 방식을 다르게 하는 게 더 좋다. 결재 서류나 이메일 등 서면으로 보고 받기를 원하는 상사한테는 서면으로 보고하고, 구두로 보고 받길 원하는 상사에게는 구두로 보고하라.

➡ 실수를 했을 때

대부분의 직장인이 자신의 실수를 변명하는 데서 보고를 그친다. 하지만 당신이 변명한다고 해서 실수가 만회되는 건 아니다. 실수가 있었다면 솔직하게 사과하고 일단 대처를 한 뒤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 변명만 하는 동기들 사이에서 반성하는 당신이 워너다.

➡ 보고 상대가 애매한 경우

대다수의 조직에서 직속 상사의 업무 지시만 받을 수 있도록 원칙을 세워 놓지만 때에 따라 중간 단계를 건너뛰는 경우도 있다. 직속 상사가 다른 업무로 자리를 비워 상사 이외의 사람에게 다이렉트로 업무 지시를 받았을 땐 직속 상사가 복귀하자마자 다른 지시가 있었음을 바로 보고해야 한다. 당신의 직속 상사에게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업무 지시를 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시받은 업무에 관한 보고는 직속 상사와 지시자 중 누구에게 해야 할까? 직속 상사에게 먼저 업무 보고를 한 다음 당신에게 업무 지시를 내린 사람에게도 보고한다. 하지만 직속 상사가 "OO에게는 내가 보고 할게"라고 했다면 보고할 필요가 없다. ☹

여 상사의 도발





추석 특집! 친척과의 대화 스트레스 회피법

비상, 피곤한 친척과의 대화를 피할 핑계가 모두 떨어졌어? 옆 자리 어른의 잔소리 폭풍이 불기 직전이라고? 당신을 위한 추석용 잔머리를 대방출한다.

1 언제 어디서든 통하는 마법 같은 대답
친척 어른이 잔소리를 하는 순간, 당신 귀는 차음 시스템을 가동하고 입은 무성의하게 “에~에~” 뽀뽀거린다. 허나 이건 상대를 괜히 자극해 도리어 ‘무한 훈계 타임’을 부른다. 자, 군대에서 배운 ‘복명복창’을 떠올려라. 어른이 “너 임마 지금까지 장기도 안 가고 어찌래?”라고 하면, “그러게요. 아직까지 장기도 안 가고 어찌죠”라고 하는 식이다. 대화 내용에 진전이 없더라도 상대는 당신이 집중해서 듣고 있다고 여겨 꽤 만족스러워한다. 그것도 귀찮으면 딱 이 두 문장만 기억하라. “그러게요.” “아이고, 그렇게 말입니다.”

3 긴장 풀고 구라치기
케임브리지 심리학회에 참가한 석·박사와 교수들을 대상으로 학회 종료 2주 후 학회의 내용을 묻는 실험을 실시한 적이 있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이들은 들은 내용의 90%를 잊어버렸으며, 그나마 생각해 낸 10% 중에서 절반은 부정확한 내용이었다. 사람의 기억력은 생각보다 조오오오나 후지다는 소리다. 어떻게 사느냐는 질문에 대답할 땐 약간의 과장을 보태서 맘껏 구라를 쳐라. 어차피 기억도 못한다. “우성이 너 장가 안 가니?” “고모, 모르셨어요? 저 얼마 전에 이민정이라 결혼해서 뉴스에 나왔잖아요!” 이런 건 안 통해, 바보야.

2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드는 팔뚝 스킨십
물건을 떨어뜨리고 행인에게 주워달라고 부탁하면 몇 %가 주워줄까? 한 실험에선 ‘그냥 부탁하면 63%, 만지면서 부탁하면 90%’라는 결과가 나왔다. 도움을 얻을 때뿐 아니라 동의, 돈, 호감, 번호(!)를 얻는 데에도 스킨십의 위력이 막강하다는 사실이 이미 여러 실험을 통해 밝혀졌다. 여기서 스킨십은 어깨에서 팔꿈치 사이 상완을 가볍게 만지는 것을 의미한다. 어색한 사람을 만져도 무리가 없는 안전한 부위니까, 친척을 만나면 악수를 청하며 다른 손으로 팔이나 어깨를 만지자. 대접이 달라진다.

4 최후의 수단

노숙자 행세

외국인 행세

에이즈 행세

앞에 나온 세 가지 방법조차 안 먹히는 X같은 상황에선 각종 코스프레로 대화 자체를 봉쇄하라.

실전 훈련 퀴즈! 큰 당숙모의 무한 잔소리를 회피하라!

다음 중 어른의 질문에 가장 무탈하게 잘 대답한 보기를 골라라.

- 1 “취업은 했나?” ()**
- ① “지금 결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취업이 돼야 마음이 편하실 텐데 자꾸 늦어지니까 속상하시겠어요.”
 - ② “취업했으면 이런 데 와서 노닥거리고 있었어요?”
 - ③ “저해공갈단에서 알아배요.”
- 2 “너 결혼은 언제 할 거냐?” ()**
- ① “그러게요. 아버지가 빨리 손을 봐야 하는데... 제가 이대로 결혼도 못할까 봐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 ② “저랑 하시려구요?”
 - ③ “성병 때문에 자꾸 차어요.”
- 3 “너 왜 이렇게 살이 찼냐?” ()**
- ① “그러게요. (상대방 팔뚝 살을 주무르며) 아이고, 뼈밖에 안 남으셨네. 요즘 마음 고생이 심하셨나 봐요.”
 - ② “살 빼지면 살 빠졌다고 또 뭐라고 할 거면서.”
 - ③ “인육 떼서 팔면 쓸쓸해요, 헤헤.”
- 4 “연봉은 얼마니? 돈 많이 벌어야지” ()**
- ① “히히히, 그러게요.”
 - ② “아무리 벌어도 드릴 용돈 없어요.”
 - ③ “한 시간 구걸하면 평균 4,400원 정도 벌입니다.”

점수 계산: ①=3점, ②=2점, ③=1점으로 하여 합을 낸다.

→ 결과

4~6점: 등짝 맞을 확률 100%

아희 다시는 명절에 친척집 안 가도 된다!!

7~9점: 대화 차단 확률 70%

진노한 친척 어른들이 당신을, 6억 3천만 개의 미립자로 분해될 때까지 물고 뜯고 씹으며 즐길 것이다.

10~12점: 용돈 획득 확률 100%

용돈의 대가? 어른이 당신과 대화하는 즐거움에 빠져 친일야화를 완성하시겠지.



How To Gamble



한가위 화투 판때기를 평정할 타짜 기술

큰아버지 죄송해요. 뽀찌는 없어요. 땀 돈은 좋은 곳에 쓸게요.

손은 눈보다 빠르다.

영상으로 배우기 & 책 받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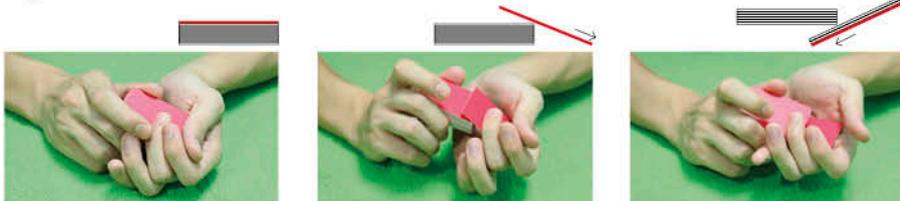


➔ **밀장 빼기** : 정확성이 높아 가장 무서운 타짜 기술. 패를 돌릴 때 가장 아래에서 한 장을 뽑는 기술이다.



- 1 화투를 계단식으로 왼손에 올려 놓고 화투목 전체를 손목 쪽으로 약간 이동하면 밀장이 분리된다.
- 2 왼손 검지로 분리된 밀장을 보이지 않게 가리고 오른손 엄지는 뒷장에, 중지는 밀장에 갖다 댄다.
- 3 오른손 엄지는 뒷장을 그냥 지나치며 오른손 중지로 밀장을 빼낸다.

➔ **날장 치기** : 화투장을 섞을 때 뒷장에서 한 장씩 뺀 후 밀장부터 쌓아 올려 패가 섞이지 않게 하는 기술이다.



- 1 왼손 중지를 화투 맨 뒷면에 가볍게 대고 오른손은 엄지와 중지 옆면으로 화투를 바르게 쥘다.
- 2 화투를 잡은 왼손과 오른손을 앞뒤로 뺀다. 왼손 중지의 마찰력으로 가장 위의 날장만 빠진다.
- 3 날장을 왼손에 쌓으며 섞기를 반복한다. 오른손 검지가 날장을 억지로 밀면 들릴 수 있다.

➔ **스테키** : 스승과 제자가 대를 이어가는 유일한 도박 기술. 본인이나 같은 편, 또는 호구에게 원하는 대로 패를 돌리는 기술이다. 여기에서는 밀장 빼기와 날장 치기를 이용해 장땡(단풍 2장)을 주거나 갖는 방법을 설명한다.



- 1 장 2장을 화투목의 앞뒤에 놓는다. 타짜가 화투를 추스릴 때 패를 찾기보다 같은 편이 전 판에 미리 죽어 패를 찾아놓는 게 좋다.
- 2 선수 수만큼 날장을 친다. 선수가 세 명이라고 가정하고 세 번 날장을 치면 밀장에 장이 있고 두 장 위에 또 다른 장이 있다.
- 3 셋다 패는 총 20장. 즉, 날장 치기를 15회 반복하면 맨 아래 패 너 장이 맨 위로 올라온다. 맨 아래 너 장을 끊어 한 번에 올려도 된다.

- 원하는 대로 장땡 돌리기**
- ➔ 본인이 가질 때는 처음 두 장을 밀장에서 꺼내 왼쪽부터 패를 돌린다.
 - ➔ 오른쪽 같은 편에게 줄 때는 처음 한 장을 밀장에서 꺼내 왼쪽부터 패를 돌린다.
 - ➔ 왼쪽 호구에게 줄 때는 전부 뒷장에서 꺼내 왼쪽부터 패를 돌린다.

예림이, 그 패 혹시 장이야?



타짜 적발하기



1. 차례가 아닌데 굳이 기러를 하겠다고 나선다면 스테키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오함마를 준비하자.
2. 화투장을 섞을 때 오른손의 검지가 어색하게 움직인다면 날장 치기를 하는 것이다. 오함마를 준비하자.
3. 패를 돌릴 때 화투장을 굽는 소리가 난다면 밀장을 빼고 있는 것이다. 오함마를 준비하자.
4. 왼손의 손가락 틈이 없다면 화투장을 손바닥에 숨기고 있는 것이다. 오함마를 준비하자.



진짜 타짜가 되고 싶나? QR 코드를 찍고 당신이 타짜가 되어야 하는 사연을 남겨라. 가장 구구절절한 사연을 남긴 독자 다섯 명에게 타짜 기술의 모든 것을 담은 책 <타짜의 기술>을 선물하겠다.

Game

CHARACTER OF THE MONTH

카운터 스트라이크 온라인2: 밀라(Mila)

 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9월을 맞아 소개하는 초미녀 테러리스트. 물론 이 페이지를 연 순간 당신의 경각심은 이미 안드로메다로. BY 조용재

장르	온라인 FPS
플랫폼	PC 온라인
개발사	(주)넥슨, 벨브 소프트웨어
유통사	(주)넥슨
등급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

카운터 스트라이크 온라인2

최초의 국산 온라인 FPS 게임 <카르마>를 거쳐 훗날 국산 FPS계 양대 산맥으로 자리 잡은 <서든어택>과 <스페셜 포스>가 한창 유행일 때, 에디터 역시 마우스보다 키보드를 더 많이 두드리며 김구라보다 거친 입담을 과시하던 시절이 있었다. 당시 본인 같은 플레이어들 덕분에 '국산 FPS의 자존심'을 외치던 두 게임은 단숨에 '초딩 게임'으로 전락해버렸다. 머리에 피도 안마른 애새끼들이 귀찮았던 큰형님들은 실제 총질과 가장 유사한 느낌의 타격감과 다양한 모드를 자랑하는 <카운터 스트라이크>로 자리를 옮긴다. 이후 훌륭한 게임성으로 찬사를 받은 이 게임은 2008년 벨브와 넥슨이 손잡고 온라인 게임으로 컨버전하기에 이른다. 올 8월에 출시한 두 번째 시리즈는 전작보다 한층 발전한 그래픽과 시스템 그리고 미모의 두 캐릭터를 영입해 다시 한 번 과거의 영광을 누릴 준비를 마쳤다.

→ 밀라(MILA)

귀여운 얼굴에 뽕뽕한 몸매를 지닌 여자는 분명 남자들의 1호 경계 대상이 되어야 함에 틀림없다. 여자 테러리스트는 늘 아릿하고 시크한 표정과 상처투성이 몸을 가져야 한다는 클리셰를 과감하게 탈피한 캐릭터. 목에 두르고 있는 '빨간 마후라'는 웬지 모르게 그녀를 한층 더 섹스, 아니 섹시하게 만들어주는 머스트 해브 아이템.



아니면 당신은 이쪽 취향?



① 리사(Lisa)

특수부대인 '네이버 실 (Navy Seal)' 소속의 미녀. 훌륭한 보디슈트를 입힌 디자이너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예쁜 게
쏘기도
잘 쏘네!



형보다 나은 아우, 에이지 오브 스톰

장르의 인기에 편승한 게임이라고 하기에 <에이지 오브 스톰>은 기대보다 훌륭하다.

BY 조용재



2012년 이맘 때, 많은 게이머들은 <디아블로3>가 블리자드의 버프를 받아 오랫동안 무적자(無敵者)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난 10년 간 블리자드의 아성을 뛰어 넘겠다는 포부를 자랑하던 수많은 제작사들은 마치 편의점 앞에 늘어선 노랑진 컵밥집처럼 하나 둘 침몰하기 시작했고, 결국 되도 않는 아류작만 흑역사로 남긴 채 등보잡 신세를 면치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게이머들의 예상과는 달리, 앞서 출시한 <리그 오브 레전드>의 열풍은 식을 줄 몰랐고, 결국

<디아블로3>는 묵묵히 패배의 길을 걸어야만 했다. 올해 하반기 최고의 기대작으로 불리며 지난 8월 8일 오픈한 국산 AOS 게임 <에이지 오브 스톰>은 그런 <리그 오브 레전드>의 아성에 도전하는 또 다른 대작 게임이다. 온라인 게임 순위 상위권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 이 게임은, AOS 고유의 재미와 국산 게이머들의 입맛에 맞춘 새로운 요소들을 적절히 비비고 비벼서 신라 호텔 3만 원 짜리 나물 비빔밥보다 '맛있다'는 소문이 벌써부터 자자하다.



1 노엘

1타 3피로 원거리 광역 스킬을 사용하는 뱀파이어 마법사. 일족의 이름을 더럽힌 자들에 대한 복수심으로 불타는 순혈의 히어로다. 종족상 창백한 얼굴을 가진 꽃미남으로, 무려 십자가 목걸이를 매고 있다! 마늘 반지나 말뚝 피어싱 같은 건 없나?

2 카티스토

원거리 폭발형 공격으로 광역 데미지를 주는 마법 공격수. 암흑 동맹의 최하위 계급으로 뺨서들짓이나 하다가 로도급 운빨로 매번 전장에서 살아남은 그는 희귀한 물질들을 긁어모아 강력한 폭탄을 제작해 암흑 동맹의 일급 딜러로 재탄생한다.

3 엘류인

원소의 힘을 사용해 적을 한중 재로 만드는 근접 공격수. 유랑극단의 무희 출신인 그녀는 우연한 계기로 자신이 EXO의 찬열처럼 불을 다루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녀가 소중하게 여기는 전용 아이템은 마법의 금속 덩어리로 만든 검 두 자루다.

4 위벤

무지막지한 힘으로 건물을 종이장처럼 찢어버리는 톱파워 근거리형 캐릭터. 연금술을 가능케 하는 '심연의 다이아몬드'를 찾아 떠난 그는 이 사악한 보석에 영혼을 빼앗겨 몸의 절반이 보석처럼 변하는 저주를 받았다. 발가락 잘라서 페라리 사겠네!

〈AOS〉가 특별한 네 가지 이유

① 퓨전의 맛이란 이런 것!

던장찌개에 있어서는 제이미 올리버보다 하선정씨가 갑이듯, 국산 기술로 만들어낸 〈AOS〉는 국내 유저들의 입맛을 충족시키려 노력했다. 〈스타크래프트〉와 같은 퀘터뷰 시점이 아닌 3인칭 백뷰 시점을 차용해 MMORPG나 FPS에 익숙한 국내 유저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신경 썼다고.

② 돈이 없어도 꼬들리지 않아

〈AOS〉는 소위 말하는 '개념찬' 국산 온라인 게임의 '착한 유료화'를 표방했다. 피같은 용돈과 월급을 털어서 아이템을 장바구니에 담아서 하는 부담스러운 유료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열심히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 이용자들이 담백할 아까는 데에 한 뼛 했다. 물론 플레이어의 레벨은 깊어가는 다크서클과 비례하겠지만 말이다.

③ 지루하지 않은 속전속결 게임

양 팀의 실력이 비슷할 경우에는 복덕방 할아버지와 국수집 김씨 아저씨 장기 두듯 지루한 게임이 계속될 수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유닛과 건물들의 능력치를 낮추어 반 강제로 눈물겨운 공격 위주의 플레이를 조장했다. 빠르면 20분, 장기전도 30분이면 결판이 나니 이 얼마나 시원시원한가!

④ 초보자 왕따 시스템은 이제 그만!

처음 LOL을 즐기는 사람들이 부모님의 안부를 묻는 거친 유저들의 멘트에 상처를 입고 게임을 그만두는 반면, 〈AOS〉는 초보 유저들을 위한 두 단계의 튜토리얼을 제공한다. 심화 튜토리얼을 통해 실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옥같은 상황을 미리 겪고 나면 프로 유저들도 불알 친구처럼 친숙하게 느껴질 테지.



① 베인폴트

한 번의 공격으로 여러 적의 배대지를 뚫어버리는 1타 3피 관통형 맛을 즐기는 원거리 공격수. 근육질의 상반신과 종마같은 두 쌍의 말뚝지를 가진 그는 동족상잔을 손수 실현한 탓에 무거운 청동 투구를 쓰는 형벌을 받았다.

① 셸린

베인폴트처럼 한 번의 공격으로 적 3명의 배대지를 뚫는 관통형 마법사. 원래는 자연을 벗삼아 살아가는 평화주의자였으나, 무식한 괴물의 공격에 보금자리를 빼앗긴 그녀는 아мага 돌아 자신도 모르게 활시위를 당겼다고. 누나 몸매만큼 화끈하시네요.

① 유니스

귀여운 외모와 달리 가치없는 원거리 3연타를 구사하는 마법소녀형 캐릭터. 연약한 소녀처럼 보이지만, 아첨법 보정을 제대로 받은 그녀는 전장에서 벌벌 떨어 무시무시한 별똥별 마법을 구사해 괴물들을 추풍낙엽처럼 쓰러뜨린다.

① 듀에인

노인 공경을 외치며 철퇴와 머신건을 휘두르는 근접 공격수. 근접형 캐릭터 주제에 총을 사용하다니 몹시 어색하지만 설정상 총이 고품품 급이라고. 어쨌든 노인은 백발이 진리라는 일러스트레이터의 컬러 철학이 모범적으로 현실화된 캐릭터랄까.

What the Hell!

게임 세상 속 지옥 나들이

 지옥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궁금한 이들을 위해 준비했다. 왜 하필 게임이냐고? 게임만큼 지옥을 다양하게 우려먹는 콘텐츠도 찾기 힘들다. 뭘든 돈 들인 만큼 상상력도 구체화되는 법! BY 맥사마



1 갓 오브 워 3

STEP 1 일반적인 지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인(?) 지옥'이다. 안심해. 주인공처럼 재수가 끝장나게 좋은(?) 이가 아니면 생전에 가벌 일은 없다.



2 단테스 인페르노



3 지옥의 군단

갓 오브 워 3

그리스 신에게 빅엿을 먹고 피붙이를 싸그리 잃어버린 스파르타 대장군 '크레토스'의 호쾌한 복수극. 그에게 지옥이란, 마음에 안 드는 하데스란 종자가 숨어 있는 따뜻한 반지하 방에 불과하다. 무섭긴 개불, 지옥도 죽어야 가는 거지, 앤 죽지 않는데 지옥이 무서울 리가...

X된 놈: 하데스를 비롯한 지옥 동무 일동

Hell Level: ★★☆☆☆

 별로 안 무섭다. "스파르타!"를 외치는 장군한테 지옥 따위 X도 아닌 거지.

단테스 인페르노

단테의 <신곡>에서 설정을 빌려왔고 9단계로 된 지옥이 등장한다. 주인공이 악당을 조져놓고 고향에 돌아왔더니 애인이 지옥으로 납치돼 울며 겨자 먹기로 지옥길에 오른다. 어휴, 말만 들어도 뼈치네. X된 놈: 남 좋은 일만 하고 고향 오자마자 관우처럼 지옥 관문 돌파에 나선 주인공

Hell Level: ★★★★★

 제목부터 "나 지옥 이야기할 게임 짱짱짱!" 라고 외치고 있지만 그닥 감흥은 없다.

지옥의 군단

젊은 왕이 신에게 간죽대다가 죽어서 지옥 감옥에 갇힌다. 더럽게 긍정적인 이놈의 왕은 지옥의 고블린을 고통 삼아 이참에 지옥을 '정ㅋ벅ㅋ'할 생각이다. 이 왕에게 지옥은 그저 좋은 노예 보충지에 불과한 거지. 현세든 지옥이든 대장질해본 생퀴들은 갑질할 생각뿐이네.

X된 놈: 뱃속까지 마인 놈이 지옥에 오는 바람에 노예 모드가 된 고블린

Hell Level: ★★★★★

 지옥에 떨어지게 '창조 경계'를 도모하면 대장질이 가능하다. 뽕이뽕이!

STEP 2 지옥이 되어버린 세상

남의 땅이니 지옥이 되든 말든 우리는 상관없는데 게임 속 주인공은 오지랖이 넓으니 '굳이' 경험하는 지옥. 원조 지옥보다 더 지옥처럼 느껴지는 건 함정이다.



디아블로 3

디아블로라는 악마의 지상 세계 진출기. 이를 막으려는 천사와 인간의 피종 싸는 투쟁기는 덤. 이번 작품에는 악마로부터 역관광당해 지옥이 되어버린 천상계가 등장한다. 맑고 고운 배경을 벗 삼아 악마들이 날뛰는 모습은 오히려 더 섬뜩하다.

X된 놈: 악마에게 통수 맞은 천사 일동

Hell Level: ★★★★★



지옥은 어디에 있는지가 아닌, '누가 있는가'로 결정하는 것이다.



단간론파

초고교급 재능을 지닌 이들만 입학이 허락된 고등학교. 이곳에 입학하자마자 감금된 신입생들이 벌이는 배틀 로열. 누군가를 죽여야 탈출할 수 있고, 범인을 잡아야 살 수 있는 이들의 진검 승부. 오리지널 지옥은 아니지만 그보다 끔찍한 지옥도가 펼쳐진 이곳이야말로 진짜 지옥.

X된 놈: 초고교급 '운'을 가졌기에 입학에 성공한 주인공

Hell Level: ★★★★★



인간의 존엄을 잃는 순간, 그곳에 지옥이 도래한다.



알바지옥2000

제목 그대로 당신이 알바가 되는 게임이다. 알바 해서 돈도 벌고, 새로운 알바 일도 찾고, 번 돈을 사행성 물건 뽑기에 탕진해 본다. 먹고살면서 '알바'를 해본 사람이라면 때로는 알바 장소가 지옥처럼 느껴졌을 테지? 그런 의미에서 골라봤다. 지옥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거든.

X된 놈: 괜히 후해서 이 게임을 시작한 당신

Hell Level: ★★★★★



역시 지옥은 굳이 경험할 필요가 없다. 그게 알바라면 더욱더! 게임은 더더더욱더!

STEP 3 지옥 강림

지옥 무경이 열려서 지옥과 현세가 '붕탁'해 한 몸이 되었다. 이젠 뭐 빠도 막도 못하는 상황이다. 지옥이 궁금한 것까 지옥 구경을 하는 건 다른 얘기라고! 전쟁!



헬게이트

제목이 곧 내용이다. 지옥문이 열렸고, 악마가 쏟아져 들어왔다. 세상은 망조가 들었다. 그들이 지배하는 꿈도 희망도 없는 잿빛 도시의 모습, 이것이 바로 지옥이다. 살아남은 이들은 숨을 고르며 악마들을 퇴치할 방법을 모색해서 주인공이 등장하게 사삭 밀밥을 깔아준다. 어휴, 이 불쌍한 주인공!

X된 놈: 너, 나 그리고 우리!

Hell Level: ★★★★★



출퇴근길을 점령한 악마들의 위엄!



데빌 서바이버 2

갑자기 이상기후, 악마, 미지의 침략자가 들이닥친다. 매일 1회 벌어지는 데스 매치에 실패하면 인류는 즉시 멸망. 일주일의 카운트다운을 앞두고 악마를 포섭해 싸운다. 매일 X줄 타는 마감을 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X된 놈: 종말 운운하는 것도 갑갑한데 대타로 싸워야 하는 주인공 일당

Hell Level: ★★★★★



살이 고달라지는 재능을 뚫은 건 그 자체가 지옥형 특급열차를 예의박한 셈.



진 여신전쟁: 녹턴 3

세상이 일순간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한다. 나약한 인간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만으로도 지옥 확정! 핵전쟁 후 폐허 같은 세상, 악마가 되었기에 살아남은 주인공의 이야기다. 우리는 나약한 데다 악마도 아니잖아? 그러니 안 될 거야... 헤헤헤.

X된 놈: 악마가 아닌 모든 이

Hell Level: ★★★★★



인간을 포기하고 악마가 되어 살 수 있다? 나쁘지 않은데?

Comment

ULTIMATE
ENTERTAINMENT GUIDE



미국의
흔한
틴에이저





안녕 한 번쯤은 날 들어 봤겠지
 너의 사랑니
 이미 어릴 때 모두 겪었다
 생각하겠지

네 맘 벽을 뚫고 자라난다
 특별한 경험 Rum Pum Pum Pum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온다
 새로운 경험 Rum Pum Pum Pum

아예 머리가 아플 걸
 잠도 오지 않을 걸
 년 쉽게 날 잊지 못할 걸
 어느 날 깜짝 나타난
 진짜 네 첫사랑

- 에프엑스의 2집 음반 <Pink Tape>
 타이틀곡 '첫 사랑니' 중에서 -



진단명: 첫 사랑니

 이 정도면 큰 병원 가서야
 할 것 같네요. BY 손안나



"맘 흘리는 외국인은 길을 알려주자,
 너무 더우면 까만 긴 옷 입자".

f(x)의 'Hot Summer' 중 한 대목이다. 처음 이 노래 가사를 들었을 땐 정말이지 귀를 의심했다. f(x)가 섹시함이나 청순함을 어필하는 팀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런 '병맛' 같은 가사를 진지하게 노래하는 걸그룹이라니...! 하지만 지난 4년 간, 육하하면서도 흥얼거리게 되는 중독성 짙은 f(x)표 가사는 고퀄리티의 사운드와 결합해서 조금씩 진화해왔다. 따지고 보면, 그녀들이 노래하는 '10대'의 언어는 어차피 어른들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감성이다.

f(x)는 소녀다. 멤버들의 실제 나이가 20대 초 중반이라는 사실과 관계없이 그녀들이 지향하는 세계관은 사춘기 소녀의 그것이다. 'NU 예뻐오'에서 친한 언니에게 "지금 이 감정은 뭐죠?"라고 물으며 혼란스러워하던 소녀는 '일렉트릭 쇼크'에서는 급기야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 "숨이 가쁘고 열이나요. 말문이 막혀, 컷가는 땡땡땡, 눈이 막 부셔, 머릿속은 빙그르르르"라며 자신의 증상에 대해 털어놓는다. 어른인 우리만 알고, 소녀들은 모르는 그 병명은 일단 시피 바로 첫사랑이다. 그리고 이번 앨범 <Pink Tape>에서는 이 낯선 감정을 "머리가 아프고, 잠도 오지 않는" 사랑니의 통증에 빗대어 표현한다. 정말이다. 소녀에게 첫사랑은 낯설고 혼란스러운 통증이다. 지금껏 많은 대중가요에서 그려왔듯이 첫사랑의 감정을 마냥 아름답고 행복한 걸로 포장하는 건, 어찌면 어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항상 모든 걸 미화하는 '어른의 화법'이었는데도 모른다.

대부분의 걸그룹이 에이핑크 류의 깜찍함 아니면 씨스타 류의 섹시함을 어필하지만, f(x)는 굳이 야시한 옷을 입고 엉덩이를 흔들거나 "아무것도 몰라요"식의 연기를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확실히 어른 남자를 끌어당기는 뭔가가 있다. 학창시절, 당신이 처음 좋아했던 그 여자를 떠올린다면 아마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다. 태어나 처음 느낀 첫사랑의 감정에 함께 동요하며, 설레는 맘으로 당신이 내민 손을 잡아주었던 그때 그 여자에 말이다. 



여, 여자-!!

신 필살 오의
대방귀
인간차륜!!

카운트 시작-!
원.
투.
스리.
날 매트에
눅힌 것은
네가
처음이다...!!
아무
한
허공
듯

유쾌한 열혈 만화 〈돌격! 남자 훈련소〉

작가 이말년이 〈복두의 권〉 캐릭터로 〈헌터X헌터〉를 그리면 이런 과적이 탄생할지도 모르겠다. BY 조용재

→ 만화방 구석에서 우연히 발견한 과작 소싯적에 취워한 담배 냄새와 축축한 공기가 감도는 만화방 벽장을 소라넷 셀카 뒤집듯 탐닉하던 기억을 조금씩 더듬어 보자. 생소한 만화가 가득한 벽장에서 만화책을 하나씩 꺼내어 보며 표지와 제목만으로 내용을 유추해 본다. 그리고는 이걸 읽을지 말지를 결정한다. 글러브를 긴 채 피땀을 흘리는 주인공이 그려진 〈더 파이팅〉이 권투 만화라는 걸 눈치 채지 못할 사람은 없다. 팬티를 드러낸 미소녀와 어리바리한 남자, 그리고 그 주변에 늘어서 있는 수많은 여자들. 제목은 〈러브 in 러브〉. 이걸 누가 봐도 운 좋은 짜질이가 여자들에 둘러싸여 '어쩔 수 없이' 온갖 아한 상황에 처한다는 내용의 '하렘 연애물'이다. 이제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빛 바랜 벽장 한 구석으로 다가가 누가 봐도 과당한 제목의 만화책을 한 권 꺼내어 본다. 딱 봐도 수상하다. 〈돌격! 남자 훈련소〉라니. 중년풍의 캐릭터들이 비장한 얼굴을 하고 이쪽을 바라보고 있다. 전장, 방금 전에 꺼냈다가 집어 넣은 팬티 차림의 미소녀가 원망하듯 내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 "오빠 취향은 그 쪽이었어?"



Thanks daddy...!!

신나는 주제가 감상하기!

업그레이드 수학



수학을 포기한 그대에게 바칩니다.

BY 김희성

에디터 친필
응원 메시지
담긴 수학책
받기!



→ 나는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수학을 곧잘 했다. 수학을 잘한다는 이유로 수학 조장이 돼 반에서 수학을 못하는 친구들을 가르쳐 주기까지 했었으니까 말이다. 문제는 고등학생 때부터였다. 집합 이후로 도무지 진도가 나가질 않았다. 답안지를 봐도 모르겠고 과외벌도 먹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수학을 포기했다. 고 3때, 수능을 백 일쯤 앞두고 갑자기 점수가 쑥쑥 올라 결국 고득점을 맞을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런 드라마틱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에디터와 당신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런 반전 드라마 같은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TV에 나와서 자신의 성공담을 이야기하는 인생 역전의 주인공들을 볼때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전교 꼴찌가 전교 1등이 되고,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게 누구한테나 일어나는 일은 아니니까. 인생 역전 스토리는 늘 대중들에게 팔린다. 한때는 자신과 비슷했던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도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얻는다. 하지만 거기까지. 그들의 성공 레시피를 알게 된다 해도 그걸 실천하느냐 마느냐는 본인에게 달렸다. 그래서 그들의 성공담을 듣고나면 자기계발서를 읽고 닳을 때와 비슷한 허무함이 밀려온다. 수학이든 인생이든 필승법이 존재한다 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는 건 없다. 감화를 받는 것도 잠시, 다시 원점이다. 성공한 인생을 사는 법도 결국엔 수학 공부와 비슷한 거다. 어렵고 막막해 보여도 일단 시작하는 게 낫다.

모를 땐 답안지를 보더라도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풀고 또 풀어야 한다. 전교 1등으로부터 수학 잘하는 요령을 전수받았다고 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수학 점수는 그대로다. 아, 한동안 잊고 살았던 애중의 수학을 떠올린 건 2013년 6월호 표지 모델이었던 기상캐스터 비키 양의 아버지께서 수학 문제집을 내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에디터는 비키 양의 아버지 강순식 선생님께 수학 잘하는 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던졌고 답변을 받았는데, 그 답변이 자꾸만 인생사에 대입됐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라. 당신에게는 어떻게 읽히나? 수험생이라면 진짜 수학 실력을 '업그레이드' 하는 계기가, 수험생이 아니라면 '인생의 왕도'를 깨우치는 기회가 되길. ☺

→ 비키 아버지의 '돌직구' 수학 상담소

상태가 심각할수록 쓴 소리가 더 도움이 되는 법...

Q. 수능까지 100일이 채 안남은 고3 수포생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뭐라도 좀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A. 지금 와서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는 않습니다. 암기 과목에 집중하는 게 수능 점수를 올리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6월, 9월 모의고사를 분석하고 그와 같은 경향을 중심으로 반복학습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Q. 예전에 틀린 문제를 답지 보고 달달 외웠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풀어보니 또 틀리네요.

A. 수학은 논리적인 학문이라 단순 암기로는 부족합니다. 이해와 함께 암기가 되어야 응용할 수 있어요. 이해의 기본은 역시 '왜'라는 의문에서 출발합니다.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을 하나하나 물어보고 왜 이 조건이 필요한지, 또 이 조건은 어디에 쓰이는지, 이 조건이 없으면 뭐가 달라지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해했을 때 비로소 그 문제를 제대로 이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고민 없이 단순 암기로는 전혀 다른 문제에 응용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똑같은 문제인데 또 틀렸다면, 그건 집중력부족이거나 공부를 건성으로 하거나 그런 경우겠지요. 정상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학생입니다.

Q. 한 문제 푸는데 4시간씩 걸리더라도 완벽하게 푸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양을 푸는 게 더 좋은 공부방법인가요?

A. 기초를 쌓기 전에는 4시간이 아니라 4일을 생각해도 문제를 못 풉니다. 기초를 쌓는 단계에서는 두세 번 시도하고 안 되면 답안지를 봐야 합니다. 어느 정도 기초가 쌓인 후에는 4시간이 아니라 4일이 걸려도 반드시 자기 힘으로 풀겠다는 욕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신속, 정확하게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집니다.

Q. 문제집을 많이 푸는 것 vs. 하나를 외울 정도로 풀어나가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좋을까요?

A. 기초를 쌓을 때는 하나의 문제집을 여러 번 보며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 후에 다른 문제집을 여러 권 푸는 게 좋습니다. 문제를 다양하게 풀면서 사고의 폭을 넓혀야 하고, 암기 과목은 아니지만 기본 유형은 외워서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집을 풀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1. 문제를 스스로 풀어본다.
2. 안 풀리면 두 번 정도 시도해보고 그래도 안 풀리면 답안지를 본다. 이때, 정이나 기본 공식을 정확히 이해한다.
3. 답안지를 보지 않고 다시 한 번 답안지를 작성해본다.

Q. 이상하게 수학 교과서나 문제집을 풀었을 땐 다 아는 내용 같은데 막상 모의고사에선 배웠던 내용을

적용하기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가장 큰 적은 긴장감입니다. 평상시에 충분한 연습으로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길러두면 평상심이 생기고 긴장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긴장하면 문제가 더 안 풀려요. 모의고사는 쉬운 것부터 풀고 어려운 문제는 나중에 푸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시간 관리하기도 할 수 있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Q. 급합니다! 수학 잘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A. 학문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굳이 꼽자면,

1. 한 번 푼 문제는 기억하라.
2.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라.
3. 남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하라.
4. 자신의 능력보다 한 단계 높은 수학을 공부하라.

수학과 미녀의 상관 관계

1 2013년 2월호 표지 모델 박현화는 이화여대 수학과 출신이다. <수학의 여신>이라는 책을 내기도 했다.



2 2013년 6월호 표지 모델 비키는 어릴 때 수학을 즐겼다. 아버지의 증언에 따르면, 초등 6학년 때 중1 과정을 가르쳤는데, 제법 수학, 과학에 소질이 있었으며 노트 정리도 깔끔하게 잘하고 이해력도 빨랐다고, 비키를 과학교에 보내야겠다고 생각할 정도였다고 한다.



3 이젠 원빈 여친이 된 이나영의 취미는 수학 문제 풀기다. 머리가 복잡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면서 해소한다고, 그러면 더 스트레스 받지 않나?



4 스페인의 모델 카일라 콜린스는 3월 14일 '파이데이'를 맞아 속옷 차림으로 수학을 가르치는 창의적인 교육 영상을 공개했다. 힐벗은 그녀의 등에는 뽀뽀하게 수학 공식이 적혀 있었다.



이것이 비키를 잉태한 아버님의 깔끔한 정리!

↑ 고등수학의 기초를 튼튼하고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는 수학 기본서 <업그레이드 수학 1> (상하) 강순식 저음/씨실과 날실/ 22,000원

Smoke & Drink

뭐가 더 맛있어요?

새골 예쁜 여자, 손 예쁜 여자가 좋다고?
 그게 무슨 똥 같은 소리냐.
 입은 그리 말해도 눈은 거짓말 못 한다.
 당신은 풍만한 몸매와 탄탄한 몸매,
 이 둘 중 하나에는 무조건 벌떡 반응하게
 되어 있다. 중요한 건, 그래서
 둘 중 뭐에 더 입이 끌릴 거냐는 거지.



**FULL CUP!
 FULL TASTE!**

난 풍만한 맛을 원해

G컵 브라 밖으로 넘치는 시노자키 아이의 부드러운 풍만함에 숨이 넘어갈 듯한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지? 독도 꼭대기에 태극기를 꽂는 비장함으로 시선을 그녀의
 가슴 깊숙이 꽂고 그 풍만함을 음미하다 보면 이런 확신이 든다. 아! 태극기부터 우리
 눈은 풍만한 것을 좇도록 설계되었구나! 눈뿐 아니라 온 감각이 풍만하고 풍부한 것에
 끌린다. 입과 혀도 예외 없이 풍부한 맛을 찾는다. '더 원 임팩트'의 풍부한 맛과 향은
 감흥 없는 평범한 1mg 담배와는 풍부한 맛의 클래스가 다르다. 강렬하게 넘어가는
 존재감 확실한 묵 넘김에 입안에 담배의 맛과 향이 풍만하게 넘쳐도록 감돈다. 담배
 줄기의 위쪽에서 햇볕을 충분히 받아 잘 익은 담뱃잎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깊은 맛을
 내기 위해 땃벌레 몸을 번 태양초 고추 같은 풍부함이 연상되는 이유가 있었고. 해변에
 누워 광합성 하는 비키니녀의 터질 듯 풍만한 가슴이 아마 이런 맛이겠대.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늘은 즐기고 싶어라~



너 오늘 나한테
터지고 싶나?

야, 내가 그렇게
단단해?



**HARD TOUCH!
HARD TASTE!**

난 단단한 것이 좋아

적당하게 늘씬한 근육이 드러나는 팔과 다리에
물렁한 몰살 없이 매끈한 허리 라인, 그 아래로
떨어지는 탄탄한 엉덩이와 날렵한 발목이 그리는
보디라인의 향연! 그렇다. 우리는 전지현처럼
탄탄한 몸매의 여성을 바라볼 때 아찔하게 시선을
빼앗긴다. 민인이 갖고 싶어 하는 그녀의 몸매에
입 맞추고 싶지 않을 남자가 있을까.
'더 원 임팩트'의 하드 필터는 이런 남성의
입맛(?)에 맞게 한층 단단하게 강화된 필터를
장착했다. 입에 닿는 담배의 끝은 침에 젖어
촉 늘어질 일도, 둔탁한 몸매에 덕지덕지 붙은
셀룰라이트처럼 보기 싫게 우글거리며 쪼그라들
일도 없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남자의 입이
탐내는 단단한 맛이 아닐까?

클라우스탈러 무알콜 맥주



아아, 취한다!!

BY 손안나 MODEL 여민정



'노래방 맥주'를 마셔본 적이
있나? CEUS, HIT, ELITE 등...
법적으로 주류를 취급하면 안
되는 노래방에서 파는 알코올 농도 0.5%
이하의 저알코올 짝퉁 맥주 말이다. 에디터의
기억으로는, 이미 취한 상태에서 마셨음에도
블루하고 정말 맛있었다. "자니넌! 여자래!"
라며 소찬휘의 노래를 열창하다가 보리차에
알코올을 섞은 듯한 그 아리구리한 음료를
마시고는 친구의 먹살을 붙잡았다. 이걸 정녕
내 목구멍에 넣으라고 사온 거냐며,

밀러 맥스 라이트, 하이트 제로 등 최근
경쟁적으로 출시되는 무알콜 맥주를 보며
'알코올 빠진 맥주는 앙고없는 썸뺀'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에디터의 이런 편견을 깨트려준
제대로 된 무알콜 맥주가 있었다. 클라우스
탈러. 근성의 맥주 회사 빈딩은 맥주의 나라
독일에서 곳곳이 무알콜 한우물만 팔고 그
결과 탄생한 맥주가 클라우스탈러다. 맛도
꽤 본격적이다. 특 쓰는 과일 향에 향긋하게
퐁겨오는 꽃향이 왜 이 맥주를 두고
'호기든 무알콜 버전'이라고 하는지 알게
한다. 클라우스탈러의 제작 공정은 일반
맥주와 똑같으며 나중에 알코올 성분을 빼는
작업이 하나 더 추가 될 뿐이다. 그래서인지
물츠와 흡의 맛이 제대로 느껴져서 무알콜인
걸 알면서도 자꾸만 취한다.

술 깨나 악한 남자라면 섹스 전 분위기 조성
시 이 맥주를 마시자. 취하는 듯 몽롱한
기분은 들지만, 이걸 훌쩍거리다고 절대
당신의 뽀름이가 고개 숙일 일은 없을
테니까. 🍷

주의: 캔에서는 '쇠 비린내가 심하게 난다는 평이
많으므로 아왕이던 병을 선택하자. 어차피 용량도
330mL로 같다.



← CLAUSTHALER
CLASSIC Alkoholfrei
0%, 330mL
1,380원(홍블리스 기준)

만질수록
맛이 어때요?



Motor

CAR OF THE MONTH



겸상거부

兼床拒否

Volkswagen The New Golf

어디 내 밥상에 손가락을 얹어? BY 박정욱

골프의 인기 힘든 주치법



“잘 차려진 밥상에 손가락만 얹었을 뿐입니다.” 2005년 청룡영화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배우 황정민의 수상 소감이다. 온 국민이 명배우의 겸손에 감동했지만 ‘폭스바겐 골프’만은 ‘손가락 수상 소감’이 곱게 들릴 리 없을 듯하다. 기껏 밥상 다 차려놨더니 누가 자꾸 제 밥상에 손가락을 얹으려 하니 말이다.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소형 해치백은 폭스바겐 골프의 독주 무대였다. 많은 신차가 골프를 왕좌에서 끌어내리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소형 해치백 시장은 골프가 정성스레 차려놓은 밥상이다. 세단이 판치던 대한민국에서 해치백 시장은 말 그대로 불모지였고, 그런 ‘해치백의 무덤’에서 골프는

선구자였다. 실용성과 경제성으로 무장한 골프가 해치백에 대한 인식을 바꾼 것이다. 많은 자동차 브랜드가 골프를 벤치마킹했고, 해치백 차량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런 골프의 밥상이 위협받고 있다. 엄청난 녀석들이 손가락을 들이밀고 있는 것이다. 손가락의 주인은 수입차의 양대 산맥 벤츠와 BMW다. 지난해 말 BMW가 등급에서 유일하게 후륜을 채택한 1시리즈 해치백을 출시했으며, 벤츠도 이에 뒤질 새라 지난 8월 A클래스를 출시했다.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두 브랜드의 공세에 웬만한 자동차라면 지레 겁먹을 만도 한데, 골프는 순순히 밥상을 내줄 생각이 없는 모양이다. 보란 듯이 한층 완벽해진 7세대 골프를 선보인 것이다.

골프의 역사를 그대로 계승하면서도 체중을

100kg이나 질감한 7세대 골프는 길어지고 낮아진 차체로 더욱 스포티하게 변모했다. 가벼운 차체 덕분에 순간 가속은 더욱 좋아졌고, 넓은 공간으로 뒷좌석과 트렁크가 한결 여유로워졌다. 새롭게 변신한 골프에는 ‘완전히 개정된 7차 개정 교과서’라는 별명이 붙었다. ‘해치백의 교과서’로 불려온 골프에 잘 어울리는 별명이다.

골프가 속한 C 세그먼트는 원래 차체 길이가 4,300mm 이하인 차종의 등급을 의미한다. 골프는 이 세그먼트에서 오랫동안 부동의 1위를 지키면서 ‘골프 세그먼트’라는 말을 탄생시켰다. 어쩌면 벤츠 A클래스와 BMW 1시리즈의 도전이 골프로서는 ‘세그먼트 타이틀 매치’가 될지도 모르겠다. 과연 챔피언 벨트는 누구에게 돌아갈까? 

Motor / Test Drive



맥심 열정과
함께한
시승 영상



「5,790만 원」



MAXIM
시승기
#37

2013 NISSAN 370Z

현아보다 섹시하고, 연아보다 정열적인 자동차 닛산 370Z. 이 어마어마한 녀석 이름이 원래 '정숙한 여자'라고?! 지기 싫어하는 MAXIM이 'Fair Lady Z'에게 끌릴 수는 없지! MAXIM이 자랑하는 최고의 요조속녀를 대동하고 그녀를 탐색하러 나섰다.

BY 유승민 PHOTOGRAPH YuD WORDS 조웅재 장선영 박정욱
MODEL 장선영(MAXIM 경영지원팀 주임)



남자 :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야! MAXIM의 공식 일짱 선영 씨마저 승민 선배의 음탕한 자동차 화보에 동원되다니! 이런 거 안 하는 거 아니었어?

여자 : 딱히 싫어하는 건 아니었는데... 그냥 내가 에디터가 아니다 보니 나와도 독자들이 낯설어 할까 봐 그랬지. 그런데 작년부터 계속 부탁하시길래 더 거절하기 죄송해서.

남자 : 이 생쥐가 수석 에디터님의 작품 활동 보고 음탕하다니. 나의 삼고초려를 욕되게 하지 마.

남자 : 그나저나 충격인데? 선영선 완전 청순하고 예뻐서 내 맘 속의 '솔의 눈'이었던 말이에요. 저렇게 조신하게 지내다 양강집 규수가 될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호피 째치라니!

남자 : 낯산 370z의 일본 내수 시장 모델명이 '페어레이디 Z(Fair Lady Z)'거든. '정숙한 여자'라는 뜻이지. 그러니 모델도 단아하고 정숙한 여자를 섭외한 것뿐이야. 열내지 마.

남자 : 헐, 그래서 정숙한 여자를 데려다 저렇게 입히고 찍은 거임? 대체 저게 어딜 봐서 정숙한 콘셉트인가요?

여자 : 난 재밌었어. 그리고 저렇게 섹시하고 정열적인 스포츠카의 이름이 Fair Lady라는 것도 흥미롭지 않아? 폭발적인 스피드 마신에 여성성을 부여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은데, 한술 더 떠서 '정숙한 여자'라니!

남자 : 안전 최고 속도 240km/h의 리미트가

걸려 있지만, 사실은 최고 속도 280km/h라는 뜨거운 욕정을 숨기고 있는 여인네지. 'Fair Lady'란 거의 반어법에 가까운 것 같은데?

남자 : 이 곡선도 그래요. 차를 이렇게 섹하게 빙어놓고 그런 작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농담이자 역설이죠.

여자 : 정숙한 여인이 이런 폭발적인 몸매를 갖고 있어서야 조신하게 살긴 어렵겠네. 남자들이 가만히 두질 않을 거 아냐. 이번 신형이 6세대 Z라던데, 그럼 5세대가 그 전에 나왔던 350z인가?

남자 : 아니, 그건 4세대. 이거랑 거의 똑같이 생긴 5세대 370z가 또 있어. 2011년에 MAXIM에서 그걸로 크게 화보 촬영 한 번 했잖아. 외관은 별로 안 바뀌었어. 우선 앞 범퍼에 세로로 나 있는 LED 데이라이트가 전에 없던 거고..

남자 : 휠이 멋져졌네. 2년 전에 시승한 370z는 좀 심플했어. 그래서 보배드림 보면 휠 튜닝한 370z 꽤 많아. 이젠 바꾸는 사람 잘 없겠다. 그게 돈 150만 원 정도 획 날아가는 거거든.

남자 : 흠시 그런 거 다 차 값에 반영된 거 아냐? 차체 무게도 6세대로 바뀌면서 100kg 넘게 가벼워졌다고 그러던데?

여자 : 아니, 물어봤는데 가격 5세대 Z랑 똑같아. 휠, 데이라이트, 경량화... 얼핏 봐도 몇 백만 원 어찌 개선된 거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싸진 거야.

남자 : 선영선 어때? 여자들은 이런 스포츠 카

타는 남자 매력이나? 똥 가?

여자 : 흠, 똥 같 것까진 없고, 친구들 보기에 과시용으로는 나쁘지 않겠네요. 사실 원래는 스포츠카나 컨버터블 같은 거 타고 다니는 애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Z가는 좋아요. 이렇게 앞에 길고 뒤에 짧고 야구모자 같이 생긴 거 좋아해요.

남자 : 아항, '롱노즈-숏데크' 타입을 좋아하는구나? 옛날 차들이 이래. 클래식이지. 상당히 비싼 취향인데? 포르쉐나 페라리가 이런 모양이거든.

남자 : 370z는 너무 포르쉐를 의식하는 것 같아요. '포르쉐는 벼간 상대를 만났다' 광고 기억나죠?

남자 : 포르쉐911을 라이벌로 지목하면서 도전장을 던진 거지. 사실 해볼 만한 싸움이야. 엄청난 성능에 5천만 원대라는 착한 가격으로 무장했으니까.

남자 : 가격 메리트가 크긴 하죠. 오죽하면 '가난한 자의 포르쉐'라는 별명이 붙었겠어요?

여자 : 에에? 그런 말이 있어? 너무하다. '가난한 자의 포르쉐'라니. 얘가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아. 갑자기 더 370z 편을 들고 싶어졌어.

남자 : 느닷없이 내놓고 포르쉐를 디스했으니 포르쉐 입장에서선 뻥뻥만도 하지. 그 광고 요즘도 하나? 솔직히 좀 오버인거 같아요. 가격 차이가 얼마인데, 911이 1억2천 넘으니까 반 값도 안되는 차한테 급 싸대구를 맞은 거죠.

남자 : 헐, 그렇게 비싸? 하지만 포르쉐911에 비해 성능은 조금도 꿀리지 않잖아. 2배는 좀...

닛산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럭셔리하고 비싼 차를 만드는 브랜드가 아니라 그런가?



: 하지만 닛산은 포르쉐 아니라 세계 어떤 명차에게도 기술과 실력으로는 지지 않는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 "폼격이니, 전통이니, 다 대단한 거 알겠으니까 잡소리 집어차우고 트랙으로 나와라" 이거야.



: 그리고 실제로 붙었을 때 진짜 안 자잖아요. 닛산의 슈퍼카 GTR도 그렇구요. 부가티랑 뜨고, 벤들리랑 뜨고, 심지어 전투기랑도 1대1 경주를 뒀죠. "모담우웅!" 유럽 명차들 입장에선 진짜 붙기 싫겠다. 이거도 본전이지 않아요.



: 그러면 370z의 가격은 일종의 메시지가구나. "어이, 포르쉐, 우리가 해보니까 5천이면 그만큼 만들겠는데 뭐 그리 비싸?" 하는 거죠?



: 그렇지, 아마 '가난한 자의 포르쉐'란 별명은 포르쉐 드라이버들이 만든 말일 거야. 조롱이랑기 보단 마지못해 '포르쉐'급이라고 인정하는 거지. 다만 반 값도 안하는 Z랑 동급이 된 것에 대한 불쾌함을 담아 '가난한 자의'라는 심술궂은 수식을 붙인 게 아닐까? 🤨



초심자를 위한 자동차 읽는 법

“직렬4기통? V6? 그게 머임?”

직렬 4기통, V형 6기통... TV에서 <탐가어 코리아>를 보다가 진표 형이 이런 말 하는 거 한 번쯤 들어는 봤을 거다. 엔진의 종류를 의미하는 거겠지 하고 대중 짐작은 했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몰랐다고? 당신 오늘 잘 걸렸다. MAXIM이 개념을 확실히 잡아주지.

자동차 엔진에는 실린더(안에서 연료가 타는 기통)가 여러 개 있다. 경차 모닝처럼 실린더가 3개면 3기통 엔진, 370z처럼 6개면 6기통 엔진인 거다. 그리고 모닝은 이 실린더가 일렬로 쭉 늘어서 있어 '직렬 3기통 엔진'이라 부른다. 370z의 경우에는 6개의 실린더가 3개씩 두 줄로 늘어서 있는데, 이 두 줄이 나란히 있는 게 아니라 V자 형태로 살짝

벌어져 있기 때문에 'V형 6기통 엔진(V6)'라고 한다. 엄청 쉽? 거의 대부분의 자동차 엔진은 이렇게 직렬 또는 V형이다.

크레용팝의 뼈빠빠 춤을 '직렬 5기통 춤'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애네가 한 줄로 나란히 서 있기 때문이다.



① 직렬 4기통 피스톤



② V형 6기통 피스톤

초기 엔진은 모두 직렬이었으나 더 높은 출력을 위해서는 실린더의 개수가 늘어나야 했는데, 실린더가 직렬로 늘어나면 엔진의 길이도 함께 길어져야 했다. V형 엔진은 많은 실린더를 2열로 나눠 좁은 공간에 집약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탄생했다. 따라서 V형 엔진은 다기통 고출력 자동차에서 많이 만나볼 수 있다.

SPEC CHECK

배기량	3,696cc
엔진	V6 DOHC
연료 가솔린	
복합 연비	9km/L (5등급)
최대 출력	333마력 (7,000rpm)
승차 인원	2인승
구동 방식	뒷바퀴 굴림
변속	자동 7단
최대 토크	23.5kg·m (5,200rpm)
차체 길이	4,25m
차 무게	1,545kg

3,490만원

MAXIM
시승기
#38

Benz A class

벤츠가 드디어 피 튀기는 링 위에 올라섰다.
“선수 입장!” BY 박정욱



그대, 다가서기엔 너무 멀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장난감을 사주면 기분이 좋아서 곤잘 하는 말이 있었다. “난 커서 돈 많이 벌면 우리 아빠 ‘벤츠’ 사줄 거야!” 세뇌 교육이라도 받은 걸까? 흔히 벤츠를 ‘고급 차’, ‘비싼 차’, ‘드림카’처럼 관용적 표현으로 사용하곤 했다.

그도 그럴 것이 ‘고가의 대형 세단’이 주도하던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벤츠는 독보적 존재였다. 우리네 아버지는 S클래스를 최고 드림카로 꼽으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젊은이도 마찬가지였다. SL클래스의 뚜껑을 열어 옆자리엔 새끼녀를 태우고 대로를 달려보는 게 모든 청년의 로망이었다.

하지만 BMW가 프리미엄 자동차의 입지를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세그먼트 차량으로 운전자의 구미를 맞춰온 반면 벤츠는 여전히 고개를 뺏빳이 세운 채 고가의 세단과 슈퍼카급 스포츠 머신에만 치중했다. 실용성을 외면한 벤츠는 대중성을 잃어갔다. 하이브리드와 다운사이징의 대세 속에서도 외곽으로 ‘벤츠의 정체성’을 고수하는 동안 발 빠르게 소비자의 입맛을 맞춰온 경쟁 브랜드는 꾸준히 시장을 잠식해나갔다.

높은 점프는 낮은 자세에서 나온다

벤츠의 이미지는 점점 ‘나와 상관없는 차’가 되어갔다. 오죽하면 젊은이가 벤츠를 타면 “저건 아빠 차다”라고 비아냥대겠나. 이러니 ‘벤츠=아빠 차’라는 공식까지 나오지.

그러던 벤츠가 드디어 자세를 낮추고 대중에게 다가서기 시작했다. 소형 해치백 A클래스를 대동하고 말이다. 안 그래도 피 튀기는 C세그먼트(전장 4,300mm 이하 등급의 차종) 시장 진출을 선언한 것이다. 이것은 마치 루이 비통 같은 명품 브랜드가 저가 제품의 G마켓 입점을 선언한 셈이다. 그동안 그렇게 중후한 이미지만 고집해오더니, 내심 기세등등한 소형 해치백 자동차가 부러웠나 보다. 지난 6월에는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에 ‘벤츠 VIP 라운지’를 마련하고 젊은이들에게 A클래스를 소개했다. 모차르트의 클래식이 어울릴 것 같은 벤츠가 칼 콕스의 일렉트로닉 음악을 듣겠다며 젊은이들의 축제를 찾은 것이다. 젊은이들이 A클래스를 타게 하면, 그들이 중년이 돼서 E클래스를 물고, 장년이 돼서 S클래스를 물지도 모를 일이니 그야말로 대중화의 초석이 아니겠는가.

춘추전국시대, 왕위 쟁탈전에 참전하다

1997년 A클래스가 처음 출시된 사실을 아는 이는 거의 없다. 구형 A클래스는 티코처럼 생긴 게 전혀 인기를 끌지 못하고 사라졌으니 말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Attack’의 머리글자를 딴 ‘A클래스’의 이름 그대로 반격에 나섰다. 그것도 춘추전국시대를 맞이한 소형 해치백 시장에 말이다.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다. 지난 7월에는 이 세그먼트 왕좌에 앉아 있는 폭스바겐 골프가 7세대를 출시했으며, BMW도 1시리즈 해치백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다. 아우디 A3 해치백이나 볼보 V40 같은 쟁쟁한 해치백도 고군분투하고 있다. ‘신참’ 벤츠는 이 배를 로얄에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3,000만 원대 중반의 벤츠’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3,500만 원대 안 하는 벤츠라니! 구미가 당기는 가격이다.





호부 호형 못 하는 현대판 흥길동

아이러니하게도 A클래스의 '착한 가격' 때문에 벤츠 A클래스에 대한 시선이 굵지만은 않다. 가장 불만이 많은 건 기존 벤츠 오너다. 그들은 벤츠가 대중화되는 것이 반갑지 않다. 대부분 벤츠 오너는 자동차와 함께 '품격'이라는 가치를 함께 구매했다고 믿는다. 그들은 '벤츠 타는 남자=성공한 남자가 되어야지 아무나 타는 벤츠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기름값에 찔찔매는 짚들이거나 탈 것 같은 '저렴한 디젤 소형차'라니, 그들 입장에서야 얼마나 격 떨어지는 일인가. 벌써부터 "C클래스 이상이 아니면 벤츠라고 부르지도 마!"라며 A클래스를 왕따시키고 있다. 벤츠 가문의 일원이면서도 호부 호형하지 못하는 현대판 흥길동 신세가 된 것이다.

스케이트보드 타는 조지 클루니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A클래스는 유럽에서 지난해 9월 출시 이후 6개월 만에 9만 대 이상 판매됐다. 생각보다 꽤 인기몰이를 해낸 것이다. 벤츠의 '디젤 해치백 소형차'라는 유니크함도 한몫했겠지만 다른 브랜드의 소형차에서 찾아볼 수 없는 디자인이 인기의 원동력이다. A클래스는 진보적인 디자인을 앞장세우면서도 벤츠의 아이덴티티인 '품격'을 잃지 않았다. 젊지만 결코 어리지는 않다. 전면부에는 소형차답지 않은 커다란 라디에이터 그릴이 자리 잡았다. 보닛 끝에서 거의 직각으로 뚝 떨어지는 라디에이터 그릴 중앙에는 '세 꼭지 별'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위풍당당한 앞모습만 봐서는 이 차가 정말 소형차가 맞나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언뜻 젊게 사는 꽃중년을 연상시킨다.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조지 클루니일까?

작지만 역시 호랑이 새끼

지난 8월 7일, MAXIM이 강원도 인제군 인제 스피디움에서 A클래스를 시승했다. 서킷 코스는 3.98km 고속 주행 코스였다. A클래스의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는 각기 독립된 클러치를 가진 두 개의 변속기가 각각 출수 기어와 짝수 기어를 담당해 번갈아가며 단수를 바꿔 변속했다. 즉 하나의 변속기가 가속이나 제동을 하는 동안 쉬고 있는 다른 변속기가 바로 위, 아래 단계의 기어를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가 연결하는 것이다. 그 덕분에 마치 무단 변속기처럼 변속이 부드러웠다.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제공하는 세 가지 변속 프로그램 이코노미(Economy), 스포츠(Sport), 매뉴얼(Manual) 중 매뉴얼 모드는 단연 돋보였다. 진정한 수동 변속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자동차는 흔치 않다. 일정 rpm에서만 수동 변속이 가능해 차라리 자동 변속이 나올 때가 있는가 하면, 어쭙잡은 반응속도 때문에 스틱질에 즐거워지기는커녕 더 지루해질 때도 있다. 하지만 듀얼 클러치 변속기는 마치 레이스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했다. 단수를 올리거나 내릴 때 순식간에 요동치는 계기판의 rpm 바늘과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엔진 소리, 두세 단을 지체 없이 올리고 내리는 변속 능력은 순간 가속도를 더욱 원활하게 해 자꾸 '킬치기'를 하고 싶게 만든다. A클래스는 1,600~3,000rpm에서 무려 30.6kg·g의 토크를 발휘한다. 순간 가속은 디젤차답게 훌륭한 수준이다. 하지만 대부분 디젤차가 순간 가속에는 뛰어나도 고속 상태의 가속에는 쩌병인 것과 비교했을 때, A클래스는 고속 상태에서 가속이 훨씬 매력적이었다. 120km/h에서 180km/h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매우 짧았다. 게다가

A클래스의 '흑역사'



1997년 첫선을 보인 A클래스는 작은 차체에 지붕을 높인 스타일로, 볼품없는 인테리어와 디자인 때문에 운전자들에게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스웨덴에서 실시한 '엘크 테스트'(주행 중 엘크와 같은 동물이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 경우를 가정해 이를 급히 피할 때의 주행 안전성을 측정)에서 차가 전복되면서 구매자들이 구매 계약을 집단 취소해 곤경에 빠지기도 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신형 A클래스는 '주의 어시스트(운전자 졸음 경고)', '프라-세이프(사고 전 운전자 보호)', '디스트로닉 플러스(앞차 간격 유지)', '블라인드 스팟(사각지대 경고)' 등 벤츠가 자랑하는 첨단 안전 기술을 몽땅 달고 다시 태어났으니, 이런 게 바로 타산지식이겠지?

차체의 흔들림이나 풍절음도 심하지 않고, 엔진에 무리가 가는 느낌도 없었다. 180km/h로 달렸을 때 승차감은 "작아도 역시 벤츠는 벤츠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했다. 호랑이 새끼는 역시 호랑이다. 핸들링은 여전히 벤츠다웠다. 같은 서킷에서 주행해본 C클래스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다만 차체가 가벼워서인지 고속 주행 시 스티어링 휠이 다소 가볍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때문에 코너를 고속으로 돌 때나 지그재그로 슬랄럼 구간을 통과할 때는 다소 시트 포지션이 뒤틀리는 느낌을 받았다. 또 한계속도로 U자 코너에 진입했을 때 브레이크를 살짝 밟자 뒷바퀴가 바깥으로 밀리는 오버스티어가 다소 발생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일반 주행 시에는 지장이 없는 수준이었다.

뛰어난 디자인에 주행 능력까지 지녔음에도 일각에서는 A클래스의 흥행 가능성을 의심한다. 젊은 구매자들이 벤츠의 '회춘'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 8월 26일 드디어 A클래스가 국내에 출시했다. '젊은 벤츠'의 성적표가 기대된다. 🍷



Motor news

벤틀리, 최고급 럭셔리 SUV 생산

고성능의 품질과 장인 정신이 담긴 벤틀리 모터스가 네 번째 모델 라인업으로 최고급 럭셔리 SUV를 생산한다. 기존 벤틀리 디자인 DNA를 따라 디자인되기 때문에 품격은 그대로 지키면서 타사의 SUV와 차별성을 둘 계획. 본격 판매는 2016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한편 벤틀리 모터스는 영국 크루에 SUV 라인을 중심으로 향후 3년간 8억 파운드, 한화로 약 1조 3천 731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니 랜드로버 같은 SUV 회사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듯!

벤틀리(02-3448-2700, www.bentleyseoul.com)



현대차, 더 뉴 아반떼 출시

국내 대표 준중형 세단 아반떼가 환골탈태하여 돌아왔다. 차체 길이를 기존 모델보다 20mm 늘려 안정적인 디자인에 볼륨감을 넣어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확보했다. 운전석 클러스터에는 고품질의 OLED 디스플레이를 추가해 운전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전방 좌우측에 탑재된 초음파 센서는 주차 공간을 탐색해 운전자의 주차를 돕는다. 최고출력 128마력, 최대토크 28.5kg·m의 우수한 동력 성능과 18.5km/L의 높은 연비 효율을 자랑한다.

현대자동차(080-600-6000, www.hyundai.com)



닛산, GT-R 미드나잇 오팔 스페셜 에디션 공개

닛산을 대표하는 슈퍼카 GT-R에 독특한 색상을 입힌 GT-R Midnight Opal Special Edition이 공개됐다. 하이퍼 티타늄 색상이 코팅된 드라이 카본 섬유 재질에 리어 스포일러와 초경량 단조 알루미늄 휠을 장착해 고속주행시의 공기역학적 안정성을 강화했다.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된 도색은 일광 조건이나 시야에 따라 다양한 색상으로 보인다. 또한 언스프링웨이트를 최소화시켜 핸들링과 승차감을 향상시켰다. GT-R 미드나잇 오팔 스페셜 에디션은 전 세계적으로 100대만 한정 판매될 예정이다.

한국 닛산(www.nissan.co.kr)



볼보자동차코리아, 2014년형 페이스 리프트 모델 출시

볼보자동차코리아가 세련된 디자인으로 차의 품격을 높인 2014년 페이스 리프트 모델을 출시한다. 페이스 리프트를 통해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을 선보여 젊고 다이내믹하게 진화했다. 더욱 넓게 확장된 프론트 그릴, 일체형 수평 구조의 범퍼 그릴, 그리고 날렵하게 다듬어진 싱글 헤드램프는 볼보의 젊음과 넘치는 에너지를 보여준다. 또한 자전거 이용자 감지 시스템 등의 첨단 안전 시스템도 탑재함으로써 운전자의 안전까지 고려했다. 자동차나 사람이나 얼굴을 당겨주면 젊어 보이네!

볼보자동차코리아(www.volvocars.co.kr)



새로운 변화의 시작, 인피니티 G25 스마트

인피니티가 글로벌 인기 모델 인피니티 G25의 가격을 570만원 낮춰 판매를 시작했다. 인피니티 G25의 가격 인하를 통해 젊은 층과 여성층이 세련된 럭셔리 카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모던 럭셔리의 가치를 지향했다. 인피니티 G25는 브랜드 최초 3000cc이하 엔진이 탑재되었으며 최고출력 221마력, 최대토크 25.8kg·m/4,800rpm의 강력한 성능을 자랑한다. 또한 민첩한 핸들링과 안락한 승차감으로 도심 주행 환경에 최적화된 퍼포먼스가 가능하다. 가격이 착해진 인피니티, 노려볼만 한데?

인피니티(www.infiniti.co.kr)

이년아, 사이드 먼저 풀어.



추석 귀향길 떠날 애마를 위한 필수 보양식

부모님 뵈러 가는데 떠난 자동차 붙잡고 씨름할 수 없잖아?
올바른 운전 습관과 더욱 강력해지고 새로워진 볼스원샷으로 내 차 엔진을 생생하게.

BY 박정욱

1 새 차 길들이기는 애인처럼

새 차도 시동을 가는 순간 엔진 내부에 때가 쌓이면서 마모가 시작한다. 이 때문에 차의 수명을 좌우하는 주행거리 1,000~2,000km까지는 회전수 3,000rpm을 넘지 않고, 속도는 100km/h를 넘기지 않되 여러 기어를 다양하게 사용해 새 엔진의 일정 부분만 마모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처음 애인을 사귀는데 손도 안 잡고, 키스도 안 하고 바로 모델 들어간진 않잖아?



← 새 차를 위한 보양식
'볼스원샷 New Car'
새 차 상태에 최적화된 엔진 때 세정력을 갖췄다. 새 차 엔진을 보호할 수 있는 특수 첨가제가 변회판에 잉크도 안 마른 당신의 새 차를 더욱 부드럽고 힘차게!

2 정든 내 차를 위해 정든 습관 버리기

출퇴근길 차로 출발하기 전, 시동을 걸어놓고 담배가 다 탈 때까지 엔진을 오래 공회전 하는 습관! 당시 몸에도, 환경에도, 연비에도 좋지 않다. 공회전은 30초 내외로 짧게 하는 게 좋으니 담배는 네 모금만 빨고 가자. 잦은 기어변속은 차량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신호대기 시 신호가 길 때는 기어를 N(중립)에, 신호가 짧을 때는 기어를 D(드라이브)에 놓는 게 좋다.



← 정든 차를 위한 보양식
'볼스원샷'
주기적으로 주입하면 출력 증강, 연료 절감, 배기가스 감소, 소음 감소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독일 TÜV(기술검사항회) 인증까지 받았으니, 믿을 만하겠잖아?

3 애마 관리는 애인보다 소중하게

운전의 묘미는 역시 애마와 떠나는 장거리 여행이다. 하지만 굽이치는 와인딩 도로를 달리거나 언덕을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급제동과 급가속이 잦으면 엔진에 무리가 간다. 내리막길에서는 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하고, 오르막길에선 미리 가속해 놓아 탄력으로 주행하는 '관성 주행'으로 배기가스와 연료 소비를 줄일 수 있다. 연애도, 운전도 흐름을 타는 게 가장 중요한 법!



← 소중한 애마를 위한 보양식
'볼스원샷 Premium'
연료 폭발력을 높이는 성분이 들어 있어 엔진의 연비와 출력을 향상시킨다. 당신의 애마가 경주마로 변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될걸?

4 내 차가 아프기 전 건강검진을

중고차를 구매했을 때도 새 주인의 관리에 따라 생명 연장할 꿈을 이룰 수 있다. 엔진의 오일 라인인 엔진오일을 주기적으로 갈아주며 관리하고, 연료 라인인 엔진 내부의 때가 벗길 수 있는 제품으로 시원하게 목욕시키는 게 좋다. 보다 전문적인 엔진 관리를 원한다면 전문가가 추천하는 볼스원샷 Pro를 사용해보자. 죽어가는 엔진도 살려내는 현대판 화타의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 전문가가 추천하는 보양식
'볼스원샷 Pro'
정비소에서 찾는 전문가용 제품. 할인점, 주유소에서 만나는 제품보다 성능이 두 배 이상 강력하다. 소중한 내 차에 강력한 주사 한 방 놓아주자.

“엔진 속 때가 뭐죠?”



엔진 내부에 생긴 때

“엔진 속 때 제거, 꼭 해야 해?”
냉각수를 보충하고 엔진오일을 가는 것만으로 엔진 정비가 끝났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의 애마가 얼마나 시커먼 속내를 감추고 있는지 낱알이 파헤쳐주실!

“넌 얼마나 깨끗해?”

모든 자동차는 연료의 불완전연소에 따른 그을음 때문에 엔진에 때가 엔진 내부에 시멘트처럼 단단히 쌓여 굳는다. 즉 아무리 새 차라고 해도 시동을 가는 순간 엔진에는 때가 켜켜이 쌓이면서 차량 성능이 저하된다는 얘기다.

“엔진 속 때 빼려면 엔진 분해라도 해야 하나?”

엔진 속 때가 빠는 게 어려울 것 같다고? 모르는 소리! 주유구에 첨가제를 넣기만 하면 엔진 속 때 간단하게 제거! 엔진 내부에 직접 분사된 특수 계면활성제가 엔진에 단단하게 쌓인 엔진 때 속까지 깊숙이 침투해 화학적으로 분해한다. 분해된 엔진 때는 배기가스를 통해 배출되니 이거 뭐, 앉아서 똥 싸는 것보다 쉬운걸?



Before

After

THIS IS MY CAR

LOTUS X MISS MAXIM

Reader's Car 화보 촬영 프로젝트 #4



눈앞에 <지.아이.조 2> 속 스텀세도우의 차, 로터스가 세 대나 나타났다.
미스맥심 콘테스트 8강전에서 격돌할 다크호스 정예진과 김소희가 마주했다.
원, 누가 보면 잡지 화보 촬영이라도 하는 줄 알겠네!

BY 유승민 PHOTOGRAPH YuD
MODEL 2013 MISS MAXIM TOP8 김소희 정예진



LOTUS ELISE SC

 양재창 독자
37세, 공무원, 기혼

레이싱이 주는 극한의 스릴을 위해
자동차가 주는 모든 인락함을 반납한 세 명의 MAXIM 독자를 만났다.

지금까지 MAXIM 독자를 자동차 중 간지 최강이다.
당신을 정말 우리 독자 맞나?



물론이다. 독자의 애마 화보 촬영 이벤트
처음 뺏을 때 바로 응모했는데 두 달 동안
연락이 없어서 떨어진 줄 알았다.

미안하다. 로터스가 너무 멋져서 기왕이면 비키니
화보로 가려고 좀 미뤘다. 로터스는 대체 어떤 차냐?
정말 물어보고 싶다. 옆에 정예진 같은 여자 하나 딱
태우고...



그런 마인드로는 한 달도 못 말 차가 바로
로터스다. 이걸 너무나 남자의 차다. 여자들이
건모습만 봤을 땐 하악거리는데 타보면 다시는 안
탄다고 한다. 일단 타이프한 치마를 입으면 탈 수가
없다. 높이가 거의 땅바닥에 있는 수준이니까.



맞다. 호텔 입구에서 벨보이가 문을 열어주면
기어나와야 하나까 추하다. 승차감은 또 어땠고,
서스펜션이 거의 F1 머신만큼 단단해서 길이 살짝만
꺼져도 내장이 떨리는 듯한 고통을 느낄 거다.
한 시간만 운전하면 허리가 아프다. 뭐, 그건 페라리나
람보르기니도 마찬가지지긴 하지.



디자인 보고 반해서 무조건 산다고 갔다가
앉아보고 바로 포기하는 사람 많다. 실내
공간도 좁고 운전자랑 조수석 사이에 그 흔한 컵홀더
하나 없다.



그래도 조수석과 운전석이 딱 붙어있어서
여자랑 둘이 타면 어깨가 살살 닿아서 좋긴
하다. 하지만 태우면 욕할 것 같다. 차인줄 알고
뺏는데 흘러코스티면... 이걸 뭐 정말 사람을 태울
수가 없다.

완전 의외데? 부심이 터져서 자량이 쏟아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자기 차에 열렬한 비난을 가하다니!



비난이러니? 우린 그런 점에 반해서
로터스를 타는 사람들이야. 한 번 타면
스트레스가 다 날아간다. 이걸 다른 차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거다.



가트 타분 적 있나? 선수들이 타는 스포츠
기트를 타보면 로터스랑 비슷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다. 그게 이 녀석의 묘미다. 로터스
드라이버에게 다른 스포츠카는 스포츠카 같지도 않다.
BMW M3나 포르세 911 같은 것도 그냥 보통
승용차다. 편안하고 다루기 쉬운.



맞다. 나는 벤츠, 포르세 쥐도 안 탄다. 그런
게 좋으면 로터스 살 돈으로 그 차를 샀겠지
뭐하러 이 극단적인 차를 샀겠나.

LOTUS EXIGE S 1.8



민정필 독자
29세, 사업체 운영, 미혼

LOTUS EXIGE S British GT Limited Edition



이재형 독자
37세, 회사원, 기혼



맥심표
비키니 유니폼
어때.avi





 엘리스 SC의 최대 출력은 139마력밖에 안 된다. 더 놀라운 건 고작 139마력의 엘리스가 제로백을 무려 4.6초만에 끊는다는 사실이다. 포르쉐도 박스터, 카이맨은 4초대 진입 못한다. 최상급 모델인 350마력의 포르쉐 911정도나 돼야 로터스와 제로백을 견줄 수 있다.



하면서 미스맥심이 별로 차를 뜨거워하지 않았던 거 눈치 못했나? 원래 이런 날은 보닛에 계란을 깨면 후라이가 되는데 말이지.

나도 좀 이상하다고는 생각했다. 미스맥심 우승을 위한 열정이 대단하다고만 생각했지. 고온 벽지에 화상이라도 입을까 조마조마했다.

 로터스의 껍데기는 플라스틱이기 때문이다. VMRP라는 특수 강화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져서 알루미늄과도 비교가 안된다. 로터스 엘리스는 차 무게가 겨우 870kg이다.

 플라스틱이라서 찌그러지거나 문콕도 안 당한다. 심한 충격을 받으면 깨질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 충격엔 좀 들어갔다 도로 나오고 민다.

차가 그렇게 가벼우니 아까 차 위치를 조금씩 바꿀 때 계속 손으로 옮긴 거로군! 힘이 엄청 쉼 줄 알았다.

 조금 움직여야 할 땐 웬만하면 차를 밀고 다닌다. 한 번 탔다가 내리는 게 더 힘들다.

우리나라엔 로터스가 몇 대나 굴러다니나?

 50대 정도? 동호회가 있는데 활동하는 사람은 30명 내외다. 재야에 묻혀서 사는 사람들 빼고 수도권에서는 대부분 로터스 클럽에 가입해 있다.

혹시 여자도 있나? 예쁘나? 아... 아까 여자는 로터스 싫어한다고 했지?

 한 명 있다. 예쁘다. H&T라고 PCO회사 사장이다. 원래 포르쉐를 타다가 로터스를 몇 번 타보고는 바로 주문했다. 로터스 한 번 타면 다른 차 못 탄다. 이번에도 신형을 새로 주문했는데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주문했다더라.

로터스를 자동 변속으로 몰려고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생각하나?

 로터스의 진수를 모르는 사람이지. 나한테 로터스를 오토로 타라고 하면 갖다 버린다. 그래도 디자인만 보고 반해서 자동 변속을 찾는 사람들이 꾸준히 있으니 예보라(로터스 자동 변속 모델)가 나온거 아니겠나. 워낙 디자인이 죽음이니까.

 우리가 디자인보다 운전의 재미 하나로 로터스를 모는 사람들이지만 솔직히 이 디자인은 정말 시선 끄는데 당해낼 차가 없다. 그러다 보니 모르는 사람은 로터스 오너를 보고 걸맞게 이 차를 탄다고 오해하기도 한다.

오늘 촬영 어땠나? 정말 더웠는데.

 그래도 너무나 기억에 남을 것 같다. MAXIM 에 나온다는 거 자체가!

대체 어떻게 그렇게 빠른 제로백(정지 상태에서 100km/h에 도달하는 시간)이 가능한 건가?

 차체 무게가 워낙 가볍기 때문이다. 내부를 보면 알겠지만 아무 것도 없다. 뽕뽕 들어내고 달리는데 딱 필요한 것만 있다. 로터스는 오로지 스피드만을 위한 차다. 보통의 차엔 너무나 당연히 있는 편의 장비들도 로터스엔 없다. 오디오도 사실 필요없다.

 진짜 로터스를 사랑하는 사람은 돌려서 여는 창문이 간지라고 생각한다. 나 또한 그렇고. 사이드미러도 수동이다. 손으로 직접 접어야 된다.

 재미있게도 앉아서 팔을 뻗으면 좌우 사이드미러에 손이 닿는다. 심지어 운전석에서 앞. 뒤 타이어 다 만질 수도 있다.

 그리고 오늘 같은 땀방 아래에서 촬영을



BMW M3도 그렇고 요즘은 패들시프트를 많이 쓰더라. 패들시프트는 확실히 빠른 변속을 가능하게 하지만, 스틱 변속기에서만 느낄 수 있는 '기계를 만지는 재미'는 없다. 로터스는 클러치도, 스티어링 휠도 상당히 무겁다. 하지만 그런 무거운 손맛, 그리고 스틱 기어가 부서질듯이 밀었을 때 뒤통수가 찢히지도록 튀어나가는 듯 한 가속력은 로터스에만 있는 로망이다.



일반 세단의 기어는 물 흐르듯 부드럽게 들어가며 변속 충격을 거의 느낄 수 없는데, 로터스로 스틱 변속할 땐 '철렁, 철렁' 하고 기어가 물러 들어가며 금속성의 소리가 난다. 아... 그 소리가 정말 끝내주는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 차 안에 아무것도 없이 달랑 미션이랑 바퀴만 있는 자동차를 타고 있는 듯한 느낌 직접 물면서 엑시지에 기어를 넣어 본 사람만이 안다.

Motor

This is My Car



내 김정석 엑시지는 좀 특별하다. 엑시지는

British GT라고, GT3 유럽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기념으로 60주년 한정판으로 생산한 녀석이다. 전세계 79대가 있는데 이게 39번째 차다. 한국에 정식으로 들어오지 않아서 내가 직접 들여왔다.

HAIR&MAKEUP 정혜민 VIDEO 김상수 ASSISTANT 정채희 박정욱 COOPERATION 슈즈원

독자의 차 화보 촬영 프로젝트

This is My Car



오너드라이버 독자를 위한 특급 이벤트는 계속된다. MAXIM 화보로 당신의 애마에게 지상 최고의 호강을 시켜줘라!

“타 본 중에 제일 좋은차는 뭐예요?”

지난 5년간 수십 종의 신차를 시승해 온 MAXIM의 자동차 전문 에디터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다. 그의 대답은 늘 한결같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는 바로 ‘내 차’입니다.



배기량, 최고속도, 마력 등... 수많은 기준을 놓고 서로 최고의 차라며 떠들어대지만 ‘내 차’라는 특별한 존재 앞에선 모두 무의미한 숫자일 뿐이다. 나와 함께 울고 웃고, 수많은 추억을 담고 달리는 ‘내 차’. 심지어 나를 먹여살리는 것도 ‘내 차’ 뿐이니까. 이 화보의 주인공은 여는 자동차 잡지처럼, 자동차 회사의 신차 홍보를 위해 제공된 ‘남의 차’가 아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실 새 없이 달려준 바로 ‘당신의 차’다.

MISS MAXIM을 만나!

잡지만 만났던 미스맥시스를 양팔에 끼고 잊을 수 없는 기념 촬영을 간직해 왔다가 아들에게 보여줘라.

당신의 차를 MAXIM 화보에!

레이싱걸을 거느린 모터쇼 슈퍼카처럼! MAXIM에 매거진에 영원히 남겨주마.

당신의 자동차를 전국에 뽐내라!

튜닝하고 꾸민 당신의 자동차를 자랑해라

이게 정말 내 차 맞아?!

최고 수준의 MAXIM 포토그래퍼, 조명팀, 에디터가 당신의 차를 멋진 화보로 남긴다!

덤으로 1년 정기 구독까지!

차가 공짜 구독 혜택도 안겨준다. 당신의 애마가 실린 호가 MAXIM정기 구독 첫 권!

응모 요령

- 당신의 자동차를 직접 찍은 사진을 MAXIM으로 보내라.
- 당신의 이름/ 전화번호/ 거주지/ 차종(모델명)/ 구입연도도 적어라.
- 메일 보낼 곳: event@maximkorea.net

당첨 확률을 높이는 Tip

- 당신 차에 얽힌 재미진 사연을 적으면 더 유리하다.
- 안전한 차보다는 당신만의 개성으로 튜닝한 차가 더 유리하다. 갓 뺏은 새 차라면 튜닝 안 해도 된다.
- 같은 차를 모는 동호회 친구가 있다면 함께 신청해도 좋다.

Stuff

GEAR OF THE MONTH

기만이나 발악이나: LG G2

 만년 꼴찌, 2인자 그리고 흑역사.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LG의 파란만장 흥망성쇠 스토리. BY 조용재

불과 10년 전, LG라는 브랜드가 지금과 달리 '쌈마이'의 대명사 취급을 받던 시절이 있었다. 비교적싼 요금제와 기기값 그리고 그에 걸맞게 복장이 터질 때까지 안 터지는 통화 품질 등으로 악명을 떨치던 LG는 기어이 3G로 넘어와 스마트폰 체감 속도의 무간지옥을 열었고, 결국 '헬쥐(Hell G)'라는 최악의 타이틀을 등에 업은 채 설움의 시대를 겪어왔다. 통신사 브랜드 네임을 걸고 출시하는 제품 역시 마찬가지였다. 자체 브랜드 싸이언(Cyon) 시리즈는 SKY와 애니콜의 그늘에 가려 유저들의 불만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결국 '공폰'의 대명사로 전락하고 말았다.

2011년 여름, 그들에게도 기회가 찾아왔다. 4G 경쟁을 눈앞에 둔 각 통신사가 2.1Ghz의 황금 주파수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던 중, 밸런스 붕괴를 우려하던 관대하신 방통위의 배려로 LG가 단독 입찰에 성공한 것이다. 결국 LG는 LTE 사업에 한 발자국 빨리 뛰어든 덕에 스마트폰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했고, 이후 꼴찌 쌈마이 브랜드이던 그들을 2인자 자리까지 올려놓는 효자 브랜드 '옵티머스' 시리즈를 발매하기에 이른다.

이번 8월에 출시한 'G2'는 사실 옵티머스 시리즈의 프리미엄 라인 '옵티머스 G'의 후속작이다. 전작의 명성을 그대로 이어갈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사실 발매 첫 달의 반응이 생각보다 시원찮다. 그도 그럴 것이 등짝에 박혀 있는 후면 버튼은 이미 올 상반기에 출시한 '베가 넘버6'에서 구현한 시스템이고, 국내 최소 두께를 자랑하던 2.6mm의 베젤도 사실 '베가 아이언'의 2.4mm 베젤보다 두껍다. '그래도 난 2인자다, 임마!' 하며 과도한 여유를 부린 건지, 아니면 죽어도 갤럭시의 왕좌는 못 빼앗을 것 같으니 발악이라도 한 걸까. 대놓고 배패라식 배기기에, '눈 가리고 아웅'식 구라까지 쳤으니 그간의 명성에 큰 상처를 입었음에는 틀림없다. ☹





SPEC CHECK

크기 138.5(L) x 70.9(W) x 8.9(H)mm
 해상도 1920x1080 Full HD IPS
 칩셋 쿼드코어 2.26GHz
 메모리 2GB LP DDR3 RAM
 용량 32GB(외장 최대 64GB 지원)
 배터리 2,610mAh(착탈식)
 후면 카메라 1,300만 화소 OIS 카메라
 출고가 954,800원

G2의 선방 요소 그래도 핏줄이 옵티머스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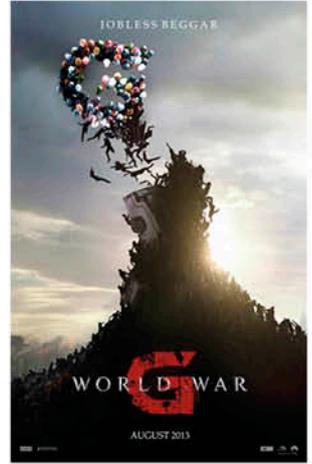
POINT1. 퀵 윈도우 케이스
 2G 시절에 유행하던 '듀얼 폴더'에서 착안한 듯한 기능이다. G2 전용 커버를 씌우면 뚫려 있는 부분에 미니 디스플레이 모드가 실행되어 케이스를 열 필요 없이 전화, 날씨, 음악, 알람 등을 손쉽게 조작할 수 있다.



POINT2. 오디오 줌 모드
 동영상 촬영 시 화면 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위치의 소리만 키울 수 있는 신기한 기능이다. 아이폰과 비교해 음성 녹음에 취약한 면을 보이는 안드로이드 기기에 꼭 필요한 기능이다.



POINT3. 제로갭 터치
 터치 패널과 액정 사이의 공간을 27% 가량 줄여 손가락 바로 아래에서 화면이 움직이는 듯한 터치감을 선사한다. 줄기차게 욕을 처먹는 안드로이드 터치감에 나름대로 혁명을 가져온 기술이라 하겠다.



8월 9일! <월드워 G2> 대란

지난 8월 9일, LG는 서울 난지 한강공원에서 풍선에 G2 교환권 500장을 매달아 전국에 날리는 비밀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었다. 분명 비밀리에 진행하는 행사였으나, 마케팅 담당자가 약기운이 돌았는지 갑자기 장소를 공개하고 만다. 당시 공지를 확인한 사람들은 출고가 70만 원짜리 풍선에 눈이 멀어 난지공원으로 몰림듯이 모여든다. 심지어 BB탄 총으로 무장해 풍선을 저격하려던 저격수와 잠자리채를 든 헌터 등 갖가지 클래스가 등장했다고. 예상대로 행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급하게 날린 풍선 40개가 손달을 수 없는 곳까지 날아가자 화가 난 사람들은 좀비가 되어 남은 60장의 교환권을 무력으로 강탈한다. 심지어 그들 사이에서도 격렬한 헌피가 발생해 부상당하는 사람들이 속출, 결국 LG는 행사를 전부 취소했고 당일 다친 사람들에게 한해 전면 보상을 하기에 이른다. 사은 행사가 좀비물로 변해버린 이 행사는 '월드워 G2'라는 이름으로 각종 언론에 보도되었고 LG의 씻을 수 없는 흑역사로 자리 잡게 된다.





SONY ALPHA NEX-3N

지름까?

뷰티샷 모드를 따로 설정하지 않고 자동 모드로 찍어도 인물이 굉장히 뽀사시하게 나온다. '손예진 카메라'라는 애칭이 딱 들어맞는다. 뷰티샷 기능을 사용했을 때 뽀사한 것 같은 티가 나는 카메라도 많은데, 소니 알파 NEX-3N은 자체 보정 수준이 과하지 않고 적당하다. 피부 보정 정도를 상, 중, 하로 나누어서 설정할 수도 있다. 여자들한테 소니 미러리스가 인기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디테일에 있었다.

말까?

배터리 거치대가 따로 없다. 충전을 하려면 충전 어댑터를 USB로 카메라에 연결한 다음 어댑터에 전원을 연결해야 하는 방식이다. 배터리를 분리해서 충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카메라를 통째로 충전기에 연결시켜야 한다는 거다. 왜 이런 방식을 택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귀찮다. 배터리 충전팩을 따로 팔기는 하는데 굳이 이것까지 사야하나? 가격 698,000원/ 블랙, 화이트, 핑크

여친 사진 예쁘게 찍어주는 카메라

여자들은 사진 잘 찍는 남자를 좋아한다. 정확히 말하면 자신을 예쁘게 찍어주는 남자를 좋아한다. 사진을 잘 못 찍는다고? 걱정 할 필요 없다. 기계빨이라는 게 있으니까. BY 김희성



PANASONIC LUMIX GF6

지름까?

'성형 카메라'라고 불릴 만큼 피부 보정 기능이 대박이다. 그녀는 모공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 보며 흐뭇하겠지. 게다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녀를 예쁘게 찍을 수 있는 모드가 많이 추가됐다. 역광일 때는 부드러운 역광, 선명한 역광 두 가지 모드 중 고를 수 있고 어두울 땐 '선명한 야경 인물' 모드를 고르면 된다.

말까?

보디만 판매하지 않아 번들렌즈를 함께 사야 된다. 보디 무게만 280g에 렌즈 무게까지 더해지면 180° 회전이 되는 셀카용 틸트 액정이 있지만 셀카를 찍기에는 좀 무겁다. 그래서 한 번 건질 때까지 들고 있기는 팔이 좀 아프다. 가격 699,000원(렌즈 포함)/ 블랙, 화이트

SAMSUNG MV 900F

지름까?

셀카를 찍는 표정을 볼 수 있도록 액정이 180° 돌아간다. 작고 가벼워 나머지 한 손으로 귀여워 보이는 포즈를 취하기에 좋다. 아예 셀카를 위해 작정하고 만든 디카 같다. 심지어 '뷰티 팔레트' 모드에선 화장도 해준다. 민낯에 아이라인도 그려주고 볼터치도 해준다. 디카가 화장을 해주다니 이걸 혁신인데?

말까?

여자 얼굴을 기준으로 만들었는지 남자가 셀카를 찍으면 얼굴 인식을 잘 못한다. 분명 정면으로 찍었는데도 아예 얼굴 인식이 안되거나 심지어 얼굴 인식이 되어도 얼굴을 더 까맣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 가격 429,000원/ 블랙, 화이트, 핑크





OLYMPUS PEN LITE E-PL5

지름까?

일단 올림푸스 펜 E-PL5는 디자인이 극강이다. 여기에 올림푸스 특유의 감성적인 셔터음이 더해지니 이 카메라를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시선을 받을 거다. 선명한 접사 촬영, 촛불 촬영 등 여러 가지 모드가 탑재돼 있는데 이 중에 'e-포트레이트'는 혁신이다. 간단히 설명하면 피부를 보정해 주는 촬영모드인데, 피부 보정 모드로 설정해 놓았을 때 사진 전체에 뿌연 효과를 줘 눈동자까지 흐릿해지

타 카메라에 비해 E-PL5는 눈동자를 인식해 피부만 부드럽게 보정해 준다. 피부는 뽀송뽀송, 눈동자는 더 또렷하게 나온단 얘기다. 카메라가 거의 포토샵 수준이다. 역시 명불허전 올림푸스!

말까?

피부색이 약간 붉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살짝 취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가격 699,000원/ 화이트, 실버, 블랙

NIKON COOLPIX P330

지름까?

인물 자체를 예쁘게 잡아주는 기능이 특화됐다가 보다는 배경 색깔을 선명하게 잘 실려줘 인물이 있는 상황 자체를 멋지게 포착해 준다. 셔터를 한 번 누르면 초당 10장 연사가 찍히는 기능도 있어 그녀가 머리카락을 흔들리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담는 게 가능하다. 참고로 여자들은 그런 자연스러운 파파라치 컷을 좋아한다.

말까?

GPS 기능이 있어 어디서 찍은 사진인지 기록된다. 엄한 데서 셀카 찍지 말란 소리다. 반대로 GPS 기능이 탑재되지 모르는 그녀가 당신의 카메라를 빌려가 낯선 모텔에서 침대 셀카라도 찍으면 확실한 증거가 남는 거다. 아, 그럼 이런 장점이네.
가격 528,000원/ 블랙, 화이트



FUJIFILM X-M1

지름까?

클래식하고 아날로그한 디자인이다. 필름 카메라 같다. 셔터음마저 완벽히 필름을 재현했다. 기능도 필름을 연상시킨다. 어떤 모드를 하든 아웃포커싱이 기가 막혀 사진 한 장 한 장이 영화 같다. 그래서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기 보단 필름 카메라를 쓰던 시절 셔터를 누르던 때처럼 네모 프레임에 맞춰 피사체를 신중히 담게 된다. 색감 표현도 끝내준다. 사진을 잘 못 찍는 편이라도 이 카메라 하나면 '오빠, 사진 진짜 잘 찍는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다.

말까?

이것저것 훌륭한 기능들이 많지만 카메라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사용하기엔 좀 어렵다. 그리고 비싸다. 탈색.
가격 999,000원/ 블랙, 실버, 브라운





오늘 밤
짜릿하게 한판?

진격의 전기 모기채

세스코보다 더 싸고,
더 강력한 벌레 퇴치 기어

불타는 숯덩이 위에서 익어가는 삼겹살, 고기를 굽는 그녀의 가슴골 사이로 흐르는 땀방울... 한여름 밤의 캠핑은 비주얼이 끝내준다. 하지만 여기에 날파리나 모기 새끼가 끼어들면... 달아오르던 분위기는 급반전된다. 그녀에게 날개 달린 곤충포비아가 있더라도 하면 여름밤 캠핑의 낭만 따위는 없는 거다. 하지만 이 전기 모기채가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전기 라켓의 버튼 하나만 누르면 진격하던 날파리와 모기 떼의 목숨이 순식간에 날아가거든. 아, 실수로 셀프 감전될까 봐 겁먹을 필요 없다. 손잡이에 미끄럼 방지용 고무 장치가 돼 있고 안전 스위치까지 장착해놨거든. 하지만 술에 취해 팔라가 된 이후엔 우리도 장담 못 해!
가격 \$ 18, amazon.com





21세기판 하이브리드 기어의 정수, 올림푸스 PEN E-P5

클래식한 디자인과 최신 성능의 결합. PEN E-P5는 마치 하프 미사일과 티타늄 거북선으로 무장한 이순신 장군처럼 위풍당당하다. BY 조용재



20세기 디자인+21세기 소재

세계 최초의 플래그십 하프 프레임 SLR 카메라 올림푸스 PEN F의 클래식하고 멋들어진 디자인에 현대적이고 튼튼한 금속 소재를 입혔다. 이런 언밸런스한 매치는 마치 캔버스 소재로 마감한 덧버선, 시스루 원단으로 얹어맨 7과 1/2사이즈 선비 갓만큼 신선한 디자인임에 틀림없다. 닿기 쉬운 셔터 버튼과 뒷면의 다이얼 역시 차갑고 묵직한 느낌의 금속으로 제작해 자칫 장난감처럼 보일 수 있는 클래식 카메라의 디자인을 한층 고급스럽게 완성했다.



DSLR의 성능+스마트폰의 간편함

PEN E-P5가 자랑하는 8,000분의 1초 초고속 기계식 셔터 스피드는 날아가는 총알을 찍어낼 수 있을 정도로 빠르다. 최근까지 6,000분의 1 스피드로 셔터부심을 부리던 기존 미러리스 카메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게다가 스마트폰 카메라처럼 간편한 인터페이스와 터치스크린을 지원해 원하는 부분에 조정을 집기가 쉬워졌다. 조카 돌잡이 때 E-P5를 올려 두면 무심코 카메라를 들어 올린 아기가 능수능란하게 아웃포커싱을 구사할지도 모른다.



아날로그식 감성+디지털 보조장치

시골밥상집에서 후식으로 더치 커피를 제공하는 것만큼 어색한 것도 없다. 레트로 기기와 LCD 화면의 합체가 그러하다. PEN 시리즈에 착용 가능한 VF-4는 이 부조화를 해결할 전자식 뷰파인더다. 약 0.032초에 불과한 타임래그와 236만 화소의 높은 색 재현율 그리고 자동 뷰파인더 모드로 전환하는 아이 센서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 E-P5와 호환되는 M.ZUIKO 디지털 렌즈 시리즈는 인물, 스튜디오, 영상 등 유저의 입맛대로 골라 탈착하며 아날로그식 손맛을 누릴 수 있으니, 더 이상 DSLR 유저를 보며 군침 흘릴 이유가 없다.

SPEC CHECK PEN E-P5

크기
122.3 X 68.9
X 37.2mm

무게
배터리, 메모리
포함 420g

색상
블랙, 실버, 화이트

화소수
1,720만

셔터 스피드
60-1/8000초

기타 편의 기능
FULL HD 영상
촬영 가능

터치패널 지원
틸팅 LCD



BLACK&DECKER
무선 핸디형 청소기 DV7210F
11번가에서 제품 69,000원+배송비
2,000원으로 총 71,000원에 구매

그거 왜 샀어? #11

 한여름 삼복더위 스트레스도 물건 지르는 걸로 푸는 MAXIM 편집부.
내 돈 주고 샀으니 어디 한번 탈탈 털어볼까? BY / MODEL 손안나



BLACK&DECKER 무선 핸디형 청소기 DV7210F

 편집장님, 청소기 사셨네요?

 이미 로봇 청소기가 있는데 그것만 작동하면 내가 키우는 고양이들이 미친 듯이 뛰어다니면서 청소기 진로를 방해하거나 흥분해서 청소기를 공격하거나 안되겠다 싶어서 작고 가벼운 무선 청소기를 찾던 차에 이게 '빨심'이 훌륭하다길래 한번 사봤어.

 엇, 되게 가벼운데요?

 1.13kg밖에 안 돼. 그전에 쓰던 필립스 구형 진공청소기에 비하면 이건 깃털이지.

핸디형인데 3단 봉이랑 진공청소기 헤드를 연결해 붙이면 일반 진공청소기처럼 쓸 수도 있어. 게다가 블랙앤데커. 공구 브랜드 중 최강의 간지를 자랑하는 곳이지. 설마 이 회사가 망해서 수리도 못 하는 일이 있기가 하겠어? 부자는 망해도 3년 간다잖아. 최소 3년은 문제없이 쓸 수 있어!

 근데 말씀하신 것 같은 엄청난 빨심은 잘 모르겠어요. 흠, 실망이에요...

 이게 손대보면 그냥 평범한 빨심인 것 같아도 일단 주둥이를 갖다 대면 온갖 털이나 먼지가 쓱쓱 빨린다니까? 3단 봉으로 연장해도 빨심이 줄어들지 않아. 이 연장 관이, 생긴 건 그냥 크고 파란

빨대처럼 허술해 보이지만 빈틈없이 꼭 잘 맞물리거든. 봉 연결해서 길어지면 손 안 닿는 높은 곳이나 침대 아래, 자동차 내부 청소하기에도 좋더라. 뭐든 길어졌을 때 꼭 잘 맞물리면... 하여튼 좋은 거 아니냐? 해해.

 에이, 너무 칭찬만 하지 마시고 단점도 좀 말해주세요.

 10분 연속 하(쓰)면 애가 죽어버려. 사용 후기에 방전이 심하다는 애긴 들었지만 이 정도 조루일지는 몰랐지. 종일 충전해서 10분 쓰는 기분... 느껴봤어? 조루 주제에 소리는 또 요란해요. 아아, 전에 만난 그 남자 생각나네. 젠장!

삼성전자 EAD-R10 빔 프로젝터

승민 선배, 이건 뭐예요?
 여기 쓰여 있잖아, 'MOBILE PROJECTOR'. 들고 다니는 초소형 빔 프로젝터다 이거야. 요새 폰으로 영화 많이 보는데 화면이 작아서 답답하잖아? 여자랑 여행 가서 방 한쪽 벽을 스크린 삼아 스마트폰에 딱 꽂으면 그야말로 이동식 극장인 셈이지. 죽이지?
 아 네... 그런데 선배가 여자랑 방에 들어가면 과연 영화를 볼까요?
 좋은 지적이야. 하지만 이렇게 어두침침한 분위기에서 벽면을 통해 영화를 보면 여자도

'뻥'이 살살 등하지 않겠어? 배터리 지속 시간도 딱 2시간이야.
 너무 짧은 거 아니예요? 2시간 넘는 영화도 많은데.
 그렇긴 한데 이거 좀 봐봐. 갤럭시S 배터리가 여기 그대로 들어가. 휴대폰 배터리 여분은 다들 한 개쯤 갖고 다니잖아? 반대로 폰 배터리 나가면 이걸 꺼내서 쓸 수도 있고.
 그건 참 괜찮네요. 그럼 완전 안드로이드 유저만을 위한 프로젝트인가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도 연결돼. 다만 연결 잭을 HDMI로 바꿔주는 젠더를 따로 사야 해. 노트북이랑 연결하고 싶으면 구성품에 들어 있는 HDMI 케이블을 그냥 꽂으면 되고.
 그런데 스크린에 비치는 화면이 HD TV처럼 선명하진 않네요? 너무 어두침침한 거

아니예요?
 까다로운 년. HD 같은 소리하고 있네. 이게 HD로 나오면 비싼 TV는 누가 돈 주고 사냐? 요걸로 영화 보다가 눈이 좀 아파져야 술술 탄지도 하고 싶어질 거 아냐. 이깟 물건이 고화질로 때려버리면 여자가 영화에 푹 빠져서 끝까지 볼 텐데, 그럼 갖다 버려야지. 뭐든 주객이 전도되는 것은 좋지 않아.
 요 위에 초점 조절 버튼이 있긴 하네요. 이 미니 삼각대도 세트예요?
 아니, 이젠 따로 산 거야. 인터넷에서 2,600원 썼어. 이 삼각대가 빔 프로젝터에도 쓰이지만 디카로 애인이라ং 섹스 비디오 찍을 때도 엄청 유용하다? 모델에서 네 남친이 대형 삼각대를 주섬주섬 꺼내고 있다고 생각해봐. 미친놈 같아 보이지 않겠어?



↓ 삼성전자 EAD-R10 빔 프로젝터
 다니와 최자근
 201,950원에 구매

↑ PARKER 어번 매트 블루 CT 만년필
 친구에게 생일 선물로 받음.
 정가 60,000 원+영문 각인 5,000원
 =총 65,000원으로 추정
 (친구야, 미안...)

어떤 물건도 선배 손에 들어가면 영큼한 용도로 바뀌네요. 존경합니다.
 그래 인마! 너도 노력하면 나처럼 될 수 있어. 명인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다. 우리 언나가 요새 일도 참 잘하고 착하니 내가 이거 특별히 너한테 싸게 팔게. 15만 원에 어때?
 왜요? 잘 쓰고 계신 거 아니었어요?
 사실 나는 이거 노트북에 꽂아서 듀얼 모니터 대용으로 쓰려고 샀는데 영 번거로워. 화면도 잘 안 뜨고 듀얼 설정도 매번 따로 바꿔줘야 하고. 하지만 안드로이드 폰에 뚫려 있는 5핀 구멍과 연결하면 이젠 뭐 조작할 필요 없이 바로바로 화면이 뜨던데? 너 갤럭시 쓰잖아?
 아... 그런데 화면이 너무 어둡고 흐린 것 같아요. 얼마에 사셨는데요?
 다니와로 검색해서 20만1,950원에 샀다. 싸지? 크기도 니 갤럭시 반밖에 안 된다니까? 이것만 있으면 바캉스 가서 민박집도 4성급 모텔처럼 즐길 수 있어.
 모...모델에도 그런 등급이 있어요?
 시끄럽고. 그래서 살 거야 말 거야? 알았어. 너 내가 특별히 삼각대까지 꺼 준다!

PARKER 어번 매트 블루 CT 만년필

웅재 씨, 안 어울리게 웬 만년필이야?
 오랜만에 만난 고등학교 동창 놀이 뜬금없이 생일 2주일이 지나서 선물로 주더라고. 그 덕에 요즘 빈 종이만 보면 마치 화선지를 만난 장승업처럼 일필휘지 스킬을 시전하고 있어.

파커네. 영화 <감시자들>에서 정우성이 사람 죽일 때 쓰던 그 만년필 브랜드 아냐? 그게 400만 원이었던가?
400만 원? 와 시발... 이번에 알았는데 이쪽 필기 덕후의 세계도 정말 스케일이 장난 아니더라고. 그나마 내건 레귤러 피자 두 판 가격에 만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이야. 가격 대비 성능도 만족스러워. 필기 시에 '길들이기'(만년필촉을 사용자의 필기 습관에 따라 자연스레 갈리도록 만들어 원활한 필기를 유도하는 작업)가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내 손에 착 달라붙고, 잉크도 끊김 없이 잘 나와.
바보야. 잉크가 그렇게 끊기면 그게 모나미 153 볼펜이지, 만년필이겠어?

하긴. 근데 일단 초심자나 전문가를 위한 레퍼런스 제품은 아닌지라 만년필의 환상적인 필기감을 느끼기에는 조금 무리인 것 같아. 펜촉은 보통 가장 얇은 EF촉, 중간인 F촉, 가장 두꺼운 M촉으로 나뉘는데, 이젠 딱 중간 사이즈인 F촉이야. 대충 0.5mm 샤프 쓰는 느낌?
0.5mm라면 플러스 펜과 컴퓨터 사인펜의 중간 정도 되겠구나. 난 더 얇은 촉이 좋던데...
삭삭삭.
다른 만년필 브랜드 'RAMY'는 펜촉을 교환할 수 있거든. EF, F, M촉을 자유롭게 스와핑할 수 있는 일부다촉 시스템인데, 이젠 촉 변환이 불가능하니까 사실 그게 가장 큰 단점이야.
파커는 일필일촉의 윤리적인 만년필이네.

BOSE OE2i 모바일 헤드폰

안나 씨는 목에 뭘 걸고 다니는 거야?
헤드폰. 보스에서 하나 질렀어.
이건 아이폰 전용 헤드폰인데... 안드로이드 유저 주체에 바보같이 왜 이걸 산 거야?
처음엔 그냥 OE2 헤드폰을 사려고 했는데, 인라인 리모컨이 달려 있는 이 제품이 더 끌리더라고. 아이폰 전용으로 나왔지만 볼륨 조절, 재생 일시 정지, 트랙 넘김 정도의 리모컨 기능은 다른 기기에서도 가능하거든. 리모컨 뒤에 달린 마이크까지는 호환이 안 돼서 아직 핸즈프리 통화는 못 해봤지만.
저런 저음 뱅뱅한 헤드셋을 끼고 통화하면 상대방 침 삼키는 소리까지 돌비 서라운드로 들리겠는데?
그걸 노린 거지. 미세한 베이스까지 다 전달해주니까 남자 친구가 지금 나한테 집이라고 거짓말하면서 클럽에서 비비적대고 있는 건 아닌지 체크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지하철에서 이거 끼고 있는 사람 몇 분 적 있는데 생각보다 엄청 작네. 아니지, 안나 씨 머리가 큰 건가?
무슨 소리아. 웅재 씨가 본 건 아마 어라운드-이어 시리즈일 거야. 이젠 온-이어 시리즈로 그거보다 원래 이어 컵이 훨씬 작게 나왔다고 "나 지금 음악 감상하는 중. 아무도 방해 마삼. 뿌잉뿌잉" 포스를 풍기는 거대한 헤드폰이 아니라서 부담 없지. 헤드폰을 껴서 때 나타나는 '요다 현상'도 적은 편이라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도 당당할 수 있다고.
무엇보다 착용감이 정말 좋아. 헤드폰 오래 끼고 있으면 내 귀가 뭉개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젠 이어 쿠션이 메모리폼으로 만들어져서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
흠... 끌리는데... 음향은 생각만큼 만족스러워?
알다시피 BOSE스러운 사운드야. 중저음 뱅뱅하면서 타격감도 훌륭해 지루하지 않아. 근데 확실히 아이폰 전용이라 그런지 애플 제품이란 공감이 더 잘 맞는 것 같아. 애플의 맛있는 사운드를 버라이어티하게 전달해주거든. 그래서 이 녀석 때문에 한동안 방치해둔 아이팟 클래식을 다시 꺼냈어. 



헤드폰 착용시, 밴드와 머리 사이 공간 때문에 요다 처럼 보이는 현상



BOSE OE2i 모바일 헤드폰 청담동 보스 직영 매장에서 242,000원 주고 지름.

MAXIM 뽐뿌질

소유하고 싶다.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에이수스, MeMO Pad™ HD7 출시

컨슈머 노트북 세계 시장 3위에 빛나는 에이수스가 새 7인치형 MeMO Pad™ HD7 모델을 출시했다. 전후방 메가픽셀 카메라, 쿼드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했으며 감각적인 디자인에 높은 휴대성이 돋보인다. 1280x800 HD해상도를 제공하며 170도의 넓은 시야각에 역동적인 색상을 표현하기 위한 IPS 기술까지 적용했다. 기본 16GB의 용량부터 32GB까지 추가 확장이 가능하다. 10.8mm의 두께로 단무지만큼이나 얇아 휴대성이 뛰어나다. 뭐 이리 장점이 많아!

(주) 에이수스(kr.asus.com)



예스24, 프론트라이트 탑재한 E-Book 출시

대한민국 대표 인터넷 서점 예스24가 한국 이퍼브와 함께 전자책 단말기 크레마 사인을 출시했다. LED 프론트 라이트가 탑재된 크레마 사인은 어두운 곳에서도 HD 해상도로 전자책을 읽을 수 있어 독서 편의성을 극대화 시켰다. 6천여 권의 책을 저장할 수 있는 8GB의 저장 공간과 안드로이드 4.0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512MB의 메모리는 빠른 처리 속도가 장점이다. 185g의 초경량 크레마 사인은 깃털보다 가벼워 최고의 E-Book으로 거듭나고 있다. E-Book의 진화를 지켜보자.

예스24(www.yes24.com)



캐논, 핸즈프리 오디오션 캠 출시

디지털 광학 기업인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이 셀프촬영에 특화된 작고 가벼운 핸즈프리 오디오션 캠을 출시한다. 1,200만 화소의 풀 HD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며 170도 화각의 초광각 렌즈와 2.7형 LCD를 갖췄다. 또 HS 시스템 탑재로 어두운 환경에서도 깨끗한 영상을 촬영할 수 있으며 와이파이 기능으로 스마트폰과 PC에 무선으로 공유와 저장도 가능하다. 38가지 장면의 스마트 오토 기능은 최적의 촬영 조합을 직접 찾아 초보자들도 쉽게 사용 가능하며 화이트, 블랙 2종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www.canon-ci.co.kr)



로지텍, 게이밍 마우스 G100s 시리즈 출시

로지텍 코리아가 G1과 G100마우스를 업그레이드한 G100s를 출시한다. 로지텍 G100s 옵티컬 게이밍 마우스는 RTS와 MOBA 게임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잦은 클릭에 대비해 내구성과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또한 소수성 코팅을 적용하여 장시간 사용시에 손에 땀이 차는 불편을 해소하고 버튼의 변색을 방지하기 위한 지문 방지 코팅을 적용했다. 사다리꼴 형태의 디자인으로 그림감이 향상됐으며 양손 모두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이제 광클한다고 마우스 부서질 일 없겠다!

(주)로지텍 코리아(02-761-1207)

한국 레노버, Cool한 Summer 페스티벌

전 세계 PC 시장 1위를 달성한 한국 레노버가 9월 10일까지 Cool~Summer 페스티벌을 실시한다. 이벤트 기간 내에 노트북을 구입 후 레노버 클럽에 시리얼 번호를 입력하면 선착순으로 유무선공유기, 무선 키보드, 마우스 세트 등 푸짐한 선물을 제공한다. 또 노트북 제품 구매 상담만 해도 추첨을 통해 스무디킹 기프트콘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온라인 구매 사이트를 통해 최대 7%의 할인을 함께 제공하고 있으니 지금 한국 레노버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자.

한국 레노버(www.lenovoclub.co.kr)

Style

Super Ultra Light!

그녀에게 광속으로 달려가 안기기
위한 초경량 러닝화! BY 손안나





◀ **NIKE FLYKNIT LUNAR1+**

작년 미국에서 발매와 동시에 엄청난 판매량을 올리며 대박을 터뜨린 플라이니트 루나원 플러스. 나이키의 다른 운동화보다 20% 이상 더 가볍고 유연하다. 에디터와 함께 동거 중인 아기 고슴도치의 무게가 약 300g인데, 이 운동화는 270mm 기준 158g밖에 안 된다. 게다가 신는 이의 발 모양에 따라 자연스럽게 모양이 잡히도록 니트 구조로 결합한 천 때문에 신발이 아닌 양말을 신은 느낌. 반드시 나이키 직영점에 가야 '갯'할 수 있다.

가격 199,000원

▶ **PUMA FAAS 300 V2**

〈런닝맨〉에서 유재석이 신고 잘도 뛰어다니던 신발. 푸마의 베스트셀러 러닝화 파스 300의 두 번째 버전이다. 파스는 자메이카어로 '빠르다'라는 뜻. 푸마의 개발팀이 육상 선수들의 달리는 동작과 발의 움직임을 집요하게 연구한 끝에 탄생시킨 역작이지만, 신다 보면 깔창이 앞으로 조금씩 밀리는 단점이 있다. 260mm 기준 196g이라는 놀라운 무게를 자랑한다. 참고로 MAXIM 스튜디오에서 에디터가 자주 신고 돌아다니는 페인트 문은 삼선 슬리퍼가 약 200g이다.

가격 87,200원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러닝화는?

1위 나이키 플라이니트 루나원+
158g (270mm)

2위 뉴발란스 뉴레이스 스페셜 미니머스 10V2
184g (270mm)

3위 푸마 파스 300 V2
196g (260mm)

4위 리복 리얼플렉스 스크림
252g (260mm)

5위 아디다스 클라이마콜 레블루션
255g (260mm)

Gold+Metal VS. Gold+Leather

2% 부족한 당신의 룩을 완성시켜줄 화려점정.

BY 손안나 PHOTOGRAPH Zho

1



1. NIXON BIG PLAYER

A487-502

폴메탈로 처리된 불링불링한 금장시계는 '아빠'가 아닌 '젊은 오빠'를 위한 훌륭한 빈티지 아이템이다. 6시 방향에 박힌 다이아몬드가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다이얼에 포인트를 준다.

가격 365,000원

2



2. PAUL SMITH WATCH

BM5-020-41

다이얼에 박힌 5개의 눈깔 색이 1분에 한 번씩 바뀌는 재미있는 제품. 그린 컬러의 다이얼과 메탈 스트랩의 조합이 센스있다. 여기에 스트라이프 셔츠까지 코디하면 어느새 당신도 패셔니스타!

가격 608,000원

3



3. DANISH DESIGN

COPENHAGEN

IQ05Q929

'순수, 절제, 단순, 모던'을 콘셉트로 하는 데니시 디자인다운 컬러조합 블랙&골드. 올블랙 슈트에 매치하면 당신의 남성성이 더욱 돋보일 거다.

가격 490,000원

4



4. HELL DIVER SB2C-3001 RGBK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디자인이라 어디에 코디해도 곤잘 어울린다. 유승호와 이종석이 드라마에 차고 나와 유명해졌다. 이 녀석을 팔목에 차고 화이트 셔츠를 아무렇게나 걸어 입으면 청순한 연하남이 될 수 있다.

가격 298,000원

5



5. BULOVA ACCUTRON 64A102

세계 최초로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개발한 뼈대있는 시계 명가 부로바 이쿠트론의 금장시계. 크로노그래프 및 캘린더 기능이 단출한 디자인이 오히려 고급스럽고 정갈하다. 짙은 감색 더블 슈트와 잘 맞출때 신사의 품격을 어필하자.

가격 1,490,000원

6



6. ZASPERO PERFETTO MG201-01 LB

케이스와 스트랩을 고정하는 스크류 방식의 아레지먼트와 스위스 장인이 한참 한밤씩이 넣은 48개의 도트 장식을 툰 디운된 금장으로 통일했다. 중요한 자리에서 당신을 돋보이게 해줄 진짜 남자의 액세서리.

가격 700,000원

공중
 폭여하는
 시계



초간단 1분 완성! 자체발광 피부미남 되는 법



어두운 클럽에서도 형광등 100개를 켜듯
당신의 얼굴을 밝혀줄 컬러로션 7종.

BY 손안나

댄스플로어
만들기



1. 비오템움드 탭티 및 B.B

평소 비비크림을 바르면 얼굴이 허열계
떠서 기부키 혼자라도 취야 할 것 같은
압박감에 시달렸던 남성에게 안성맞춤.
번들거리지 않도록 깔끔하게 발려 온종일
개기름에 시달릴 필요도 없다.

30mL, 48,000원, SPF50/PA+++

2. 클리안스 UV PLUS HP 퍼펙팅 크림 하이 프로텍션 비비 크림

태양뿐만 아니라 도시의 공해로부터도
피부를 보호해주는 도시형 비비크림.
생물 공학 원료를 기초로 한 공해 방지
복합체가 차도남의 연약한 피부를
지켜준다. 묽은 제형으로 가볍게 발리고
잘 흡수되는 편이다.

50mL, 71,000원, SPF40/PA+++

3. 세븐드롭스 바닐라-플레니플리아 선프8세디언스 CC

마다가스카르 섬에 자생하는 '바닐라-
플레니플리아'에서 증류한 달콤한 바닐라
향에 법도 꼬이고, 여자도 꼬일 것 같다.
다소 매트한 느낌으로 꼼꼼히 바르지
않으면 군데군데 뭉쳐 조금 불편했다.

50mL, 34,000원, SPF30/PA++



컬러로션 꼼꼼하게 잘 바르는 법

1. 짜기 손바닥이 아닌 손등에 짜야 가까운 컬러로션이 죄다 손에 흡수되는 참사를 피할 수 있다.

2. 찌끼 감지로 적당량 떠서 얼굴 다섯 군데에 점을 찍는다. 이마, 코, 양쪽 눈 아래, 턱.

3. 찌끼 감지, 중지, 약지를 브러시처럼 이용해 로션을 살살 퍼 바른다. 손에 묻는 게 싫다면, 에어퍼프로 얼굴을 톡톡 두드려라.



↑
Editor's
Choice!

4. 랩 시리즈 BB 틴트드

모이스춰라이저

바르자마자 물감을 뒤집어쓴 듯한 화장폼스럽지 않은 냄새에 당황했다고? 보리추출물, 맥아추출물 등 피부에 좋다는 별별 성분이 다 들어가 있으니 그냥 넘어가자. 보습력이 좋아서 바른 후에 촉촉한 피부가 오래 유지되는 편.

50mL, 55,000원, SPF35/PA+++

5. 리:엔케이 올므 선브라이트너

피부에 문지르면 하얀 크림에 섞인 노랑, 빨강, 검정색 미세 캡슐이 깨지면서 물감처럼 섞이는 모습이 재밌다. 세 가지 색의 캡슐이 본래의 피부톤을 유지하면서도 환하게 안색을 밝혀준다. 피부 보정 보다 자외선 차단이 우선인 스포츠맨에게 추천.

60mL, 35,000원, SPF50/PA+++

6. DTRT 보이즈 비 볼드

강한 커버력으로 포스터물감처럼 피부 결점을 완벽히 덮어버리는 제품. 지속성이 좋아 아침에 한번 바르면 다음날 새벽까지 끝 피부가 유지되지만 잘못 발랐다면 얼마 파운데이션 훔쳐 화장한듯한 오해를 살 수 있으니 본인의 피부톤과 맞는지 잘 체크할 것!

30mL, 22,000원, SPF25/PA++

7. 더샘 미네랄 올므

블랙 BB크림

남성에게 반드시 필요한 미백, 보습, 피지 컨트롤을 한 번에 해결해준다. 한마디로 화려한 개인기보다 가본기에 충실한 박지성 같은 비비크림. 발림성이 좋고, 풍부한 미네랄이 건조하고 메마른 피부에 단비처럼 스며든다.

50mL, 12,000원, SPF30/PA++

존 바바토스 아티산을 뿌리는 남자

'여자들이 선호하는 향수 1위'라는
수식어는 진짜일까? BY 김희성



미법의
향수



→ 여자가 남자에게 반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가끔은 외모에, 가끔은 성격에 끌린다. 그리고 때로는 향수 냄새에 반한다. 남자의 향수 냄새는 매우 은은하게 코끝에 맴돌다 여자를 두 팔로 안아줄 때 극대화한다. 그게 어떤 향이나에 따라 짐작코 있던 심박수가 갑자기 증가하기도 한다. 여자들을 반하게 만드는 그 향수가 뭐냐는 질문에는 정답이 없다. 향수만큼 취향이 길리는 것도 없으니 말이다. 하지만 인터넷에는 여자들이 좋아하는 향수 1위가 '존 바바토스 아티산'이라는 출처 불명의 설문 조사 결과가 떠돌고 있었다. 마케팅의 성공인지 여자들이 좋아하는 향수라는 이유로 존 바바토스 아티산을 쓰는 남자도 여럿 있었다. 존 바바토스 아티산. 이름이 일단 무척이나 생소하다. 향수를 막 뿌렸을 땀 아바 스킨 냄새 비슷한 향이 났다. 이런 강한 향을 여자들이 좋아했던가? 하지만 향수를 뿌리고 나서 30분 정도 지나자 아까와 다른 향이 났다. 강한 향은 어느 정도 날아가고 시원하면서

은은한 남자의 향이 남았다. 그리고 그 은은한 향은 어딘지 모르게 매우 익숙했다. 누구에게서 이 향이 났는지 딱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꽤 많이 맡아본 것 같다. 그만큼 많은 남자가 이 향수를 뿌리고 다닌다는 거겠지. 아, 누구였더라? 잔향이 매혹적이라 그런지 밝은 곳 보다는 후각이 예민해지는 어두운 공간에서 더 매력적일 것 같다. 간혹 클럽에서 스쳐 지나가는 남자 중에 코끝에 확 감도는 향기가 좋아 고개를 돌려 한 번 더 쳐다보게 하는 향이다. 향이 기억에 남을 만큼 특별하진 않지만 강한 수컷의 기운이 뽀싹 느껴진다. 연하남이 이 향수를 뿌리고 나왔다면 단지 동생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남자로 보일 것 같은 향이다. 겉보기에 남성미 넘치는 스타일의 남자가 뿌려도 좋지만 여러 외모의 남자가 뿌리면 반전 매력으로 확실하게 어필할 것 같은 향이다. 그리고 향수 이름이 뭔가 좀 있어 보인다. 버버리, 불가리보다 존 바바토스라는 이름이 일단 여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그래서 이 향수를 쓰는 남자에게

멋진 구석이 더 있을 것 같다. 존 바바토스 아티산 공식 발매자료에 따르면 '자유롭고 창조적인 캐주얼함. 동시에 세련되면서도 모던함을 추구하는 남성'을 타겟으로 설정하고 있다. 자유롭고 창조적인 캐주얼함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대중 향수의 느낌과 맞아 떨어지는 것 같다. 여자들에게 익숙한 향은 많지만 향수 이름이 이토록 생소한 건 몇 가지 없기 때문에 존 바바토스 아티산을 쓰는 남자는 자신을 잘 꾸밀 줄 아는 남자일 것 같다. 패키지 디자인은 빈티지하면서 이국적이다. 이런 병에 든 향수를 쓰는 남자라니 좀 궁금해진다. 이성적이고 냉철하지만 왠지 예술적 감성도 지닌 남자일 것 같다. 만약 당신의 집에 놀러간 그녀가 당신의 책상 위에 올려진 존 바바토스 아티산을 보게 된다면 당신이라는 사람에 대해 더 호감을 가지게 될 거다. 아, 여자들은 확실히 존 바바토스 아티산의 첫 향보다 진향을 좋아한다. 그러니 이 향수를 여자 꼬시는 용도로 사용할 거라면 그녀를 만나기 30분 전에 뿌리는 게 좋을 거다. ☺

**Watch
out!**



ISSEY MIYAKE W시리즈 SILAY005 모델 출시

일본의 대표 패션 디자이너 이세이 미야케와 SEIKO의 기술력이 만나 탄생한 브랜드 ISSEY MIYAKE(이세이 미야케)에서 W시리즈를 선보인다. 자동차 아우디의 디자이너 Satoshi Wada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만들어진 SILAY005는 알루미늄 휠에서 영감을 받은 심플하지만 다이내믹한 케이스 디자인과 정확하게 시각을 표시하는 긴 핸즈를 지녔다. 리셋 기능이 사용된 기계식 크로노그래프는 오토매틱 시계를 사용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전달한다. 열정과 온기를 뜻하는 오렌지 컬러 워치로 당신의 독특한 감성을 자극할 것이다.

75만 원, 삼성시계(02-511-3182)



심플하지만 독특한 시계, 헬다이버 SB2C-2002SIL

이번 가을에 어울릴 워치 헬다이버 SB2C-2002SIL을 소개한다. 스웨이드 재질의 가죽 밴드로 아이스크림처럼 부드러운 남자의 모습을 표현했다. 블루코팅이 된 볼록한 타입의 돔글라스는 자칫 무료할 수 있는 디자인에 입체감을 줬다. 최근 배우 이종석이 착용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모델로 10만원 초반대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어울릴 아이템이다. 여름엔 청량감으로 어필했다면 가을엔 부드러움으로 매력을 발산하자.

148,000원, 헬다이버(1644-3885, www.helldiverwatches.com)

**독일 전통시계,
브루노신르 글라슈테**

개성과 품격 그리고 성능. 이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시계 브루노신르 글라슈테가 등장했다. 엄격한 기준과 심사로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해주는 독일 시계의 품질 인증마크인 글라슈테는 브루노신르의 명성과 품질을 인정한다. 독자적 기술로 향상시킨 자체 무브먼트와 자체 공방에서 정련된 문자판과 초침, 그리고 쿼츠 모델에서도 기계식 시계에서만 볼 수 있는 시스루 백 케이스는 브루노신르 글라슈테의 완벽함을 보증한다. 시계 선택의 망설임은 이제 브루노신르 글라슈테가 해결한다.

(주)거노코퍼레이션
02-3397-7100, www.eurotime.kr



**루미녹스, 강한 남자를 위한
Dive Chronograph 8362.RP**

밝은 밤을 의미하는 스위스 아웃도어 워치 루미녹스의 강한 남자를 표방하는 워치 루미녹스 Dive Chronograph 8362.RP 모델을 소개한다. 스위스 쿼츠 무브먼트, 크로노그래프 기능, 200미터 방수 기능을 갖추었다. 특히 자기 발광형 마이크로 가스 캡슐이 내장되어 발광 테크놀로지가 10년간 품질을 보증하고 25년간 빛을 뿜어낸다. 직경 44밀리미터의 견고한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와 무광의 블랙 PVD 코팅, 레드 푸시버튼은 강인한 남자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완벽한 디자인이다.

미림시계
02-757-9866, www.luminowatch.co.kr



남성적인 워치, 자스페로 TOFFATORE(투파토레) 다이버 라인

단단하고 무게감 있는 남성 이미지를 어필할 수 있는 시계가 등장했다. 남성적인 디자인과 자스페로의 기술이 집약된 투파토레 다이버 시계는 12각 베젤과 스트랩이 전부 매트타입으로 되어 목직함과 세련된 멋을 선사한다. 200m 방수 기능과 Super Luminova로 세팅된 인덱스는 밤이나 깊은 물속에서의 어두운 공간에서도 가독성이 뛰어나다. 기술과 디자인의 완벽한 조화로 만들어진 자스페로의 투파토레를 차고 단단한 둘 같은 남성미를 뽐내보자.

677,000원, 자스페로(1688-8907, www.zaspero.co.kr)





S.O.S!
S.O.S!!

+
*We Need
Lifeguards
(in bikini)!!!*

숨이 턱턱 막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더운 여름도 어느새 막바지로 치달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늦더위 휴가를 떠난 사람들의 물놀이 사망 사고 소식이 괴담처럼 들려오고 있으니, 당신을 위해 특별히 MAXIM이 특A급 안전 요원 2인조와 함께 개인 레슨을 시켜 주겠다!

BY 김희성 WORDS 조웅재 PHOTOGRAPH Zho

MODEL 2010 MISS MAXIM 최혜연(아래), 2012 MISS MAXIM 준우승자 엄상미(위)



358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간 국내에서 여름철 물놀이 도중 사망한 사람의 수. 여름을 약 세 달로 계산했을 때, 하루에 한 명 정도가 생애 마지막 물놀이를 한 셈이다.



입수 전 준비 운동은 필수!

체온보다 낮은 차가운 물이 갑자기 피부에 닿으면 혈관이 수축해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더 살고 싶다면, 물놀이를 하기 전 간단한 준비운동은 필수다. 먼저,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굳어 있는 몸의 긴장을 풀어 줘라. 상체를 이완시키는 옆구리 운동과 다리의 긴장을 풀어 주는 무릎 길게 눌러주는 필수. 특히 물 속에 가장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는 다리는 쥐가 나기 쉬우므로 충분히 스트레칭 해줘야 한다. 준비 운동이 끝난 후 물 속에 들어갈 때에는 심장에서 가장 먼 곳부터 가까운 곳으로 차근차근 몸을 적신다. 아, 스트레칭을 하면 주위 비키니녀들을 자연스럽게 스캔하기에도 좋다. 생명 연장의 꿈과 눈 호강까지 이렇게 효율적인 걸 대체 왜 항상 감백하는 걸까?



물 속에서 발에 쥐가 났을 때

발이 땅에 닿지 않는 수심 깊은 곳에서 물놀이를 즐기다 갑작스레 쥐가 났을 경우엔 최대한 침착하게 물 밖으로 나오는 게 최선이다. 당황한 나머지 물 속에서 허우적대며 수중 팝핀 댄스를 추게 되면 몸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하루아침에 물귀신이 된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처하자.

- ① 긴장을 풀고 몸을 둥글게 오므려 등이 수면 위로 나오도록 해 일단 물 위에 뜬다.
- ② 숨을 크게 들이마신 후 물 속에 얼굴을 넣은 채 쥐가 난 쪽의 엄지발가락을 힘껏 몸쪽으로 꺾어 당긴다. 그이이이익!!!
- ③ 찌르는 듯한 통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2번 동작을 유지한다. 이후 통증이 완화되면 계속해서 마사지를 해주며 서서히 육지로 이동한다.
- ④ 무사히 육지에 올라왔다면 더운 물을 타월에 적셔 쥐가 난 부분을 덮어 준다. 쥐가 물렸다고 금세 물 속으로 다시 뛰어드는 것은 금물! 한 번 쥐가 난 부분은 재발하기 쉬우니 비키니 미녀를 구경하며 암전히 선풍기나 할 것 짝퉁!



레스큐투브 몸스포츠
시계 타이맥스

심폐소생술 하는 법 (CPR)

① 의식 여부를 확인한다
환자의 귀에 대고 큰 소리로 이름을 부른다. 의식을 차리게 한답시고 격하게 몸을 흔들면 위험하다.

② 맥박을 확인한다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는 등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인지를 체크한다. 이후 환자의 이마를 위로 밀고 다른 손 검지와 중지로 턱을 치켜올려 기도를 확보하자.

③ 흉부를 압박한다
한쪽 손등 위에 다른 쪽 손바닥을 얹어 각지를 깬 후 아래쪽 손바닥의 가장 밑부분으로 환자의 양쪽 유두를 잇는 선 한가운데를 4~5cm 깊이로 분당 100회 이상 빠르게 압박한다.

④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2번 과정의 자세를 다시 한 번 취하게 한 뒤 짧게 숨을 불어넣는다. 이후 흉부 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를 번갈아 반복한다. 환자의 숨이 돌아오거나 구급대와 타처하기 전까지 실시해야 한다. 흡수후!



구조대야,
불러
민거나?



abc

CPR의 과정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영미권에서 만든 압기법이다.

A - Airway(기도) 기도를 확보하고

B - Breath(숨) 숨을 불어넣어 산소를 공급한 후

C - Circulation(순환) 혈액 순환을 위해 가슴을 압박한다.

심정지 후 5분이 지나면 뇌손상이 시작되고 소생 가능성이 낮아진다. 하지만 119 구급대원이 도착하는 시간은 평균 8분이다. 당신 옆사람이 CPR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생사가 달라지는 거다.



열사병에 걸리면

장시간동안 햇볕에 노출되면 체온 조절 중추가 마비되어 열사병에 걸리게 된다. 이럴 땐 환자의 옷을 벗기고 온몸을 찬물로 적셔주거나 냉찜질을 해 주며 신속하게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한다.



Yoo Kyoung ho

튜브가 없다?

급한 대로 주변에 있는 대용품을 찾아보자.

빈 페트병

물놀이 장소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아이템 중 하나다. 밀폐된 내부에 공기가 차 있기 때문에 부력이 꽤 센 편이다.

텐트 설치용 로프

텐트 설치용 로프는 장력이 대단히 뛰어나다. 요즘 많이 쓰는 파라코드의 경우 최대 250kg까지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구조용으로 적합하다.

아이스박스

밀폐형 용기라 물에 잘 뜬다. 특히 아이스박스는 크고 묵직해 사람이 잡고 버티기에 좋아서 구조용 튜브 대용으로 적합하다.

돛자리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PVC 돛자리를 돌돌 말면 부피가 커져 스티로폼 덩어리만큼의 부력을 갖기 때문에 사람 한 명 정도는 물에 띄울 수 있다.

레프팅 중 물에 빠졌을 때

일반적으로 몸이 레프트를 떠나게 되면 당황한 나머지 수면이 허리까지만 오는 얇은 곳에서도 허우적거리는 경우가 많다. 어차피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므로 급류에 몸을 맡긴다는 생각으로 떠내러가는 게 낫다. 만약 고무보트에서 떨어진 순간 몸이 깊은 물 속에 잠겼다면 일단 호흡을 참고 침착하게 기다려라. 몸이 곧 수면 위로 떠오를거다.

HAIR 이도우 MAKEUP 황효류 VIDEO 김상수 백현경 ASSISTANT 김세형 김소용 LAYOUT 서울정 LOCATION 1098하우스(www.109house.com)
COOPERATION 뽀스포츠(02-422-422) 스타일미리(02-518-4190) 유엔유 서포드(www.unsurf.com) 타이박스(02-542-0386)

45.3%

전체 물놀이 사망자들 중 '안전 부주의'로 사망한 사람의 비율. 준비 운동과 흔히 알고 있는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뛰어 들었다가 사망한 사람이 전체 사망 인원의 절반이나 된다!

ICON

Race it to the Ground! 김진표

'종횡무진'이란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수컷 김진표. BY 조용재



선글라스 스톤아일랜드
시계 시티즌
티셔츠 데어르예
신발 핏플랍



연예계와 레이싱 팀 양쪽에 발을 담고 있는 당신은 레이서인가 연예인인가?

나는 그저 연예인이다. 그렇다고 연예인 레이서라고 하기엔 '연예 병사' 같은 느낌이라 좀 그렇다. 물론 내가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쉽게 레이서 생활을 시작했다는 건 인정한다.

요즘 애들은 당신을 케이블 방송 MC로만 알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어린 친구들은 내가 가수였다는 사실을 모르겠지. 그렇다고 어린애들에게까지 내가 음악 하는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고 싶은 생각은 없다. 음악은 그저 내가 재미있어서 하는 거니까. 그나마 내가 누군지 아는 게 어디야?

카레이서, 음악, 사진 등등 할 줄 아는 게 참 많다. 솔직히 본인이 천재라고 생각하고 있나?
절대 아니다. 천재란 이적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다. 그들이 생각해 내는 기발함과 창의성을 보면 왜 천재인지 알 수 있을 거다. 나는 '천재보다 잘 파고드는 둔재'라고나 할까? 뭔가를 시작하면 끝까지 해내야 직성이 풀리는 덕후 기질이 있어서 말이다.



김진표

생년월일 1977년 8월 13일
신장 181cm
데뷔 1995년 패닉 1집 <Panic>

소속 쉐보레 레이싱팀(2010~)

수상

2012년 헬로모바일 슈퍼레이스 엑스타 GT 클래스 2라운드 우승
2011년 티빙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슈퍼2000클래스 1위
2009년 CJ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슈퍼 1600 클래스 종합우승

선글라스 스톤아일랜드
시계 패트론
자켓 지오송지오
신발 핏볼랍



한밤의
MAXIM
연애?!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수입이 짝퉁한 일은?
 자동차 일이 가장 짝퉁하다. 생각해 보면 음악보다 자동차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 저작권료나 음원 수익은 찜찜찜찜 꾸준히 들어오지만, 자동차 쪽은 이벤트가 많아 행사, 광고 등 부가 수익이 많거든.

올해 초에도 음반을 냈는데, 다음 음반은 언제 내나?
 그렇잖아도 다음 달에 정규 앨범이 나온다. 아마 비용 문제 탓에 따로 활동은 하지 않을 것 같다.

당신을 검색하면 가장 위에 뜨는 연관검색어가 '아저씨'다. 이 노래가 히트할 줄 알고 있었나?
 대박까지는 아니지만 흔하지 않은 가사 탓에 꾸준히 사랑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 사실 이 노래는 제이레빗 때문에 탄생한 거나 마찬가지다. 예전부터 '같이 작업해야겠다' 하고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새 노래 데모가 나오자 제이레빗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 그들의 순수하고 아이 같은 목소리로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커플에 대해 써 보자는 기획을 세웠지.

어린 여자의 사랑을 받고 싶다는 속내가 아니라?
 아니다. 어린 애들은 보면 참 좋는데 실제로는 말도 안 섞는다. 그냥 '참 좋을 때구나~'라는 생각으로 보는 것뿐이지. 사실 말도 잘 안 통한다.

참고로 우리 에디터들이 꼽은 최고의 노래 1위는 '봉가봉가'다. 여자들이 끌리는 노래라 하더라고.
 아마 남자들이 자기들을 그렇게 현혹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나 보다. 오래전에 만난 친구가 학생이었는데, 그 친구가 '교수님이 그러는데 남자는 3초에 한 번씩 섹스를 생각한대요? 맞아?'라고 물어보는 게 아닌가. 당시엔 '어떤 개객기야?'라고 했지만, 나중에 곰곰이 보니 그럴싸하더라. 사랑하는 사람과 밥을 먹으면서도 수많은 대화를 나누겠지만, 거기엔 '됐고, 난 너랑 지금 자고 싶어'라는 생각이 저변에 깔린 건 아닐까. 그래서 '봉가봉가'라는 제목으로 귀엽게 표현해 봤다.

이 곡은 아내 윤주연 씨가 내레이션을 했는데, 나중에 아들딸이 듣는다면 민망하지 않을까?
 성인이 되면 아마 듣게 되겠지? 일단 내 노래 중에 법적으로 애들이 들으면 안 되는 것들이 꽤 많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생각하며 작업하고 싶진 않다. 자식 교육을 생각한답시고 뮤지션이 표현의 자유를 버려야 한다니, 그게 얼마나 쪼다 같은 짓인가?

'바람피기 좋은 날'은 어떤가? 본인의 이야기가 투영된 가사인가?
 소싯적 '바람피우고 싶을 땐 내가 어땠더라...?'라는 생각을 하며 쓴 가사다. 무서운 것 없던 시절엔 뭐가 잘 안 되면 '사발 X개!'라며 싸우려 했지만, 이제는 타협해야 하는 나이니까, 하루는 옆자리에서 술 먹는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 얘기를 하면서 "X같은 년! 쌍년!" 하며 울분을 토하더라. 영화에서도 나오잖아. 그렇게 사랑했는데도 대놓고 섹스를 하다니, 웬지 가사로 쓰면 재미있을 것 같았다.

두 아이의 아버지다. 결혼은 꼭 해야 하는 게 맞나?
 한 번 이혼하면서 두 번 다시는 결혼 안 한다고 결심했지만, 여자가 남자를 결혼하고 싶어 만들면 어쩔 수 없더라. 아무리 돈 많이 벌면 뭐하나? 대화할 사람도, 돈 쓸 곳도 없는 삶은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예전에 당신이 속한 웨보레 레이싱 팀 감독 겸 선수인 이재우 선수와 대면한 적이 있다. 어떤 사람인가?
 스승이다. 이전까지는 음악이나 사진이나 전부 나 스스로 했기 때문에 스승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못 했지만, 레이싱은 달랐다. 처음 시작했을 때 정말 열심히 가르쳐주더라. 지금 좋은 성적을 내는 건 다 그때 잘 배워왔기 때문이다. 지금도 감독님이라고보다는 사부라는 생각으로 배우고 있다.



수컷의 정의? 발기하는 모든 것은 수컷이다.

연예인이 레이싱을 하면 허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레이서 김진표'는 국내에서 어느 정도인가?
 탑클래스지, 틀린 얘기는 아니다. 언제나 시즌 탑 3위 안에 들어가 있고, 항상 상위권에 있으니 탑클래스 맞잖아.(웃음) 물론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제는 <탐 기어 코리아>를 빼고 당신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시즌 1부터 당신만 안 바뀌고 있다. 계속 나오는 이유라도 있나?
 그러게 말이다. 출연료가 싸서 그런가?(웃음) 사실 나도 <탐기어>를 하며 얻어가는 게 많다. 모터 분야에 있는 기자님들을 만나서 얘기에 봐도 나만큼 고급 시승차를 그렇게 자주 몰아보는 사람도 없다 하더라. 서킷을 못 뚫더라도 나처럼 '이 차가 언제 거덜 나는지 보자'는 심정으로 몰기도 쉽지 않으니깐.

당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슈퍼카는?
 만약 내가 내 돈 주고 슈퍼카를 산다면 포르세가 낫지, 가격 차이가 상당하니까 말이다. 하지만 그런 모든 외부적인 요인을 배제하고 생각해 봤을 때 최고의 슈퍼카는 역시 페라리다. 페라리는 뜨겁다.

포르세가 기계 같은 느낌이라고 하면 페라리는 진짜 섹시한 여자를 타고 있는 느낌이다.

오늘 함께 촬영한 아우디 R8과 웨보레 콜백은 한마디로 어떤 차인가?
 R8은 똑똑한 차고, 콜백은 무식한 차다. 다르게 생각하면 R8은 지능지수가 너무 높은 나머지 조금 매력이 반감되는 감이 있지만, 콜백은 반대로 너무 무식해서 매력이 넘치는 차라고나 할까?

인공 심장을 달고 있다던데?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인공 심장이 아니라, 심장이 좋지 않아서 몸속에 체제동기 비슷한 장치가 들어 있는 거다. 워급 상황이 닥치면 심장 박동을 돕는 그런 기계지. 내가 아이언맨도 아니고...

당신 머리를 보고 탈모 동지라는 생각을 했다.
 맞다. 난 완벽한 탈모환자다. 하지만 스트레스는 안 받는다. 아버지가 나를 잘 키우셨지. 어릴 때부터 늘 "넌 나중에 대머리가 될 거다"라고 하셨거든. 내가 탈모증세를 겪는 다른 친구들에게 "그게 뭐 별거냐"라고 얘기하면, "너는 그나마 M자 탈모로 다행이지 사발"이라며 뭐라 한다. 하지만 나는 이것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없다. 브루스 윌리엄스 머리는 없지만 남자들의 선망 대상인데!

포토그래퍼로서의 자신을 평가할 수 있을까?
 사진을 찍는 행위는 마치 딸딸이와도 같다. 내가 자위를 어떻게 하든 누가 뭐라 하겠나. 이젠 그냥 내 개인적인 만족이다. 예전에 개인전을 열자는 제안도 쓸쓸하게 들어온 적이 있었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다. 내가 자위하는 걸 누가 들여다보는 게 싫었다. 사진만큼은 내 개인적인 영역으로 두고 싶다.

만약 당신을 MAXIM의 객원 포토그래퍼로 영입한다면 받아들일 건가?
 여자를 찍는 건가? 할 만하겠는데?(웃음)

당신도 우리처럼 '수컷'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더라. 당신이 생각하는 '수컷'이란?
 발기하는 모든 것은 수컷이라고 생각한다. 아, 이렇게 말하면 몇몇 좋지 않은 분들이 버럭 하러나?(웃음) 어쨌든 내가 얘기하는 '수컷'이라는 단어에는 굉장히 섹슈얼한 느낌이 들어 있다. 암컷을 보면 달려드는, 그런 동물적이고 본능적인 존재들이야말로 '수컷'이라는 단어로 어울리는 남자가 아닐까.

마지막으로 MAXIM 독자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나도 MAXIM을 좋아하지만, MAXIM은 가볍게 읽는 맛이 있는 잡지라고 생각한다. 덩다고 안에 짱박혀 MAXIM만 주구장창 탐독하고 있지 말고 이런 화창한 날씨에 뛰쳐나가 라이프를 즐기길 바란다. 그게 진짜 수컷의 삶이니까.



Breaking Bad: The Aftermath

MAXIM 에디터의 마약 제조 현장 청소 체험기.

크라이시스 클리닝의
릭과 도네타 부부는
마약 제조 현장의
잔해를 처리한다.



마약 요리
교실





“약쟁이들은 하도 절박해서 이 집에 돌아와 벽을
핥아댈지도 몰라.” 크라이시스 클리닝(Crisis Cleaning,
마약 제조 현장 전문 청소 업체)의 릭 헬드가 말한다.
우리는 방 전체를 뒤덮은 쓰레기 바닷속을 허우적거리며 걷는다.
이 쓰레기들은 누군가의 삶에서 최악의 순간만 모아 바닥에
쏟아놓은 것이다. 나는 커피 테이블 위에 있는 쓰다 버린 주사기 더미
사이에서 책 한 권을 집어 든다. 제목은 <30일 만에 이해하는 주 예수의
말씀>. 그 책도 쓰레기봉투로 들어간다. “마약에서 얻는 황홀감이라는 게
다른 데 비할 바가 아닌가봐.” 릭이 말한다. “개네는 자기 오줌에서라도 마약을
추출하려고 할 거야. 우웁, 내가 말해 놓고도 역겹네.”



이날 크라이시스 클리닝 팀은 인디애나 주 외곽에 있는 폐쇄된 마약 제조실을 청소했다.

필로폰 뒤처리

필로폰이 유행하면서 미국 외진 지역 곳곳에 해골같이 병약한 미소를 띤 중독자들이 출몰하고 있다. 인디애나는 미주리와 테네시에 이어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필로폰 생산·소비주다. 인디애나 주 블루밍턴에서 서북부로 25마일 떨어진 이 작은 동네에선 <브레이킹 배드(Breaking Bad, 마약 제조에 나선 전직 고등학교 화학 교사를 그린 미국 드라마)>의 실사판이 재현되고 있다. 동네 중심부는 신도 확보에 혈안인 교회, 커다란 '낙태 중지' 옥외 광고로 가득하다. 필로폰은 지역사회를 파괴시키지만, 어떤 이들은 그 와중에도 필로폰에 기반을 둔 가족 사업을 찾아냈다. "우리는 필로폰 뒤처리로 먹고살아." 도네타 헬드가 말한다. 그녀는 남편 릭과 함께 인디애나 주에서 가장 큰 필로폰 제조 현장 청소업체인 크라이시스 클리닝을 운영한다. 경찰이 제조 현장을 폐쇄하고 나면 헬드 부부가 현장의 독소를 제거한다. 2007년 이후, 이들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현재의 서민 경제를 설명하는 슬픈 지표다. 필로폰은 가난한 사람들의 마약이다. 필로폰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물건은 월마트에서 흔히 구할 수 있다. 황산,

라이터 기름, 평범한 감기약(여기서 마약 성분인 슈도에페드린을 추출한다) 같은 것 말이다. 이걸 음료 병 하나에 때려 넣고 흔들어 섞으면 위험천만한 즉석 마약이 탄생한다.

"온갖 청소 의뢰 중에서도 필로폰 제조 현장 청소가 제일 많아." 도네타가 말한다. 1955년까지만 해도 그녀의 가족이 운영하던 용역 회사는 대개 화재나 수재에 무너진 현장을 수습하곤 했다. 경찰은 무역 박람회에서 마주친 이 회사에 "필로폰 제조 현장을 청소해줄 수 있느냐"고 의뢰했다. 그녀는 지금도 마약 뒤처리 일로 업종을 변경한 것이 탄탁지 않다. "필로폰 청소라니! 내가 어렸을 땐 상상도 못한 일이야."

우리는 마을 외곽에 있는 싸구려 임대 아파트 단지 앞에서 있다. 이 아파트 중 한 곳은 필로폰 제조실로 운영한 것이 탄로나 최근 경찰의 급습을 받았다. 도네타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이 사업을 시작한 이후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곱씹는다. "아러다가 언젠가는 의뢰 전화를 매일 받는 날이 올지도 몰라." 필로폰 제조 현장 청소는 쉬운 일이 아니다. 마스크 없이 특정한 휘발성 화학물질을 들이마셨다간 폐가 타버릴 수 있다. 잠재적 신장 질환의 위험이나 호흡기 문제는 두말할 것도 없다. 위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필로폰 제조자들은 자기 집 곳곳에 부비트랩을 설치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전구에 가솔린을 넣어두고, 경찰이 불시 단속을 나와 스위치를 켜는 순간 장치가 폭발하도록 만드는 식이다. "건드리는 모든 게 부비트랩이라고 상상해봐." 도네타가 엄숙하게 말한다. "어디서 뭐가 터질지 아무도 몰라!"

예고편은 이걸로 충분할 듯하다. 이제 현장으로 들어갈 차례다. 우리는 체르노빌 원자로 안이라도 들어갈 것처럼 보호 장비를 꼭 빼입고, 넓게 펼쳐진 말라비틀어진 잔디밭을 밟고 현관으로 들어간다.

총알과 편집증

필로폰 제조 현장 청소 비용은 기본적으로 보험회사에서 낸다. 필로폰으로 인한 건물 손상을 오염 물질에 따른 손상 혹은 공공 기물 파손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보험회사 덕에 집주인은 월세 손실을 보상받는다. 그러나 요즘 들어 보험회사들이 보상 정책에서 필로폰을 제외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제조 현장 시설물을 압수하고 지역 보건국에 공지한다. 그러면 해당 부동산은 주에서 보증하는 업체의 오염 제거를 받아야 하고, 필로폰 잔여물이 100제곱센티미터당 0.5마이크로그램 이하 수준이라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실내를 둘러보니 마치 조울증 환자의 롤러코스터 같은 머릿속에 갇힌 느낌이 든다. 바퀴벌레가 들끓는 구덩이에 온갖 집중사니를 쏟아부은 것 같기도 하고, "뭐 하나 내다버리질 않았어." 릭이 쓰레기를 살피며 말한다. "뭐가 튀어나와도 놀랄 게 없어. 저번엔 청소하다 다리에 웬 사람이 하나 걸려서 식겁했네. 마약 만들다 바닥에 드러누워있던 놈이었어. 거기

있지 보지도 못했는데." 과거의 흔적들이 한때 여기에 있다 사라진 중독자를 설명해준다. 가족 앨범, 양부모 서류, 침대를 가로질러 누워있는 미국 국기, 릭이 바닥에 흩어진 총알 한 줌을 집어 들더니 "다들 편집증 환자야. 세상 모두가 다 자기를 쫓아올 거라고 굳게 믿고 있지" 라고 말한다. "문자 그대로 실내 전부를 총으로 채워 넣은 집도 있었어. 굉장했지! 이 짓을 하다가 별꼴을 다 봐. 필로폰 중독자들은 별 희한한 짓을 다 하거든." "어떤 희한한 짓이죠?" 분노 조절 수업 수료증 하나를 주위 산업용 쓰레기봉투에 던져 넣으면서 들었다. "악에 취해서 하는 미친 짓 말아야. 악 때문에 넌가 무슨 아인슈타인처럼 변해버리지."

당신 이웃이 부엌에서 마약을 제조하고 있다는 증거

- 1 이웃의 외모가 <워킹 테드>의 좀비 같이 보인다. 필로폰 중독자는 체중이 감소하고, 눈이 푹 꺼지고, 몸이 붓고, 여기저기 상처가 생기고, 치아가 부식된다. 좀비들이 오하려 더 건강해 보일 지경이다.
- 2 마당에 버린 화학물질 때문에 잔디밭이 군데군데 파여 있다. 필로폰 중독자는 잔디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 3 담배를 피우려 자주 밖에 나간다. 집안에 있는 비흡연자를 배려해서 밖에 나가는 것이 아니다. 자기 집에서 불을 피우면 폭발할 위험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몰랐으면 벌써 저세상 갔겠지?
- 4 쓰레기봉투가 화학물질, 악병, 커피 필터, 침대 시트로 꽂 차 있다. 이웃들이 함께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는 피한다. 다 남들 의심을 피하려다 이 꼴이 난 거다.
- 5 필로폰 중독자들은 유난히 이웃 눈치를 보며 들뜬다. 세퍼드가 자기고 있다고?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필로폰 제조자의 이웃'이다.

갑자기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거야.” 그는 와이어가 담긴 박스와 전자 부품이 담긴 통을 끌어당기더니, 공구들이 널려 있는 얼룩진 매트리스를 가리킨다. “저 도구들 보여? 약쟁이들 뇌가 얼마나 팽팽 돌아가느냐면, DVD 플레이어를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하면서 놀아. 그러고선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지?’ 하면서 혼자 깜짝 놀라고.” 그는 이 아마추어 과학자에게 감탄하는 것 같았다.

“애네 머리가 너무 빨리 돌아가서 경찰은 항상 두 발자국 정도 늦어.”

우리가 대화를 하는 동안, 잔여 화학물질이 눈과 콧속으로 가차 없이 밀고 들어온다. 이빨은 화학물질로 코팅돼 필로폰 사포가 되었고, 찜찜한 금속 맛이 입안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릭이 거실 벽에 난 커다란 구멍을 가리킨다. “여기서 경찰이 필로폰을 찾아냈어. 미국 국기가 구멍 위를 덮고 있었고, 여기서 약을 보관했던 거야.”

파란 작업복 차림의 인부 다섯이 쓰레기를 커다란 검정 쓰레기봉투에 계속해서 쑤셔 넣는다. 재료를 넣고 흔들 때 사용한 빈 마운틴 듀 병과 구겨진 알루미늄 호일이 끝도 없이 나온다. 소파 아래에서 릭이 커다란 회색 재료 얼룩진 포일 한 뭉치를 꺼낸다. 쓰레기 바다를 바라보면서 릭이 말했다. “이 인간들은 취했고, 취한 중에 제일 취했고, 다시는 그렇게 취할 수 없을 정도로 취했고, 거기 영원히 갇혀버린 거지.”



마약 제조가 불러오는 폭발

어떤 장소를 필로폰 제조 현장으로 사용했는지 알려주는 지표는 세 가지다. 버려진 화학물질 때문에 시든 잔디밭, 뒤뜰에 쌓인 거대한 잿더미, 육조와 싱크대에 생긴 얼룩. 눈 씻고 제대로 보면 정교한 단서가 여기저기 산재해 있다. 잔디밭 (당연히 노랗게 메말라 있다) 그늘 속엔 주사기,

하더라도, 필로폰을 제조하거나 흡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는 사라지지 않는다. 마약 제조를 멈춘 지 20년이 지난 집이라 해도 오염이 남아 있을 수 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거주자들이 두통을 앓는 것이다. 어린이는 피부 발진을 일으킨다. 호흡계 질환도 흔하다.

“춘구석이잖아.” 도네타가 말한다. “필로폰은 만들기 쉬운 마약이야. 모르는 사람에게서 약을 살 필요가 없어. 필로폰 좀 하고 싶으면, 나가서 재료를 사 오면 돼.”

수다페드(기침 감기약의 한 종류) 한 팩이면 필로폰 10~20mg을 만들 수 있다. 얼음 찜질팩, 양젓물 한 병, AA 리튬 배터리 두 개, 석뇌유, 요오드 첨가 식염, 황산, 20온스(600ml)짜리 병 몇 개, 커피 필터 몇 장, 갈매기, 소형 유리병 두 개만 있으면 끝이다. 인디애나산 마약 중 75% 정도가 가내수공업으로 제조된다. 이른바 ‘흔들어 합성하기(shake-and-bake)’라는 이 방식은 마약을 제조하는 방법 중 가장 조악한 방식이다. 플라스틱 소다병에 모든 재료를 넣고 흔들어서 섞는다. 그러면 재료가 전부 결정으로 굳어진다. 문제는 이 혼합물이 극도의 휘발성을 띄기에 마치 폭탄처럼 순식간에 폭발할 수 있다는 것. “이 사람들은 화학자가 아니야. 다들 그냥 야매로 하는 거지.” 도네타가 한숨을 내쉰다. 릭이 휴식을 취하다 덧붙였다. “어떤 남자가 자기 차 안에서 필로폰을 만들었는데, 병이 폭발하면서 자동차 앞 유리가 와장창 쏟아졌어. 그 남자는 죽사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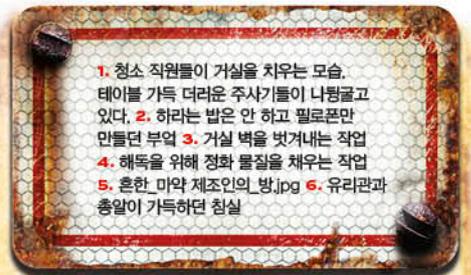
이웃의 시선

신형 쓰레기차가 이쪽으로 오더니 속도를 줄인다. 파란 방역복을 입은 남자들이 쓰레기를 거대한 금속

“이 인간들은 취했고, 취한 중에 제일 취했고, 다시는 그렇게 취할 수 없을 정도로 취했고, 거기 영원히 갇혀버린 거지.”

커다란 가스탱크, 시험용 마약을 들이붓느라 가운데가 타버린 양동이가 굴러다닌다. “집 보러 오는 사람들은 절대 이런 걸 알아차리지 못해.” 도네타가 설명한다. “사람들은 집을 사고 난 다음에야 이 집이 마약 제조실로 쓰였다는 사실을 깨닫지.” 집을 충분히 환기시키고 페인트칠을 새로 한다

“그린 카운티에서 테스트도 안 거친 집을 사는 건 용감무쌍한 짓이야.” 도네타가 말한다. “아마 지금 빈집 중에 25%는 예전에 마약 만들던 곳일걸.” “인디애나 주에서 필로폰이 이렇게 인기 있는 이유가 뭐죠?” 겹질이 딱딱해진 회갈색 소파를 아파트 밖으로 빼면서 물었다.



1. 청소 작업들이 거실을 치우는 모습. 테이블 가득 더러운 주사기들이 나뒹굴고 있다.
2. 하리는 밥은 안 하고, 필로폰만 만들던 부엌
3. 거실 벽을 벗겨내는 작업
4. 해독을 위해 정화 물질을 채우는 작업
5. 혼한 마약 제조인의 방.jpg
6. 유리관과 총알이 가득하던 침실

쓰레기통에 넣기 시작한다. 아파트 단지 내 몇몇 열린 문 사이로 주민들이 내다본다. “메이벨! 메이벨!” 주인 한 명이 뒷문 뒤에서 외친다. 강아지 하나가 달려든다. 그 강아지 주인인 캐럴에게 다가갔다. 그녀에게 옆집 남자를 아느냐고 물었다. 캐럴은 옆집 남자를 잘 알고 있었다. “그 사람, 자기 여자 친구랑 헤어지고 나서부터 그 모양이었어.” 캐럴이 말했다. “물 흐르는 소리가 하루 종일 들렸지. 계다가 문을 열었을 때마다 항상 고무장갑을 끼고 있는 거야. 좀 이상하다 싶더라고.” 크리스마스 즈음엔 무언가 썩는 듯한 암모니아 냄새가 코를 찔렀다. 참다못한 주민들이 항의를 했다. “경찰이 그 남자 집에 찾아가셨을 때, 화학물질이 너무 심하게 퍼져 있어서 경찰은 계속 난만 비벼댔어.” 캐럴이 군데군데 노랗게 변해버린 잔디밭을 둘러보며 메이벨을 안아들더니 덧붙인다. “그 사람이 지금 감옥에 있어서 다행이지. 그동안 두통 때문에 엄청

고생했는데 이제야 좀 괜찮아졌어.” 아파트로 돌아와 우리는 부엌을 둘러본다. 최악의 관음이 남았다. 오염 정도가 레벨 0.5면 ‘오염 구역’으로 등록된다. 부엌은 무려 레벨 9.73을 기록한다. “여기서 약을 만들어서 이쪽 배수구로 쏟았어.” 우리가 파란 고무장갑 무더기 사이로 어기적거리며 걷는 동안 렉이 말한다. “약 한 번 만들 때마다 고무장갑 한 켤레가 필요해. 이 꼴을 보니 최소한 8개월쯤 약을 만들었겠네.” 가구가 빠져나가 흰한 거실은 필로폰 연기 때문에 페인트가 탈색됐다. 카펫을 들어내고 쓰레기와 주사기를 모두 치운 후에야 본격적으로 정화 작업을 시작했다. 통풍관에 안개가 차오른다. ‘크리스탈 클린’이라는, 정부에서 탄저균(!)을 죽이기 위해 개발한 세제가 벽, 천장, 바닥에 살포된다. 이 화학물질은 거품을 만들면서 독소를 중화한다.

한 시간쯤 기다리고 행귀내면 해독이 완료된다. 쓰레기도, 필로폰도 바이바이다. 크리스탈 클린 한 방이면 모든 오염 물질이 사라지지만, 해당 건물의 정화 작업을 완료하려면 좀 더 정교한 확인 과정이 남았다. 일요일에 적신 면봉 네 개를 각각의 방 벽에 문지른 후 유리병에 넣는다. 다음 날 워싱턴의 실험실에 이 샘플이 도착하면, 3~5일 후 결과가 나온다. 필로폰 중독자의 삶이 이처럼 처참한 것이라면, 애초에 왜 필로폰을 하기 시작하는 걸까? “원래는 다 착한 사람들이야. 착한데 생각이 없는 거지.” 렉이 말한다. “80%가 시험 삼아 피워보다가 중독돼버려. 인생이 우울한 사람들이 특히 그래. 딱한 일이지. 정말 유감이야. 그래도 다른 방법도 많은데 그러는 건 아니지. 이젠 삶의 목적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짓거리밖에 안 돼.” ☹



★ the MAXIM Party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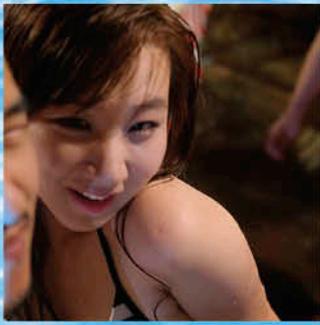
내가 오라고 했잖아, 죽음일 거라고 했잖아.
BY 손안나

@Caribbean Bay: 2013. 08. 10. s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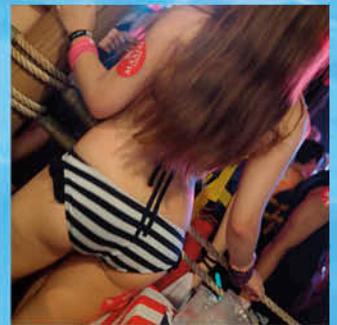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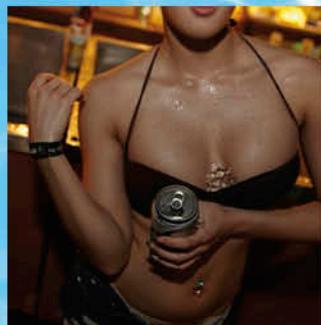


오후 6시, 캐리비안 베이에서 놀던 애들이 하나 둘 집으로 가는 시각. 우리는 캐리비안 베이의 한 곳을 아예 막아놓고 PARTY 를 시작했다. 낮에 파도풀에서 놀던 선남선녀들이 파티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놀이 얼마나 긴 지 워터 슬라이드 대기열을 방불케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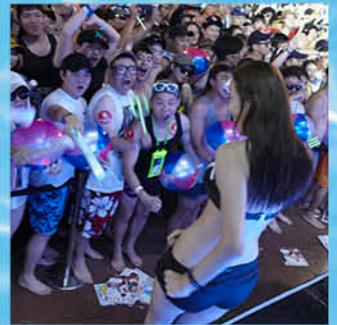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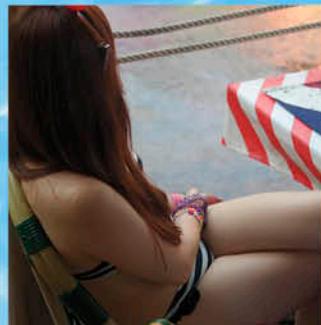
입구에서 나눠준 19금 ADULT 팔찌를 수갑처럼 찬 핫한 비키니녀들은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 일제히 구멍조끼를 벗어 던졌다. 애들은 출입금지였고 어른들의 파티가 시작했다. 캐리비안 베이의 수은주가 순식간에 급상승했다.



파티에 늘어난 미스맥심들도 진득 달아 올랐는지 술 마시던 테이블 위에 올라가 예정에 없던 퍼포먼스를 펼치기 시작했다. 기동을 봉삼아 폴댄스를 추기도 했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MAXIM PARTY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광경이었다.



Party



밤이 깊어가도 줄은 줄어들지 않았고, 여기저기서 쏘아대는 물줄기에 비키니가 마를 틈이 없었다. 술을 마시다 더우면 수영장 물에 들어갔다 오면 그만이었다. 이랑곳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차피 다들 처음부터 젖어 있었잖아? 🍷



VIDEO 김상수 COOPERATION Everland, J.K corporation

MAXIM CREW

쇼핑몰



특히 이 날 MAXIM PARTY에는 MAXIM의 2013 신입 사원과, 2013 미스맥심 콘테스트의 뉴페이스들이 대거 참석해 독자님들께 얼굴 도장을 찍었다. 하지만 파티에 못 온 독자도 많을테니 지면을 빌어 올해 MAXIM의 새 식구가 된 풋풋한 면상들을 전격 공개한다. 애들아, 독자님께 인사 올려야지? (남는 칸은 구닥다리들로 채웠다. 미안)

- 당일배송
- 아우터
- 드레스
- 레깅스
- 홀복
- 언더웨어
- 비키니
- 자체제작
- 고객센터



[편집부] 김상수 에디터

주문폭주!!



[미스 맥심] 김소희

주문폭주!!



[편집부] 박정욱 에디터

주문폭주!!



[미스 맥심] 이현지

주문폭주!!



[편집부] 김세형 에디터

주문폭주!!



[편집부] 손안나 에디터

이월상품할인



[편집부] 김소윤 에디터

주문폭주!!



[편집부] 유승민 에디터

재고땡처리



[일러스트레이터]
장재혁

주문폭주!!



[편집부]
김희성 에디터

재고땡처리



[사장 비서]
정석영

주문폭주!!



[경영지원과장]
최인영

재고땡처리

“
노리고 있었던 걸까, 이날 캐리비안 베이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독자들이 MAXIM PARTY에
참석했다. 이제껏 가장 많은 독자와 마주한 날이
하필이면 벗고 노는 자리라니... 그것도 맨 정신이
아닌 팔라상태에서... 초면에 뽀스&비키니
차림임에도 불구하고 반갑게 우리를 알아보준
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편집부]
조웅재 에디터

이월상용합인



[마케팅]
정재식 매니저

주문폭주!!



[편집부]
장혜민 에디터

주문폭주!!



[마케팅과장]
김진욱

재고땡처리



[편집부]
이효선 에디터

주문폭주!!



[미스 맥심]
최혜연

재고땡처리



[미스 맥심]
박선혜

주문폭주!!



[경영지원]
안재만 주임

주문폭주!!

반품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구매해주세요.

이번 9월호가 세상에 나올 즈음인 8월 22일이면 이번 2013 하반기
MAXIM KOREA 정기 공채 서류 접수가 마감되고 본격적으로
3차 전형에 걸친 공채 시험이 시작될거다. 하반기 공채의 최종 합격의
관문을 통과하고 또 다시 이 멍청이들과 함께 할 멋진 청년은 누구일지...
벌써부터 기대된다. 수컷 대환영! 여초가 너무 심해. 🐻

Horror 10 #1.
무서운 이야기의
10가지 단골 소재 / July 2013

Horror 10 #2.
살인마가 사람을 죽이는
10가지 이유 / August 2013

2013
Summer Special
horror
10

Horror 10 #3.
외계 생명체에 대한
10가지 음모론



MAXIM 낭랑 특집 세 번째는
외계 생명체에 관한 거다. 써놓고 보니 더 진짜 같네.

BY 김희성 LAYOUT 서윤정

1 로즈웰
UFO 추락사건

1947년 6월 14일, 미국 뉴멕시코 주 로즈웰에 사는 농부 윌리엄 브래즐은 목장에서 어떤 잔해를 발견했다. 미 공군은 다음 날 보도 자료를 통해 비행접시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으나, 바로 이튿날 “발견된 잔해는 단지 기상 관측용 기구였다”고 정정 발표해 이후 60년이 넘는 세월동안 UFO와 관련된 수많은 음모론이 만들어졌다. 정체불명의 잔해가 발견된 농장의 주인은 함구령을

받았다고 했고, 처음에 “비행접시를 봤다”고 발표했던 공보장교도 어떤 입력이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게다가 일부 주민은 ‘외계인 사체’를 목격했다고 했다. 그리고 그 사체는 공군이 어디론가 싣고 갔다고도 했다. 1987년에는 영국의 한 UFO 연구가에 의해 로즈웰 사건과 관련된 극비 문서가 공개됐다. 이 문건은 1950년 3월 22일 FBI 워싱턴 담당 특수요원이었던 가이 호텔이 FBI 디렉터에게 보고한 문서로 ‘공군 조사관이 뉴멕시코에서 소위 비행접시라고 불리는 3개의 물체를 발견했다’, ‘각 비행물체에는 3개의 인간 형태의 생물체가 있다. 키는 약 3피트 정도다. 그들은 금속성 물질의 옷을 입고 있는데 고속 비행이나 실험 비행을 할 때 입을 제복과 비슷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가이 호텔은 자신이 목격한 사실을 쓴 것이 아니라 사건이 일어난 지 3년 뒤에 들은 이야기를 쓴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던 중 사람들이 로즈웰 사건을 UFO의 침략이라고 굳게 믿게 된 사건이 있었다. 로즈웰에 추락한 외계인의 해부 장면을 담은 필름이 발견돼 방송사에서 이를 세계 각국으로 생중계하게 된 거다. 당시 많은 전문가들이 이 필름에는 조작의 흔적이 없다는 코멘트를 해 진위 여부에 대한 사람들의 의심을 불식시켰다. 하지만 2006년, 영국의 한 특수효과 전문가가 영상 속 외계인은 자신이 제작한 모형이며 목적은 돈벌이었다고 밝히면서 이 외계인 해부 동영상은 ‘가짜’로 판명됐다.



1. 당시 외계인 해부 동영상은 케네디 피격 영상보다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지만 결국 연출된 것으로 밝혀져 많은 사람들을 실망하게 만들었다.
2. 로즈웰에서 정체불명의 잔해를 발견한 브라들은 신문사에 연락해 그 물체가 은박지, 종이, 테이프, 막대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증언했다. 미 공군은 제보를 받고 출동해 잔해를 수거했으며 그 흔적을 말끔히 없애버렸다.

2 UFO = 미 정부의 비밀 병기?

사람들이 UFO라고 믿는 의문의 물체는 미 정부가 개발한 비밀병기라는 음모론도 있다. 이 가설은 '왜 유독 미국에서 UFO의 출현이 잦을까에 대한 의문을 한 번에 풀어 준다'는 점에서 꽤나 설득력이 있다. 종전 후 소련은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를 우주로 쏘아 올리며 미국의 간담을 서늘케 했다. 이에 미국도 관련 연구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데, 이 때 심혈을 기울이던 프로젝트 중 하나가 수직이착륙이 가능하며 300마일이나 떨어진 우주 상공에서도 소련에 핵폭탄을 투하하는 것이 가능한 '비행 접시형 폭격기'를 개발하는 'LRV 프로젝트'였다. 이 프로젝트와 관련 여러 가지 실험이 진행되면서 '비행접시를 봤다'는 목격담과 실험체의 각종 잔해에 대해 'UFO가 추락했다'는 의문이 증폭되었지만 이 실험 자체가 군사기밀이었기 때문에 미 정부는 그 어떤 발표도 할 수 없었다. 1997년, LRV 프로젝트 관련 기밀이 해제돼 미 정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진상을 발표했다. 로즈웰 사건 때 UFO의 잔해 근처에서 사람들이 목격했다는 외계인은 안전상의 이유로 진짜 사람 대신 실험에 투입한 마네킹을 보고 착각한 것이라고 했다.

3 의문의 51구역

미국 네바다주에는 분명히 실재하지만 지도에조차 표시되지 않는 광활한 지역이 있다. '구글 어스'에도 나와있는 지역이지만 미 국방부는 51구역의 존재에 대해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51구역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접근만 해도 즉시 사살한다'는 삼엄한 경고 표지판이 세워져있다. '뭔가 있다'는 직감이 든 음모론자들은 추락한 UFO와 외계인 사체가 이곳에 옮겨져 연구되고 있다는 설을 끊임없이 제기했다. 올해 8월, 58년 만에 기밀 해제되면서 미 정부는 51구역의 실체를 드디어 인정했다. 355쪽짜리 보고서에는 음모론 속 51구역을 U-2 첩보기의

개발 및 테스트가 진행된 비밀 기지라고 했다. 51구역 주변에서 유독 UFO 목격담이 많았던 것에 대해서는 날렵한 비행기가 태양에 비쳐 괴 물체로 보였을 수도 있다고 했다. CIA에 따르면 51구역이 실재하긴 하지만 외계인과 관련된 기지는 아니라는 거다. 하지만 이 보고를 그대로 믿기에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 51구역 지하지 건설했던 필 슈나이더 박사는 그곳에서 근무하는 동안 목격할 것을 폭로했는데 "외계인이 제공한 기술로 제조된 레이저 굴삭기를 사용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하 수마일 지점에 은하기지를 건설했다. 이 지하지들은 마하2 이상의 속도로 운행되는 무중력 지하 기차로 연결되어 있다"고 밝혔다. 필 슈나이더 박사는 이 인터뷰를 한지 7개월이 지난 뒤 죽은 채로 발견됐고, 타살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자살로 종결되었다. 또 다른 폭로자가 한 명 더 있다. 51구역에서 근무했던 물리학자 밥 라자르는 "미국 정부가 포획한 외계인의 비행접시를 분해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원리를 알아내는 작업을 했다. 시막 한가운데에서 군사지역으로 위장해 있는 51구역은 정부가 외계인들과 조약을 체결하여 외계인들에게 임대해준 구역이다. 이 조약을 근거로 인간 대상의 생체

실험까지 합의한 걸로 알고 있다.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축도살 사건도 그 조약에 의해서 외계인들이 행하고 있는 실험이다. 그 대가로 외계인들로부터 첨단 기술을 전수받고 있다'는 엄청난 사실을 폭로했다. 밥 라자르는 51구역에서 자행되고 있는 생체 실험에 반발해 그곳을 나왔지만 나와 보니 자신과 관련된 기록이 다 소멸돼 있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신변의 안전을 위해 자신을 세상에 알리는 방법을 택했다.

4 외계인 기술 교환론

만약 진짜로 '외계인'이 존재한다면 미 정부는 왜 외계인에 대한 정보를 숨기려고 하는 걸까? 여기에서 미 정부가 외계인과 비밀 협정을 맺고 외계인에게 고도의 과학 기술을 제공받는 대신 외계인 정보를 숨겨주는 것이라는 음모론이 파생된다. 그리고 보니 인류의 기술이 20세기에 들어서 갑자기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하는 것이 좀 이상하긴 하다. 로스웰에서 비행접시가 추락한 지 3개월 뒤인 1947년 10월 14일, 공군조종사 척 예거가 인류 최초로 음속 돌파를 한 것이 과연 우연에 불과하느냐는 말이다. 생각해 보면 UFO나 외계인이 진짜로 있다고 해도 그걸 굳이 숨길 이유는 없다. 하지만 UFO를 목격한 사람들은 미국 정부로부터 관련 내용을 발설하지 말라는 위협을 받았다. 소련과 냉전 중이었던

미국이 군사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전진공군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간을 납치해 생체 실험을 하는 것을 묵인해주면 고도의 과학 기술을 알려주겠다'는 외계인과의 거래가 성사돼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미국이 짱뚱맨 자리를 유지하는 이유가 설마...

5 바코드 음모론

1973년 미국 정부는 공통상품코드 UPC(Universal Product Code)의 규격을 확립하고, 대형 슈퍼에서 UPC 바코드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바코드 자체가 널리 보급된 건 아니었는데 1981년, 미 국방부는 UPC를 채택하고 모든 군납 업체에게 UPC 바코드를 사용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미국 군부에는 다른 편리한 코딩 시스템도 있었기 때문에 굳이 바코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미 군부는 바코드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는 바코드가 널리 사용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레이저 기술이 발달로 이제 물건뿐만 아니라 고기나 인간의 피부에도 새길 수가 있게 됐다. 미 군부에서 바코드 사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음모가 제기됐다. 신약 성서 <요한 묵시록> 13장 16~18절에는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낙인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표시하는 숫자의 낙인이 찍힌 사람

외에는 아무도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바로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영리한 사람은 그 짐승을 가리키는 숫자를 풀이해보십시오. 그 숫자는 사람의 이름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그 수는 육백육십육입니다"라고 쓰여 있다. 음모론자들은 바코드가 바로 '짐승의 낙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바코드의 도입은 사실 지구인을 즉시 식별할 수 원하는 외계인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설도 있다. 사람에게 부착될 스마트 카드에 새겨질 바코드는 외계인이 고안해낸 유전자 코드를 바탕으로 만들어질 것이며 이제 지구인을 납치해서 번거롭게 실험하지 않아도 지구인들의 주요 생화학적 정보를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거다.

6 외계인 할리우드 이용설

외계인의 최종 목적은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며 이를 은밀하게 돕는 세력들이 있는데, 할리우드가 이에 교묘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외계인을 소재로 한 SF 영화의 대부분의 스토리가 외계인이 지구 정복을 꿈꾸다가 결국 패배하지만 알고 보면 외계인들은 과학적인 작업을 했을 뿐, 인간이 이를 오해하고 싸움을 걸었다는 식의 내용이 많다. <맨인블랙>, <E.T.> 등의 영화는 아예 외계인을 '이웃'으로 다루고 있다. 소규모로 지구에 온 외계인들은 인간에게 우호적인 존재라는 설정이다.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대중을 외계인과의 접촉에



3. 51구역이 나오기 한참 전부터 경교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접근은 물론 촬영도 금지되어 있다.
4. 구글 어스에서 본 51구역. 이렇게 광활한 대지가 지도에서 빠져 있었다니 확실하 뭐가 있는 것 같다.

익숙하게 만든 뒤, 실제 있었던 외계인 관련 소식들을 몇 년에 걸쳐 조금씩 미디어를 통해 흘려보내다가 마지막에 “우리는 드디어 외계인을 발견했고, 그 외계인들은 현재 여기에 있다”고 최종 발표를 하면 외계인의 지구 진출이 자연스럽게 시작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항공우주국(NASA)에서는 우주비행사들이 불가사의한 물체를 목격했음을 1988년에 ‘공식’ 적으로 발표했다. 외계인의 음모는 이미 시작된 걸까?

7 가족의 떼죽음 현상

미국을 비롯한 남아메리카, 캐나다 등지에서 가족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염병은 아니었다. 다만 발견된 동물들의 사체에 하나같이 기이한 흔적들이 남았다. 발견된 동물들의 사체는 피가 모두 사라진 채였으며 주로 눈이나 생식기관, 배뇨기관이나 소화기관 등의 부위가 도려져 있었다. 가장 먼저 용의선상에 오른 건 사탄주의자들이었다. 인간 대신 소를 어떤 의식을 위해 사용했다는 것이다.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다. 늑대나 코요테 같은 육식 동물도 의심해볼 수 있었다. 하지만 사체 주위에는 어떤 발자국도 발견되지 않았다. 전염병의 가능성도 있었다. 강력하고 전염 속도가 빠른 무서운 바이러스가 하룻밤 사이에 동물들의 내장과 피를 완전히 제거하고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교하게 신체 부위가 절단된 흔적은 여전히

설명이 안 된다. 아주 정확하고 깨끗하게 내장기관을 도려내고 사체의 피를 완전히 뽑았다는 점은 고도의 기술이 사용됐다는 증거였다. 사건이 일어난 1970년대 초에는 개발되지 않았던 ‘레이저’의 흔적이 특히 더 그랬다. 게다가 사체 주위에 단 한 방울의 피도 떨어뜨리지 않고 피를 제거한 솜씨를 봤을 때 용의자는 ‘군대’와 ‘외계인’으로 좁힐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스케일이니까. 여기서 우리는 UFO에 납치됐던 사람들의 증언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들은 외계인에게 납치되어 각종 실험을 당하던 중 UFO에 소가 실려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인간의 것과 상당히 유사한 소의 피와 내장으로 유전자 조작 실험을 했을지도 모른다. 가족들이 떼죽음을 당하기 직전 하늘에서 UFO가 발견되었다는 목격담을 더하면 더욱 신빙성이 더해진다. 일부 동물 사체에 갈고리를 박았던 흔적이 남아 있어 실제로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장소는 사체가 발견된 곳이 아닌 다른 곳이라는 주장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8 파충류 외계인 지구 지배설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세계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사실은 ‘파충류 외계인’이라는 음모론도 있다. 세계가 일루미나티로 알려진 비밀 조직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조직을 조종하는 세력이 파충류



5. 누군가 필요에 의해 일부러 적출한 듯 상처 부분이 정교하게 도려져 있다. 외계인은 사실 소고기를 무척 좋아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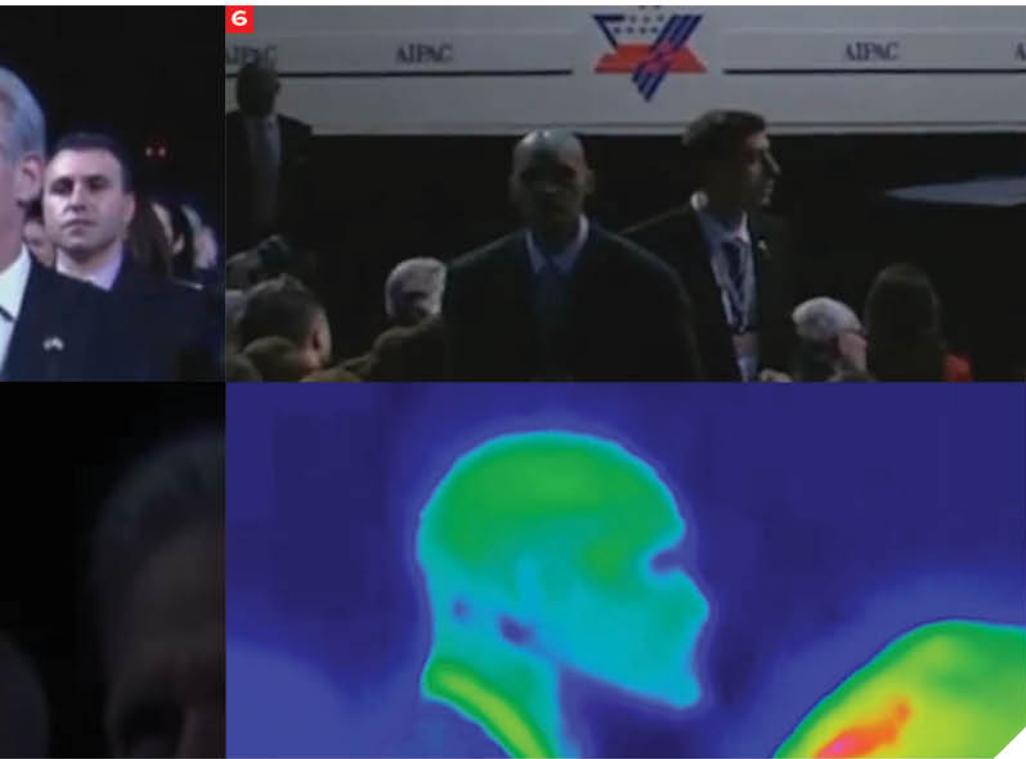


외계인이라는 거다. 파충류 지배설에 따르면 세계의 지도자들은 외계인이거나 외계인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잡종이다. 파충류 외계인은 인간의 모습으로 완벽히 변신할 수 있는데 파충류 외계인을 알아보는 방법은 보통 사람들과 다른 그들의 ‘눈’을 잘 관찰하는 것이라고 한다. 만약 이 음모론이 사실이라면 위에서 얘기했던 외계인들의 지구 정복이 벌써 시작된 셈이다.

한편, 오바마가 ‘미국 이스라엘 공공문제 위원회’의 주최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 단상에 올라 연설을 하고 있을 때 찍은 영상에서 생김새가 특이한 한 명의 경호원이 포착됐다. 영상을 찍은 사람도 그의 생김새가 수상했는지 후반부에서는 아예 적의선 열화상 카메라로 그를 촬영하기 시작한다. 보통 사람들은 체온이 높은 부분은 붉은색 계열로, 체온이 낮은 부분은 파란색 계열로 찍히지만 이 경호원은 얼굴 전체가 파랗다. 뭐지, 진짜인가?

9 9.11 테러 자작론과 UFO 출현

9.11 테러 당시 건물이 무너지는 모습을 두고 많은 이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비행기가 충돌한 지점이 아니라 건물의 아래쪽부터 붕괴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모습은 건물을 폭파시킬 때와 붕괴 장면이 거의 흡사했다. 비행기가 건물에 부딪치지 전부터



폭파음이 들렸으며, 이미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는 생존자들의 증언은 9.11 테러가 조작됐다는 음모론을 더욱 신빙성 있게 만들고 있다. 이 날 유대인이 한 명도 출근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9.11 테러는 부시 정부와 유대 세력이 공동으로 꾸민 자작극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전쟁이 나면 미국 군수 사업을 장악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돈이 흘러들어올 것이며 유대인에게 눈엣가시같은 이라크를 침공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 정부는 실제 희생자 중 10~15%가 유대인이었다는 점을 들어 이 같은 주장에 반박했다.

하지만 유대인 희생자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9.11 테러 자작설을 일축하기엔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 쌍둥이 빌딩과 90m나 떨어져 있어 직접적인 공격을 받지 않았던 별관 7번 건물이 화재 후 붕괴되었으며, 건물의 소유주인 래리 실버스테인은 사고 6주 전 35억 달러의 보증을 들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9.11 테러 직전 사고 항공기가 속한 유나이티드 항공사와 아메리카나 항공사에서는 평소 거래 물량보다 많은 주식 거래가 있었다. 테러로 주가가 하락했고 두

항공사는 막대한 차익을 챙긴 거다. 이는 테러의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주장을 더욱 신빙성 있게 만들어 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9.11 테러 당시 UFO가 목격됐다는 주장이다. 당시 건물 붕괴 영상을 자세히 보면 비행기를 뒤쫓아 가는 UFO가 보이는데 그냥 파편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속도가 엄청나고 주행도 직선으로 하고 있다. 수상해...

10 맨 인 블랙(MIB) 실존설

UFO를 목격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것 중 하나가 목격 후 2~3일 내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찾아와 본 것에 대해 발설하지 말라는 압박을 했다는 것이다. 1997년 3월 13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UFO 목격 사례로 일컬어지는 '피닉스 UFO 출현 사건' 때도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

6. 그냥 대머리 미국인이라고 하기에는 코가 매우 낮고 귀도 잘 보이지 않는다. 그냥 못생긴 걸지도...

UFO를 근접 촬영한 한 시민에게서 촬영 원본을 빼앗아 가기도 했다. 당시 시의원이었던 프랜시스 엠마 바우드는 정체불명의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고, 테이프도 돌려주지 않았다. MIB는 UFO 목격자가 이를 경찰이나 언론사에 신고하면 목격자의 집 앞에 나타나 조금 전에 본 것에 대해 말하면 후회할 일이 생길 것이라는 위협을 한다. 영화에서처럼 실제로도 검은 양복과 검은 안경, 검은 모자를 착용하며 검정색 캐딜락이나 링컨을 몰고 다닌다고 알려졌다. 표정 변화가 없으며 컴퓨터 기계음 같은 목소리를 내며 로봇처럼 움직이고, 나이 대는 중년처럼 보이긴 하지만 가능하기 힘들다고 한다.

MIB를 묘사한 몇몇 보고서에 따르면 동전을 손으로 녹이기도 하고 의자에 앉아 있는 MIB의 관절이 커다란 초록색 와이어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목격담이 기록돼 있다. 그리고 아주 추운 날, 얇은 외투 하나만 걸치고 있었지만 추위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다는 기록도 있다.

목격자들의 증언으로 미루어 봤을 때 MIB의 정체는 인간이 아니라 외계인으로 추정되며, 외계인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비밀에 붙이기 위해 MIB를 시켜 목격자들의 입을 다물게 한다는 설이 있다. MIB 음모론을 무시하고 넘어가기엔 그들의 힘은 꽤 세다. UFO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집사인 <스페이스 리뷰>를 폐간시켰고, MIB의 위협과 협박으로 UFO 목격자는 많은 데 비해 구체적인 증거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한편, MIB가 로봇처럼 어색하게 움직이고 목소리가 기계 합성음과 비슷하다는 점을 들며 MIB는 외계인이 아니라 외계인들이 만들어낸 인조인간이라고 하기도 한다. 어찌됐든 MIB는 존재하긴 한다는 것이다.

MIB가 외계인이 만든 조직이 아니라 외계인에게 적극 협조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작품이라고 한다면 영화 배우들에게 일부러 기이하고 어색한 행동을 연출하게 해 UFO 목격자의 심리적 상태를 위축시키려 한다는 쪽도 꽤나 설득력 있다. 어떤 연구에 의하면 MIB는 엘리자베스 여왕 시절부터 존재했다고도 하는데 이 기사 나가면 에디터의 집 앞에도 맨 인 블랙이 찾아오려나?



Who's That Girl? #8

YEO MIN-JUNG
Hair Salon Fantasy

레드 카펫 가슴 노출로 실시간 검색어 1위!
요즘 가장 핫한 그녀가 드디어 MAXIM과 만났다.
이렇게 섹시한 헤어 디자이너가 머리를 만져준다면
머리에 뽕뽕이 생겨도 좋아!

BY 손안나 PHOTOGRAPH YuD

팔찌 어거스트하모니
구두 슈즈원

She Was In...



〈러브 스위치〉 이상형 어워즈
1위에 빛나는 男心 올킬녀



지난 7월,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레드 카펫 행사장.
드레스 끈이 끊어지는 사고로
많은 화제가 됐다.

오늘 촬영 콘셉트가 헤어 디자인이다.
마용실 스타프로 일한 적이 있다던데,
옛날 생각 많이 났겠다.
손님들 삼부해줄 때가 생각났다. 옛날
생각이 많이 나서 굉장히 재미있게
촬영했다.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레드
카펫에서 가슴 노출이 이슈가 됐다.
그 사건 이후 달라진 점이 있다면?
내 이름을 아는 사람이 늘었다. 더불어
안티도 많아졌지...

패러디가 많이 쏟아졌다. 기분이
나쁘지 않았나?
워낙 긍정적이라 그냥 즐겼다.
굳이 별로였던 점을 말하려면 이왕
패러디하는 거 좀 더 노출했어야지.
너무 몸을 사리더라. 좀 약하던데?

그래도 돌아간다면 그런 실수를 반복할
건가? 아니면 미연에 방지할 건가?
일면서 의도적으로 노출한다면 그건
나쁜 녀이지! 그때로 돌아간다면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레드 카펫을
처음 밟았는데 사진이 너무 아줌마처럼
나와서 속상했다.

하늘색 필저 어거스트하모니
구두 엘리자베스

그래도 대중에게 이름을 많이 알렸다. 많은 게 더 많다. 큰 소속사와 연락이 끊겼고, 두 달 동안 준비하던 연극에서도 빠지게 됐다. 공중과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할 계획도 있었다. 가슴 노출이 어디더라도 멋있게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마저 놓쳤다. 그래도 언젠가 다시 기회가 있을 테니까 조바심은 없다.

최근 개봉한 <가자, 장미여관으로>는 어떤 영화인가?

성 상납에 관한 얘기다. 내용 자체는 사회 비판적이지만 편하게 볼 수 있다.

편하게 볼 수 있다고? 19금 아닌가? 노출 신도 있다고 들어서 보려 갈 생각이다.

노출이 좀 있어서 19금이다. 하지만 더러운 노출은 아니다. 내 몸매가 드러워서 그렇지...

에이, 너무 검소한 거 아닌가? 노출이 있는 작품을 여럿 찍은 걸로 아는데! 아무래도 노출이 있는 작품을 한 번 찍으면 노출 있는 작품에서 많이 찾는다. 하지만 되도록 시나리오를 보고 욕심나는 작품을 찍으려고 한다. 이번에 <모범생>이라는 작품의 제작을 맡았는데, 10대 성매매 청소년에 관한 사회 고발 영화다. 나도 깜짝 출연한다.

평소 옷을 아하게 입는 편인가?

아하다기보다는 프리하게 입는다. 가까운 곳에 갈 때는 티 한 장만 걸쳐는데, 속옷을 안 입는다. 어떻게 보면 야할 수 있지만 안 입는 게 편하니까. 오히려 동네 아줌마 같던데?

누드 화보를 찍어볼 생각도 있나?

거창이 찍거나 엄청난 금액을 제시하면 생각해볼 것 같다. 회사 생활도 똑같지 않나? 박봉이라도 명예로운 일이거나, 일이 별로라도 연봉이 많으면 기꺼이 하잖아.

가솔도 해본 적 있다던데, 왜 했나?

나는 가솔이라고 안 하고 즐가라고 표현한다. 일하고 싶어서 열아홉 살에 6만 원 들고 집을 나와 고시원에서 살았다. 그리고 3년 동안 집에 안 들어갔다. 지하실에서 화장품도 팔아봤다. 성인 오락실, 바담 이야기가 한번일 때 조폭들끼리 일해왔고, 비키니 바에서 비키니만 입고 서방한 적도 있다. 봉고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사기성 짙은 수법으로 물건을 팔았을 때 눈을 연기가 많이 들었다. "제 아버지는 공장에서..."



필피 어거스트하모니
구두 슈즈원
브라와 팬티 원더브라

Who's That Girl? #8



레드 카펫보다
훨씬한
촬영 현장



구두 슈즈원



이상형은 어떤 사람인가?
재미있는 사람이 좋다. 유재석, 김구라, 신동엽 등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는 MC는 모두 내 이상형이다.

베드신을 찍어보고 싶은 남자 연예인은?
신동엽! 코믹한 19금 콩트에서 파트너로 맞춰보고 싶다. 재미와 섹시가 공존하는 섹시 코미디랄까? 예전에 <러브 스위치> 할 때도 19금 농담을 많이 나눴다. 니랑 코드가 잘 맞더라니까?! 🍷

브라와 팬티 미싱 도로시

Who's That Girl? #8

“
속옷을 안 입고
티 한 장만 걸친다.”



팬티 미싱 도로서
구두 엘리자베스



여민정

데뷔작: <TV 방자전>

생년월일: 1990년 8월 22일

드림카: 트렉 캠핑카
이사를 많이 했거든. 2층 버스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보물 1호: 아이폰!
휴대폰 중독이라서..

좋아하는 음악: 오지은의 '익숙한
새벽3시', 가을방학의 '여배우'

최고의 영화: <타이타닉>

WORDS: 박정숙 HAIR&MAKEUP: 정혜민 FILM: 김상수 ASSISTANT: 이효진 LOCATION: 남민마장스(blog.naver.com/shw6454)
COOPERATION: 미싱 도로서(1544-6101) 슈드윈(02-3443-1703) 어거스트헤모니(070-8839-8255) 원더브라(1544-6101) 엘리자베스(02-3409-1025)

브라와 팬티 미싱 도로서

씨 없는 수박 김대중



미국 고전 블루스에 한국식 포크와 트로트를 가미한 그의 '한 많은' 노래를 듣고 있노라면... 아아, 꿈장어에 소주가 당긴다니까? BY 손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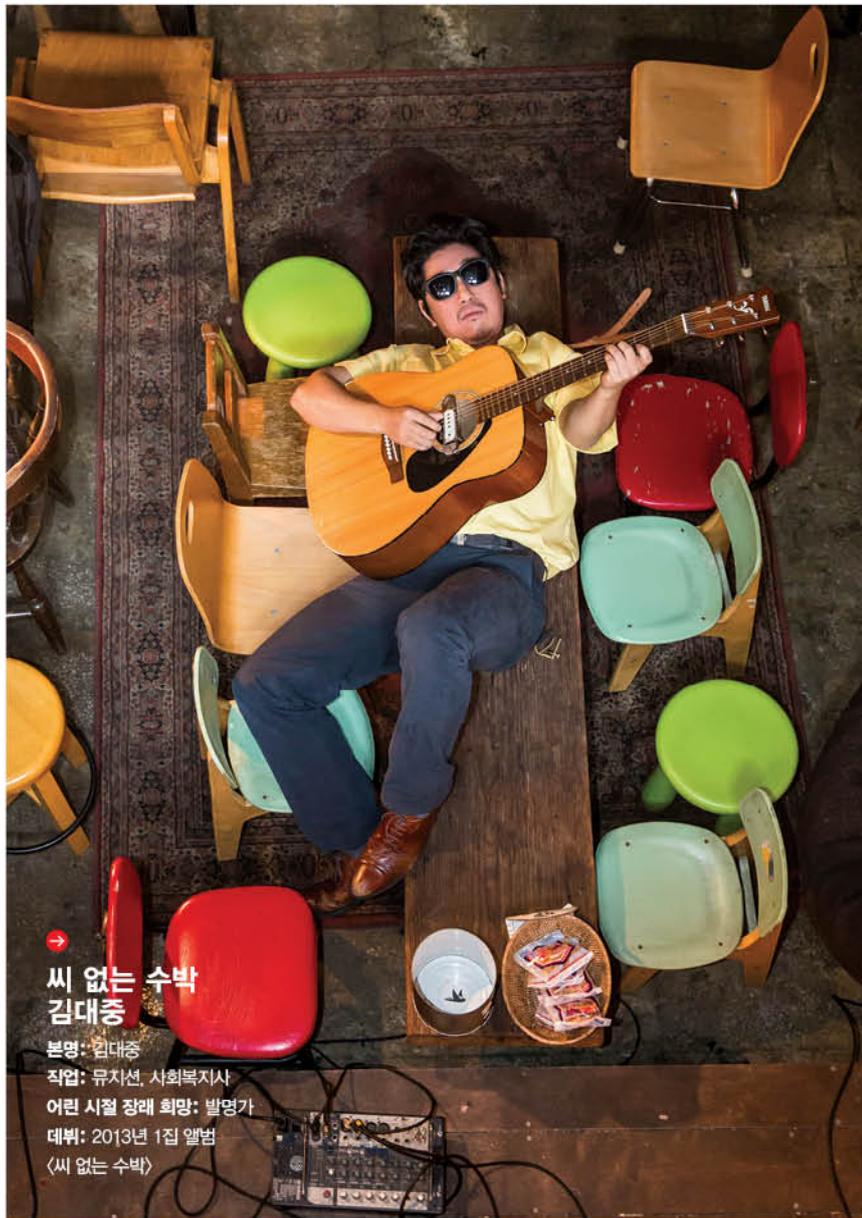


김대중 선생의
인생양평
블루스 쇼





→ 이름 김대중. 텍사스
블루스의 배대를 다진
'Blind(장애) Lemon
(괴일) Jefferson(대통령)'처럼
'씨 없는(장애) 수박(괴일)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블루스식 이름을
가진 대한민국 블루스 싱어송라이터.
아버지가 흑인도 아닌데 '블루스맨'
을 자처하며 흑인음악을 '흉내 내는'
본인이 '근본 없는, 씨 없는 종자'
아니겠느냐며 경손을 떨지만, 사실은
본격적으로 음악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인디씬에 블루스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주인공이다.



→ 씨 없는 수박 김대중

본명: 김대중
직업: 뮤지션, 사회복지사
어린 시절 장래 희망: 발명가
데뷔: 2013년 1집 앨범
〈씨 없는 수박〉

“아니 내가 씨 없는 수박이라니 하늘이 두 쪽 난다”
〈씨 없는 수박〉(中)는 가사를 들으면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

그걸 노린 거다. 슬프면서 웃긴 거. 내가 이 곡을
정색하고 진지하게 부르면 처음엔 웃던 사람도
당황한다. “아 저 사람 정말 씨 없는 수박인가?”
하는 반응이 재밌어서 그걸 즐겼다. 무대에서 노래
부르는 것 자체가 하나의 연기인 거지. 예전에
단역배우 생활을 할 때는 연기 더럽게 못한다고 많이
혼났는데... 오히려 지금 연기가 더 나은 것 같다.

영화 〈위대한 유산〉이랑 〈황산벌〉에도 깨알같이
등장하던데, 연기 욕심이 있는 건가?
포주 역할을 하면 질할 것 같다. 아니면 동네
슈퍼마켓 아저씨나 목욕탕 주인 역도 좋다. 굳이

막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연스럽게. ‘아, 저
사람은 진짜 목욕탕 주인인가 보다. 어디서 저런
사람을 캐스팅했지?’ 그런 생각이 들도록 리얼하게
말이지.

**이름 때문에 KBS 심의에서 이번 앨범 전 곡 보류
판정을 받았다는데?**

안 그래도 요새 정치적으로 불안한데, 오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게시판이 난리 날 수도 있잖아. 다행히
간급 심의용으로 ‘씨 없는 수박’을 빼고 ‘김대중’으로
제출해 통과했다. 김대중은 내 본명인데 어찌됐나.

이참에 아예 방송용 이름을 하나 짓는 건 어때?

음... 시원한 수박 김대중? 씨 많은 수박도 안 될 것
같고... 어쩐지 비교는 것 같잖아?

당신을 지상파에서 만날 수 있을까?

조만간 〈유희열의 스케치북〉에 장기하랑 같이
출연하기로 했다. 진행자 유희열 씨가 양말을 잘 안
신더라고. ‘전국노래자랑’ 콘셉트로 씨 없는 수박이랑
신사 양말 한 켤레를 사 가려고 한다.

**“돈보다 먼저 사람이 될게요, 오빠!”(‘돈보다 먼저
사람이 될게요’ 中) 가사가 참 재밌다.**

지나가다가 우연히 본 광고 입간판에 뺨 터져서 만든
곡이다. 누군지 모르지만, 그 멘트 쓴 사람은 천재이지
분명하다! ‘돈보다 먼저 사람이 될게요, 오빠. 아가씨
미녀 15명 형사 대기. 추가 비용 없음’이라니... 여기에
영감을 얻어서 바로 이 노래를 만들었지.

**‘불효자는 늙니다’라는 곡에는 “엄마, 만 원만!”이라는
가사가 나온다. 음악 하면서 진짜 엄마한테 용돈 받고
그랬나?**

공할 때는 정말 그런 적도 있다. 잔돈이 없는데 만
원짜리 한 장 있느냐며 거만하게. 아쉬울 거 없다는
듯이 연기했지. 그래서인지 어머니는 그 노래 안
좋아하신다.(웃음)

본인은 불효자인가?

불효자지. 불효자. 쌍노무 새끼. 맨날 술 마시고
노래하고 밤새우고... 이래서 가수들이 빨리 죽는
거라며 늘 걱정하신다. 내가 아무리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벌어도 부모 입장에서는 애, 똥싸개잖나.





이번 앨범의 몇 곡은 드림 사운드가 인상적이다. 원래는 앨범 처음부터 끝까지 원 테이크로 가려고 했다. 그래도 명색이 정규 앨범인데 계속 단조롭게 기타로만 가면 지루할 것 같아서 느낌을 손상하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변화를 주었다. 슬라이드 기타나 벨라판 소리도 넣고, 트럼본도 살짝 들어가고... 일종의 누드 메이크업 같은 거다. 한 듯 안 한 듯.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블루스맨'이러니... 그걸로 여러 여자 흠뻑겠네!

근데 내 노래는 사람들이 듣기 싫다고 하지 말라고 해서 데미안 라이스류의 남의 노래만 불렀다. 사실 내 곡 중에 '유정천리'는 아예 여자 친구 고시려고 만든 곡인데 중국집 자식들이 짜장면 안 먹듯, 정작 여자 친구 본인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내 음악이 아저씨 음악이라서 그런지 자꾸 상큼한 곡을 찾더라고.

어떤 인터뷰에서 "데미안 라이스 음악은 반바지에 타이즈 입혀놓은 꼬마(처럼 멀끔한) 느낌이라 싫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의 음악은?

내 노래는 러닝셔츠 바람에 슬리퍼 질질 끌고 동네 어슬렁거리며 담배 한 대 피우는 느낌? 음식으로 따지면 막걸리에 두부 김치! 내가 두부 김치를 워낙 좋아해서 편의점에 가면 두부 한 모에 천 원짜리 볶음 김치, 막걸리 한 병 사서 저녁으로 먹을 때가 많거든. 다 해봤자 한 3,000원 정돈데, 속도 든든하고 얼마나 맛있다고!

식사가 아니라 술안주에, 막걸리 좋아하냐?

술을 엄청 좋아해서 전통주 담그는 법까지 배웠다. 특히 내려고 진지하게 고민하던 아이템도 있다. 술을 익히면서 내 노래를 라이브로 들려주는 거다. 식물도 모차르트 같은 음악을 들려주면 잘 큰다고 하잖아? 하물며 술 안에는 유산균이 500억 마리가 산다는데 오죽하겠나! 애네한테 기타 치면서 블루스를 들려주는 거지. 어때?

1년 뒤에는 뭘 하고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계속 음악 하는 거 아니었나?

"음악을 하겠습니까! 2집을 기대해주세요!"라고 하는 건 어쩐지 카드 돌려 막기 같은 느낌이 들어서... 1집만 내고 사라진 가수가 얼마나 많나? 대표 케이스가 유재하만 해도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잖아. 인생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은 오래오래 살아야 한다는 거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30대 중반에 본격적으로 음악을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용기가 대단하군.

다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렇다. 우리 가족이 요양원을 운영하거든. 이래 봐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시설장이다. 그래서 비교적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다. 음악도 처음에 요양원이 너무 안 돼서 화가 나서 호통 치면서 스트레스 풀려고 시작한 거다.

요양원 시설장이라니 의외의 투잡이다.

다들 조만간 요양원에서 만날 텐데, 뭘 인생 금방이다. 할머니들 보면 살아온 인생이 그냥 꿈꾼 것 같더라. 가끔 술 먹고 들어가면 할머니들한테 누나라고 하면서 애교도 쏜다. 완전 패머이지.(웃음) 항상 나를 알아보시던 할머니가 어느 날은 나를 못 알아보시고 "저거 건달 아녀, 건달?"라고 하니깐 옆에 계신 할머니가 "건달 아녀. 선생님이며, 선생님"이라고 하시고, 재밌으면서 슬프더라.

블루스가 어떤 음악인지 설명해달라.

어떤 음악 학자가 20세기는 블루스의 시대였다고 말했다더라. 그에게 <미스터 고>인가? 고릴라가 야구하는 영화를 봤는데 영화는 진짜 별로였지만 거기에서 이런 대사가 나온다. 야구는 집을 나가서 집으로 돌아오는 스포츠라 좋다고. 나한테는 블루스가 그런 존재다. 20세기 음악이 블루스에서 출발해서 블루스로 돌아오니까, 20세기에 태어나 록도 듣고 재즈도 듣고 다양한 음악을 향유한 세대로서 뿌리에는 뭐가 있을까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그 끝에 블루스가 있더라고. 🍷

내 인생의 첫 블루스 3

"관심 있는 뮤지션의 첫 앨범 첫 번째 트랙을 찾아 듣다 보면 꽤 재미있을 거다. 자기 음악을 세상에 처음으로 들려주는 순간인데, 그 뮤지션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을지 어렵듯이 상상이 가거든."



Robert Johnson의 'Kind Hearted Woman Blues'

27세의 나이에 여자 친구에게 독살당한 비운의 블루스 뮤지션 로버트 존슨의 첫 곡.



Bob Dylan의 'You're No Good'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포크 가수 밥 딜런의 1962년 첫 앨범 첫 번째 트랙이다.



씨 없는 수박 김대중의 '씨 없는 수박'

동명의 앨범 첫 번째 트랙은 역시 그의 테마곡 '씨 없는 수박'이다.

MISS M

2013 MISS MAXIM CONTEST

다섯 번째 8강 진출자

유리

MISS MAXIM 8강 진출자들과
옥상 바비큐 파티를 열었다.
이 날 유리는 남자 스태프들의 부엌
로망을 완벽하게 실현시켜주었다.

BY 김희성 PHOTOGRAPH Zho



앞치마
입은 유리의
뒷모습이
정글하더라





여름철 휴양지에서 당신을 포시는
남자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멘트는?

“우~와”

당신만의 더위 해소법이 있다면?

연독으로 아이스크림먹기 ㅋㅋ

남자들의 신체 부위 중 가장
섹시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긴 ~ 팔다리^{^^}
보조만 있어도 맛^{ㅎㅎ}

무더운 여름이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은 뭔가?

비빔면 ~ 연두 냉국
비빔면 2인분은 거뜰히^ㅎ

여름에 놀러가서 노출하고 싶은
자신있는 신체 부위는 어디인가?

다.. 다리^{^^} 노출하고 다니면
살뺀다고 해서.. 히익

가고 싶은 뮤직 페스티벌이 있다면?

'이영에 그랜드 마운트 포레티발
이번엔 꼭 가^{ㅎㅎ}싶다..
대문 가까지 하^{ㅎㅎ}고싶던.. ㄱ

MISS MAXIM

2013
MISS MAXIM
CONTEST

여섯 번째 8강 진출자

오하루

지난번에 봤을 땐 고풍적인
섹시미를 푹푹 발산하던니 이번엔
상큼하고 발랄한 매력을 잔뜩
어필했다. 반전 있는 여자였네!

오하루의
반전 매력





여름철 휴양지에서 당신을 꼬시는
남자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멘트는?
저기요! (니만 고승라면 섹시하네요)

당신만의 더위 해소법이 있다면?
집에서 집에서 란제리
차림으로 돌아다니기 ㄹ

남자들의 신체 부위 중 가장
섹시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플랫근육!

요즘같은 무더위에 가장 어울리는
노래 하나만 추천해 달라.
쿨의 해변의 여인!

여름에 외출할 땐 주로 어떤
옷차림으로 다니는가?
최대한 편식이 작은 옷! ㄹ
나노패션! ㄹ

여름 휴가지에서 노출하고 싶은
가장 자신있는 신체 부위는 어디인가?
다리 각선미! ㄹ

올 여름이 끝나기 전에 꼭
가고 싶은 파티가 있다면?
맥심 파티 진짜 가고싶어요 ㄹ ㄹ...

MISS MAXIM

2013
MISS MAXIM
CONTEST

일곱 번째 8강 진출자

이현지

완벽 몸매, 완벽 얼굴로 모두를
놀라게 한 이현지가 이번엔
아찔한 뒷태를 공개했다. 그녀의
매력에 빠지면 출구 따윈 없다.

현지의
포켓볼
실력은?





여름철 휴양지에서 당신을 꼬시는
남자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멘트는?
혹시 미스맥심 아현지씨?? 오와!!

당신만의 더위 해소법이 있다면?
이웃을 마시면서 에어컨 틀고
거실에 돛트만 입고 누워있기.. ㄱㄱ

수영복을 입은 남자를 봤을 때, 어떤
신체 부위가 가장 섹시해 보이던가?
온전히 섹시한 눈발과
허리와 골반 사이 보여!!

여행지에서 남자친구에게 가장 받아
보고 싶은 프로포즈 혹은 이벤트는?
풍덩이나 해변에 꽃불 켜놓기 ㄱㄱ

여름에 외출할 땐 주로 어떤
옷차림으로 다니는가?
난 청바지에 흰셔츠 좋아하는
중요 사계절 애용 ㄱㄱㄱ

올 여름에 열릴 행사 중 가장 가보고
싶은 행사가 있다면?
캐리비안 베이 맥심파티 ~!! ㄱ



2013
MISS MAXIM
CONTEST

여덟 번째 8강 진출자

이아영

바비큐 파티가 끝나고 뒷정리를
도맡은 이아영. 저렇게 귀여운
표정으로 청소를 하다니
안 도와줄 수가 없네!

이번 여름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가고 싶은 휴양지는 어디인가?

계곡... 여름 끝나가요

으응으응 ㄱㄱㄱㄱ ㄹ

여름철 휴양지에서 당신을 꼬시는 남자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멘트는? 매력있으세요 하하하하하하

당신만의 더위 해소법이 있다면?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아이스크림 >< 무남남

식스팩, 갑빠, 단단한 허벅지 중 가장 섹시하다고 생각하는 남자의 신체 부위는? 혹은 다른 부위가 있나?

어! 개! 셋중에 식스팩

여행지에서 애인으로부터 받고 싶은 이벤트가 있다면?

직접 해주는 요리, 손으로 손 편지 (먹을 때 제일 행복해요)

무더운 여름 시즌에 틀을 만한 시원한 노래 한 곡만 추천해 달라.

냉면 ~ 냉면 냉면 ~ ㄹ ㄹ

올 여름에 열릴 각종 파티와 페스티벌 중 가장 가고 싶은 곳은?

집순이예요 술집이 최고!!!





가을 야구, 누가 하나요?

이제부터가 진짜다.

BY 강산(마케팅/스포츠팀 기자)

→ 2013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가 반환점을 돌았다. 후반기에 접어든 지도 한 달이 지났다. 4강 경쟁의 윤곽이 드러나야 하는데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삼성 라이온즈와 LG트윈스가 피투기는 선두 싸움을 펼치고 있다. 둘의 4강 진입은 기정사실이다. 남은 경기에서 4할 승률만 해도 충분하다. 3위 두산까지도 걱정 없을 듯하다. 문제는 4위 넥센이 최근 하락세를 보이면서 5위 롯데, 6위 SK와의 승차가 2~5경기 정도라서 남은 경기에 따라 충분히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것. 7위로 떨어진 기아는 2007년 MLB 콜로라도 로키스의 '락토버'(2007년 마지막 14경기 13승 1패)를 재현하지 않는 이상 어렵다. 40경기도 남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달에는 강력한 4강 진출 후보 4팀을 전격 분석했다. 이 리스트에 응원하는 팀 이름이 빠졌다고 서운해질 것 없다. 막바지에 하위 팀들이 선두 팀 순위를 갈아먹는 모습을 보는 재미도 꽤 쏠쏠하니까 말이다.



1위

삼성 라이온즈
56승 37패 2무, 승률 0.602



타력: 빈틈이 없다. 최형우-이승엽-박석민으로 이어지는 중심 타선은 언제든 한 방을 터뜨릴 능력을 갖췄다. 이승엽은 2할대 초반까지 떨어졌던 타율을 2할 6분대로 끌어올렸다. 홈런 한 개도 힘들어 보였는데 어느새 홈런이 12개다. 명예회복에 나선 최형우는 3할대 타율에 22홈런으로 홈런왕 경쟁을 이어가고 있고, 박석민(0.307, 10홈런)도 정확한 타격으로 상대 투수를 공포에 떨게 만든다. 무엇보다 스윙 이후 빙그르르 도는 트리를 악셀 자세에서도 홈런을 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최오리포'를 검색하시라). 해외투피킹이다. 지난 2년간 뇌진탕 후유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채태인은 타율 3할 5분 6리로 타격왕 경쟁 중이다. "연봉 좀 올려주세요"라고 자신 있게 외칠 정도가 됐다.

투수력: 불공평하다. 투수력도 좋다. '골판왕' 오승환(3승 20세이브, 1.24)과 안지민(5승 14홀드, 3.12)이 지키는 뒷문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탄탄하다. 선발진은 배영수(10승), 장원삼, 윤성환(이상 9승), 에이스 본능을 되찾은 리к 밴덴헐크(5승)에 차우찬(8승)까지 합류했다. 새 외국인 투수 에스마일린 카리데가 적응에 성공한다면 그야말로 난공불락.

2위

LG트윈스
58승 39패, 승률 0.598



타력: 시원한 홈런보다 정확한 타격으로 대량 득점 하는 것이 특징. 팀 내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 중인 타자가 한 명도 없다. 하지만 박용택, 이진영, '캡틴' 이병규(9번), 정성훈까지 3할 타자가 4명이나 된다. 정의운, 김용의, 문선재, '빅뱅' 이병규(7번)도 언제든 득점타를 터뜨릴 수 있는 선수다. 팀 내 최다 홈런(9개)을 기록 중인 유격수 오지환은 타율이 낮지만 지난 3년 내내 팬들의 뒷목을 잡게 했던 수비에서 장족의 발전을 이뤄냈다. 명타자 출신 김기태 감독이 부임한 지 올해로 2년째, 공격력 하나만큼은 어느 팀에도 뒤지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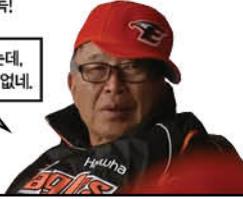
투수력: 평균자책점 리그 1위(3.71)의 성적이 말해주듯, 외국인 선수 벤저민 주키치가 2군에 내려갔지만 레다메스 리즈-우규민-신정락-류제국이 지키는 선발진 톱니바퀴는 잘 돌아간다. 최근 합류한 좌완 신재웅도 호투를 이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마무리 투수 봉중근(7승 30세이브, 평균자책점 1.38, 세이브 1위)의 존재가 여야야마하다. 이동현(2.35)은 선발에서 봉중근까지 이어지는 허리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다. 잠시 주춤했던 정현욱이 다시 2점대 평균자책점에 진입하면서 볼펜이 더 안정되었다.



김응룡 감독의 통산 1500승 달성!

이 와중에 대기록!

중범이는 있는데,
이제 현진이가 없네.



→ 한화이글스 김응룡 감독이 프로야구 역대 최초로 1,500승이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한화는 지난 8월 3일, NC 다이노스전에서 4 대 2로 승리했다. 이로써 김 감독의 1,500승이 마침내 완성됐다. 그의 데뷔 2번째 경기인 1983년 4월 5일 광주 삼성전 첫 승 이후 30년 만에 1,500승 고지를 밟은 것이다. 김 감독이 누구인가. 야구 본 지 얼마 안 됐다면 '꼴찌 팀 감독'이라는 이미지가 강할 것이다. 하지만 말는 팀마다 꼴찌였다면 어떻게 프로야구 최초로 1,500승을 거뒀는가. 그는 해태타이거즈와 삼성라이온즈를 거치며 무려 통산 9회 한국시리즈 우승을 이끌었다. '해태 왕조'의 탄생에 김 감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1991년 5월 14일 광주 삼성전에서 통산 500승, 1993년 9월 7일 광주 OB전에서 700승째를 올렸고,

1998년 5월 24일 광주 롯데전에서 1,000승이라는 대기록을 작성했다. 1983~2000년 해태, 2001~2004년 삼성, 올해 한화까지 총 23시즌, 3개 구단의 지휘봉을 잡은 김 감독의 1,500승은 국내 프로야구 역사의 어마어마한 업적이다. 통산 1,234승을 올린 '야산' 김성근 전 SK 감독도 1,500승에 267승이 남아 있다.

대기록을 달성한 김 감독은 덩뎡했다. 1,500승을 앞두고도 "쑥스럽고 부끄럽고 창피하다"며 답변을 피했다. 올 시즌 팀 성적이 좋지 않아 마음껏 웃기도 쉽지 않았다. 1,500승 직후에도 "1,500승과 내일 1승과 바꾸고 싶다"고 말했을 정도다. 그만큼 마음고생이 심했다. 하지만 그의 1,500승은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한국 야구사에 길이 남을 대기록이다. 하루빨리 김 감독이 명예 회복하기를 기대해본다. 꼴찌 팀 감독은 올해뿐이다.

→ 메이저리그 감독 최다승:

코니 맥(전 필라델피아) 감독의 3,731승

→ 일본 프로야구 감독 최다승:

츠루오카 카츠토 감독
(전 난카이)의 1,773승



감독님~ 태규니가
이짜나염~!

3위

두산베어스
54승 40패 2무, 승률 0.574



타력: 등급 최강이다. 한 경기에 투수진이 12점을 주는데도 타자들이 15점을 내 이기는 경기를 한다. 두산은 가장 화끈한 야구를 한다. 20경기 이상 출전한 타자 중 무려 12명이 타율 2할 7푼 5리 이상이다. 3할 타자도 6명이다. 팀 타율은 물론 득점, 안타, 타점, 도루까지 공격 대부분의 지표에서 1위에 이름을 올렸다. LG처럼 큰 것 한 방이 아닌 집중타로 득점을 양산하는 스타일인데 한 번 타지면 다이내마이트보다 더 무섭다. 친정에 돌아온 캡틴 홍성흔도 살아나고 있다. 초반 부진으로 마음고생이 심했지만 중요할 때 제 모습을 찾은 것이 다행이다.

투수력: 타격과 전혀 딴판이다. 팀 평균자책점이 리그 7위다. 니퍼트-헨킨스-노경은-유희관-이재우로 이어지는 선발진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데 허리가 문제다. 마무리로 낙점한 홍상삼이 흔들리는 바람에 정재훈이 새 마무리를 꿰치고 나름 잘 버틴다. 신고 선수 출신 오현택은 이제 승리조로 확실히 자리 잡았다. 전반기에는 나오기만 하면 털리던 볼펜이 후반기 들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다. 무엇보다 최고 구속이 130km/h 중반, 최저 구속은 70km/h에 불과한 유희관이 선발로 자리 잡아 준 것이 크다.

4위

넥센 히어로즈
45승 37패 2무, 승률 0.549



타력: 이택근-박병호-강정호로 이어지는 'LPG'도 무서운데 데뷔 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홈런을 터뜨린 김민성까지 등장했다. 지난해 홈런왕 박병호는 올해도 20홈런을 돌파하며 2년차 징크스 따위는 '개나 쥐'고 외치고 있다. 새롭게 등장한 문우람과 안태영의 활약도 돋보이는데, 고양 원더스에서 온 안태영은 첫 5경기에서 타율 .588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 문우람은 35경기에서 타율 3할 5푼, 홈런 4개 17타점으로 무력시위 중이다. 이들은 2군 선수단이 생활하는 전남 강진 베이스볼파크 '홍련동 103호'에서 왔다는 공통점을 지녔다. 이 방에서 오는 선수들마다 맹타를 휘두르며 염경엽 감독을 기쁘게 하고 있다.

투수력: 타격에 비해 불안 요소가 많다. 염경엽 감독은 "용병 나이트와 밴 헤켄 말고는 전부 5선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만큼 토종 선수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BK' 김병현이 2군으로 내려가면서 새로 합류한 문성현은 시즌 첫 등판에서 선발승을 따내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필승조 송신영, 한현희, 손승락까지 가는 길에 나서는 젊은 투수들이 제 페이스를 찾는 게 관건이다. 시즌 초반의 무서운 기세는 살짝 꺾였다.

And More...

5위 롯데는 전반기 막바지만 해도 4위 두산과 피투기는 경쟁을 펼쳤으나 믿었던 마무리 김성배가 무너지는 바람에 주춤하고 있다. 6위 SK는 최근 기세가 살아났다. 실낱같은 4강 희망을 가질 만하다. 문제는 KIA. 최근 33경기에서 3승 25패로 무너졌다. 한화 김응룡 감독께서 자주 쓰시는 표현을 빌리자면 '작살났다'. 투수진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시즌 초반의 강력함이 사라졌다. 신생 팀인 8위 NC와 '꼴찌' 한화는 내년을 바라보는 팀 운영을 하고 있다. 두 팀의 행보가 사뭇 다르다. '아홉 번째 심장' NC는 올 시즌 목표인 4할 승률을 이미 초과 달성했다. 실책으로 견집을 수 없이 무너지던 4월의 모습은 온데간데없다. 야기 공룡들을 오나오나해줬더니 육지의 왕 호랑이와 사자까지 잡아먹으려 든다. 비룡(SK)은 이미 3승 9패로 완전히 잡아먹혔다. 4강 진출에 실패하더라도 이런 모습에는 박수를 보내야 하지 않을까. 박터지는 4강 경쟁, 올 시즌을 마칠 무렵엔 또 어떤 평가가 나올 것인가. 벌써 야구 팬들 가슴이 쩐다. 🐯

후임~ 좋은 꿈을
꾸었어...





경기 영상
다시 보기



정찬성의 패배가 유독 아쉬운 이유

 지난달 8월 4일, UFC 163 페더급 챔피언 타이틀전 '코리안 좀비' 정찬성이 조제 알도에게 아쉽게 패했다. 만약 정찬성이 알도의 부상 부위를 노렸더라면(알도가 그랬듯이), 경기 결과는 백팔십도 달라졌을 것이다. BY 격투 칼럼니스트 이용수

→ The Start

1993년 11월, UFC가 출범했다. 초기의 UFC는 시간 무제한, 무규칙을 표방한 실전 격투의 장이었다. 출범 당시의 원초적이고 난폭한 이미지는

규칙과 라운드제, 판정 시스템 등을 도입하면서 완화되었고,

UFC는 스포츠와 실전 격투의

아슬아슬한 경계선에서

빠르게 성장했다. 1990

년대 후반 일본에서도

UFC와 비슷한

프라이드라는 대회가

생겨나 엄청난 인기를

구가했다. UFC나

프라이드처럼 펀치, 킥,

클린치, 던지기, 관절기,

조르기 등을 허용하는

스포츠에 MMA라는 명칭이 붙었다. 우리식 용어로는

종합 격투기다. 이 새로운 조류가 국내를 덮친 것은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 당시 미국의 UFC

는 사회적 정치적 논쟁에 휘말려 존폐 위기를 겪고

있었다. 반면 일본의 프라이드는 발 빠른 대응으로

MMA계의 주도권을 장악했는데, 6만 5,000명을

수용하는 도쿄돔이 연일 만석이 되는 등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까지 일본 프라이드의

영향권 아래에 놓였다. 강자에 대한 호기심과 존경심,

호감 등은 남성 일반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프라이드는 그러한 대중의 취향을 정면에서 찔러

들어갔다. 거대하고 화려한 무대를 준비하고 두둑한

대전료를 아낌없이 뿌리면서 전 세계 일급 파이터를

흡수했고 그들 간 대전은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입소문은 순식간에 대한해협을 건넜다. 국내에도

무서운 속도로 팬층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도전자들도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 Great Fighters

1990년 아마추어 레슬링 그레코-로만형

100kg급 국가 대표로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최무배가 2004년 프라이드로 진출했다. 데뷔

직후부터 거침없이 5연승을 달리면서 최무배는

'부산 중전차'라는 별명을 얻었고, 통렬한 대역전

서브미션으로 소아 필라레이를 제압하면서 팬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겼다. 이후 UFC로 진출하는 데이브

허먼도 최무배에게 KO패한 적이 있다. 1970년생으로

데뷔 당시 이미 35세인 최무배에게 아쉬운 것은

시간이었다. 데뷔가 좀 더 빨랐다면, 좀 더 일찍 MMA

를 알았다면 그는 더 멀리까지 달렸을 것이다.

최무배의 바통을 이어받은 주자는 김동현이었다.

1981년생인 그는 국내에서 2연승을 기록하고 바로

일본으로 가 '딥(Deep)'이라는 단체에서 활약했다. 첫

10경기에서 그가 거둔 성적은 9승 1무였다. 2008년

5월 김동현은 UFC의 지명을 받았다. 당시 UFC는



정치적·사회적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워졌고, 라이벌 프라이드를 무너뜨린 후 MMA계의 천하통일을 선언한 상태였다. 세계 유일의 메이저 MMA 단체 UFC의 위상은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UFC에서만 5승 1NC를 추가한 김동현은 14승 무패 1무 1NC의 전적으로 동체급 최강자 중 한 명으로 손꼽히던 카를로스 콘딧과 대전했다. 승리할 경우 타이틀전을 요구할 명분을 손에 짚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일전이었다. 그렇지만 김동현은 콘딧을 넘지 못했고 대권의 목전에서 아쉽게 돌아서야 했다.

➔ Korean Zombie

김동현이 '자육의 체급'이라 불리는 웰터급에서 약전고투하던 2011년, 정찬성도 UFC에 합류했다. 정찬성은 1987년 경북 포항에서 태어나 중학교로 진학하던 무렵 수도권으로 이사를 했다. 경상도 사투리를 쓴 탓에 학교에서 서울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었지만, 초등학교 때 그는 그런 대우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체구가 작아 싸우는 족족 거의 졌다고는 하지만 정찬성은 저항을 멈출 생각이 없었다. 여러 차례 피투성이가 되어 귀가하는 모습을 본 이모가 그를 합기도 도장으로 데려갔다.

합기도로 시작된 격투기와의 인연은 그의 삶 깊숙이 들어서기 시작한다. 공부에는 큰 관심이 없던 정찬성은 운동으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고자 했다. 그는 킥복싱 도장을 다니면서 격투기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진학 역시 경북 과학대 이종격투기 학과를 선택했고, 킥복싱 선수로 활동하며 대학을 다녔다. 그의 킥복싱 전적은 20전 15승 5패 11KO였다. 졸업 후 그는 격투 명가 '코리안 탐팀'의 일원이 되었으며, 2007년 6월 프로 MMA 파이터로 데뷔했다.

국내 마이너 무대에서 6연승을 달린 정찬성에게 어김없이 일본에서 초청장이 날아왔다. 비록 프라이드 전성기만큼 화려한 무대는 아니었지만, 일본에서 성적을 내면 메이저 무대로 가는 길이 열렸다. 정찬성은 하드 코어 스타일이었다. 기존 국내 선수들과 차원이 다른 과격함을 과시하며 상대의 기를 죽이고 팬들의 열광적 지지를 이끌어내 '코리안 좀비'라는 애칭을 얻은 그는 한국과 일본에서 11전 10승 1패의 전적을 기록한 후 미국 WEC로 진출했다. WEC는 UFC 산하 단체로 경량급 위주로 운영하고 있었다.

2010년 4월 WEC 데뷔전에서 정찬성은 레너드

가르시아를 만났다. 가르시아는 이미 WEC 페더급 타이틀전에 도전한 적이 있는 강자였다. 데뷔전치고는 베타 상대였지만 정찬성은 3라운드 내내 상대를 몰아붙였고 상대 역시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경기는 흔히 보기 힘든 역대급 난타전으로 전개되었다. 모든 관객을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고 해설진의 극찬을 이끌어낸 정찬성-가르시아 1차전은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명승부였다. 비록 결과는 편파에 의한 판정패였지만 '코리안 좀비' 정찬성의 이름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MMA 팬들의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었다. 다음 경기에서 조지 루프에게 불의의 KO패를 당하면서 정찬성의 진격이 멈추는 듯 보였지만 2011년 WEC가 UFC로 통합되면서 정찬성은 레너드 가르시아와 2차전을 벌이며 UFC 무대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경기에서 정찬성은 '트위스터'라는 비기를 성공해 가르시아의 항복을 받아냈다. UFC에서 최초로 나온 이 트위스터는 정찬성에게 2011년 월드 MMA 어워드에서 올해의 서브미션상을 안겨줬다. 아시아 선수가 월드 MMA 어워드에서 본상을 수상한 것은 정찬성이 최초이자 아직까지 유일하다.

2011년 말 정찬성은 마크 호미닉과 대전했다. 호미닉은 우수한 타격 능력과 맷집, 체력을 가진 선수로 페더급 챔피언 조제 알도를 끈질기게 괴롭히던 상당한 강자였다. 국내외 많은 팬과 전문가들이 호미닉을 이기기 힘들다는 견해를 내기 바빴지만, 정찬성이 호미닉을 완전히 분해하는 데 걸린 시간은 7초에 불과했다. 2012년 5월, 정찬성은 떠오르는 신예 올라운드 파이터 더스틴 포이리에와 대전했다. 이 경기는 대회의 메인이벤트였다. 국내 선수가 UFC 대회의 헤드라이너로 출전한 것은 정찬성이 최초였다. 그 자체로 국내 MMA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볼 수 있으며 경기 내용 역시 기념비적이었다. 이 경기는 유력 MMA 매체인 셔독과 MMA 파이팅이 꼽은 2012년 올해의 경기가 되었다. 결과는 정찬성의 4라운드 서브미션 승이었다. 이 경기의 승리 후 정찬성은 "알도를 원한다"고 말하며 대권 도전 출사표를 던졌다. UFC는 정찬성의 타이틀 도전에 긍정적이었다. UFC는 사실상 정찬성에게 타이틀 도전자 자격을 부여했지만 알도의 부상으로 일정이 애매해지면서 정찬성도 미뤄온 어깨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재활하는 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 페더급의 지형도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다. 라이트급(-70kg)에서 전 챔피언이자 현 챔피언과 대등한 실력을 갖춘 프랭키 에드가가 내려왔고 '쇼타임'이란 별명을 가진 개성 있는 타격 전문 선수 앤서니 페티스 역시 호시탐탐 페더급을 엿보고 있었으며, 리카르도 라마스 같은 신홍 강호들이 치고 올라왔다. 정찬성이 한동안 멈춰 있는 사이 모든 것이 변한 것이다. 결국 알도는 페티스를, 정찬성은 라마스를 상대로 경기를 치를 예정이었다. 그렇지만 올 6월 중순경 알도의 도전 상대이던 페티스가 부상으로 전열을 이탈했고



정찬성의 상대를 보니 그의 성장이 놀라울 뿐이다. 정찬성은 늘 언더독으로 평가 받았으나 경기 후 주인공은 항상 그였다.

UFC는 페티스의 상대 자리에 정찬성을 배치했다. 한국 MMA 역사상 최초로 정찬성이 UFC 챔피언에 도전하게 된 것이다. 이 뉴스가 방송되자 국내 MMA 커뮤니티에서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 또 격투 관련 매체뿐 아니라 일반 언론에서도 정찬성과 MMA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다. 국내보다 해외에서 지명도가 더욱 높은 정찬성이다 보니 해외의 반응 또한 뜨거웠다.

➔ Brazilian Champion

1986년생 브라질리언 조제 알도는 완벽해 가까운 챔피언이다. 축구 선수 출신이었지만 작은 체구 탓에 상대 선수, 심지어 동료들에게까지 괴롭힘을 당하던 그는 자기 방어를 위해 주짓수를 시작했는데 축구보다 격투에 소질이 더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돈 한 푼 없이 맨몸으로 리우데자네이루를 향해 떠났다. 선수 생활 초기에 알도는 체육관에서 겨우 짐자리를 해결했고 하루에 한 끼 먹는 것도 어려웠다. 동료들의 도움으로 겨우 끼니를 해결하던 알도는 2004년 프로로 데뷔했고, 첫 11경기에서 10승 1패를 기록한 후 2008년 WEC로 진출했다.

WEC 무대에 들어서자마자 알렉산더 노게이라, 컵스완슨 등의 강자를 포함한 5명의 상대를 연속 KO로 때려잡은 알도에게 2009년 11월 타이틀을 찾아 주어졌다. 당시 챔피언은 레슬링과 파운딩으로 유명한 마이크 브라운이었다. 알도는 마이크 브라운을 테이크다운시키고 백포지션을 장악한 후 파운딩으로 TKO 승을 거두었다. 흔히 알도를 타격가로 알고 있었지만 실상 그는 체급대 최강의

레슬러를 레슬링으로 잡아먹을 수 있을 만큼 전방위적으로 능숙한 선수였던 것이다.

알도는 2012년 1월까지 5명의 도전자를 문제없이 들러붙었다. 페더급에는 더 이상 적수가 없다는 비관론이 대두하던 중 전 라이트급 챔피언 프랭키 에드스가 체급을 낮춰 알도에게 도전해왔다. 스피드와 복싱 실력 그리고 레슬링, 맨집, 체력 등으로 유명한 에드가는 알도에게 대항해 위협적인 상대로 보였다. 많은 사람이 "아무리 알도라지만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이라 전망했지만 막상 무릎을 꿇어보니 알도가 확실한 수 위였다. 그 엄청난 에드조차 알도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왼손 잭과 라이트 스트레이트로 대표되는 안정적인 복싱, 아마도 이 시대 MMA를 대표하는 절기 중 하나라 해도 손색없을 라이트 로직 그리고 MMA 역사상 가장 위험한 결정 병기로 꼽을 수 있는 니킥 등 알도의 무기는 풍성하다. 그뿐 아니라 극도로 빠르고 정교한 스텝은 공격과 방어 양면에서 압도적인 기량을 발휘하는 토대가 되었고 힘이 워낙 강하고 반사신경이 예민해 테이크다운 디펜스도 철벽에 가깝다. 9년간 23전을 치르는 동안 단 한 번도 맞고 쓰러진 적이 없을 만큼 맨집마저 강하다.

그의 유일한 약점은 컨디션 기록으로, 컨디션이 나쁜 날에는 체력이 금방 소진되고 타격이 잘 먹히지 않는다. 그가 유일하게 패배한 경기도 초반부터 체력이 떨어져 고전하다가 서브미션 패를 당한 때였고, 마크 호미닉전에서 후반부에 체력 고갈로 위험한 순간을 맞이한 바 있다. 그의 23전 중 약 4

경기 정도가 컨디션 난조를 보였다. 약 17.4%의 확률로 알도의 공략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것은 알도가 보여주는 뛰어난 신체 능력 이면에 존재하는 일종의 원초적 위험이다. 그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파워는 결국 근육에서 나온다. 힘이 세고 빠른 만큼 무게도 더 나간다는 의미로 66kg이라는 페더급의 한계 체중을 맞추는 것이 알도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특히 최근 경기에서 알도가 감랑고를 자주 겪었다는 얘기는 비밀이 아니다. 체중 조절이 바로 알도의 가장 큰 적이며 그 성패에 따라 알도의 퍼포먼스는 크게 달라질 수 있었다.

상대가 나쁜 컨디션으로 나오기를 빌었다는 것, 실력이 아닌 요행을 바란다는 의미로 보면 비겁하고 치사한 얘기일 수 있다. 그렇지만 알도라는 챔피언의 실력과 승부의 결과에 걸려 있는 보상을 생각하면 비겁과 치사는 문제가 아니었다. 정찬성이 이길 경우, 한국 MMA에는 도약의 전기가 마련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다. 말이 점잖아 도약의 전기기 까놓고 말해 수많은 선수와 지도자와 관계자들에게 별 들 날이 찾아온다는 의미다. 필자 같은 가난한 칼럼생이조차 원고료의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었을 것이며 정찬성 본인과 업계의 중추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유명세와 더 나아가 물질적 보상이 따를 수 있는 상황이었다. 마치 김연아가 불모지나 다름없던 국내 피겨스케이팅계를 주류로 인도했듯 정찬성의 성공으로 국내 종합격투기계가 수면으로 부상할 기회였기 때문에 필자는 비겁과 치사를 떠나 알도가 체중 조절에 완전히 실패해 엉망인 상태로 옥타곤에 오르기를 바랐다.



WORLD FEATHERWEIGHT CHAMPIONSHIP

UFC 163

ALDO vs KOREAN ZOMBIE

SATURDAY AUG. 3 | 10^{pm} et | 7^{pm} pt

LIVE ON PAY-PER-VIEW AND UFC TV

2013년 8월 4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HSBC 아레나에서 열린 UFC 163 페더급 타이틀전. 정찬성은 한국인 최초로 UFC 타이틀전에 도전했다.



경기 하루 전날, 정찬성 선수와의 UFC 페더급 타이틀전을 앞두고 체체량에 통과한 조제 알도의 환호.

→ It's Showtime

8월 3일, UFC는 계체량 영상을 공개했다. 저울에 오르기 전 선수들은 일반적으로 심한 탈수 상태다. 갑증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체중을 발표하고 나면 선수들은 물을 찾는다. 선수에게 물을 건네는 상황을 잘 보면 선수의 감정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유추할 수 있다. 저울에서 내려오자마자 물부터 벌컥벌컥 들이켠다면 그 선수는 상당한 감광고를 겪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저울에서 내려와 상대 선수와 파이팅 포즈를 취하는 과정을 모두 마친 후 물을 마시는 선수는 상대적으로 여유 있게 감광했다는 얘기다. 알도는 전자였다. 체중계에서 발을 떼자마자 그는 커다란 물통 속에 든 이온음료를 정신없이 들이켰다. 좋은 징조였다. 경기 당일 알도의 얼굴은 심하게 부어 있었다. 심한 탈수 상황에서는 신장이 손상된다. 이 경우 얼굴이 붓는다. 그런 상태로 경기에 나서면 체력 저하는 피할 수 없는 것이 상식이다. 실제로 경기 후 알도 측이 밝힌 바로는 알도는 신장결석을 앓고 있었다고 한다. 신장결석이라는 증상은 신체에 수분이 마르면서 신장에서 걸러진 미네랄이 결정으로 석출되어 생기는 것이다. 이 역시 정찬성에게는 행운이었다.

정찬성의 코너는 초반 정면 승부를 피하고 후반을 노리는 작전을 짜서 나왔다. 아무리 컨디션이 나쁘더라도 초반 화력이 살아 있는 알도는 위험하므로 매우 적절한 선택이었다. 정찬성은 평소와 달리 커버링을 상당히 끌어올리고 몸을 웅크려 디펜스에 높은 비중을 두었다. 양손을 허리 근처까지 늘어뜨리고 안면을 열어둔 채 광기의 난타전을 특기로 하던 정찬성으로서는 알도의 공격력에 대해 충분히 예의를 갖추고 상대한 셈이다. 비록 초반부터 알도의 강한 라이트를 먹기는 했지만 그래도 정찬성의 변신은 효과적이었다. 알도가 평소처럼 자유자재로 공격을 펼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1라운드 2분여가 지난 시점에서 결정적인 전기가 찾아왔다. 알도가 마음먹고 구사한 라이트 로키이 정찬성의 무릎을 때리면서 알도의 오른발 발등이 부러진 것이다. 알도는 확인차 한 번 더 로키를 시도해보지만 이후 로키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컨디션도 나쁜 상태에서 로키 실패로 부상까지 당한 알도는 점수 쟁탈전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그는 잭과 라이트 스트레이트 등 안정적인 타격과 기습적인 테이크다운으로 1, 2라운드를 이끌었다. 라운드 2분여를 남긴 시점에서 알도의 얼굴에는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다. 반면 정찬성은 슬슬 시동을 걸고 있었다. 3라운드 중반부에는 점핑 니킥 이후 오금을 당겨 알도를 넘어뜨린 후 정찬성이 상위 포지션을 장악하고 파운딩을 시도하기도 했다. 경기 흐름이 정찬성 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듯했다. 4라운드, 정찬성이 옥타곤의 중량을 차지하고 알도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었다. 알도는 발을 멈추고 카운터를 노렸다. 1분 30여 초가 지난 지점에서 정찬성이 라이트 오버핸드를 던졌는데 알도가 이것을 왼손 혹은 오른손으로 시도하면서 두 선수의 팔이 얽혔다. 이 과정에서 정찬성의 오른쪽 어깨가 탈구되었다. 정찬성은 어떻게든 어깨를 다시 끼워 맞추려 했지만 부상을 느낀 알도는 왼쪽 하이킥으로 정찬성의 오른쪽 어깨를 연속해 공격했으며 잠시 후 정찬성을 테이크다운시킨 후 파운딩을 내려쳐 TKO 판정을 이끌어냈다. 알도는 분명 좋지 않은 컨디션으로 나왔고 오른발에 부상을 입어 주무기 중 하나를 봉인한 채 싸워야 했다. 격투의 신이 정찬성을 향해 미소를 지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정찬성의 어깨가 문제를 일으키면서 천재일우의 기회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만큼 커다란 아쉬움을 남긴 일전이었다. 부상으로 경기를 내준 것도 무척 괴로운

정찬성의 어깨 탈골이 안타까운 파이터들

다들 경기가 끝나자마자 폭풍 트윗을 시전했다고...

데이나 화이트 (UFC CEO)

아, 좀비의 어깨가 경기 도중에 빠지다니, 너무 가혹하다!!!!!!

본 리 (UFC 밴텀급 선수)

안 돼에에에에에!

더스틴 포이리에

(UFC 페더급 선수, 정찬성 선수에게 다스 초크에 걸려 패배했다)

경기에 슬슬 불이 붙기 시작했는데 너무 아쉽다. 정찬성 선수 관참았으면 좋겠다. 이 경기 진짜 예측 불허라니끼!

마크 헛트 (UFC 헤비급 선수)

어깨가 시합을 망쳐버렸군.

조셉 베나비데스

(UFC 플라임급 선수)

경기 도중에 어깨를 맞추려고 하더니... 진정한 좀비 스타일이다. 알도는 날카롭네.

팻 힐리 (UFC 라이트급 선수)

코리아 좀비가 경기를 이기고 있었던 것은 아니어도 너무나도 아쉬운 패배다. 그는 전사 그 자체다.

일이지만 진짜로 아까운 점 하나는 알도의 발 부상을 공략 포인트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알도의 로키이 1라운드 이후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특이한 상황이었다. 해설진의 골드버그 역시 경기 도중 여러 차례 알도의 로키이 나오지 않는 것을 지적했다. 즉 알도의 오른발에 문제가 있음을 경기를 유심히 본 사람들이라면 눈치챌 수 있었던 것이다. 또 경기 영상에도 알도의 오른쪽 발등이 부어오른 것이 계속 눈에 띈다. 그런데 정찬성은 그것을 이는지 모르는지 내버려두었다. 클린치 상황이 없던 것도 아니었고 3라운드 초·중반에 그라운드 상황이 나왔는데 이때 정찬성이 알도의 오른발을 건드리거나 밟거나 하체 관절기를 시도해봤더라면 어땠을까. 상대의 부상 부위를 노리는 것은 정석이다. 알도 역시 그렇게 했다. 하지만 정찬성은 알도의 부상 부위를 내버려두었고 그 점이 차이를 만들었다. 만약 정찬성이 알도의 오른발을 공격했다면...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진다. 꽤 오랫동안 여운이 남을 것 같다. 

From MAXIM Indonesia 



Korina Bliss



이토록 섹시한 DJ라니! 출중한 몸매 덕에 모델로도 활동하는 그녀는 의외로 첫 데이트가 가장 '신성한 순간'이라고 말한다. 그래, 두 번째 데이트에서 그녀를 황홀하게 만들 '핫 스팟'에 도달하려면 첫 데이트는 성스럽게 지켜줘야지!

WORDS ARIEF MULIAWAN
PHOTOGRAPH RICKO SANDY

From MAXIM Indonesia 





**반갑대! DJ와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데, 둘 중 어떤 일이 더
재미있나?**

둘 다 즐겁지만, 굳이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DJ! 음악 없이 하루도 살 수
없거든!

**당신이 디제잉을 할 때 관객들의 반응은
어떤가?**

생동감이 넘친대! 장소가 넓건 좁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모두가 댄스 플로어에 올라
영양이를 흔들지.

**투어를 다니면서 만난 현지인과 사랑에
빠진 적이 있나?**

아쉽지만 없다.(웃음) 하지만 난 내가 만난
사람 모두와 친구가 된다.

**사교성이 좋군! 함께 데이트하고 싶은
남자는 어떤 남자인가?**

자신감이 넘치고, 매너 좋고, 유머 있고,
대화가 잘 통하는 남자가 좋다. 제일 중요한
건 여성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지.

첫 데이트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나?

첫 데이트는 신성한 순간이다. 그럴수록
오히려 평범한 일들을 함께 하는 게
좋더라. 영화를 본다가나, 식당에서 저녁을
먹는다가나 하는 것들.

두 번째 데이트는 어땠으면 좋겠나?

만약 그 남자가 날 편안하게 만들어준다면...
에이, 다들 일면서 왜 그래!(웃음)

당신의 '핫 스팟'은 어디인가?

목이다. 그 부분이 굉장히 예민해서, 조금만
자극해도 본능적으로 돌변한다.(웃음)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화끈한 섹스
판타지는?**

잠깐 생각 좀 해보고... 아...! 하늘 위 비행기
화장실에서 하는 상상을 종종 한다. 비좁은
장소, 한정된 시간 안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눈치 채지 못하도록 사랑을 나눈다는 게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다. 상상만 해도
짜릿한데?

앞으로의 계획은?

계속해서 세계를 여행할 거다.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에너지를 얻고, 멋진
공연을 선보여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싶다. 

 **Korina Bliss**

코리나 블리스

국적: 캐나다

트위터: @KorinaBliss

추천 데이트 장소:
영화관

추천 데이트 영화:
로맨틱 코미디



세기의 명장들 TOP 3

호세 무리뉴, 알렉스 퍼거슨, 거스 히딩크 등 우리는 흔히들 '명장'이라 불리는 세계 유수의 감독들과 한 시대에 살고 있다. 선수들을 훈련 및 지휘하고 각종 변수가 작용하는 경기마다 탁월한 순발력을 발휘해 팀을 승리로 이끄는 그들처럼, 역사 속 치열한 전장에서 '명장'은 늘 세간의 주목을 받아 왔다. 이번 호에서는 전장 속에서 극적인 승리를 이끌어 낸 역사 속의 명장 세 명을 꼽아 봤다.



BY 군사전문가 김대영
(www.cyworld.com/undercoverbrother)



1 한니발 (Hannibal, Son of Hamilcar Barca)

로마를 멸망시킬 뻔했던 현대의 명장
활동 연대 기원전 247~183년
국적 카르타고(Carthage)
특징 알프스를 넘어 최초의 장군



한니발은 알렉산드로스대왕, 피로스와 비견되는 고대 최고의 명장 중 한 명이었다

로마의 뒤통수를 제대로 친 장군

기원전 220년 제1차 포에니 전쟁 이후 이탈리아 반도의 로마와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는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패권을 양분하고 있었다. 이때, 혜성같이 등장한 카르타고의 장군 한니발은 총사령관에 오른 뒤 로마와의 전쟁을 결심한다. 제2차 포에니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당시 로마의 함대는 지중해를 장악하고 있었고, 이탈리아 쪽으로 바다를 건너 공격한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것과 다름없는 무모한 짓이었다. 이에 한니발은 지금의 스페인을 로마 침공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하지만 그의 앞에는 피레네 산맥과 알프스라는 거대한 자연 장벽이 버티고 있었다. 로마군의 위협 속에서도 한니발은 수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피레네 산맥과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 반도에 진입하는 데 성공한다. 한니발은 로마를 향해 진격을 시작했고, 결국 기원전 216년 8월 2일, 아드리아 해 인근의 칸나이에서 로마군과 피할 수 없는 일전을 벌인다.



혹형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지.

한니발은 누구도 넘을 수 없을 것이라던 피레네 산맥과 알프스를, 무려 수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훌쩍 넘어가버렸다.



전쟁은 언제나 인류와 함께 해왔으며, 우리가 원하는 원치 않은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이 바로 전장의 명장들이다. 이들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한순간에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스타급 장군들이 탄생했으니, 흔히들 명장(名將)이라 불리는 장군들은 결정적 순간에 전쟁의 양상을 뒤바꾸어 놓았다. 또한 몇몇 명장들의 삶은 그야말로 영화 속 주인공처럼 파란만장했다.



칸나이 전투에서 한니발은 로마 군 전력의 5분의 1을 괴멸시키는데 성공한다

전투에서 이겼지만, 전쟁에서는 지다

홍그라운드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로마는 카르타고에 비해 압도적인 병력을 자랑했다. 반면 카르타고는 병력 면에서는 뒤쳐졌지만, 잘 훈련된 기병과 비장의 무기 전투코끼리가 있었다. 전투 초기에 로마군은 숫자로 밀어붙였으나 카르타고의 기병이 점차 로마군을 포위하기 시작했으며, 뒷심 마리에 불과한 전투코끼리들은 로마군을 사정없이 짓밟았다. 결국, 로마군은 대규모 병력이 포위된 채 사방에서 공격을 받았고, 전투가 끝날 무렵에는 수만 명의 전사자와 포로를 남기고 패퇴해야만 했다. 이 전투에서 한니발은 로마군 전력의 5분의 1을 괴멸시켰지만, 이후 전쟁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된다. 때를 놓치지 않은 로마의 장군 대(大) 스키피오는 스페인을 정복하고 카르타고로 역관공을 시도한다. 결국, 한니발과 그의 군대는 카르타고로 회군하지만, 이후 자마 전투에서 대패하면서 제2차 포에니 전쟁은 로마의 승리로 끝난다.

Military



1940년 롬멜 장군은 프랑스 전선에서 전격전으로 아르덴 숲을 돌파 연합군을 패퇴한다.

당연하겠지만
영화도 있지!



2 에르빈 롬멜 (Erwin Johannes Eugen Rommel)

사막의 여우로 불리던 사나이

활동 연대 1891~1944

국적 독일

특징 전차군단의
신화를 만든다



→ 왠지 모르게
말보로가 생각나는
전형적인 미남형
얼굴. 하지만
요리조리 잘 뜯어보면
정말 여우처럼 생겼다.

독일의 전쟁 영웅

수많은 스타급 장군들을 배출해 낸 제2차 세계대전에서 롬멜 장군은 가장 특출난 인물이었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전선, 루마니아 전선, 이탈리아 전선 등 여러 전선에서 활약하며 뛰어난 전공을 보였으며, 군인으로서 가장 명예로운 훈장인 푸르 르 메리트(Pour le Merite) 훈장을 받았다. 종전 후 사관학교 교직으로 지내다 나치스에 관심을 두게 되어 가입하고, 아돌프 히틀러의 경호대장으로 임명되었다. 히틀러의 총애를 받던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때 기갑사단 지휘관으로 임명되어 1940년 프랑스 전선에서 전격전으로 아르덴 숲을 돌파하는 등 혁혁한 전공을 거두었고, 1941년에는 북아프리카에서 능수능란하게 독일 아프리카 군단을 지휘하여 적과 아군으로부터 '사막의 여우'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당시 롬멜군과 싸웠던 영국군은 롬멜 공포증에 빠져 전투를 꺼릴 정도였다고 한다.



북아프리카에서 롬멜과 싸웠던 영국군은 롬멜 공포증에 빠져 있었다.

음독자살로 생을 마감하다

1942년 롬멜 장군은 투브루크 전투를 승리로 이끌며 원수계급으로 승진한다. 그러나 12월, 엘 일라메인 전투에서는 본국으로부터 물자 보급 지원조차 받지 못해 패배하게 되고 북아프리카에서 위용을 떨치던 그의 명성은 점차 시들해져 간다. 이후 롬멜의 신화 역시 빛을 잃고, 결국 그는 1943년 독일로 귀환한다. 이탈리아 전선에서 지휘를 맡던 그는 후에 프랑스 서부전선으로 파견되어 영불해협의 방위를 맡았으나 1944년 6월 6일, 막대한 물자와 병력을 바탕으로 전개한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저지하지 못했다. 심지어 그는 영화 <탈기리>로 잘 알려진 히틀러 암살 음모 사건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그 해 10월 14일 결국 히틀러에게 자살 강요를 받아 음독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된다.



롬멜장군은 결국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저지하는데 실패하고 만다



트라팔가르 해전이 끝날 무렵 갑자기 날라든 총알에 넬슨 제독은 운명을 달리한다

포깁!
거어어어얼~!

3 호레이쇼 넬슨 (Horatio Nelson)

영국의 이순신 장군

활동 연대 1758~1805

국적 영국

특징 영국 해군력의
기초를 다듬다



→ 넬슨 제독은 13살이라는 어린 나이부터 이미 꾀밥을 드시고 있었다.

지상에는 나폴레옹, 해상에는 넬슨

1700년대 말, 지금까지도 명장으로 손꼽히는 나폴레옹과 그가 이끄는 프랑스군은 유럽을 공포로 돌아넣으며 연전연승을 거두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 지상에서였을 뿐, 해상에서는 상황이 정반대로 돌아가고 있었다. 당시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영국 해군 앞에 프랑스 해군은 벌벌 떨

수밖에 없었다. 당시 영국 해군은 전쟁 준비가 잘 되어 있었지만, 프랑스 해군은 부실한 상황이었다. 특히 혁명을 거치면서 주요 지휘관들이 속칭당한 상황이고, 숙련된 수병들마저 부족했다. 반면 영국 해군은 13세의 나이에 해군에 입대해 풍부한 해전 경험을 가진 넬슨 제독이 있었다. 그는 프랑스 해군과의 해전에서 오른쪽 눈과 팔을 잃었지만, 여전히 건재했고,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 당시 나일강 입구의 아부키르 만 해전에서 프랑스 함대를 격파하며 '나일강의 남작'이라는 별칭까지 가지고 있었다.

넬슨 제독의 마지막 전투, 트라팔가르 해전

프랑스 해군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넬슨 제독, 하지만 영국 외교관의 부인과 로맨스에 빠져 잠시 군무에서 이탈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다시 복귀한 그는 또다시 연승을 이어갔다. 1805년 영국 해군에 의해 봉쇄되어 있던 프랑스 함대는 대서양으로의 진출을 시도했고, 결국 트라팔가르 해협에서 영국 해군과 맞닥뜨리게 된다. 이 해전에서 영국 해군은 넬슨 제독의 지휘 아래, 우세한 화력과

향해술로 프랑스 함대를 압도한다. 결정적 순간 영국 해군은 적의 전열을 끊은 다음, 뱃머리를 돌려 접근전을 벌였고, 그 전투에는 넬슨 제독의 빅토리가 있었다. 빗발치는 총격 속에서도 그는 수병들을 독려했다. 눈부신 작전 지휘로 30여 척의 프랑스 함대 가운데 18척이 침몰하거나 나포되었다. 그러나 운명의 장난일까, 완승 직전 날아온 총격을 받은 그는 "하느님께 감사한다.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다했다."는 말을 남기고 47세의 나이에 운명한다.



넬슨 제독과 로맨스에 빠졌던 외교관의 부인 역시 남자는 능력이 있고 봐야 한다.

우리나라 3대 명장

이분들 아니었으면 당신은 지금쯤 '나까무라' 아니면 '자오웨이'라 불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순신 장군

선조에게 능력을 인정받아 계속 승진한 '스마트형' 명장. 첫 전투인 옥포 해전에서 왜선 26척을 전멸, 한산도 대첩에서는 거짓후퇴로 유인한 뒤 포위하는 전술로 왜군을 발라버렸다.



을지문덕 장군

최후의 한 방을 노리는 '올인형' 명장. 지금의 청천강 일대에서 배수의 진을 깔고 오기충만한 고구려 병사들이 수나라 병사들을 섬멸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강감찬 장군

60세가 넘는 나이에 역사적 승리를 거둔 '대기만성형' 명장. 물을 터뜨려 적에게 피해를 주는 원소형 공격과 복병을 통한 뒤치기 거란을 쳐바른 능수능란한 '전쟁의 신'이다.



Party

Pool & Bubble Party @Maison de Bali :2013.07.27



비키니는 언제나 옳대!

BY 김희성

거품 가득한 풀장에서 몸을 부비며 는 퍼핀스 베이에서의 MAXIM SEXY MARINE PARTY. 에디터는 그날 이후 풀 파티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다. 올해는 풀 파티가 유행인지 크고 작은 규모의 다양한 풀 파티가 있다는 소식이 작년보다 많이 들려왔다. 거의 매일 수많은 풀파티가 열렸지만 그중에서도 에디터의 마음을 사로잡은 핫 플레이스가 있었다. 7월 27일 토요일, 에디터는 비키니를 챙겨 청명예 위치한 '메종드발리'로 출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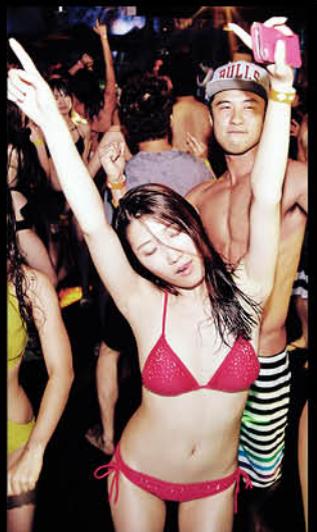




거품 속에서 무슨 일이



날이 어두워지자 청평호에서 웨이크 보딩을 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메종드발리로 모여들었다. 낮에 만끽하던 스릴이 아직 가시지 않았는지 이미 입구에서부터 잔뜩 상기된 표정이었다. 에디티드 보드카 한 잔을 원했던 다음 바로 수영장에 뛰어들었다.



Director Of The Day



IM(Imagineer of Movement)

이날 메종드발리를 뜨겁게 만든 주인공은 다음 아닌 '대학생'이었다. 이번 파티는 '변화를 기획하는 기획자'라는 뜻인 중앙대 & 숙명여대 파티팀 IM이 기획한 것으로, 팀 이름처럼 새로운 파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이런 대학생들이 있어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

Party



풀에 입수하자마자 물총 세례로 눈을 뜨기 힘들 지경이었다. 게다가 여기저기서 물에 빠뜨려 강제 잠수를 당하는 바람에 물을 많이 먹어 정신이 없었다. 들어간 지 몇 분도 안 돼 수영장 밖으로 탈출을 감행했지만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었다. 풀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없고 턱도 높았기 때문이다. 한번 풀 안에 들어가면 혼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구조였다. 들어가면 마음대로 들어가도 나올 땐 마음대로 나올 수 없는 곳이었다. 일부러 의도한 구조인지는 모르겠지만 의도한 거라면 진짜 머리가 좋은 거대



여기저기서 비키니녀들이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다. 에디터도 하는 수 없이 옆에서 놀고 있던 남자 사람에게 애절한 눈빛을 보냈다. 신호를 감지한 그가 풀 위로 사뿐히(?) 들어 올려줬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위에 있던 누군가가 에디터를 들어 올리더니 다시 물에 빠뜨렸다. 그런 광경이 여기저기서 연출됐다.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고민할 필요도 쭈뼛거릴 필요도 없었다. 이곳은 물속이었다. 물을 먹고 먹이고, 그걸로 충분했다.





파티가 가장 달아오른다는 새벽 2시가 지나자 DJ 박스 앞에서 거품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흔한 거품이 아니라 미국에서 직수입한 FDA 공인 천연 무자극 녹말 성분의 무공해 버블이라던데, 그래서 그런지 거품 속에서 오래 놀았는데도 피부가 따갑지 않았다. 이미 훌쩍 젖은 데다 거품 사워까지 하니 비키니녀들의 자태가 더욱 탐스러워 보였다. 거품을 온몸에 문힌 남 녀가 그 속에서 뒹굴고 난리도 아니었다. 울여름 즐 파티 중 딱 한 군대를 가야 한다면 바로 여기다. ☺



Party / Busan



@Busan Lotte Hotel Art Hall: 2013.08.10 Groove Summer Festival

느낌 있는 부산, 느낌 있는 밤 느낌 있는 남자들의 퍼포먼스
살아 있는 도시 부산에서 화끈한 힙합 라이브 파티가 펼쳐졌다.
이런 자리에 MAXIM이 빠질 수 있겠나.

지난 8월 10일, 광안대교만큼 미끈하고 땡초처럼 화끈한 부산 미녀들이 모두 모인 '그루브 썸머 페스티벌'이 롯데호텔부산 아트홀에서 펼쳐졌다. 뜨거운 열정과 멋진 음악이 홀을 가득 채웠고, 부산 미녀들이 마구 던지는 매력 폭탄에 이 순박한 서울 남자의 영혼은 아드레날린으로 가득 차올랐다. 한 여름 밤 모든 이의 마음을 시원하게 적실 이런 행사에 곁함으로 무장한 레미마틴 코냑과 부르갈 럼이 빠질소냐. 레미마틴은 부르갈 럼과 함께 행사장을 찾은 수백여 명의 관객을 위해 레미소다 프리드링크와 사진 촬영 등의 특별 이벤트를 제공했다. 관객들은 이미 시원한 레미소다 한 잔에 녹아버렸다. 파티가 시작되고 본 공연이 펼쳐지기 전부터 디제잉 공연이 펼쳐져 관객들의 발바닥은 이미 불이 붙었다. 특히 여성 댄스 팀 픽스 에인절 (Fix Angel)의 아찔한 군무와 화려한 LED 조명은 현장을 찾은 남성들의 혈관에서 엄청난 양의 테스토스테론을 솟구치게 만들었다. 목이 탈 수밖에! 레미마틴과 라임 그리고 탄산수가 합체해 파티를 더욱 더 시원하게 적셔주었으니, 이 레미소다 한 잔으로 파티를 만끽할 에너지 게이지가 100% 상승했다. 이제 본 게임 될 준비는 끝났다.





이날 라인업은 안 그래도 화끈한 부산 사람들을 더 미치게 만들었는데, 첫 주자는 감미로운 목소리의 '범키와 '칸토'의 무대. 특히 '미친연애'가 흐르자 여기저기서 여인들이 신음과 비명이 터져나왔다. 이어지는 무대는 다재다능한 '버벌진트', 실제로 보니 생각보다 키가 작아서 웬지 기분이 우쭐했다. 하지만 그의 피아노 연주와 노래가 시작되자 여자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졌으니 아, 흐빛의 새 영웅이 바로 저 녀석이구네! '충분히 예뻐'가 흐를 땐 마치 본인이 노래 주인공인 것처럼 광대를 바짝 올리고 입을 헤벌리면서 눈망울을 촉촉하게 적시는 여자가 속출했다. 세 번째는 약 빨고 올라온 듯 정신 내려 놓고 신나는 무대를 선보인 '빈지노'.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요즘 대세 '자이언티'와 '프라이머리'. 몸속에 피가 아니라 박카스, 레드불 같은 드링크가 흐르는 걸까? 그들은 정력 넘치는 엄청난 무대 매너로 관객의 마음을 불살랐다. 이토록 느낌있는 라인업이라니, 하드 코어에서부터 로맨틱한 감성 힙합까지 사람을 들었다 놔다 하던 그들의 무대는 새벽이 되어서야 끝이 났다. 아이고, 허리아, 다리야, 한 여름밤의 잊지 못할 레미마틴과의 추억은 이렇게 시원한 가을 바람과 함께 녹아들고 있었다. 레미소다 칵테일은 고급 코냑이 베이스가 된 최상의 칵테일로 에드링턴 코리아가 수입유통하는 레미마틴 코냑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든 만들고 마시기 쉬운 게 장점. 특히 클럽이나 흥파티용으로서는 다른 어떤 주류의 칵테일보다도 뛰어나다. 재료는 레미마틴 VSOP와 토닉워터 그리고 얼음이면 충분. 거기에 가니시 할 수 있는 레몬 슬라이스, 민트 잎만 있으면 준비 끝. 여름의 끝과 가을의 시작, 그루브 파티의 여운을 레미소다와 함께 즐기길 추천한다. ☺



↑

DJ KINGMCK
 소속: 파티 크루 DEADEND
 장르: Acid House

* 애시드 하우스: 반복적인 하우스 리듬에 동원적인 멜로디가 특징이다. 1980년대 중반 시카고의 하우스 DJ들이 이용하던 신시사이저의 환각적 사운드에서 출발해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 유럽 대륙에 널리 퍼졌다.

DJ KINGMCK

아직도 '때려부수는 음악'이 제일 좋다는 디제이썸의 반항아 디제이 킹맥을 만나 보자. BY 손안나



5월호
DJ KOO



6월호
SHUT DA MOUTH



7월호
MAZESTIK&SIONZ



8월호
ARIKAMA



9월호
KINGMCK

이름이 KINGMCK라니 '킹맥'이라고 읽는 게 맞나?
 원래는 '킹 엠씨케이'였다. KINGMCK은 어렸을 때부터 쓰던 게임 아이디다. 내 본명이 김민찬이거든. 디제이로서 생애 첫 인터뷰를 <블링>과 했는데, 거기서 자주 나를 '킹맥'으로 부르는 거다. 그날부터 그렇게 킹맥이 됐다. 원래 내가 세끼를 맥도날드 빅맥으로 때울 만큼 햄버거를 좋아하는데, 주변에서 킹맥과 빅맥이 어감이 비슷하다고 놀려대서 처음엔 엄청 기분 나빴다.

지난달에 당신을 추천한 디제이 아리카마와는 어떤 사이인가?

사실 디제이랑 새로운 문화를 소개하는 사람이지만 그냥 무대에 올라 환호와 열광을 받는 게 다가 아니거든. 디제이 기술이야 한두 달 하면 기타 치듯 배울 수 있잖아? 아리카마와 나는 그런 면에 대한 마인드가 비슷한 디제이다. 한마디로 우리는 이 썸의 반항 세력이지!

디제이를 시작한 계기는?

어렸을 때 미국에서 살았는데 당시 막 뜨던 밴드가 린킨 파크였다. 멤버 중 디제이(조 한)가 단지 같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선망의 대상이었지. 음악을 하고 싶긴 한데 다른 애들이 나보다 기타도 잘 치고 드럼도 잘 치니까 나는 디제이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스크래칭이나 여러 가지 기술을 조합해서

플레이하는 턴테이블리스트로 시작했다.

명문대에 입학해서는 음악 하겠다고 석 달 만에 학교도 때려치웠다고?

내 재능에 확신이 있었다. 분명히 나만의 뭔가가 있다고 생각했지. 처음에는 집안에서도 등을 돌리고 주머니에 2,300원밖에 없던 시절도 있었다. 나중에 부모님께서 공연을 보러 오셨는데, 마침 그 공연이 '하이서울페스티벌'이었다. 매년 열리는 공식적인 행사잖아? 그때부터 인정해주시더라.

당신만의 그 '뭔가'가 뭔가요?

디제이 10명에게 똑같은 음악을 주고 틀라고 해도 느낌이 다 다르다. 에너지의 포인트가 다를 수도 있고, 스킬이 다를 수도 있다. 여하튼 그게 기량 차이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면 개인 작업물. 이제는 자기 곡으로 승부해야 한다. 디제이가 음악만 잘 틀다고 인정받는 시대는 지났잖아?

어떤 장르에 자신 있나?

올 카인드(All Kinds). 고등학교 때, 내가 살던 플로리다에서 힙합이 막 유행하기 시작한 시기가 있었다. 당시 애들은 나이키 에어포스를 신고 스케이트보드를 탔다. 사실 둘이 완전히 상반된 문화인데 재밌지 않나? 예전에 누가 내게 자신 있는 장르를 물으면 애시드 하우스, 재니 하우스,



테크노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크루 활동을 시작하면서 다른 디제이들에게서 음악적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요즘은 안 틀던 힙합도 투다. 딱 예전에 나이키 에어포스 신고 스케이트보드 타던 그 느낌이라고

디제이가 되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

일단 디제이가 되면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니까 거기에 현혹돼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음악을 사랑하고 그걸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공감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당신이 소속된 파티 크루는 뭘 하는 집단인가?

데드엔드라고 디제이, 포토그래퍼, 그래픽 디자이너, 브이제이가 모여서 협업하는 그룹이다. 예를 들어 내가 공연을 하면 포토그래퍼가 사진을 남기고 브이제이가 영상을 찍워서 그래픽 디자이너가 그 위에 그림을 그리는 식의 작업을 모두 주석에서 진행한다. 멋지지?

당신의 세트 리스트에 절대 오를 수 없는 음악은?

사람들은 주말을 즐기기 위해 클럽에 오는데, 내가 듣고 싶다고 재즈나 블루스를 틀면 웃기잖아? 이런 게 딜레마다. 여자 친구와 헤어진 날은 집에서 발라드 듣고 있어야 하는데, 클럽에서 신나는 음악을 틀어야 하니 감정의 충돌이 일어나 힘들 때도 있다. 남들은 즐기면서 일한다고 말하지만 알다시피 노는 것도 쉬운 게 아니다.

술은 좋아하나?

한 잔도 못한다. 내 꿈이 무대에서 플레이하면서 맥주 마시는 거다. 어렸을 때 그게 정말 멋있어 보였다. 나는 지금도 콜라 빼는데...

당신의 무대를 보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

다음 달, 글로벌 개더링 페스티벌에서 내 곡으로 첫 라이브를 한다. 기대해달라.

그런 페스티벌에는 어떻게 입고 가야 센스 있어 보일까?

개인적으로 여자가 저지 입고 나이키 조던 운동화 신은 게 예쁘더라고.

이 씬의 반항 세력답게 한마디 해보자. 요즘 클럽 씬에 불만이 있다면?

요새 부산에서 그런 춤이 유행이잖나? '떡춤'이라고, 여자들이 숙우 다 벗고... 한강 기준으로 강남, 포항, 부산까지 음악이 똑같다. 강남이라고 다를 게 없다. 난고를 하기 위한 음악을 틀어놓고 그게 클럽 문화라고 하면 난 너무 억울할 것 같다.



Kingmck's Favorite Playlist

① Ghetto Grocery Bag

내가 만든 곡으로, 국내 프로듀서/DJ 레이블 VOLT AGE SOUND가 두 달에 한 번씩 발매하는 컴필레이션 첫 번째 앨범 <1V>에 실렸다. 클럽이나 자동차에서 들으면 귀가 아닌 몸에서 먼저 느껴지는 서브 베이스가 특징이다.

② Middle Finger Pt. 2

Boys Noize와 Skrillex의 유닛 Dog Blood가 최근 무료 다운로드로 과감하게 발매한 EP의 메인 타이틀 곡. 각자의 음악관이 그대로 묻어나있고, 'Acid+Electro+Breakbeat'라는 세 장르가 합쳐졌는데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③ PSA(YTst & J.Sin

Remix)

Just Blaze가 프로듀싱한 Jay-Z의 대표곡 중 하나. 얼마 전 Just Blaze의 내한 파티 때 DJ YTst와 J.Sin가 공동 리믹스 작업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요즘 유행하는 사운드에 맞춰 재탄생됐다.

Kingmck 추천
음악 감상실



Who's Next?



DJ CONAN
Coming in October

Party



Jägermeister Party in Ansan Valley

록 페스티벌로 뜨겁던 지난 8월, 에디터는 안산 밸리 페스티벌에서 예상치 못한 주지육림의 풀 파티 현장을 발견했다. 수영장과 미녀들 그리고 로큰롤! 이보다 더 핫할 수 있으랴.
BY 조응제

→ 페스티벌 장소에 도착한 에디터 일행은 저 멀리 동동 떠 있는 주홍빛 풍선 두 개를 발견했다. 익숙한 사슴머리가 그려진 그것은 분명 록 페스티벌에서 빼놓으면 섭하다는 예거마이스터의 로고였다. 나뭇잎 동동 띄운 예거 한 사발 얻어 목이나 축일 겸 우리는 화려한 빛을 쬐는 부스로 향했다.

사각의 대형 예거 큐브 안에서는 여기저기서 물려든 남녀가 그룹을 이루어 게임을 즐기고 있었다. '예거마이스터 아이스 콜드 샷'을 한 잔씩 들이켜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게임에 취해 페스티벌을 만끽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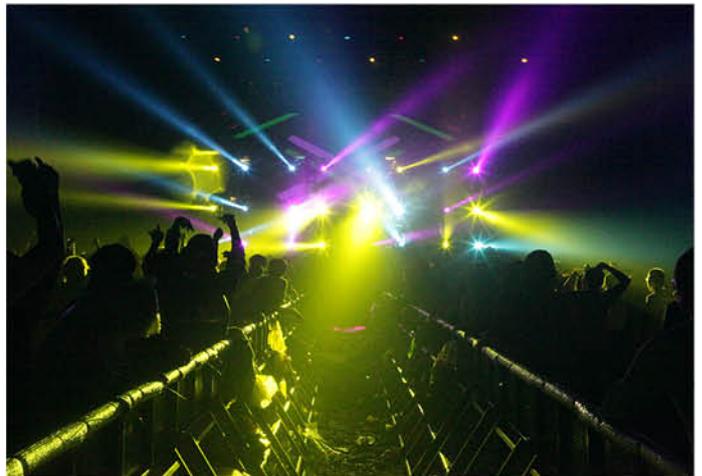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김연아가 트리플 악셀을 다섯 바퀴 돌고도 남을 정도로 큰 규모의 야외 풀장이었다. 더위에 지친 남녀들은 요실금처럼 질끔질끔 내리는 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뛰어들기 일쑤였다. 해가 지고 날씨가 조금 쌀쌀해졌을 무렵엔, MC 프라임과 YMEA의 진행 아래 디스코 파티가 벌어졌다. 차가운 풀장은 그들의 열기에 악암온천처럼 뜨겁게 끓어 넘치고 있었다.



록 페스티벌의 꽃은 록 스테이지 메인 스테이지 중 하나인 '예거마이스터 아이스 콜드 샷 스테이지'에서는 3일에 걸쳐 '솔루션스', '마이 블러디 발렌타인(My Bloody Valentine)', '프라이머리+자이언티', '이디오테잎' 등 내로라하는 뮤지션들이 환상적인 공연을 펼쳤다. 분위기에 취하고, 음악에 취하고, 예가에 취한 파티 피플에게 이런 화끈한 여름밤이 또 어디 있으랴.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그동안 MAXIM과 함께 준강간, 간통 시리즈 공부한 걸로 법치 섹스를 마스터했다고 자만하지 말라. 그 가벼운 입으로 오만 군데 엄한 소리 하지 말라고, 입 방정을 단속하는 명예훼손 규정이 딱하니 버티고 있으니.



BY Devil's Advocate
대한민국의 현직 변호사로서, 국내 글지의 로펌에서 활동 중이다. 지난 6년간 MAXIM을 구독하던 중, 2013년부터 MAXIM 객원 에디터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어젯밤에 흘린친 여자 둘카 있는데, 보여줄까?

감사합니다, 부장님.

명예훼손이란?

①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내 옆에 잠든 그녀를 찬찬히 살펴보니, 어두운 클럽에서 몰랐는데 몸매뿐만 아니라 얼굴까지 연예인급 아닌가 나란 놈이 너무나 자랑스러워 인증샷을 찍어 인터넷에 올렸다. 그런데 그녀가 어떻게 알았는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며 나를 위협한다. 아니, 나랑 잤으니까 잤다고 한 건데 그것도 명예훼손이야? 명예훼손의 구성 요건은 의외로 단순하다.

- 1) 공연히,
 - 2) 사실을 적시하여(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 3)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그게 명예훼손이다.
- 늘 그렇듯 무슨 말인지 알쏭달쏭하다. 하나씩 풀어서 살펴보자.

1. 공연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아무나 그걸 알게 돼도 이상할 게 없는 상태'란 뜻. "A양 그 나쁜 녀은 양다리도 아니고 세 다리나 걸치고 있었어"라고 혼자 일기예다 아무리 써봤자 명예훼손이 아니다.

2. 사실을 적시

개인의 의견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을 표현한 것을 말한다. 연예인 악플을 달 때 "개 존나 짜증나"라고 쓰는 건 명예훼손이 아니지만, "개 B사장 애 배서 임신중절 했다더라"라고 쓰는 건 명예훼손이다. 그리고 보니 요즘 증거가 짜라시에 이런 낙태 드림이 좀 줄어든 것 같다?

3. 명예를 훼손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으로 나쁜 의미에 해당하는 소릴 해야 된다는 거다. "너 씨발 왜 이렇게 잠자리 기술이 화려해"는 결코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 칭찬이니까.

그리고 위 조문에서 보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만 명예훼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될 뿐이다.

일상생활에서 흔하(?) 볼 수 있는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자(가상의 사례일 뿐이니 오해하지 말자).

① [어젯밤 그녀에 대한 뒷담화]

- A: 어제 클럽 갔었대매? 성과 좀 있었나?
B: 이 형님이 누군데 입마, 흘린 한 방 날려주셨지. 영광스런 피로감이 얼굴에 한 가득하지 않나? ㅋㅋ
A: 졸 부러운 새기... 그래서 어제 흘린녀는 어땠는데?
B: 의젓한 성과였어... 턱을 장미칼로 깎아냈는지 하다가 베일까봐 살 떨리드라. ㅋㅋ 의젓은 좀 아쉽긴 했지만 없는 것보단 낫지. ㅋㅋ
A: 사진은 없나?
B: X특에 사진 있을 거야. 봐봐.
A: 썬, 관찮네. 이 정도면 큰질 올려야지. 어디서 불평질이야. ㅋㅋ 뭐 하는 애나?
B: 나름 멀끔한 대기업 다니던데? XX사 다니던데라. 어제 그 회사 애들 셋이 왔는데 다 잘 주는 분위기였어. ㅋㅋ 배운 년들이 더 밝히는 거 같애.

[사례 해설]

결론적으로 위 사례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먼저 얼굴과 가슴에 성형수술을 했다는 사실이나, 색을 밝힌다는 묘사는 현재 사회의 분위기를 볼 때 충분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사실에 해당된다.

'공연'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지만, 판례를 보면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 둘의 대화 분위기와 위 내용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니 공연성도 충족된다.

그렇지만 A가 사진 얘기를 꺼내기 전까지의 단계만 해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전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런데 A의 물음에 B는 X특의 사진을 보여주며(X특의 특성상 이름까지 알게 된다) 다니는 회사까지 밝혔다. 이 정도면 충분히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위 사례의 시사점은 단 한 사람에게만 말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위법성 조각사유 및 소추조건

“명예훼손 맞는데도 처벌을 안 받아?”

①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310조는 명예훼손의 '위법성의 조각'에 대해서, 제312조는 명예훼손의 '소추조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위법성의 조각'이니 '소추조건'이니 하는 말 자체가 어려우니 먼저 쉽게 풀어주겠다.

위법성의 조각

어떤 행위가 형법이 정한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건에는 해당되지만 법 질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몽둥이를 휘둘러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만 놓고 봤을 때는 상해죄의 요건에 해당되지만, 그 행위를 한 이유가 상대방이 먼저 당신을 사시미칼로 공격한 상황에서 정당방위로 몽둥이를 휘두른 거라면 위법하지 않은 것과 같다. 한 마디로 상대방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과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는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도 된다고 법이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명예훼손도 마찬가지다. 행위만 놓고 봤을 땐 명백하게 명예훼손 행위이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그 명예훼손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다. 따라서 명예훼손을 하고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그 조건이 뭐냐?

명예훼손은 명예훼손만의 특유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가지고 있다. 그게 바로 형법 제310조다. 형법 제310조는 '언론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와 관계가 있다. 명예훼손죄라는 게 '진실'을 적시해도 처벌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누가 어떤 못된 짓을 해도 쉬쉬할 수밖에 없는 침묵의 사회가 될 거다. 생각해 보라. 예를 들어 박 과장이 여자 화장실에 물가를 설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걸 사내에 알렸다가 도리어 명예훼손죄로 공방을 먹는다면 누가 정의를 입을 열겠는가.

이런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은 행위로 규정한다. 원래는 주로 언론에서 정재계 인사나 유력 종교인 등의 비리를 파헤쳐 공표하는 경우에 이 규정을 적용하곤 했다. 최근에는 공인이 아닌 일반인이 부도덕한 짓을 했을 때 SNS를 통해 이를 알리고,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행위도 제310조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이른바, XX녀, XX남과 같이 공공장소에서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찍어 SNS에 퍼뜨린 경우 말이다.

경각심을 깨우는 차원에서 누군지 모르게 모자이크 처리하면 모르되, 마녀사냥에 가까운 신상 열거는 이 310조가 적용되기 어렵다.

소추조건

소추조건은 고소 크리를 먹일 수 있는 조건을 말하는데, 이미 지난 호에 설명했던 강간이나 간통 같은 '친고죄'(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하는 죄)에서의 '고소'가 대표적인 소추조건이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의 일종이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얘기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원칙과 예외의 관계가 뒤집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편하다. 즉,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제기가 가능한데, 예를 들어 강간범을 법정에서 세우려면 강간당한 피해 여성 본인이 고소를 해야만 한다. 반면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면 그 때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즉, 명예훼손 당한 사람 본인이 고소하지 않았어도 명예훼손범을 법정에서 세워서 공방을 먹일 수는 있는데, 피해자가 "그놈 처벌하지 마시오"하고 실려줄 수 있다는 얘기. 현실에서는 "합의하면 처벌 안 받는다"는 측면에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나 큰 차이가 없다. 하여튼 결론, 명예훼손죄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 받지 않을 수 있다.



근데 그게 저 새끼 마누라란 말씀이시죠?

(저 늙은이가 날 좋아하나? 왜 저래?)

이런 말은 모욕이야

판례에서 모욕으로 인정된
역대급 드립 모음



“늙은 화냥년의 간나, 너가 화냥질을 했잖아”
(대법원 1987.5.12 선고 87도739판결)

“빨갱이 계집년”, “만신(무당)”, “첩년”
(대법원 1981.11.24 선고 81도2280)

“애꾸눈”, “병신”
(대법원 1994.10.25 선고 94도1770)

“저 망할 년 저기 오네”
(대법원 1990.9.25 선고 90도873판결)

“야 이 개 같은 잡년아, 시집을 열두 번을
간 년아, 자식도 못 낳는 창녀 같은 년”
(대법원 1985.10.22 선고 85도1629 판결)

“들보잡”
(대법원 2011.12.22 선고 2010도
10130 판결)

명예훼손죄의 자매종들

1. 모욕죄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 부분만을 뺀
것이다. 즉,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없이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적 언사만 사용한 경우다.
어촌에서 애플 시설을 통해 “아무것도 아닌 풍포다리
같은 놈이 들어와서 질 운영되어 가는 어촌계를
파괴하려는데 주민들은 이에 동조 현혹되지 말라”
라고 방송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로
인정하였다(대법원 1989.3.14, 선고 88도1397 판결).

2. 사자의 명예훼손죄

㉠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말 그대로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다.
보통의 명예훼손과는 다르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을 때에만 처벌 가능하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대한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을 때에도

처벌되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당신이
“부장님은 여고생 교복을 입는 취미가 있다”고
폭로하면 그게 진짜라도 명예훼손죄가 되지만,
부장님이 죽은 후에는 이를 폭로해도 죄가 안 된다.

3.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언론매체, 기타 출판물 등으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보통의 명예훼손보다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다.

4.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판물이 “정보통신망”으로 바뀌었을 뿐 별다른
차이는 없다(벌금, 형량이 약간 다르다). 댓글 등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은 이 규정으로 처벌된다.

그년 자꾸 남자 앞에서
자연산이라고 구라 끼는데
성형한 거 인터넷에 올려야지.

저 망할 년
저기 오네. ㅋㅋ



명예훼손, 궁금한 거 다 물어봐!

Q. 악플을 다는 것만으로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나?

A. 사실을 적시했다면 그것이 본문에 게시되었던 댓글로 달렸건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하다.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려면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걸 주위듣고는 "나는 비방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항변하는 자들이 종종 있는데, 실무상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한 비방의 목적은 있다고 본다. 본문 내용에 맞장구치는 수준의 댓글이라 하더라도 모욕적인 말이 포함되어 있으면 형법상의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다. 그러나 괜히 짜질하게 댓글로 연예인들 까대다가 고소미 먹지 말고 그냥 농팅이나 하길 바란다.

Q.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저장소'의 고 노무현 대통령 비하도 명예훼손인가?

A. 죽은 사람에 대한 모욕죄 규정은 없다. 단순한 사진 합성과 같은 행위는 모욕이므로 형사 처벌이 어렵지만, 이를 넘어 허위사실까지 게시한 경우에는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죄 또한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Q. 인터넷을 보니 카페에 흥런 후기를 쓰며 인증샷을 올리는 놈들이 있는데 이런 무슨 죄인가?

A. 사람은 누구나 자량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혹 관련 인터넷 카페에 흥런 후기들이 올라오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인증샷 같은 것이 올라오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누가 흥런 후기를 올려도 열목의 분자들이 "꿈에서 깨라. 그러다 몽정할라", "등단을 축하합니다" 등등 비난과 조롱을 날려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던 중 무음카메라 어플의 보급과 함께 소설가로 조롱 받은 몇몇 찰없는 거포들이 과감하게 흥런녀의 나체를 사진으로 찍어 인증을 하는 경우가 생겨났는데, 아픔 되던 단순히 치기 어린 흥런 자랑을 넘어 범죄가 성립된다. 자, 아래 읽어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만으로도 처벌되기 때문에 딱실신한 골뱅이녀를 찍어 두면 그 자체로 범죄다. 이를 인터넷에 올리면 또 별개의 죄가 된다. 술김에 함께 다정하게 나체 사진을 찍은 것이라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를 인터넷에 올리면 그것 또한 죄가 된다. 그리고 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죄는 촬영 대상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얼굴이 보이지 않게 찍어서 올려서도 위 죄가 성립된다. 얼굴을 알아볼 수 있게 찍어서 올리면 이것과 별도로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죄까지 성립이 가능하다. 가끔 술이 덜 깬 미친 놈들은 타오르는 인증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본인 사진을 같이 찍어 올리기도 하는데, 이런 그야말로 은밀찌 특템으로 가는 급행열차다. 진정한 고수는 조용히 은밀하게 한방을 날리고 유유히 사라지는 법. 쓸데없는 인증질은 지속 가능한 섹스라이프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으니 삼가는 것이 좋다. ☹

성형과 명예훼손

줄라 엮이네. 둘이 커플이냐?



1. "인생 망쳤음...ㅠ.ㅠ" 사건

성형외과의 시술 결과에 뻘친 한 여성이 네이버 지식인에 "인생 망쳤음...ㅠ.ㅠ"이라는 댓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다. 대법원은 "이 댓글은 시술을 고려하는 이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므로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댓글녀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 2009.5.28. 선고 2008도8812 판결).

2. "완전 달라진 내 얼굴!!" 사건

한 성형외과 상담실장은 수술 환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 카페에 "코 수술 한 달째... 완전 달라진 내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수술 전후 사진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에 걸려 1,500만 원을 물어줘야 했다(서울중앙지법 2012.2.27. 선고 2011가단247776 판결).

3. "걸그룹 A양, 어떤 성형?" 사건

걸그룹 멤버 A양의 졸업 사진과 데뷔 후 사진들을 올리고 "사진을 비교해 봤을 때 드는 성형 의혹! A양이 한 안면윤곽 수술은 무엇일까?"라고 한 게시물이 명예훼손으로 인정됐다(서울중앙지법 2012.6.8. 선고 2010가합104084 판결).

올여름 휴가지에서 생긴 일



비싼 돈 들이고 바쁜 시간 쪼개서 큰맘 먹고 온 여행인데 여자들은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드는것 투성일까? 여자 에디터가 말하는 그녀의 속마음. "사실은 말이죠..."

BY 손안나 MODEL 2012 MISS MAXIM 우승자 단영

그녀와
호텔에서...





1 “그녀와 사귀지 한 달, 아직 뽀뽀만 해도 설레던 시기입니다. 그녀와 자고 싶은데 순진한 그녀를 어떻게 유인해야 할지 몰라서 무작정 “여행 가자!”라고 말해버렸어요. 당연히 안 된다고 할 줄 알았는데 그녀가 의외로 흔쾌히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활짝 웃으면서. 그래서 기쁜 마음에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그녀가 아침 6시에 만나자는 겁니다. 그래야 밤 10시 전에 집에 돌아올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네요. 하.. 저 망한 거죠?”



EDITOR'S COMMENT

차라리 다행입니다. 서로 오해가 이정도였다면, 여자여차 여행을 갔다고 해도 밤이 되면 여자 분이 ‘이 선 넘어오면 늑대’라고 했을 것 같거든요. 애꿎은 당신의 똥풀이만 밤새도록 고문당할 뻔 했네요. 일반적으로 ‘여행’, ‘휴가’라는 게 ‘숙박’을 전제로 하긴 합니다만 위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여행 계획 단계에서부터 ‘1박 2일’ 여행임을 명확히 해두는 게 낫습니다. “그날 밤 나는 너와 한 방에서 잘 것”이라는 암시를 확실히 달라는 말입니다. 그래야지 여자도 확실히 잘 준비를 하고 나오지 않겠어요? 필살 속옷도 준비해야 하고, 온몸의 제모 상태도 확인해야 하고, 다음날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데이트 일정을 위해서 예쁜 옷도 챙겨야 하니까요. 이런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떠난 ‘당일치기’ 여행에서 쌍팔년도 아빠 세대가 자주 써먹던 ‘배 고플었다’ 드립을 시전한다면? 어쩔 수 없이 한 방에서 다정하게 등만 맞대고 자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첫 차 타고 땀. 여자도 1박 2일 여행이 힐링 캠프가 아니라는 것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작은 암시만이라도 주세요.



2 “이번 여행을 완벽하게 준비하느라 진짜 X 빠지는 줄 알았어요. 혹여나 여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까 봐 여정 하나하나 꼼꼼하게 조절하고, 더우면 짜증 날까봐 차 안 에어컨도 틀가동시켰죠. 덕분에 밤이 무르익도록 분위기는 참 좋았습니다. 이제 날기만 하면 끝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스톱”을 외치는 거예요. 고스톱 3점 난 것도 아니고... 당황해서 왜냐고 물었더니 “오늘 그 날이야...”라네요. 그녀가 미워요. 그 날이면 여행을 미쳤어야지! 지금 생각해도 펜션 값이 너무 아까워요.”

EDITOR'S COMMENT

아쉽지만 이번엔 그냥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둘 사이에 섹수일한 무드가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해도 생리혈을 철철 흘리는 와중에 가까이 삼입을 허하는 여자는 드무니까요. 왜 진짜 “생리 중”인지 말하지 않았느냐고요? 아무리 1박이 ‘섹스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지만, 당신의 여행 제안에 “미안 나 그날 생리야. 다른 날 가지(하지)”라고 말하는 건 조금 부끄럽죠. 혼자 앞서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모든 걸 확실히 하고 싶다면, 여행 전에 당신이 먼저 던지시 물어보세요. “그날 바닷가나 수영장에 들어가서 놀고 싶은데 괜찮지?”라고요.

3 “저랑 여친은 둘 다 맛집 탐방을 좋아해서 이번 여행 테마도 ‘시골 밥상 투어’로 정했죠. 폭풍검색으로 찾아낸 숨겨진 보석 같은 맛집에서 반주도 해가며 기분 좋게 저녁을 먹고 나왔어요. 숙소에서 개운하게 씻고 느긋하게 섹스할 생각을 하니까 고속도로변 모텔로 향하는 동안에도 골똘해지더군요. 그런데 모텔 건물을 본 순간 돌변한 여친의 한 마디. “나 길래.” 당황해서 대체 뭐가 문제인 건지 붙잡고 한참을 물어본 끝에야 “여행 왔는데 모텔이 뭐야?”라고 털어놓네요. 아니, 먹는 거에 그렇게 돈을 썼는데 내가 이 촌동네에서 특급 호텔까지 잡아줘야 합니까? ‘시골 밥상 투어’가 맛집에서 밥 먹고 호텔 가는 건 줄은 몰랐어요.”

EDITOR'S COMMENT

여자친구는 라스베이거스 5성급 호텔 스위트룸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럴 거였으면 애초에 ‘시골 밥상 투어’에 동의하지도 않았겠죠. 여자들이 원래 분위기에 약한 거 아시죠? 근데 그 분위기란 게 알고 보면 참 별거 아니에요. 남자로 하여금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 오케이거든요. 사실 모텔이 무슨 죄겠어요? ‘맨날 모텔’이라는 게 문제죠. 여자는 여행 온 생색을 낼 수 있는 좀 더 특별한 장소를 원했던 겁니다. 왜, 그런 곳 있잖아요. 제주도 테마 민박이나 전주 한옥 마을 같은 곳이요. 초특급 월풀 욕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셰프의 특별한 스테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인터넷으로 뒤져보고 예약 문의 전화 돌리면서 장소를 알아봤을 남자 친구 생각에 엄마 미소가 지어지는 거거든요. 숙박료도 의외로 모텔이랑 별반 차이도 없어요(소근).

4 “부산까지 왔는데 회를 안 먹으면 섭섭하죠. 광안리 근처 유명하다는 횡집에서 그녀와 광어회 한 접시에, 스끼다시도 두 번 리필하고 매운탕까지 끓여 먹었어요. 그리고 뜨거운 밤을 위해 숙소로 향했죠. 침대 위에서 툭툭다가 본선에 진입하려는 찰나 그녀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한참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도 배가 너무 아파서 문을 두드리며 빨리 나오라고 소리쳤어요. 그녀가 나왔어요. 화장실에 들어가니 썩냄새가 진동을 해요. 나도 모르게 “아 시바 코피 날 뻘뻘했네.”라고 말했어요. 근데 일을 보고 화장실에서 나왔더니 그녀가 사라졌네요. 그녀는 어디로 간 걸까요?”



EDITOR'S COMMENT

안타깝네요. 에디터도 여행지 맛집 탐방에 집중하다가 체하는 바람에 남자친구에게 들쳐 업혀 시골 병원 응급실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덕에 일정은 꼬일대로 꼬였고, 속이 더부룩해 꿈쩍도 하기 싫어서 교박 방 안에 누워만(!)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맛집 음식에 집착하지 마세요. 에디터가 여행지에서 먹어 본 최고의 음식은 남자친구가 직접 해준 닭볶음탕이었습니다. 근처 마트에서 오붓하게 장을 봐와서 요리하는데, 입은 반쯤 헤 벌리고 집중해서 닭을 손질하는 모습이 어쩌나 사랑스럽던지 뒤에서 그대로 폭 안아줬지요. 그 덕에 닭볶음탕은 새벽이 다되어서야 먹을 수 있었지만요. 알렉스까지는 갈 필요도 없어요. 서둘지만 나를 위해 성의껏 요리하는 남자가 더 진실하고 매력적으로 느껴지니까요.



PHOTOGRAPH YUD

5 기차 여행을 하던 중이었어요. 노을이 예쁜 순천만에서 혼자 셀카를 찍고 있는데 누군가 “주세요.” 라며 제 핸드폰을 뺏더니 제 사진을 찍어줬어요. 그리고는 허락도 안 받고 본인의 대포만 한 DSLR로도 제 모습을 찍었어요. 같이 술을 마시고 그녀가 잡아냈던 숙소에서 섹스하게 됐습니다. 그녀는 적극적인 성격처럼 밤일도 환상이었어요. 애프터도 못하고 헤어진 게 너무 후회됩니다. 그때, 그녀를 붙잡아야 했을까요?



EDITOR'S COMMENT

재미는 없고 대사는 지독하게 많은 영화 <비포 선라이즈>에 여자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자들은 누구나 낯선 여행지에서의 로맨스를 꿈꿉니다. 하지만 그 영화 마지막 보셨죠? 에단 호크와 줄리 델피도 결국 헤어지잖아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자는 여행지에서 만난 여성과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기대하지만, 여자가 바라는 건 그저 잠시 일상을 탈출할 수 있는 정도의 ‘하룻밤’이라고 합니다. 안타깝지만, 서로 충분히 즐겼다면 그날 밤의 추억은 다음날 돼지국밥에 후루룩 말아 드시고 돌아오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

For Ladies



반전 있는 여자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 '예쁜 여자'겠지 뭐. 그런데 예쁜 여자보다 남자를 더 정신 못 차리게 하는 여자가 있다. '더 예쁜 여자'? 아니다. 어린 여자? 뽕뽕한 여자? 참한 여자? 섹시한 여자? 뭐일 것 같아? BY 유승민

'예쁜 여자'보다 매력적인 '딴 여자'

결론부터 말하면 그 중 어느 것도 아니다. 남자는 예쁜 여자만 좋아한다는 편견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 여자는 남자의 외모, 성격, 스타일, 관계 등 다양한 측면을 궁금해하는 반면, 남자는 뒤통고 예쁜지 아닌지만 물어본다는 고전 유머는 이런 편견을 더욱 가중시켰다. 그래, 남자가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 건 맞다. 나도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남자는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예쁘다고 믿는다. 좋아하게 만들고, 예쁘다고 믿게 만드는 건 여자의 능력이다.

지금껏 당신 주변에서 일어났던 남녀상열지사들을 생각해봐. 가끔은 당신보다 못생겼는데 희한하게도 남자가 줄줄 따르는 여자가 있다. 멀쩡해 보이는 녀석들이 그 여자 하나를 놓고 뜨겁게 정열전을 펼친다. 미녀 여친을 둔 남자도 그 기집애랑 바람이 났ندا. "병신들, 눈같이 뻗네" 하고 넘겼나? 혹시 그 기집애에게 뭔가 마성의 노하우가 있는 건 아니었을까?

남자를 사로잡는 게 '예쁜 여자'가 아니라면 뭘까? 반쯤 웃자고 하는 소리로 이런 말이 있다. '남자는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딴 여자를 좋아한다.' 밀도 끝도 없이 '딴 여자'라. 어느 정도 정답에 근접했다. 아니, 남자라는 생쥐들은 내 여자 말고 딴 여자면 다 좋아한다고? 갑자기 더 짜증이 몰려올 거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리 나쁜 얘기는 아니다. 자꾸 내 남자가 나 말고 딴 년한테 기웃거릴 것만 생각하니 그렇지, 뒤집어 보면 이 지구에서 내 남자를 뺀 99.99%의 남성들에게 나는 '딴 여자'다. 아무리 예쁜 여자도 이길 수 없다는 바로 그 마성의 '딴 여자'. 남자의 바람기를 비아냥거리는 우스갯소리에서 나온 말이지만 이 말엔 남녀 짝짓기의 핵심이 담겨있다.

'딴 여자'보다 매력적인 '변하는 여자'

더 정확히 얘기하면 남자는 '딴 여자'에게 끌리는 게 아니라 '다른 매력'에 끌린다. 꼭 딴 사람이어야 하는 건 아니다. 그 '다른 매력'을 내가 다 갖고 있으면 될 일이다. 내 안에 이런 여자도 있고, 저런 여자도 있으면 된다. 내 안에 다양한 매력의 여자가 사는 만큼 그에 비례하여 많은 남자의 구애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내 남자를 지킬 수 있는 확률도 비약적으로

올라간다. 좋다. 그럼 못 남자들의 구애에 시달리는(줄거운) 인기녀가 되려면 다중인격장애라도 알아야 한다는 애긴가? 물론 제어가능한 다중인격이 존재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강력한 무기가 되겠지만 그렇게 극단적인 필요까진 없다. 다양한 매력을 넘나들 수 있게끔 적당히 '변신'에 능숙한 여자가 되면 연애의 강호를 평정할 수 있다.

한결같은 건 평소엔 참 좋은 거다. 흔들림 없는 '나다움'을 고수하는 것도 멋지다. 하지만 남녀관계에 있어서만은 다르다. 변함없는 '나다움'을 남녀관계에까지 고집하다간 낭패를 보기 쉽다. 변하는 것이 본질인 남녀관계에선 아무리 좋은 모습이라도 한결같으면 지루하기 때문이다.

이 여자... 의인대?

여자의 변신이 매력적인 이유는 의외성에 있다. 남녀관계의 유혹에 있어 이 의외성은 절대적이다. 이성에 대한 관심이 급상승하는 거의 모든 원인은 의외성의 매력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남자만 그렇게 아니다. 여자가 남자를 볼 때도 마찬가지다. 여자가 흔히 말하는 대부분의 이상형은 이 '의외의 매력'이 있을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상형이 나쁜 남자"라 말하는 여자들도 사실은 나쁜 남자의 나쁜 면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나쁜 남자가 '의외로' 나에게만은 순정 가득한 모습이길 바라는 거다. "이상형은 과묵한 남자"라 해도 주구장창 과묵해선 매력이 없다. '의외로' 나에게만은 다정다감해야 한다. "이상형은 로맨틱한 남자"라지만 솜사탕같이 부드러운 그 남자가 밤일도 솜사탕 같아선 재미가 없다. 침대 위에서 '의외성'을 발휘해야 한다. 핵심은 바로 의외성이다. 남녀관계에선 의외성의 매력을 어필할 카드가 많을수록 상대를 내 매력 속으로 폭폭 빠져들게 할 수 있다.

남자도 그러냐고? 당연하다. 남자들이 더하다. 당신의 의외성을 발견해야 당신의 매력에 빠져든다. 옛날 어른들 하시는 말씀으로 '낮에는 요조숙녀, 밤에는 요부인 여자가 최고'란 말이 있다. 다분히 여성을 성적 소유물로 치부한 전근대적인 발연이지만 지금도 통하는 포인트는 있다. 바로 '의외의 매력'이다. 범생인

줄만 알았던 반장 캐릭터의 그녀가 꽤나 격렬한 섹스를 즐긴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피어오르는 반전의 매력은 지금도 충분히 치명적이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잘 놀고 섹시하고 남자 경험도 많을 것 같았던 당신과 섹스를 했는데 침대 위의 당신이 얼굴을 붉히며 수줍게 군다면 이 또한 남자에겐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니가. (관건은 연기력이겠군)

여왕벌

서두에 이야기했던 여자, 특히 '외모 이상으로 인기 터지는 여자'들은 심중팔구 이런 타입이다. 의외성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두 개 이상의 카드가 있는 거다. 변신 가능한 버전이 아주 많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어차피 남자를 반하게 하는 여자의 매력이라는 게 주로 청순/섹시/귀요미 3가지 정도니까. 반전의 매력을 선보이는 법이야 각각각색이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다. 평소엔 좀 놀아 보이게 하고 다니던 당신이 남자와 어울려 떠난 여행지에서 청순한 모양새로 앞치마를 걸고 매고 요리를 하는 거다(머리는 평소와 달리 참해보이는 반묶음으로 변신). 당신이 싱크대에서 단아하게 뒤돌아보는 순간, 거기 있던 남자들 중 3분의 1이 당신의 어장에 쓸어들인다. 혹은 평소엔 귀엽고 평범한 여자 정도로 각인되어 있었더니 남자와 함께 한 여행에서 도발적인 모노키니를 시전해 보라. 예상치 못한 섹시함에 기습당한 남자들이 차마 물 밖으로 나오지를 못할 거다. 이런 몸매가 떨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아니다. 당신의 평소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기대치가 낮아서 괜찮다. 반전의 매력이 주는 어드벤처이다. "애개? 비법이라는 게 겨우 그거? 난 또 남자 흘리는 최면술이라도 알려주는 줄 알았네!" 그렇다. 겨우 그 정도로도 충분하다. 왜냐고? 현실에선 변신에 서툰 여자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연연 중에 생겨난 '자기다움'의 한계를 정해놓고 조금이라도 변화를 즐라치면 손발이 오그라들고, 어색하고, 창피하다.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진다. 하지만 이런 것도 하다보면 느는. 줄만 지나면 당신이 오늘 시도한 변신에 반응하는 남자들의 눈빛만 살짝 봐도 '아, 이걸 먹히는구나', '아, 이걸 좀 아니구나'를 감지해 낼 수 있다. 머지 않아 당신은 수컷에게 의외성을

일단 이것부터: 시선 포획

일단 그 남자가 너를 관찰하게 만들어.



반전의 매력이고 의외성이고 간에 타깃으로 삼은 그 남자가 당신을 주목하고 있지 않다면 말짱 황이다. 일단은 그의 시선을 도둑질하는 것이 모든 작업의 대전제. 평소 그가 흥미를 갖고 당신을 관찰하게끔 만들어 둘 수 있다면 시작도 이미 절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다. 가장 쉽고 효과적인 건 역시 시각적인 요소로 그의 눈을 사로잡는 것. 남자는 시신경의 노예니까. 어차피 반전의 매력을 선사할 생각이었다면 어중간한 건 좋지 않다. 좀 뻘뻘하긴 해도 청순-섹시 양 극단의 이중성을 보여줘야 어느스런 매력도 극대화된다. 만약 직장에 복장 규정이 있어 그러기가 쉽지 않다면, 퇴근할 때의 옷차림을 달리 하는 걸로도 충분하다. 오히려 당신이 퇴근 후에 대체 뭘 하는지 더 궁금할 거다. 남자는 퇴근하는 당신의 옷차림을 보고 별의 별 망상의 나라를 펼친다. 물론 가장 눈길을 끌기 쉬운 방법은 살색 노출이다. 어느날 갑자기 짧은 치마나 가슴 파인 옷을 입으면 남자의 눈은 의지와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당신의 살을 따라온다. (허벅지가 말을 건다니까?) 당신이 짝은 그는 그런 남자 아니라고? 웃기지마라. 남자 다 똑같다. 당신의 시선이 이쪽을 향할때나 딴 짓 하는 척 하지, 당신의 시선이 다른 쪽을 향하면 존나 본다. 뚫어버릴 기세로 본다. 어차피 남자는 3초에 한 번씩 색소를 생각하니까 그 순간은 당신과의 색소를 생각하겠군. 만약 웬지 그의 시선이 더 느껴진다거나, 그가 "오늘 어디 가냐봐요?"하고 멘트를 날렸다면 이걸 뭐 100%다. 이미 몇 번 참다가 물어본 거다. 유혹의 소나타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다. 썸바리두잇!

어필하는 스킬을 다량 보유한 소위 '뭘 좀 아는 여자'가 되어 간다. 그렇게 될수록 주위 수컷들은 점점 더 당신 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 허우적대기 시작하고, 언젠가부터 당신을 '원래 예쁜 애'로 분류하여 떠받들기 시작한다. 우리 남자들은 원래 단순하고 멍청해서 같은 우리 내의 다른 수컷들이 어떤 암컷을 좋아하기 시작하면 군중심리를 발휘하며 갑자기 진짜로 예뻐보이기 시작하거든. 약육 강식의 연애 정글은 부익부 빈익빈이 심각해서 그 다음부터 애 쓸 필요도 없이 자동으로 굴러간다. 그 답은 어떻게 하냐고? 어떡하면 뭘 어떡해. 그냥 어장관리 잘 하면서 여왕벌의 과실을 따 먹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의외성의 매력을 선사하는 타입의 여왕벌한테서 남자들이 헤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원하는 베리에이션이 이 여자 안에 다 있기 때문이다. 딴 여자한테 눈돌릴 틈이 없다.

반전 매력의 사각 지대: 소개팅

물론 이 정도까지 잘 풀리면 소개팅 따윈 할 필요도, 할 시간도 없다. 하지만 당신의 매력이 입소문을 타고 퍼질 수록 소개팅 제약은 아마 전보다 부쩍 더 많이 들어올 거다. 게다가 꽤 괜찮은 남자와의 소개팅... 못 이기는 척 소개팅에 나가 보면 평소와 달리 뭔가 잘 안 풀린다는 느낌을 받을지 모른다. 실제로 학교나 직장 등 소속 집단 안에서 남자들에게 꽤 인기있는 여자도 소개팅만 나가면 이상하리만치 죽는 경우가 많다. 몇 번 그 꼴을 당하고 나면 말한다. "난 소개팅 체질이 아니야." 평소에는 그렇게 쉽던 필살기가 전혀 안 먹히는 이유는 뭘까? '의외의 매력'은 '선입견'이라는 멍석을 필요로



한다. 당신에 대해 가졌던 선입견이 깨지고, 그 자리는 전에 없던 관심으로 채워지는 과정에서 호감도가 올라가는데, 소개팅남에겐 깨져야 할 선입견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평소엔 안경을 쓴다는 걸 아는 남자는 당신이 안경 벗고 렌즈끼고 화장한 모습 하나에도 의외성의 매력을 느낄 수 있지만, 처음 만난 남자엔 그저 '안경 안 쓴 여자'일 뿐이다. 주변에 혹시 그닥 하자도 없는데 참으로 남자가 안 생기는 친구가 있다면? 남자를 오로지 소개팅, 맞선오르만 만나려 하지는 않는지 물어보라. 반대로 남자관계가 풍족한 여자는 백이면 백 그 대상들이 죄다 주변 남자들이라는 점을 잊지 마라 (회사 동료, 거래처 남자, 아는 오빠, 선배, 후배, 동창, 교수님, 친구, 친구 애인, 형부(?) 등 끝이 없다).

임지있는 남자가 더 쉬워

애인 있는 남자를 점 찍었다면 오히려 공략 방향이 더 뚜렷해진다. 그의 여친이 어떤 타입인지 잘 봐줬다가 그 반대 방향으로 당신의 매력을 터뜨려라. 남자란 언제나 갖지 못한 떡이 맛있고 커 보이는 법이다. 한 마디로 '딴 여자'가 되란 소리다. 괜히 그의 취향을 넘겨 짚는답시고 그의 여친을 카피했다간 직접적으로 비교만 당할 뿐이다. 맨날 먹는 밥이 지겨워서 모처럼 피자가 멍기는 날, 그에게서 연락이 올 거다. 🍕



MAXIM BUYER'S EDGE

두피 케어 제품 크로노스팀 앰플 출시

피부과학 전문 브랜드 듀크레이가 민감한 두피와 연약한 모발에 활력을 되찾아 줄 크로노스팀 로씨용 주르와 로씨용 수아 모델을 출시한다. 모근의 혈액 공급을 증가시키는 성분과 세포 운동을 자극하는 해양 에너지 성분을 결합해 모근과 모낭을 건강하게 한다. 아침과 저녁에 사용하여 피지는 억제하고 영양분은 공급하는 방식으로 물로 헹궈내지 않아도 돼 편리하다. 여성용 앰플 네오티드도 함께 출시될 예정. 탈모,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듀크레이(1899-4802)



남성 스킨케어 브랜드 XTM STYLE HOMME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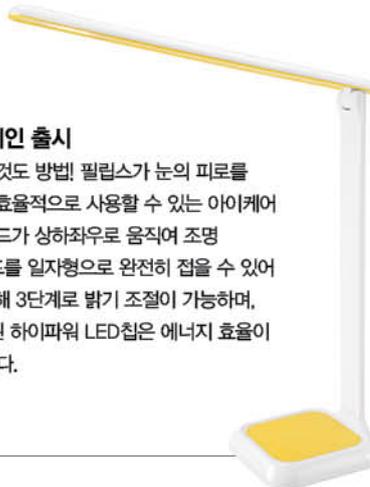
대한민국 대표 헬스&뷰티 스토어 CJ 올리브영이 최신 트렌드에 민감한 2535세대 남성들을 위한 CJ 올리브영 스킨케어 브랜드 XTM STYLE HOMME를 출시했다. 스킨 배리어 시스템을 적용해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극을 최소화하여 최적의 피부 상태를 유지시켜준다. 오일 아웃 미스트 토너, 멀티-플라이 울인원, 퍼펙트 셰이빙 & 클렌징 폼, 스마트 티슈의 총 4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제 남자도 미세먼지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때가 왔다!

CJ 올리브영(www.oliveyoung.co.kr)

필립스, Eye-care LED 스탠드 베인 출시

눈이 늘 피로하다면 스탠드를 바꿔 보는 것도 방법! 필립스가 눈의 피로를 덜고 실용적인 디자인의 책상 위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이케어 LED 스탠드 베인을 출시한다. 스탠드 헤드가 상하좌우로 움직여 조명 방향을 자유자재로 조절이 가능하며, 헤드를 일직선으로 완전히 접을 수 있어 공간 활용도가 높다. 버튼식 스위치를 통해 3단계로 밝기 조절이 가능하며, 방열판을 설치해 내구성을 높였다. 내장된 하이파워 LED칩은 에너지 효율이 우수해 최대 80%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

(주)필립스(www.philips.co.kr)



빅토리아 비터 맥주 국내 정식 상륙

호주 1위의 국민 맥주 빅토리아 비터가 국내에 출시되었다. 짜리몽땅한 병과 병목이 인상적인 빅토리아 비터는 높은 온도에서 빠르게 발효시키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청량감이 좋고 씹살한 맛이 강조되어 여름에 마시기 좋다. 약 100여 개의 브랜드가 경쟁하는 호주의 맥주 시장에서 11.8%로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빅토리아 비터를 이제 한국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3,200원, 사브밀러브랜드코리아 (www.miller.co.kr)

Schick
다 함께~
쉬쉬쉬!
홈페이지 이벤트
모든 구매 고객에게
5,000원
마트 상품권 증정
행사기간: 2013년 7월 1일~12월 31일
홈페이지에 접속 후, 이벤트 페이지에서 쿠폰을 다운 받으세요.

쉬크, 다 함께 식씩씩~ 이벤트

세계적인 면도기 브랜드 쉬크가 자사 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소비자에게 5,000원 상품권을 증정하는 '다 함께 식씩씩' 이벤트를 실시한다. 국내 대형 마트에서 보습에 탁월한 하이드로5를 포함한 쉬크의 7종류 제품을 구매 후 동봉된 일련번호를 쉬크 홈페이지에 접속해 입력하면 곧 모바일을 통해 상품권을 편리하게 다운받을 수 있다. 2013년 12월까지!

Schick(www.schick.co.kr)



〈UFC 164〉, 코리안 파이터 3인 동시 출전!

UFC 라이트급 챔피언 벤슨 헨더슨, 웰터급 임현규, 밴텀급 강경호가 〈UFC 164〉에 출전한다. UFC 데뷔전에서 니키프로 KO승리를 거둔 임현규 선수는 독일의 파스칼 크라우스 선수를 상대로 2연승에 도전한다. 아쉬운 판정패로 데뷔전 승리를 놓친 강경호 선수는 UFC 첫 승에 도전한다. 또 〈UFC 164〉의 메인매치로 라이트급 타이틀 4차 방어전에 나서는 한국계 챔피언 벤슨 헨더슨 선수는 앤소니 페티스와 격돌한다. 9월 1일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열릴 〈UFC164〉는 액션전문채널 수퍼액션을 통해 생중계 될 예정이다. 수퍼액션(080-080-0780)

NEW Bullsoneshot 론칭기념,
브랜드사이트 오픈 및 경품이벤트

볼스원샷 이벤트 참여하고 **총금 10억 원** 경품볼스원샷 받자!
이외에도 다양한 경품이 많음~

볼스원, NEW 볼스원샷 론칭 기념 이벤트

국내 1위 자동차용품 기업 (주)볼스원이 연료 시스템 크리너인 볼스원샷 사이트 오픈과 함께 이벤트를 진행한다. 볼스원샷 드래그 레이스 챌린지 이벤트와 즉석 당첨 쿠폰 이벤트로 최신형 블랙박스, SK 모바일 주유권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볼스원샷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황금 볼스원샷을 찾아라' 이벤트를 진행해 순금 10톤의 황금 볼스원샷과 OK 캐시백, 엔진관리 세트 등을 증정한다. 또 볼스원샷 사이트에서는 사용법, 작용 원리와 효과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접속!

볼스원샷(www.bullsoneshot.com)

클라리소닉, 미스터&미세스 컬렉션 출시

미국의 유명인들이 선택한 신개념 클렌징 기기인 클라리소닉이 남녀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을 미스터&미세스 컬렉션 Mia2로 재탄생했다. 스마트 컴팩트형 크기의 즐리 핑크와 피트 그레이의 컬러로 출시되며 이나셀 각인을 세길 수 있어 선물용으로도 좋다. 클라리소닉은 1초에 300회, 좌우 회전방식으로 물살을 일으켜 모공 속까지 청결하게 만들어 맑고 윤기 있는 건강한 피부를 가질 수 있다. 즐리 핑크, 이름만으로도 즐리 골라는데?

클라리소닉(www.clarisonic.co.kr)



맞짱의 진수, 〈킬링시즌〉 개봉박두!

역전의 노장들이 만나 한판 승부를 뚫는다. 연기파 배우 로버트 드 니로와 할리우드 최민수 존 트라볼타가 만나 추격 스릴러를 찍었다. 애플래치아 산맥에 은거해 살고 있는 퇴역 군인 벤자민 포드(로버트 드 니로)의 오두막에 전직 세르비아 군인인 에밀 코바쉬(존 트라볼타)가 찾아온다. 회포는 잠시, 사냥터에서 18년 전 끝나지 않은 앙금을 되갚아 격돌하는 내용이 즐거리. 두 배우의 연기 대결이 주목되는 작품으로 9월 5일 개봉 예정이다.

킬링시즌(www.killingseason.kr)



섹시하고 강한 남성의 선택, BLUE LINE 국내 최초 론칭

명량완구 전문브랜드 부르르닷컴이 오직 남성만을 위한 섹시 언더웨어 브랜드 블루라인을 국내에 론칭했다. 특별한 날에 남성의 마초적인 섹시함과 거스를 수 없는 매력을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제품이다. 그녀와의 색다른 러브 시추에이션을 즐기고 싶은 남성들을 위한 블루라인은 다양한 디자인으로 취향에 따라, 기분에 따라 또는 분위기에 맞게 골라 입을 수 있다. 9월 한 달간 특별 할인과 사은품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부르르닷컴(1661-7725, www.bururu.com)

진짜로 이런 전역 선물을 나라에서 준다면 참 좋을 텐데...

전역자 우대 MAXIM 정기 구독 평생 30% 할인

제대가 까마득한 전국 군바리의 부러움을 사고 싶지 않나? 민간인으로 복귀한 후 사바세계를 즐기는 티를 팍팍 내고 싶은가? MAXIM에 전역 신고 하면 정기 구독을 평생 30% 할인 받고, 후임들에게 MAXIM 1년치를 선물할 수 있다. 덤으로 멋진 시계를 받는 행운까지 누리보자. 어서 신청하래!

간첩 신고는 113,
전역 신고는
MAXIM으로!

신청 자격

전역 후 3개월 이내의 꿈과 의욕 충만한 예비역

신청 방법

1. www.maximkorea.net 접속
2. Board에서 '전역 인증 게시판' 클릭
3. 본인의 전역증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4. 전역증 확인 후 '정기 구독 평생 30% 할인 특별우대권'이 발급된다.
5. 자세한 신청 방법은 '전역 인증 게시판' 이용 안내를 참고하도록!

홈페이지
전역 인증
게시판



오직
전역자만을
위한
대박 혜택 3

30%

하나. 정기 구독 평생 30% 할인!
당신 할아버지가 월남 참전 용사가
아니어도 상관없는 국가유공자급
혜택이 주어진다!



둘. 군 생활 까마득한 자대 후임들을 위해
당신 이름으로 선물을 보내준다!
당신이 머물던 자대 내무실로
MAXIM 과월호 12권을 무료로 쓴다!



셋. 전역 자랑질이 뛰어난 신청자 2명에게 멋진
'세이코알바' 손목시계를 증정한다!
아오, 손목에서 간지가 막 그냥 폭발하네!
(~2013년 9월 20일까지)

전역자랑깸

네가 재벌 2세라도 절대 가입할 수 없다. 국가를 위해 2년을 희생한 진짜 남자에게만 주어지는 국가유공자급 평생 멤버십!



김연수 평생 30%

MAXIM을 보며 한풀이를 할 녀석 모습에 한쪽 입꼬리가 올라간다. 날도 덥고, 목도

마르고, 그것도 마르고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형은 전역하자마자 일한다. 형이 전역 인증 소개되면 MAXIM 보내 줄 테니까 두 손 두 발 꼭 붙들고 기다려. 삼오 사자수색 파이팅이다잉!



김광일 평생 30%

형은 전역했다. 저주 받은 땅 화천에서 남은 군 생활

하느라고 힘들지? MAXIM 보내 줄 테니 힘내렴. 아무리 뭘 하더라도 사회가 좋더라. 하루 빨리 나와라. 그리고 완벽작전 해야 한다. 너희가 국가안보의 중심이다. 상송 칠성 파이팅! 파이팅!



이병선 평생 30%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전역을 했습니다. 부대에서 MAXIM 보면서 "나도

전역하고 꼭 전역 인증 해야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하고 있네요. 길다 하면 길고 짧다 하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군대라는 곳을 갔다 와서 후회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쯤 훈련 뛰고 있을 지대 후임들이, 너희도 금방 전역할 거야! 힘내고 파이팅! 나는 집에서 MAXIM이나 봐야겠다. ㅋ



신성환 평생 30%

후임들이, 군 생활 열심히 하고 남들한테 뒤지지 않는 멋진 한병이 돼라!



김근홍 평생 30%

막 일병을 달고 좋아하는 작년 6월, 선임이 처음 MAXIM을

보여준 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전역해버렸습니다. ㅎㅎ MAXIM의 재미에 푹 빠져 그 다음부터는 다달이 어떻게든(심지어 누나한테 사서 보내달라고도...) MAXIM을 사두고 들어가 'MAXIM 보급관'이라는 별명까지 생겼습니다. 2012 MISS MAXIM 결승전은 최고였습니다. 특히 엄상미 님의 그...가...슴...(아 맞다! 애들이 흑시 이거 보면 내가 쓰던 매트리스 밑에 2012 MISS MAXIM 한정판 사진모음집이 있는데 그것 좀 집으로 보내주면 안되겠나?ㅠㅠ). 최혜연 님, 이명희 님, 엄상미 님, 대낭푸 님, 광현화 님, 강예빈 님, 비키 님 모두 너무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명재 평생 30%

다들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네. 벌써 한 달이 넘게 지났다. ㅋ ㅋ 다들

더운데 기운내고 항상 힘내라. 이거 일경 때 인증해보고 싶었는데 진짜로 함. ㅋ ㅋ 재밌게들 보라!!



평생 30%

정동현
날씨가 꽤 덥구나. 대한민국 육군 해룡부대 5중대

후임들이, 고생이 많구나. 더울 땀 더 덥고, 추울 땀 더 추운 곳이 군대라지만 빨리 전역해서 술 한잔하자. ㅎㅎ 건강해라.



김효성 평생 30%

1년 9개월 간의 내 군 생활! 짧지도, 길지도 않았던

시간들 좋은 추억 남기고 전역한다. 애들이! 내가 전역하면 인증 한다 그렇지? ㅋ ㅋ 우린 좀 특별한 곳(??) 있어서 너희는 그냥 사서 읽는 게 빠를지도... 그래도 우린 대한민국 육군 현역이다 ㅋ 시간은 가더라. 힘내고 땀이 차신!



한상호 평생 30%

드디어 전역을 하긴 하는구나. 다들 이

더위에 해수욕장에서 안전요원 한다고 고생이 많겠다. 뭐 그나마 요즘은 장마철이니 덜 하려나? ㅋ ㅋ 해경 내에서 유일하게 MAXIM 정기구독자인 내가 전역을 해버렸으니 이제 매달 교박교박 MAXIM 받아보는 재미가 없어질 녀석을 생각해서 이렇게 전역 인증을 한다. ㅋ ㅋ 해수욕장에서 비키니 입은 처자들도 많이 보겠지만 그래도 MAXIM에 나오는 처자에 비할 바는 못 되잖아? ㅋ ㅋ 그럼 수고들 해라!



평생 30%

사회중
자대 전입 받고 21개월 간의 군 생활이 어느덧

끝이 났네... 일단 너무 즐거웠고, 행복했음에 말을 아끼고 싶지 않다. 너희 본부포대 전우들이 있어서 군 생활 즐거웠고, 행복했고, 버틸 수 있었다. 먼저 전역하게 돼서 안타깝고... 시간 잘 가니까 너희도 군 생활 보람되게 보내길 바랄게. 그리고 포대본부 탄약 후임들이, 뭇난 분대장 믿고 잘 따라와 줘서 고맙다. ㅋ ㅋ 라고 할 줄 알았지? 그에게 군대 왜 늦게 오냐? ㅋ 형 먼저 사회 뭘 좀 먹음게. 군대에서 X뻥이 많이 까셈. ㅋ ㅋ



송호현 평생 30%

애 내가 전역을 하더니 꿈에 그리던 일이 실제로 일어난 이 기분은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무덤덤하네. 전역 전날 상황 걸러서 훈련하다가 전역해서 이제는 그리움도, 절도 없을 줄 알았건만 나오니까 너희 생각이 날 물고 늘어진다. 그래도 밖에 나오니 이렇게 자판 때리며 백수 생활 하는 것도 즐거움이라면 즐거움!



유재홍 평생 30%

하... 한 달 한 달 "이제 MAXIM 몇 권만 더 사면 집에 간다!" 하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집에 온 지 11일이네. ㅎ 지원중대 MAXIM 보기가 사라져서 너희도 MAXIM 보고 싶지? ㅋ 내가 과월호 씹줄게! 이거 보고 남은 군 생활 무탈하게 지내고 건강하게 전역해!!



평생 30%

구영진
다들 백령도에서 불철주야 고생하겠네! 수송&통신 제일

고생이지. ㅏ 나는 이제 밖에서 사회 생활 한다. ㅋ ㅋ 밖에 나오면 할 것도 없고 돈만 쓰고 힘들긴 한데 자유가 있어서 좋다. 다들 빨리 나와라. ㅋ ㅋ MAXIM도 즐겨보고 ㅋ ㅋ 외출 나가서 사오던 MAXIM이 아직도 기억난다. ㅋ

위 13명을 비롯한 총 235명의 용사들이 MAXIM에 전역을 신고하고 정기구독 평생 30% VIP가 되었다!

이달의 몸쓸 사진

군대 선임에게 소개시켜 준 동아리 후배만큼 가까운 사진들



이달의 몸쓸 동물 1



Who's That Girl? 여민정(p.114)

못 쓴 이유 고양이 자세 촬영 중에 진짜 고양이가 난입해서 거 표정 참 시크하네.



이달의 몸쓸 연기 1



상미&혜연 응급처치법 화보(p.84)

못 쓴 이유 물에 빠진 상미를 구하고 있는 혜연, 그런데 상미는 웃고 있다! 이런 발언기를 봤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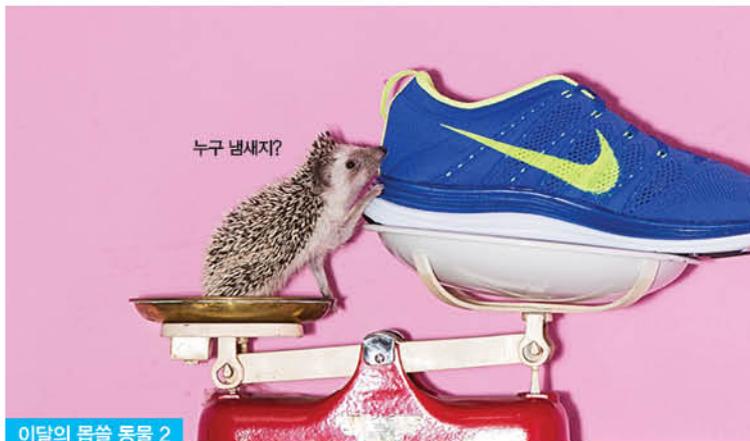


이달의 못 쓴 연기 2



상미&혜연 응급처치법 화보(p.84)

못 쓴 이유 물에 빠진 콘셉트였는데... 그냥 퍼지는 것 같아서.



이달의 몸쓸 동물 2



STYLE 운동화(p.76)

못 쓴 이유 호기심 많은 고슴도치가 자꾸 신발을 뒤적거려서, 자꾸 그러면 일주일간 챗바퀴 압수야!



디스 이즈 마이 카

이달의 몸쓸 오바 1



ICON 김진표(p.94)

못 쓴 이유 너무 신났다. 누가 보면 자기 처인 줄 알겠네.



이달의 몸쓸 오바 2



PARTY DJ 킹맥(p.156)

못 쓴 이유 고른 치열을 굳이 그렇게까지 보여주지 않아도 되잖아요...



쥬와아앙

네 녀석도...?!

이달의 몸쓸 물줄기



ICON 김진표(p.94)

못 쓴 이유 삼페인이 아니라 레이저 검 같아서. 우주복이라도 준비할걸..



아 뉘, 장난하나?

이달의 몸쓸 케찹즐기



MISS MAXIM 8강 화보(p.126)

못 쓴 이유 케찹을 맞은 이현지가 뺨쳐 보여서(화 안 났어요).

Fortune Telling

타로카드로 점치는 당신의 9월 연애운!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예비 추남(秋男)들을 위해
당신의 이달 운세를
예측해준다.

BY 타로마스터 정희도(www.tacaso.net)

현재 당신의 심리상태와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카드 한 장을
골라보시오.



↑ 타로마스터 정희도

- 타카소(타로카드 소울메이트) 운영
- YBM, 파고다 등 타로 취업 특강 강사 활동
- 현 마이아다스 학원 운영
- 전 SBS 공채 10기 개그맨 활동



타로 풀이 보기

CARD 1 손을 모으고 누워 있는 것으로 봐서 죽은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당신이 이런 상태라면,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죽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공백기가 너무 길어서 혼자가 더 편하다고 착각하는 당신은 지금 연애 세모가 말라 죽기 직전이다.
TIP: 딱도 평소엔 치던 농이 잘 치는 법, 연애도 마찬가지다. 원래 계속 연애하던 사람은 솔로 생활이 긴 사람보다 연애에 익숙하고 자기와 맞는 짝을 찾기도 수월하다. 귀찮고 낯설겠지만, 일단 여자를 만나라.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CARD 4 거대한 나무를 큰 손으로 꼭 움켜쥐고 있는 모습이 웬지 밤이 외로운 당신의 열정 가득한 손놀림 같다. 이 카드는 본인 자신의 의지로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의 ACE 카드. 확실한 열정과 의지를 보여준다.
TIP: 나무 모양이 무언가를 떠올리게 하는 건 비단 나무의 생각은 아닐 거야. 그만큼 의지가 뽀뽀한 당신은 지금 어떤 여자를 만나도 소독이 없진 않을 듯. 기다리지 말고 바로 들이대자. 인생 뭐 있나? 퍼스트 아니면 세컨드지.

CARD 2 마치 환갑잔치 삼자처럼 구름 위에 보석도 있고 월계관도 있다. 전부 다 갖고 싶다. 심지어 손만 뻗으면 뭐든지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아직 내 손 안에 있진 않다. 바라는 게 너무 많으면 전부 놓칠 수도 있을 터.
TIP: 클라라의 몸매에 현아의 색기, 김태희의 얼굴, 게다가 성격은 털털하면서 가끔은 어리고 순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침대 위에서는 레슬러가 되는 그런 여자... 없어! 설마 있다고 해도 당신과 사귄 가능성은... 이것저것 재다 보면 연애 못 한다.

CARD 5 금잔 여덟 개를 두고 길을 떠나는 남자. 요즘 금값을 생각하니 아직 미련이 많다. 하지만 이 금잔을 포기해야 산 너머에 있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데 발걸음이 너무 무겁다. 과연 갈 수 있을까?
TIP: 금잔 여덟 개는 아직 미련이 남아 있는, 지금은 내 것이 아닌 누군가를 의미한다. 이제 미련을 버릴 때가 되었다. 꼭 그래야 하느냐고? 이미 그 여자는 다른 남자 자취방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을 텐데...

CARD 3 세 명의 여자가 크로스를 하며 "지화자"를 외치고 있다. 표정을 보니 딱히 축하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뻐 보이지도 않는다. 단지 친한 친구들이 한데 모여 서로 술잔을 기울일 수 있는 것만으로 행복한 걸지도.
TIP: 친구들과 축구를 즐기고 맥주 한잔 걸치는 것 혹은 친한 여자 사람 친구와 다른 남자 뒷담화 끼는 게 즐거운 당신. 딱히 한 여자에 목을 매면서 이런 행복을 놓치고 싶지는 않아 보인다. 사랑과 우정 사이를 줄타기하며 즐길 만한 이성을 만나도록.

CARD 6 콘돔 모자를 쓴 소년이 동전 두 개를 뽀뽀우스의 띠 안에서 굴리고 있다. 표정은 근심으로 가득하다. 두 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계속 붙잡고 돌리지만 하고 있으니 늘 변화가 없는 원전 상태.
TIP: 혹시 지금 두 명의 여자 중 어떤 여자를 선택할지 고민하고 있지 않은가? 늘 한 명 한 명 따져가면서 상상 속 연애만 한다. 그렇다고 스리섬이라도 할 줄 아니? 포기할 건 과감히 포기해야 하나를 얻을 수 있는 법. 이제 용감하게 뽀뽀우스의 띠를 끊을 때가 된 거다.



* 흑백처리된 커버의 월호는 품절을 의미합니다.

MAXIM
과월호
총알 배송!
(총알을 드리진 않아요)

자난 호 MAXIM을 놓쳤나?
 목숨과도 같은 당신의 MAXIM 컬렉션에 이빨이 빠졌나?
 서점에서, 인터넷 서점에서 MAXIM 과월호를 구할 순 없다.
 좌절하지 말고 www.maximkorea.net으로 오래
 MAXIM 홈페이지의 과월호 구매 메뉴로 들어오시면 지금까지 나온 MAXIM
 매거진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녀가 품절되기 전에 어서 쟁취하시길!
 * 평일 오후 4시 이전에 입금하시는 독자님께서는 당일 발송 가능합니다.
 일부 과월호는 품절되었을 수 있습니다.





KANG
KYUNG-HO

강경호

LIM
HYUN-GYU

임현규



BENSON
HENDERSON

벤슨 헨더슨



코리안 파이터 3인 출전

UFC 164

9월 1일 (일) 오전 10시 30분

SUPER ACTION

MAXIM



KOREA

ICON RACER 김진표

국내 1세대 래퍼이자 레이싱 챔피언이
MAXIM을 찾아왔는데, 이거 뭐
차라도 좀 나와야 하지 않겠나 싶어
스포츠타 두 대를 내왔다.
R8 한 잔. 콜벳 한 잔. 콜벳은 차갑게.

Motor Special 4 Dream Cars

- “너무 똑똑해서 매력적인 아우디 R8”
- “너무 무식해서 매력적인 쉐보레 콜벳”
- ICON 김진표
- “너무 불편한데 중독되는 LOTUS”
- 독자의 자동차 인터뷰
- “너무 순수해서 더 섹시한 370Z”
- 에디터의 시승 토크



2013 MISS MAXIM TOP8 BIKINI+BBQ FANTASY

미스맥시미와의
옥상 바비큐 파티

Military

웃는 아이 울고 간다는
세기의 3대 명장 전설

Shopping Guide

나이키 vs. 푸마, 초경량 운동화 뭐가 좋아?
클럽에서 포텐 터지는 컬러로션 있더라
마초의 기선 제압용 금장 시계
여친 사진 잘 찍는 궁극의 미러리스

10 ALIEN RUMORS

남량 특집 3부작
마지막회

인류가 외계인에게
잠식 당하고 있다는
섬뜩한 10가지 근거

SEPTEMBER 2013



www.maximkorea.net



9 772233 427008

ISSN 2233-4270